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286-0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2011

문화재청 자료실
EM040031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286-0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2011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유산헌장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4.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 발전 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일본 궁내청
목원대학교 김정동
경기대학교 안창모

자문

문화재청장 김찬
문화재청차장 김창준
문화재활용국장 박영근
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
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이재서
궁능문화재과 감독관 김태영
덕수궁관리소장 박기화
궁능문화재과 대한제국역사관 기획팀 김윤희, 김지형, 전나나
선혜종합건설(주) 강석목, 김진묵(석조전 복원공사 현장소장)

논고

김정동(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강성원(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자료조사 및 편집

康熙齋 gangheejae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남기정, 허겸, 장윤정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석조전 복원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조사의 성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 자료(사진, 도면 등)의 세부사항은 자료명, 축척, 작성연도, 재질, 크기(가로*세로), 소장처 순으로 표기하였다.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 일어, 영어를 병기하였다.
- 도면자료는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사진자료는 소장처별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내부사진은 인덱스(下 1층평면, 上 2층평면)에 위치를 표기하였다.

목 차

1. 도면을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 — 07

2. 사진을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 — 53

3. 신문, 잡지류, 기타 석조전 복원자료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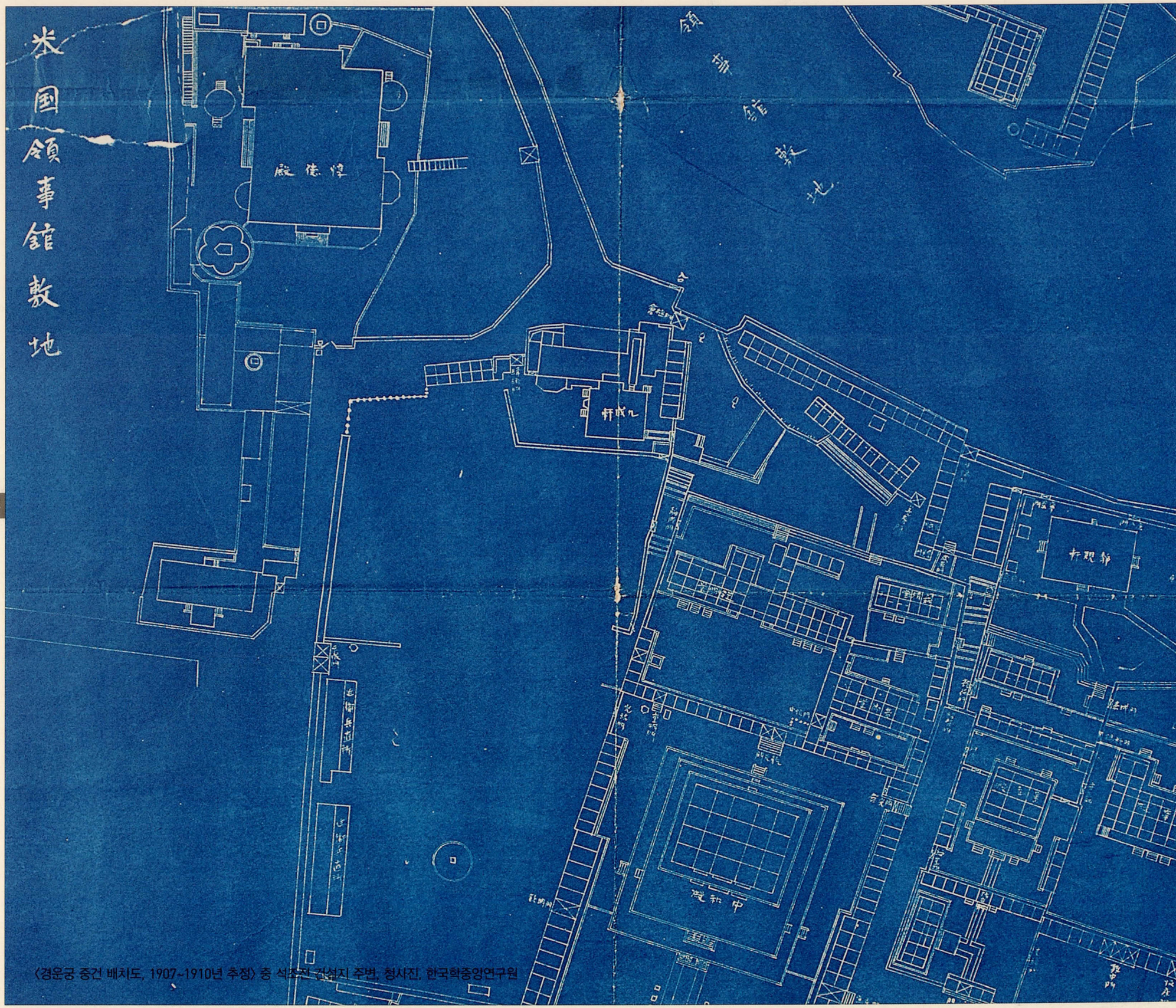
4. 소장처별 참고자료 — 139

5. 논고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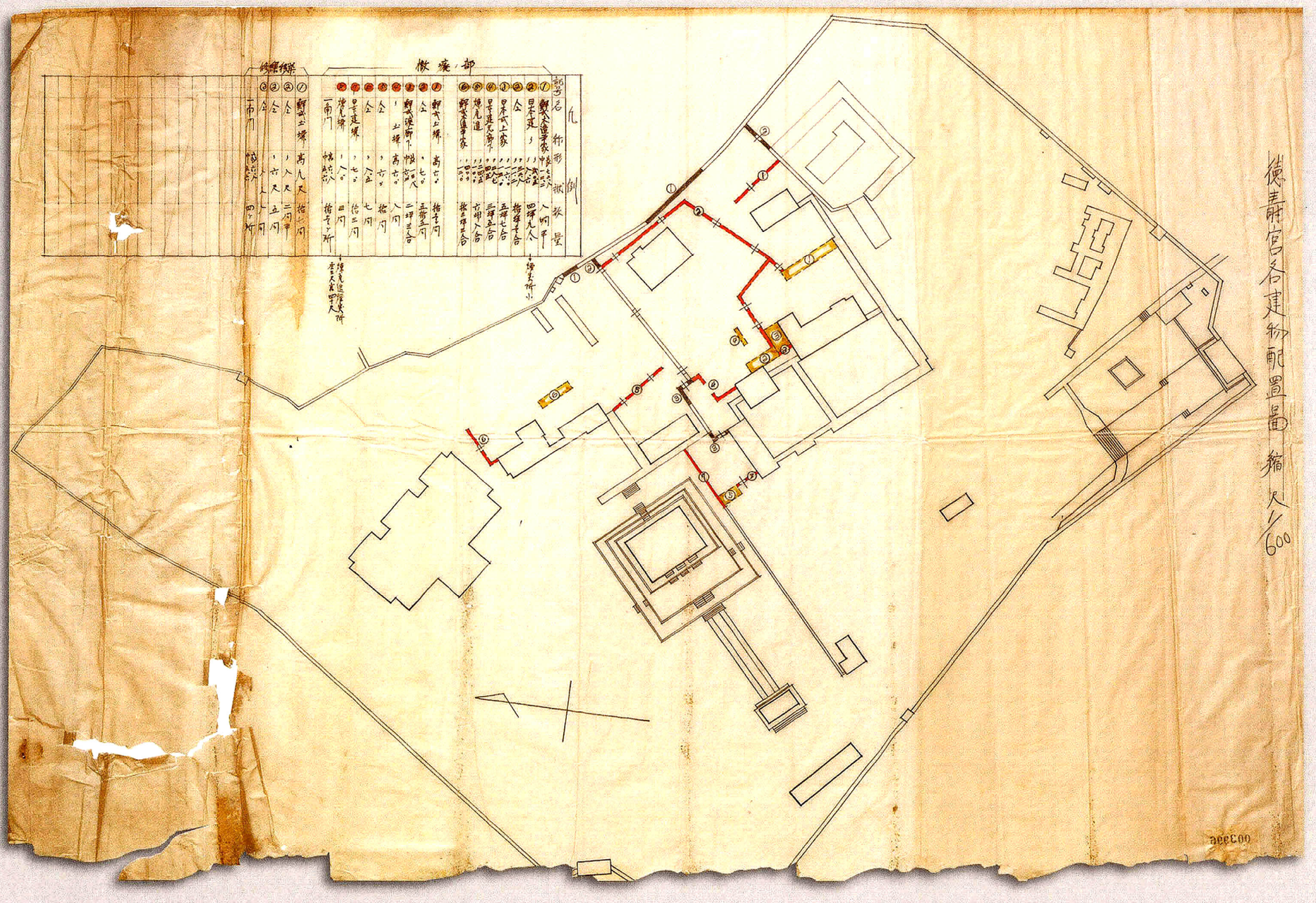
도면을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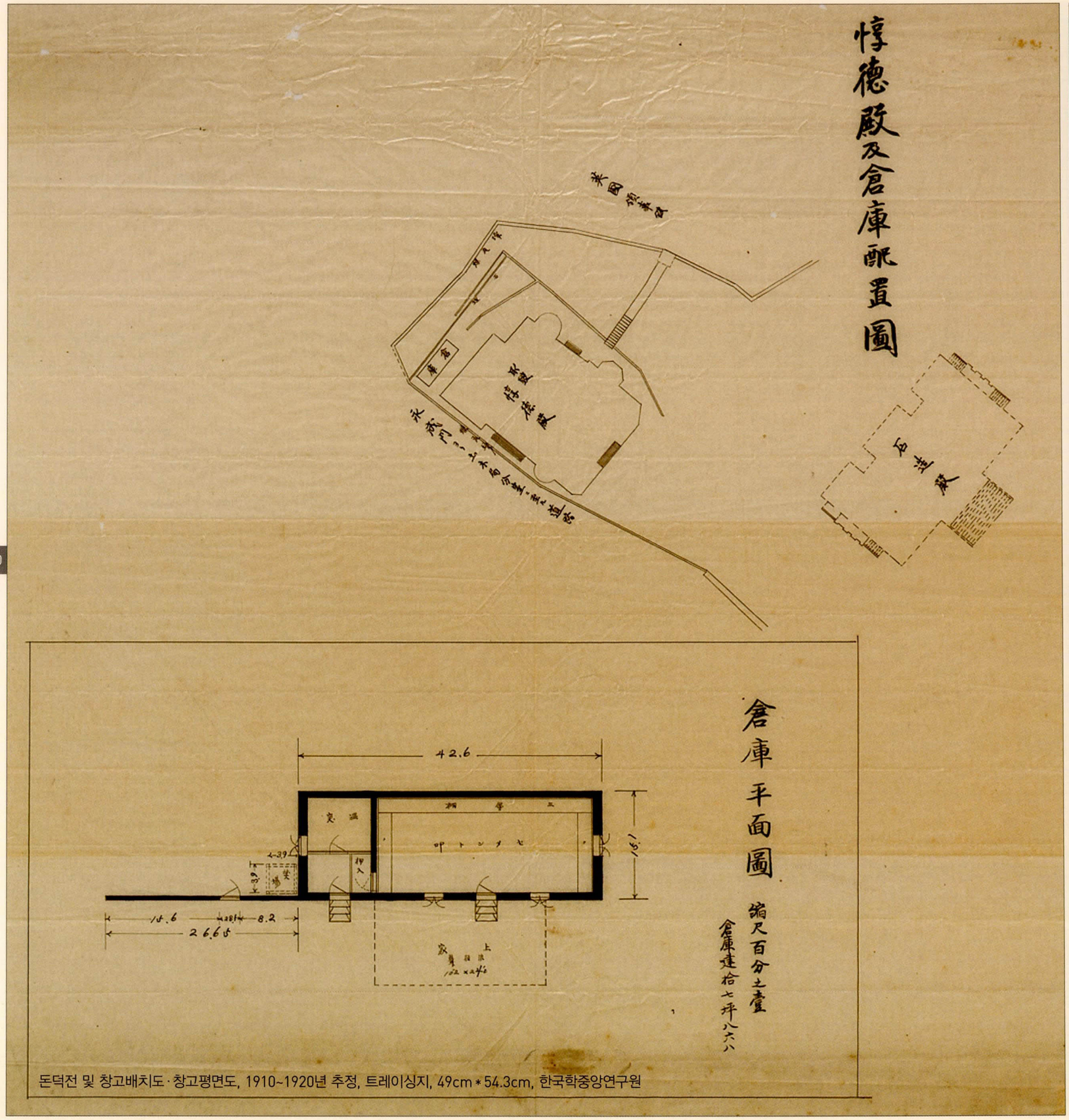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 국가기록원
- 이왕가미술관요람
- 국립중앙박물관
- 쇼와15년 이왕가미술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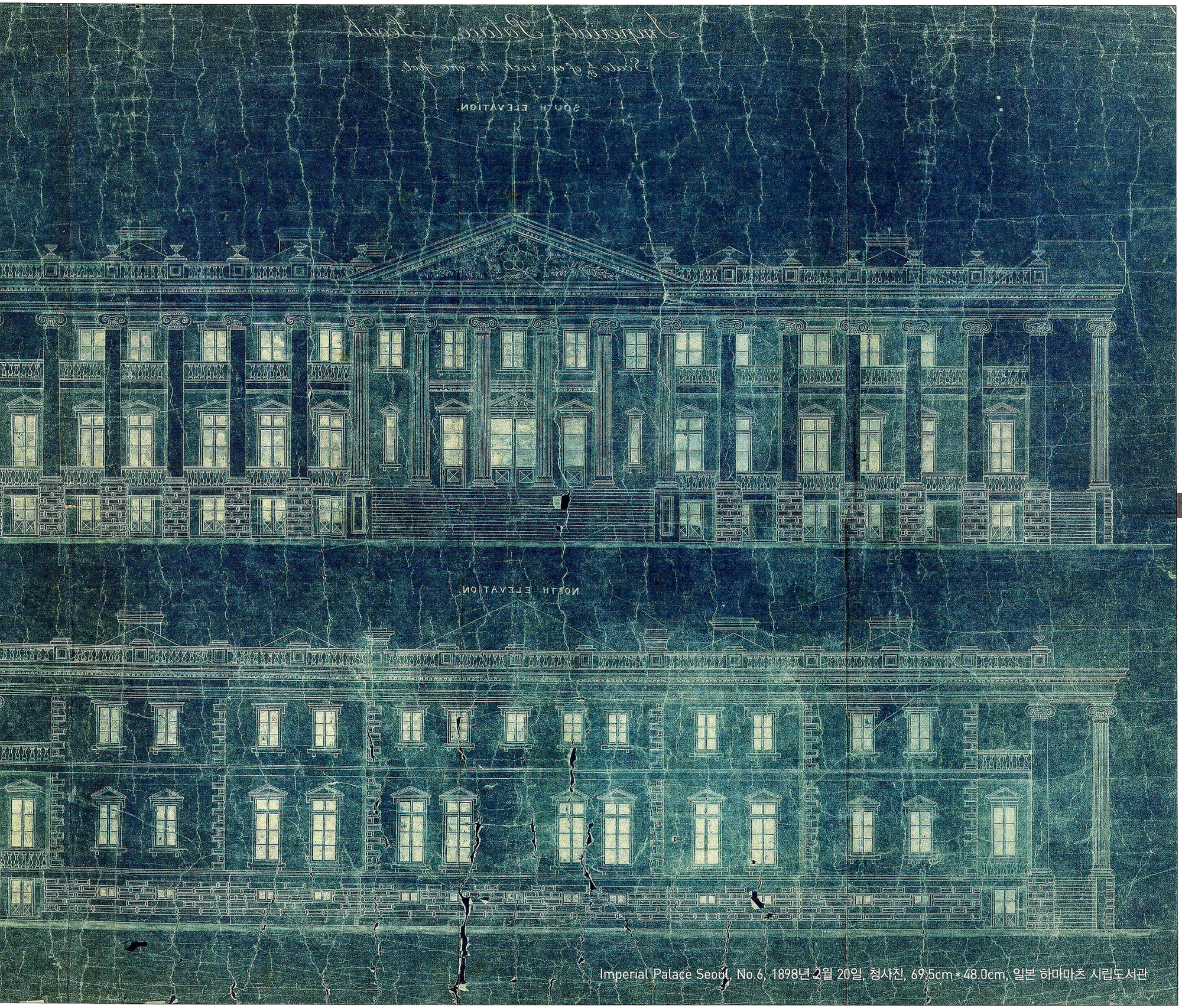
〈경운궁 중건 배치도, 1907~1910년 추정〉 중 석조전 건설지 주변, 청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덕수궁 각건물 배치도, 1:600, 1926~1927년 추정, 트레이싱지, 77.7cm * 50.9cm,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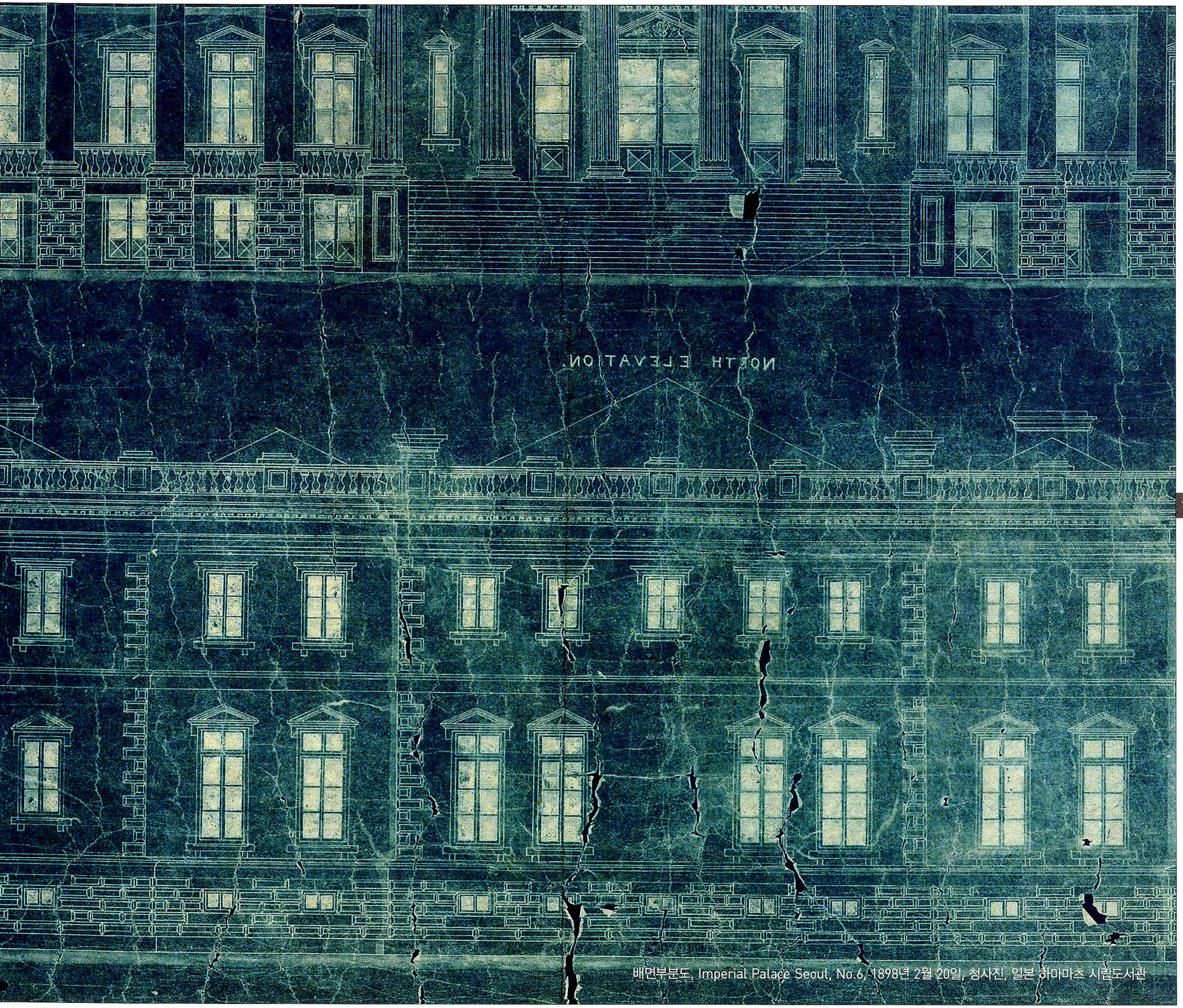


돈덕전 및 창고배치도·창고평면도, 1910~1920년 추정, 트레이싱지, 49cm * 54.3cm,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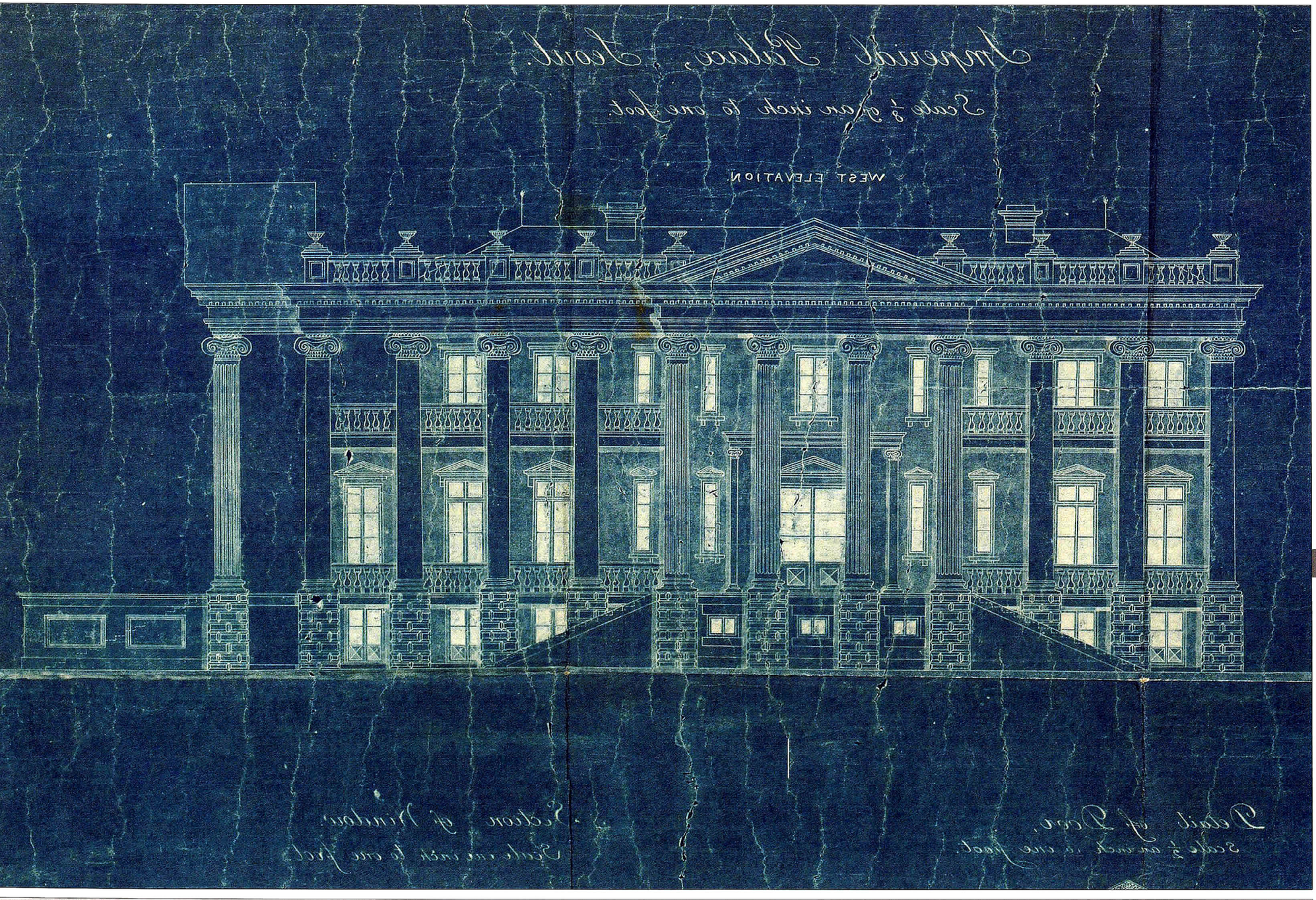
Imperial Palace Seoul, No.6, 1898년 2월 20일, 청사진, 69.5cm * 48.0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정면부분도, Imperial Palace Seoul, No.6, 1898년 2월 20일, 청사진,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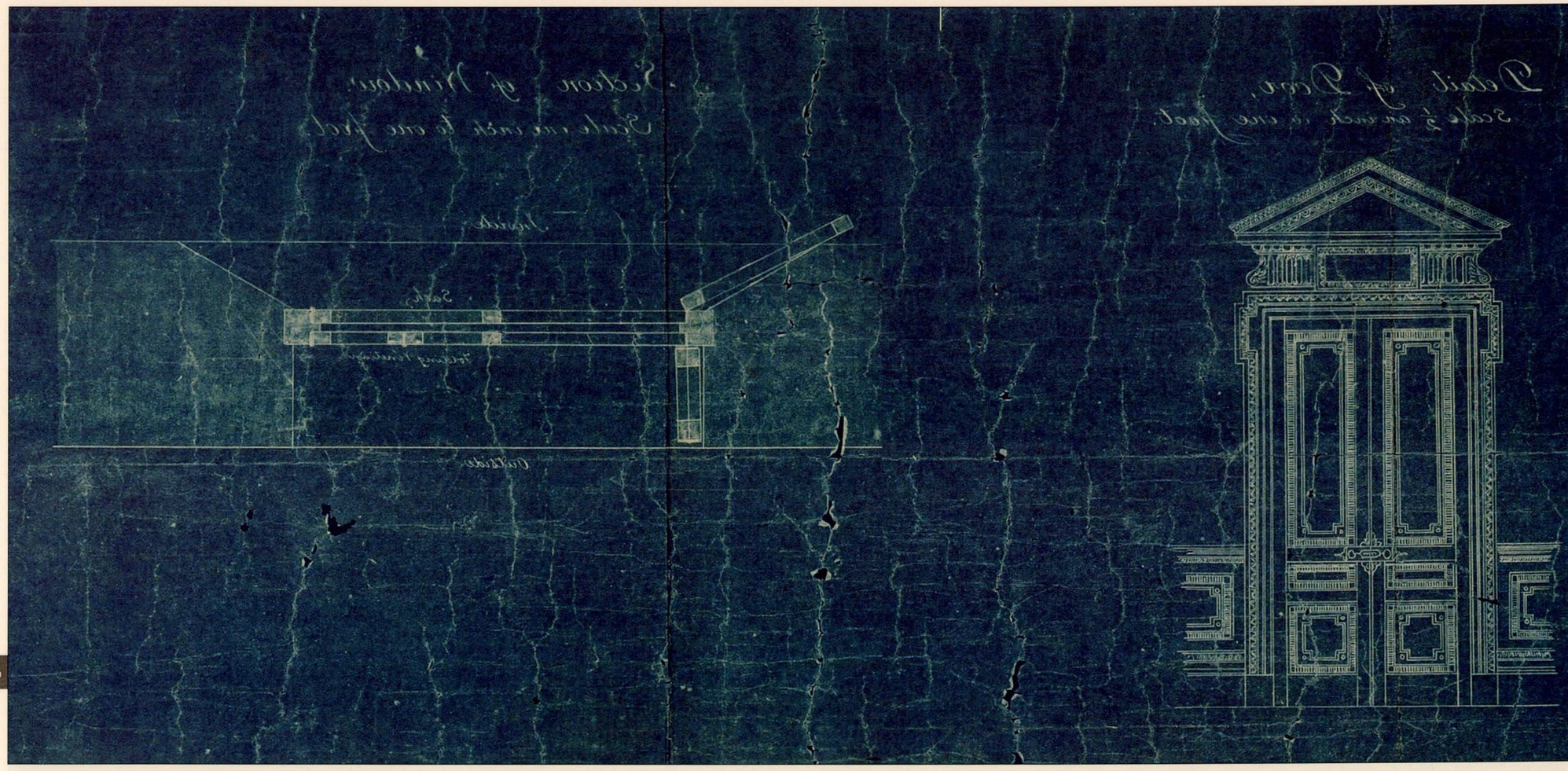
배면부분도, Imperial Palace Seoul, No.6, 1898년 2월 20일, 정사진,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WEST ELEVATION



우측부분도, Imperial Palace Seoul, No.7, 1898년 2월 20일, 청사진,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Imperial Palace Seoul, No.7, 1898년 2월 20일, 청사진, 69.5cm * 48.0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문 상세, Imperial Palace Seoul, No.7, 1898년 2월 20일, 청사진,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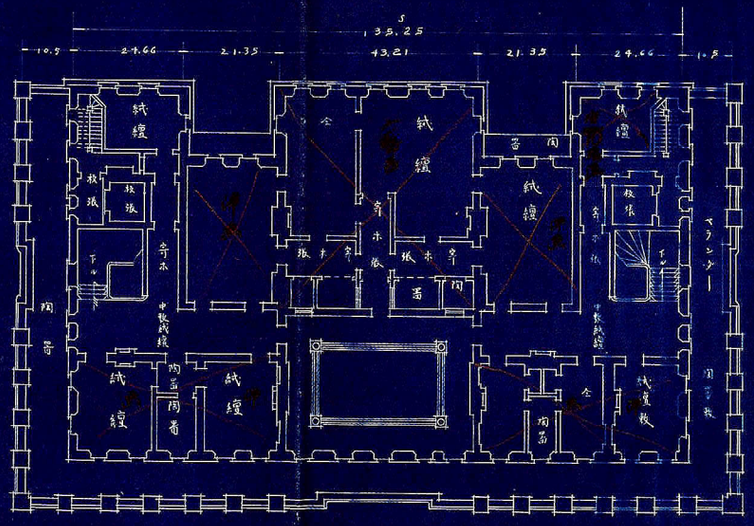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1:200, 1933년, 청사진,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石造殿平面図

縮尺 貳百分之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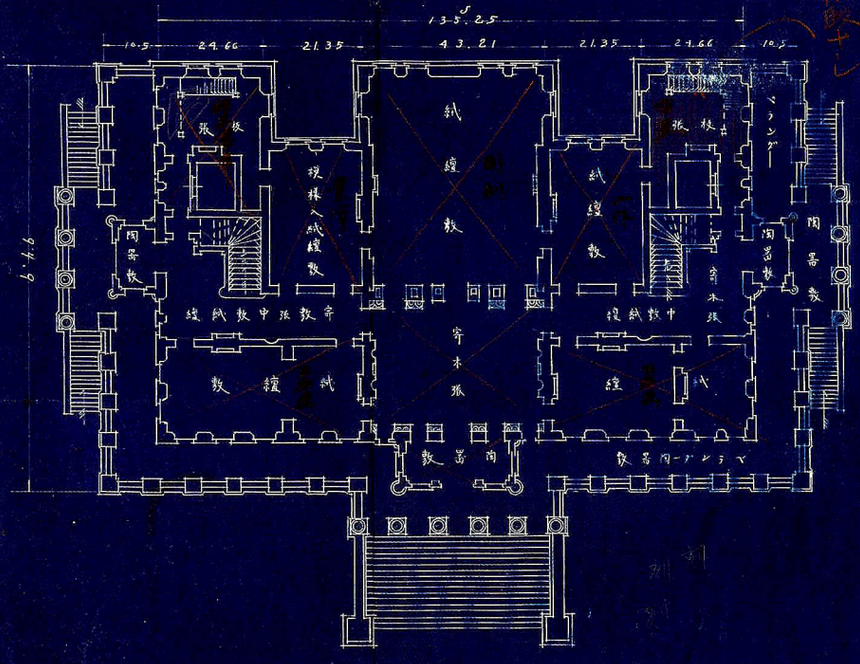
凡例 □ 撤廃

階上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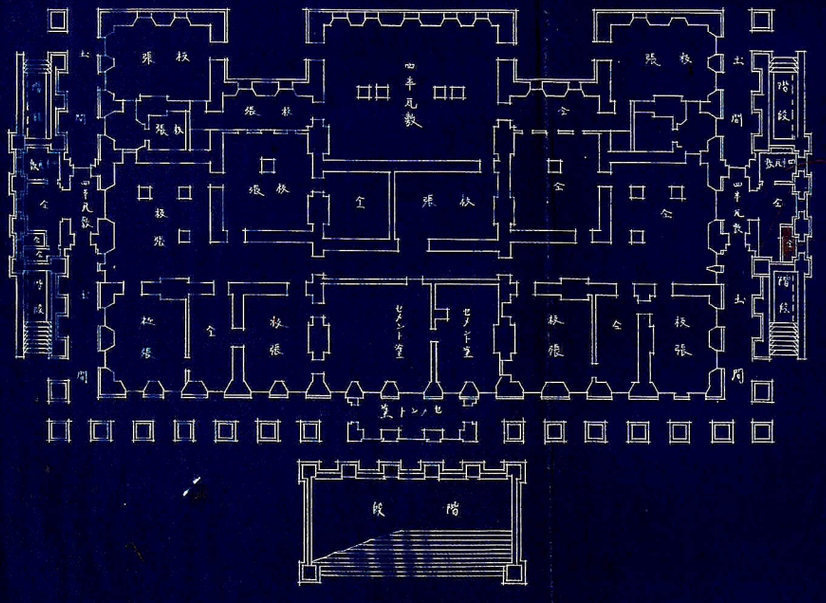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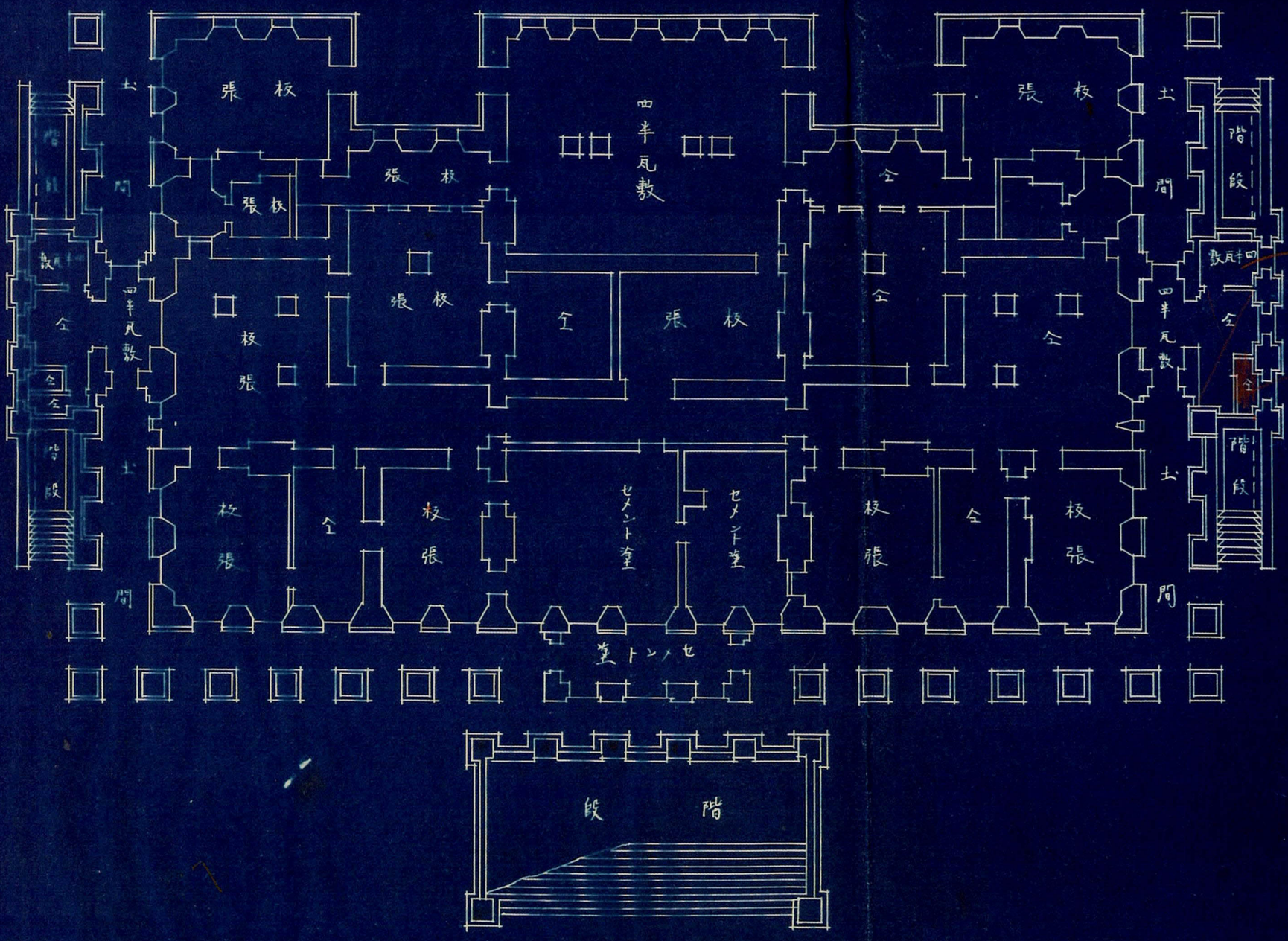
階下平面図

建坪 4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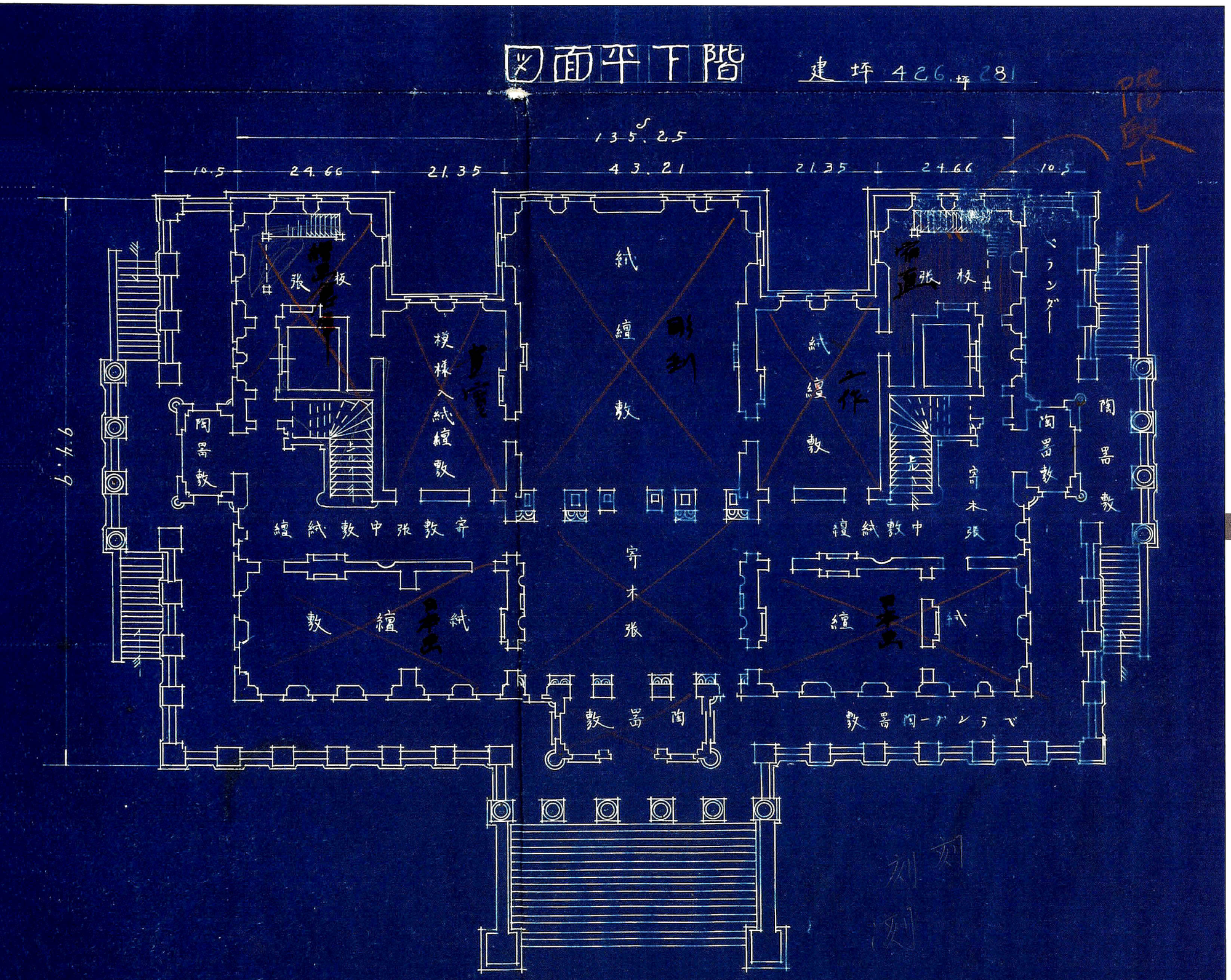


地下室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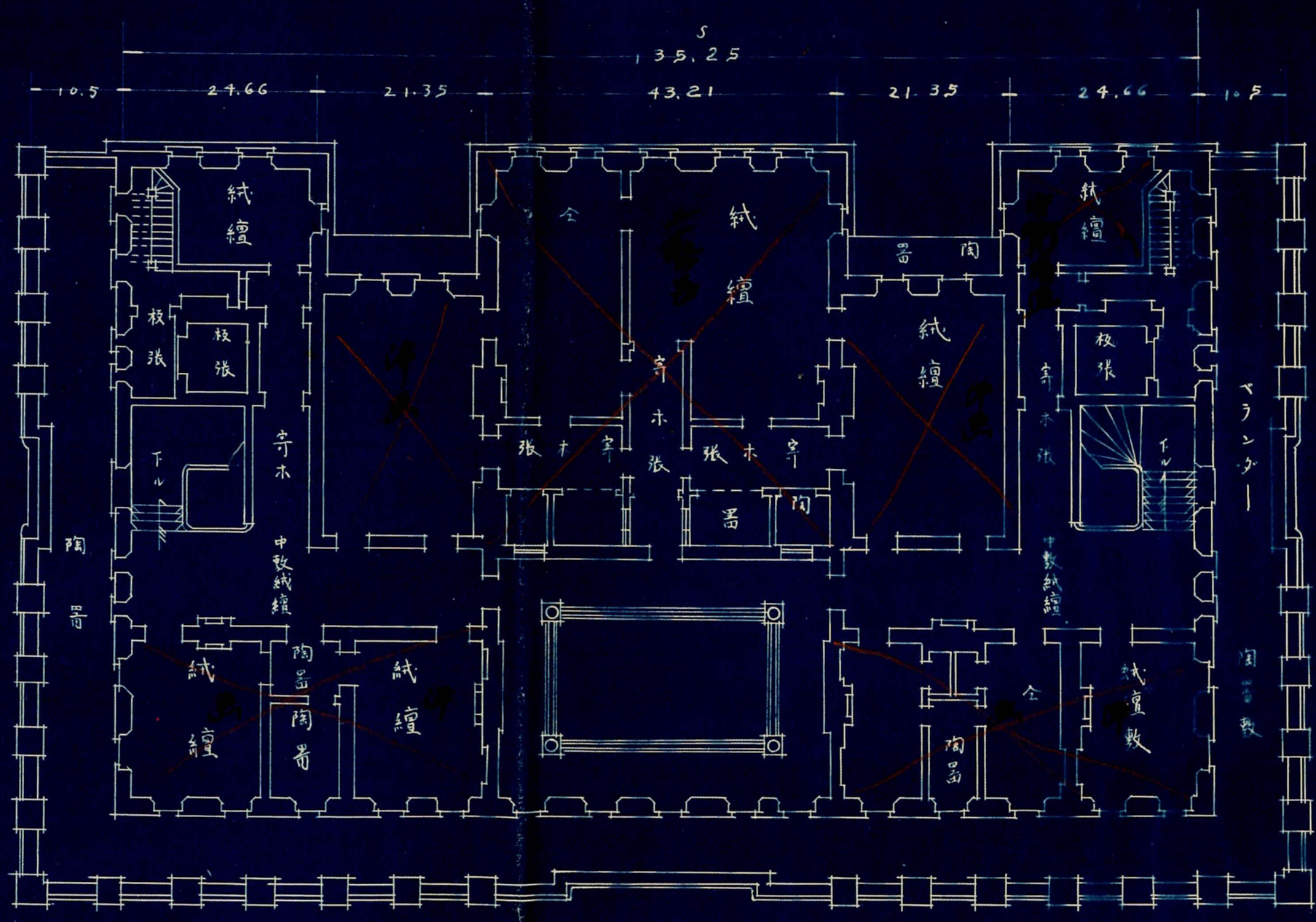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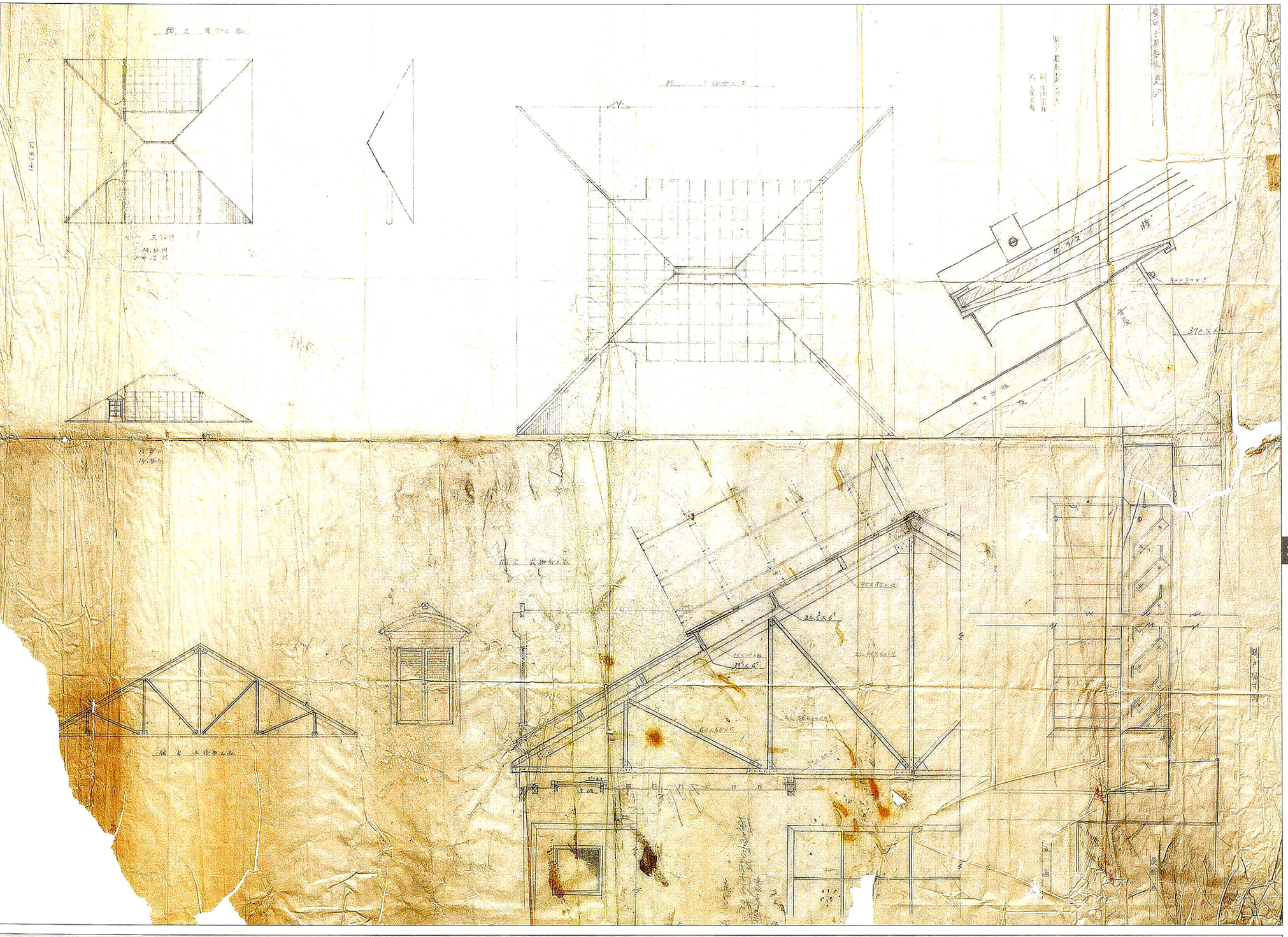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지하층, 1:200, 1933년, 청사진,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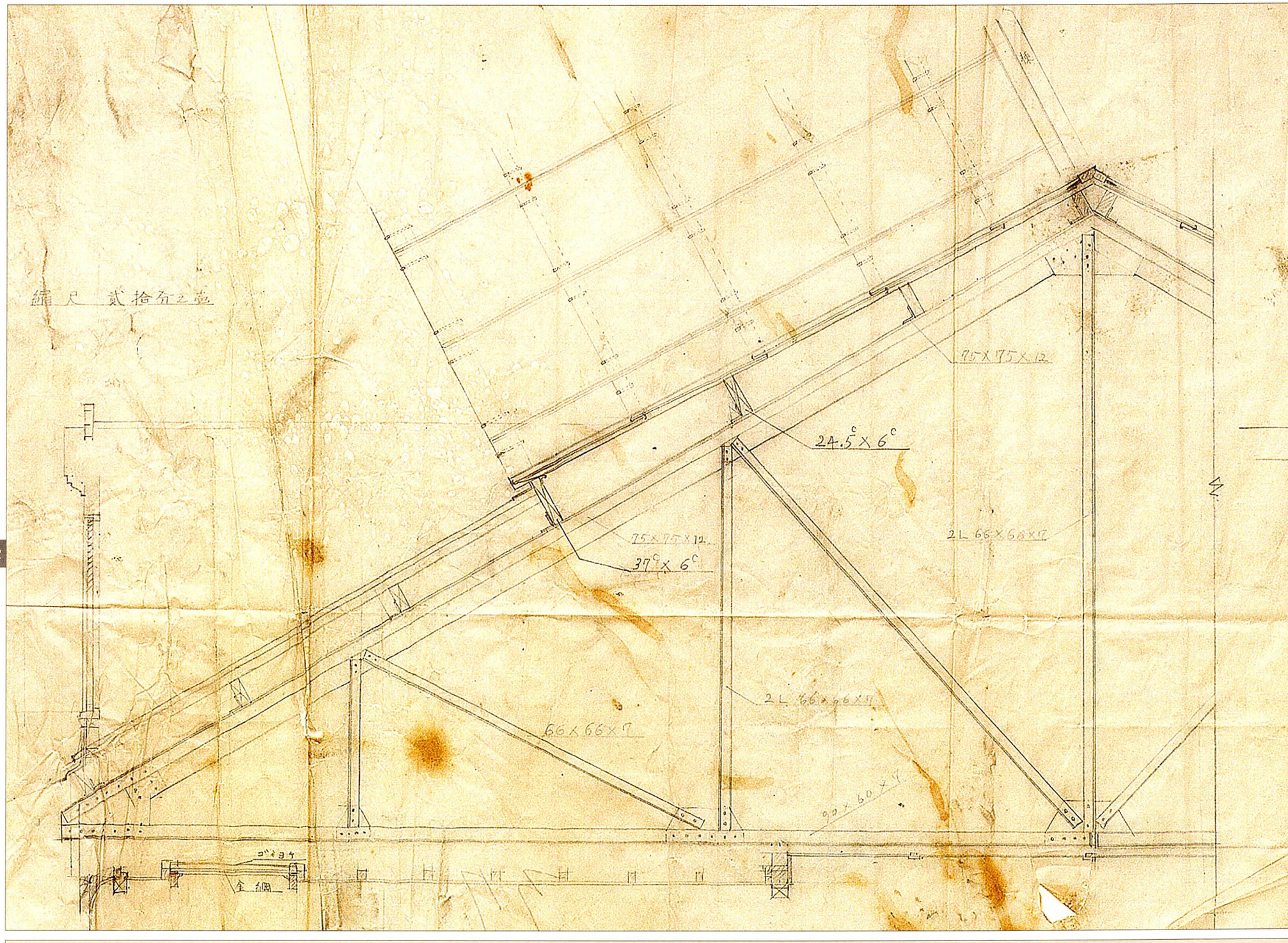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1층, 1:200, 1933년, 청사진,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2층, 1:200, 1933년, 청사진,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덕수궁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 1:1~1:100, 1933년, 트레이싱지, 108.8cm * 8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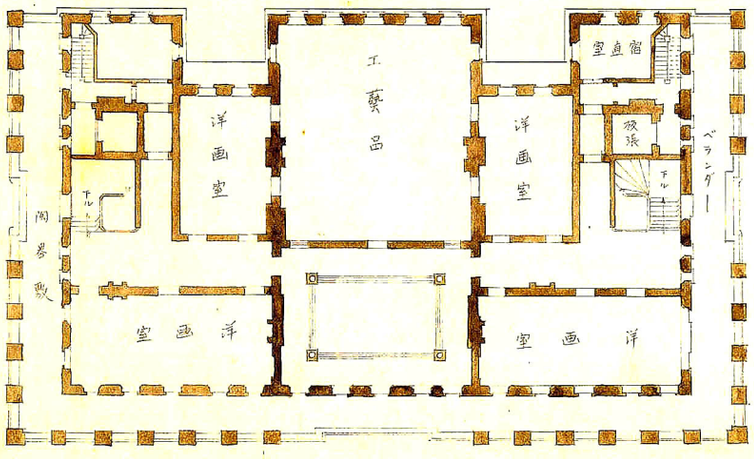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 1:20, 1933년, 트레이싱지,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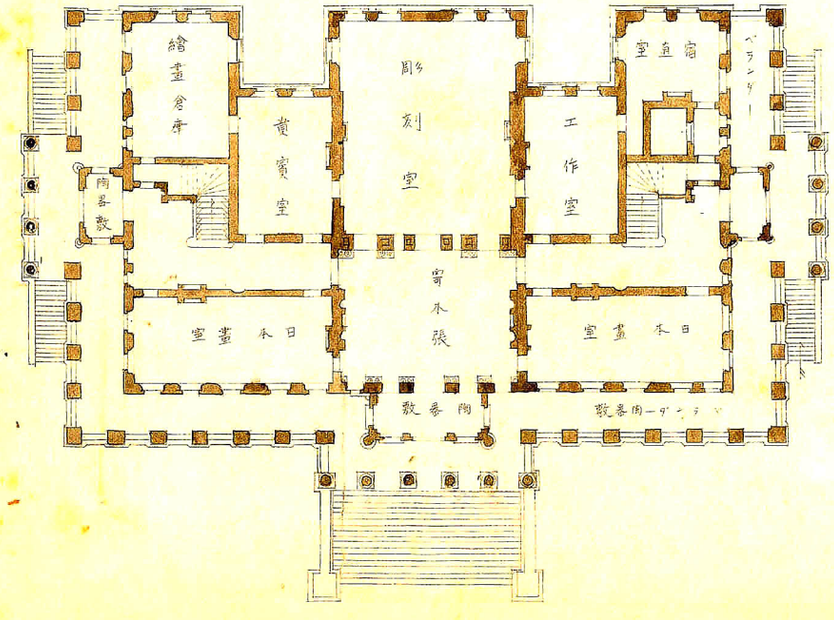
図面平殿造石

壹之分百貳　尺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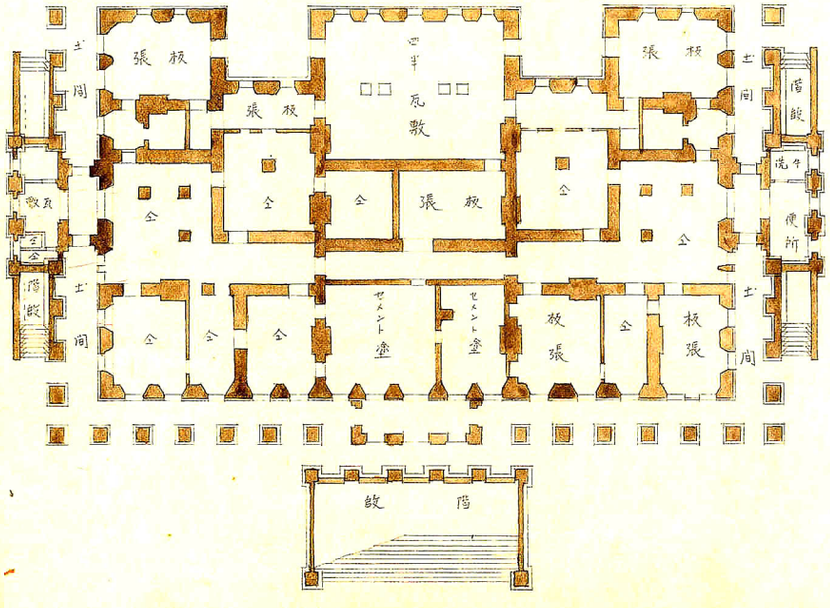
図面平上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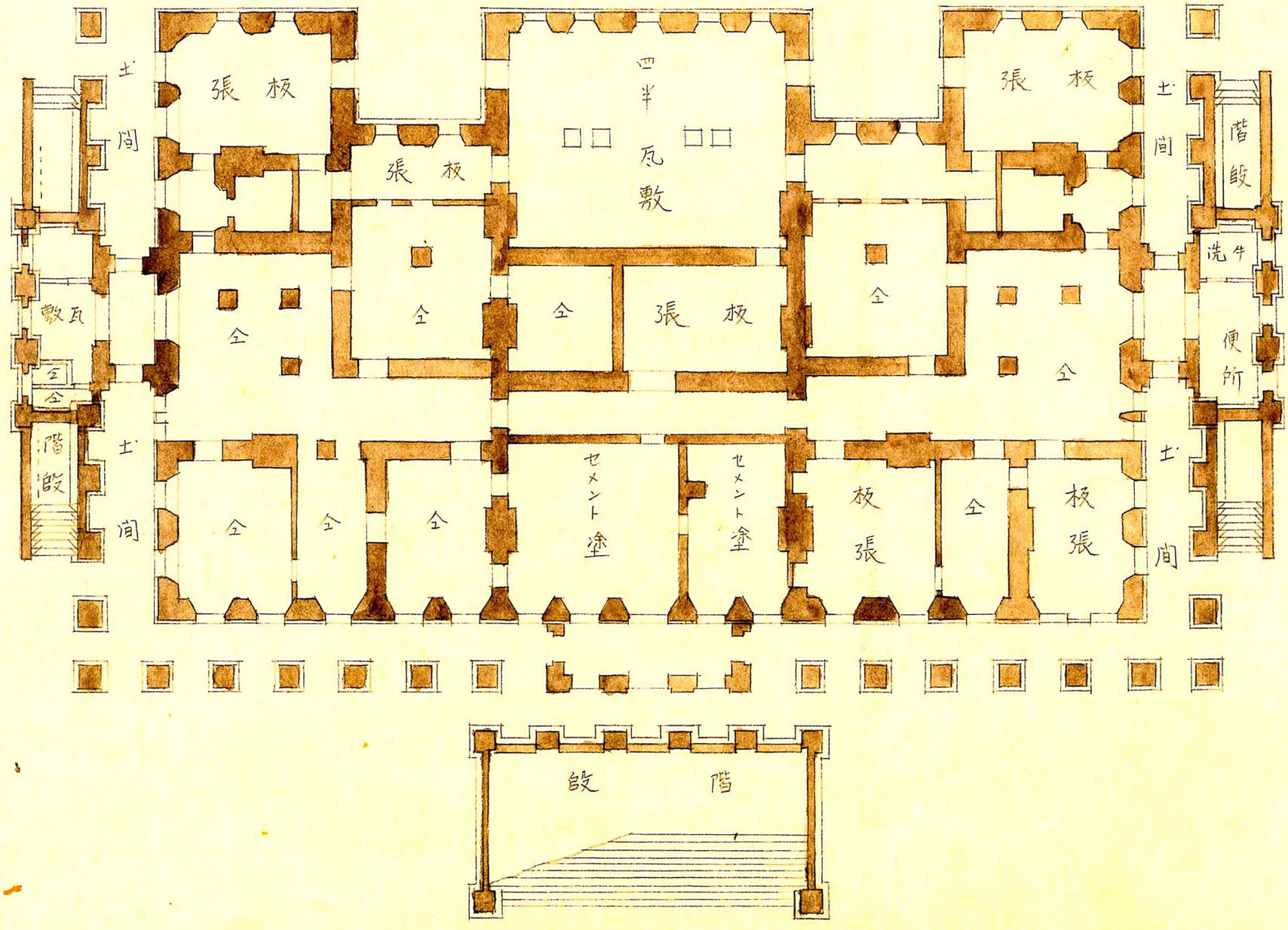
図面平下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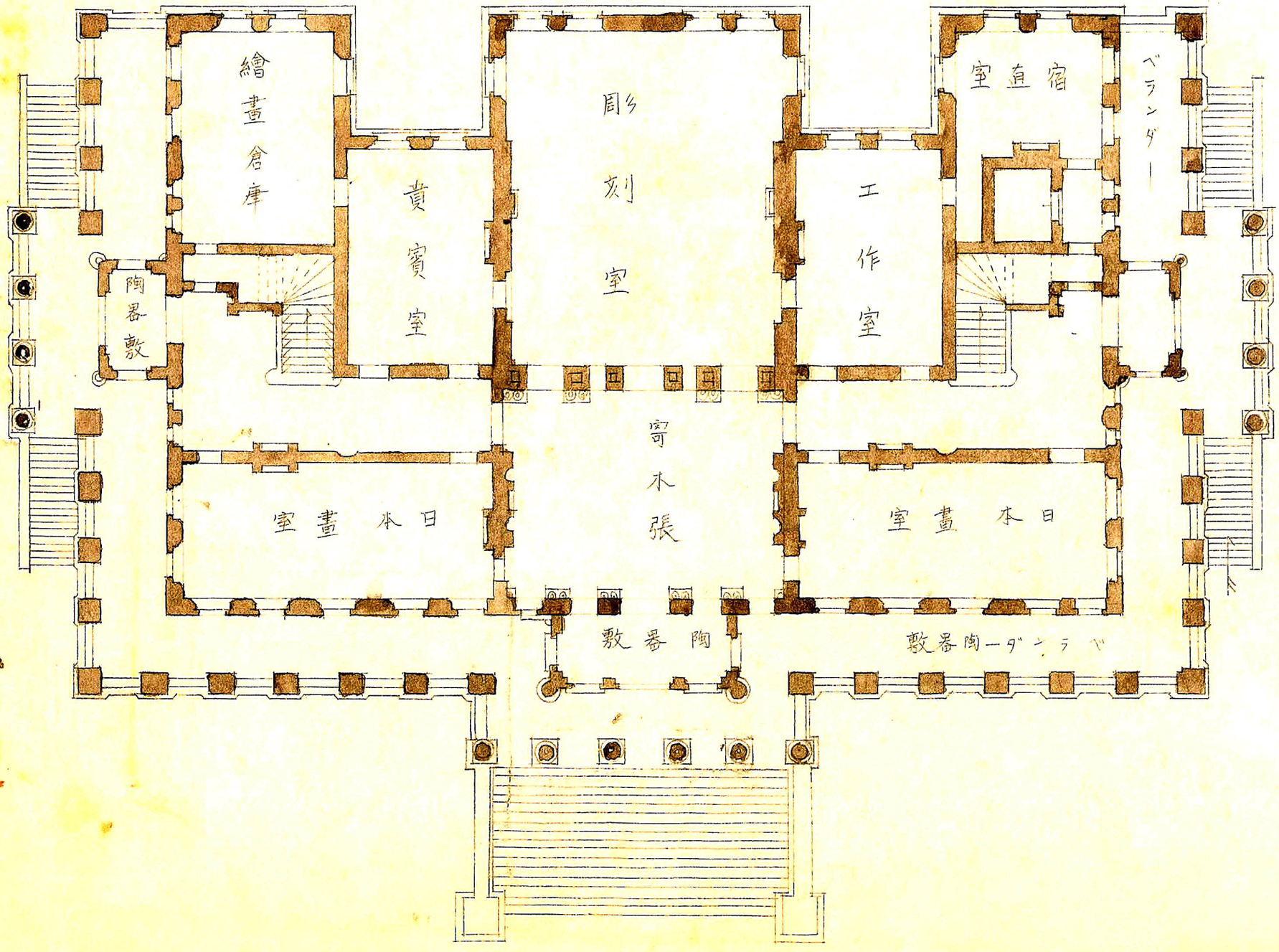
図面平室下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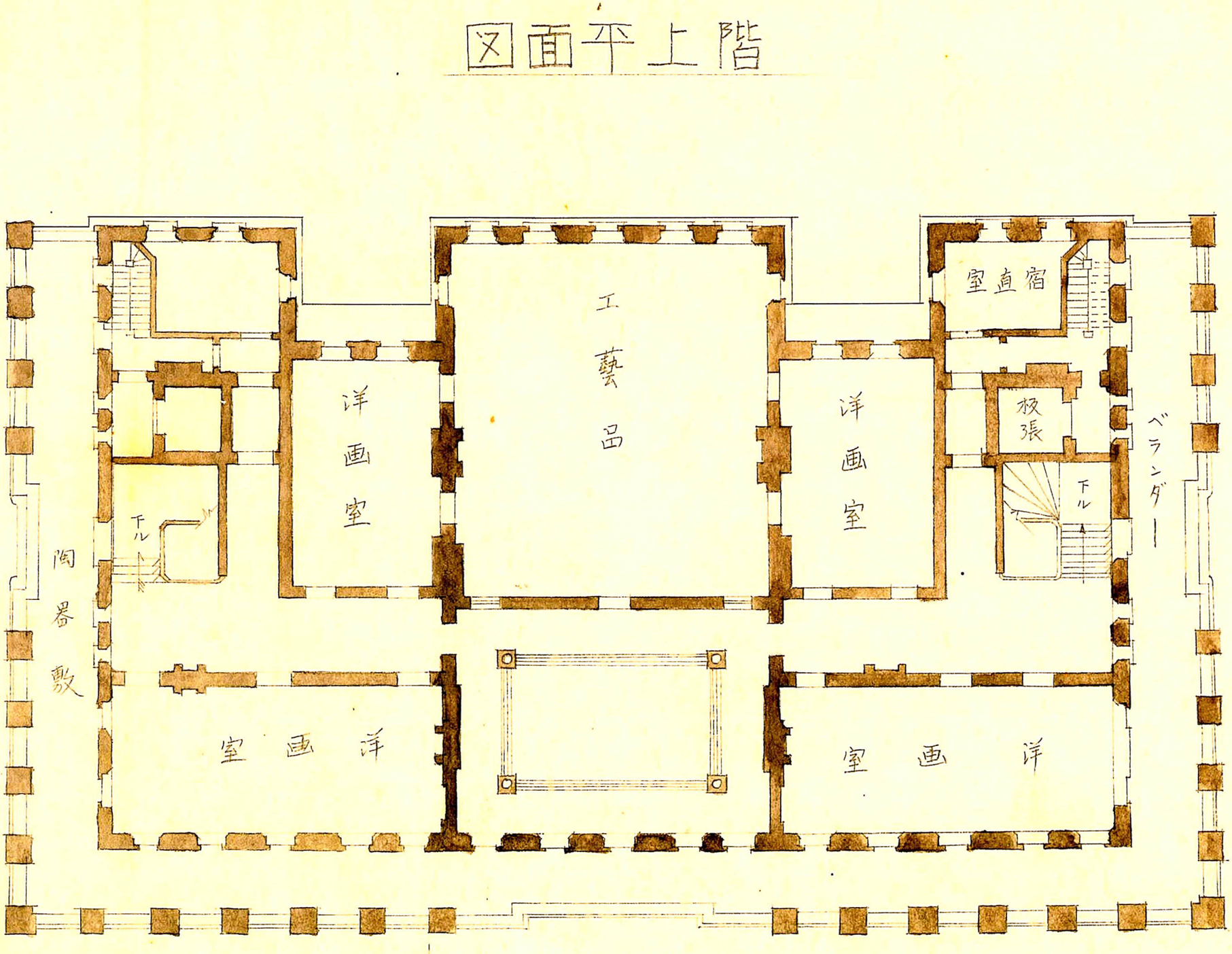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1:200, 1936년, 트레이싱지, 78.0cm*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지하층, 1:200, 1936년,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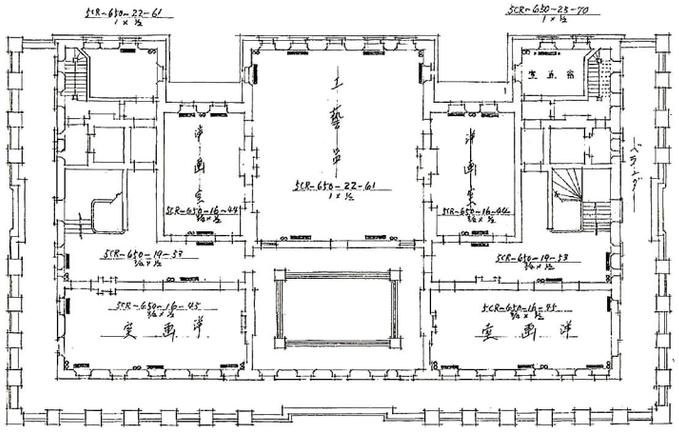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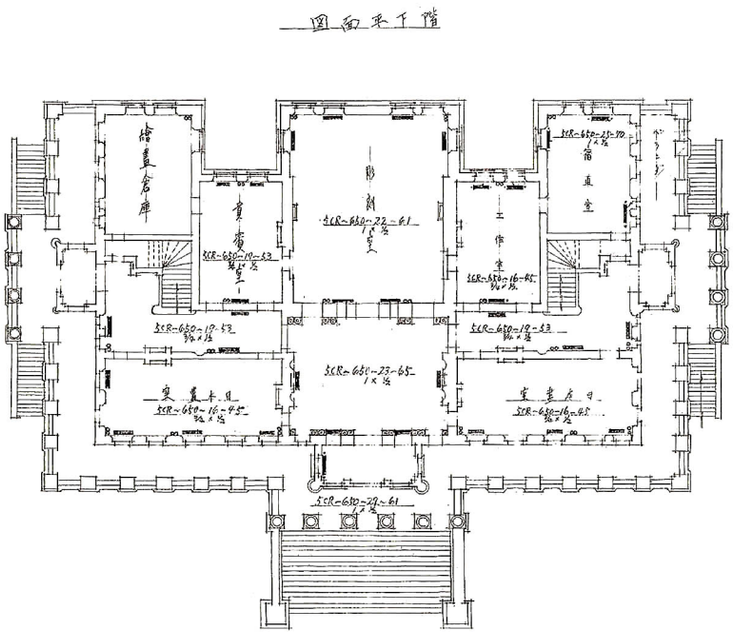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1층, 1:200, 1936년,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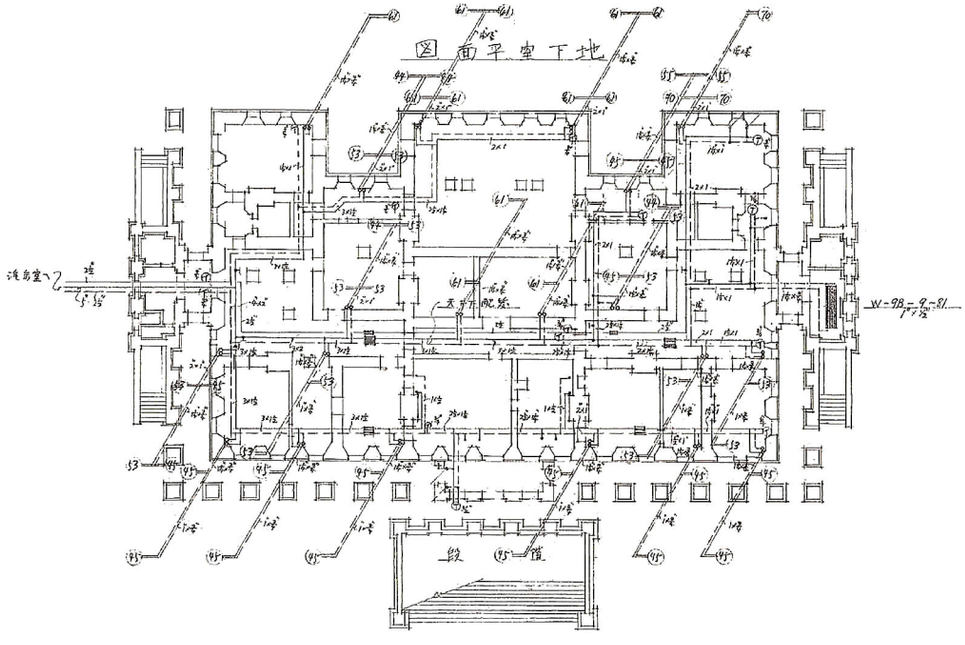


석조전 평면도 중 일부 – 2층, 1:200, 1936년,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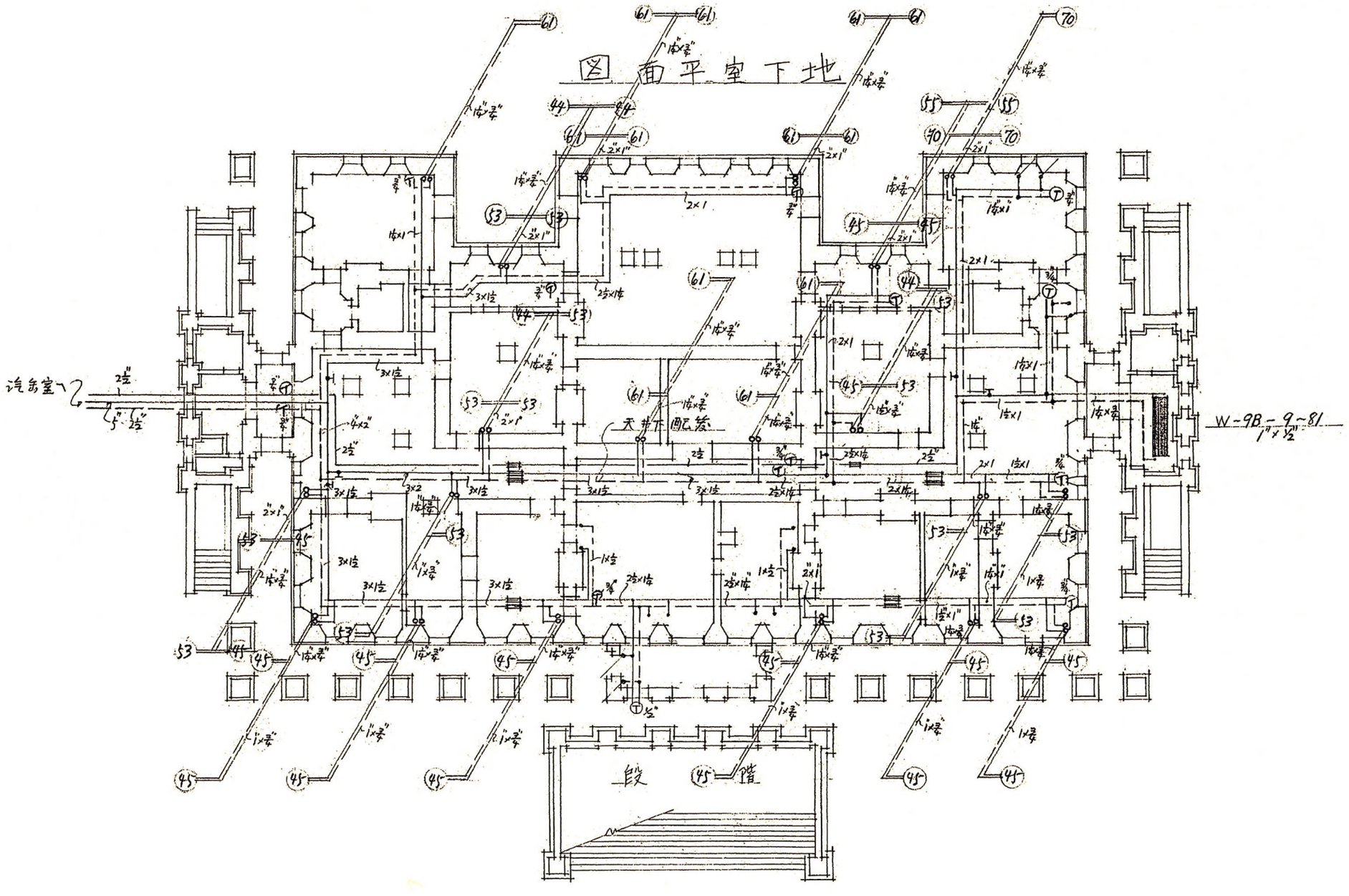
名稱	德壽宮美術館設備
種別	石造殿暖房設備
圖面番號全	6 葉ノ内 4
縮尺	1/100
昭和11年7月17日	
中村與資平建築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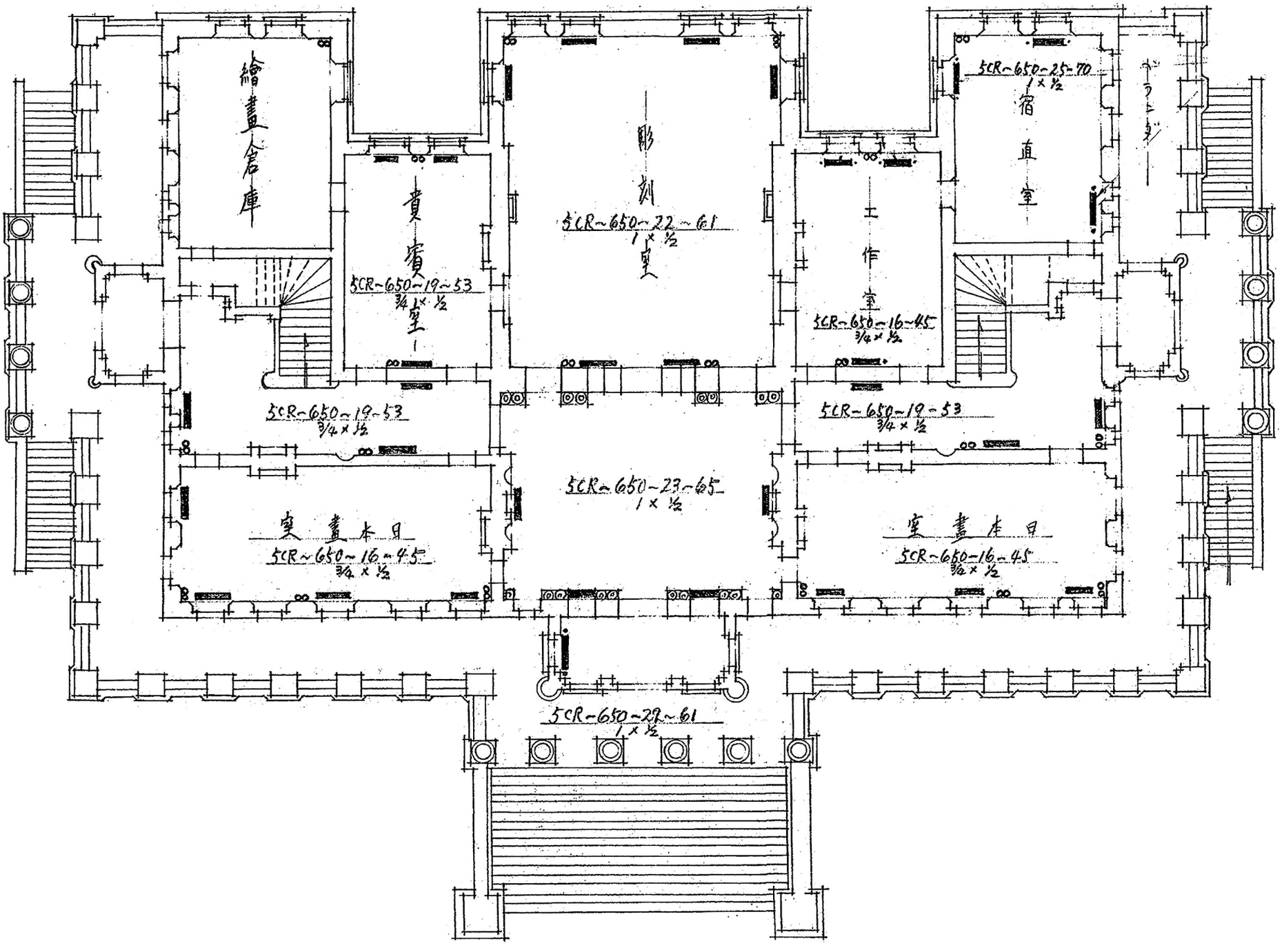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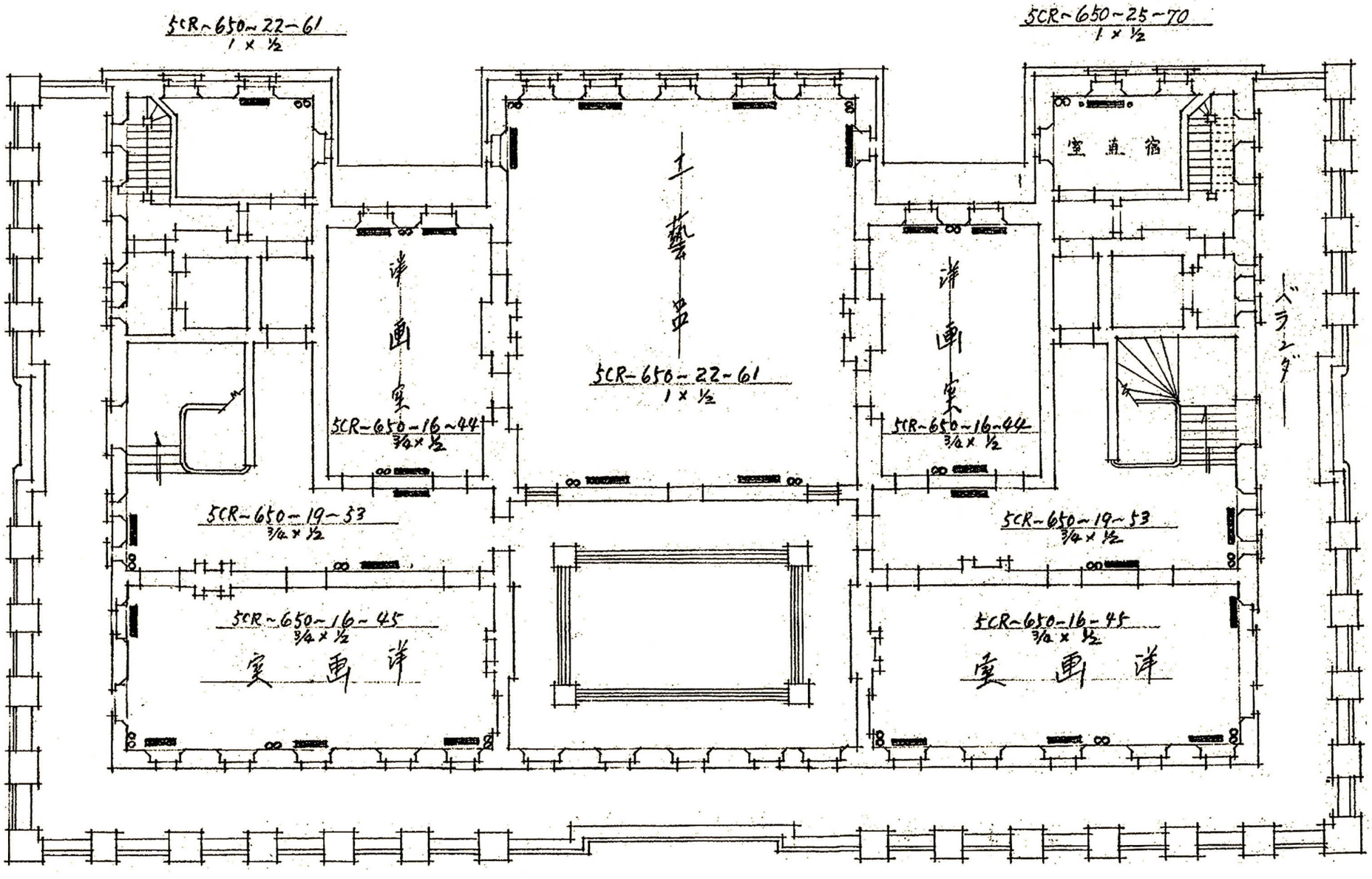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석조전 난방설비1),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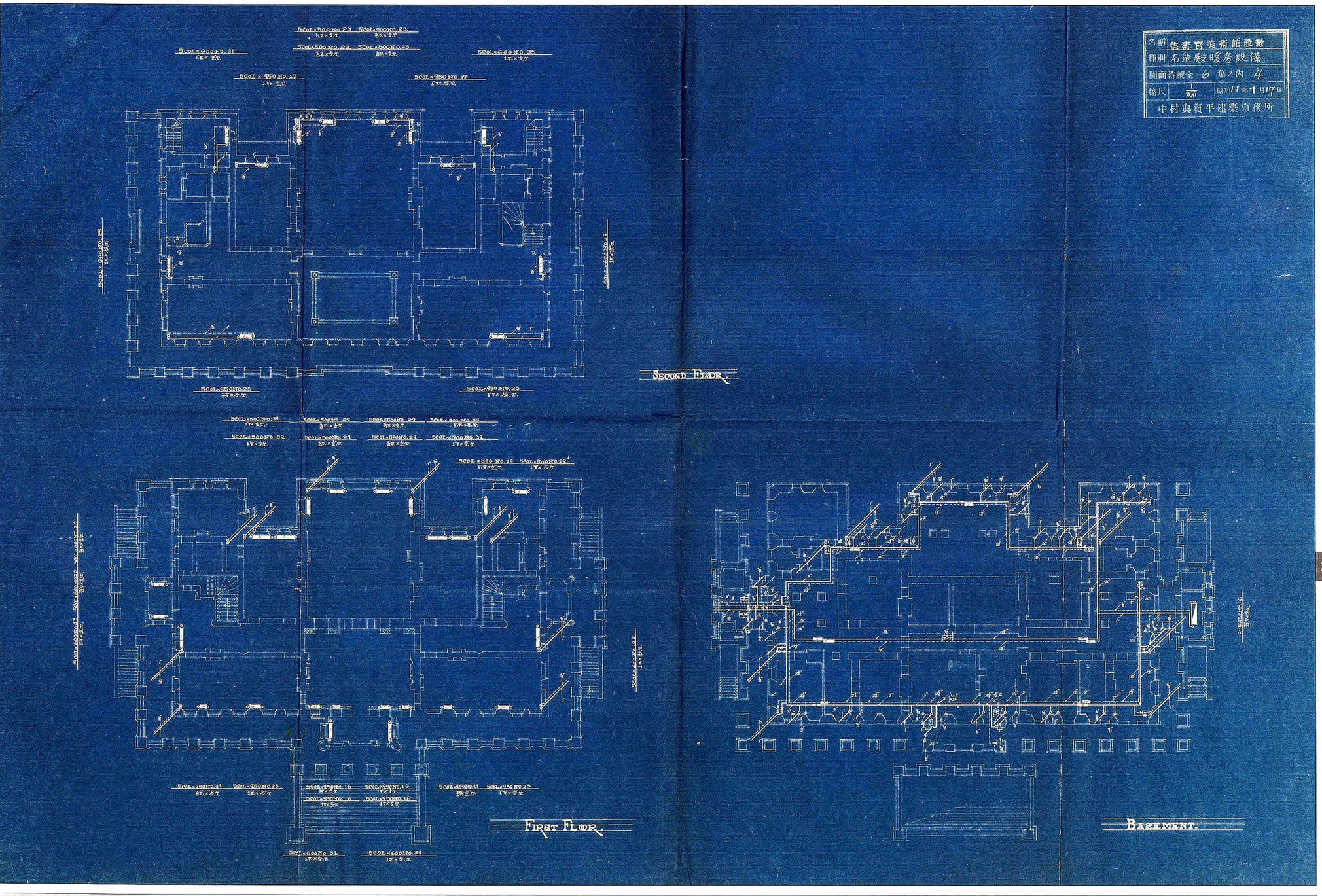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 (석조전 난방설비1) 중 일부 – 지하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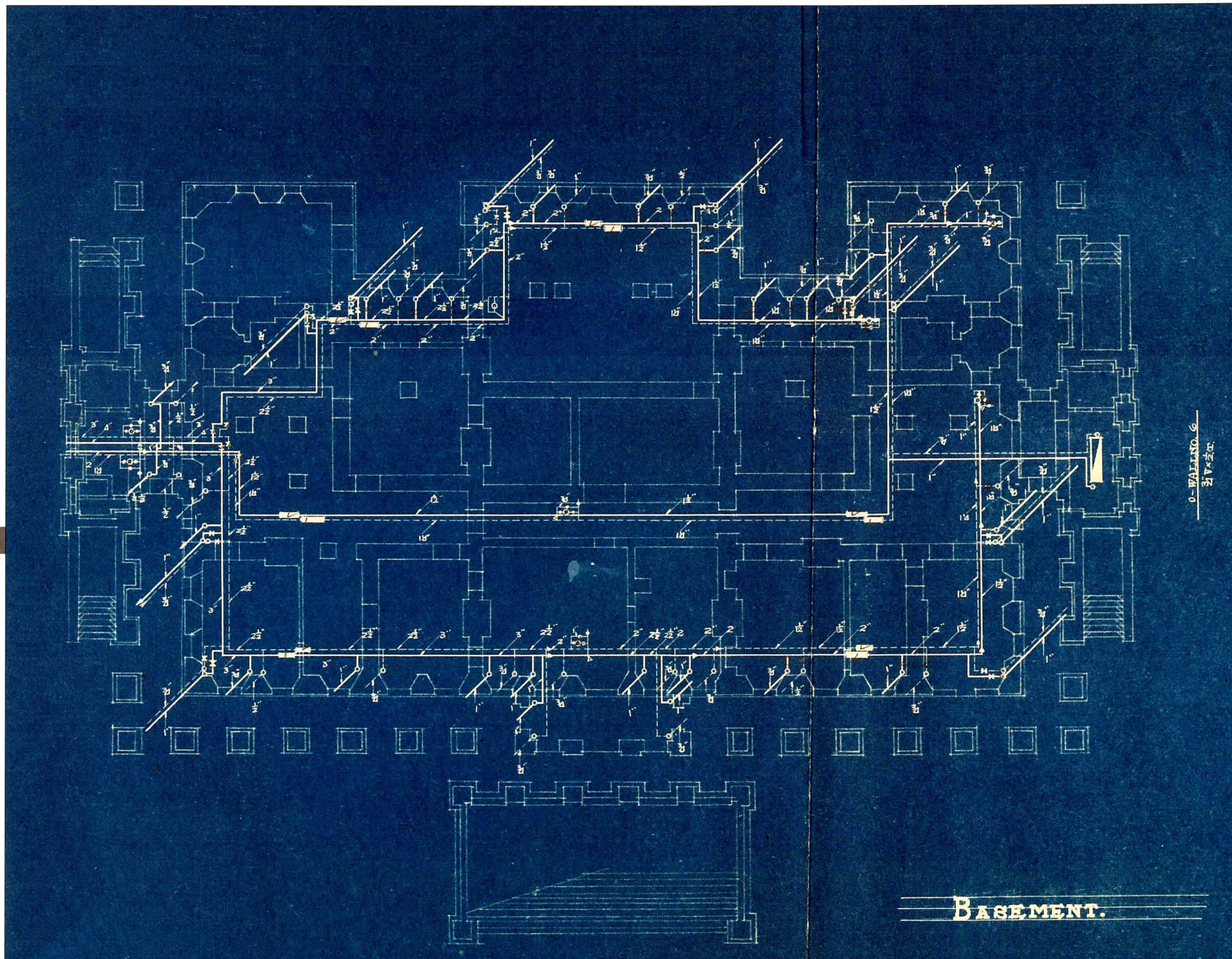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석조전 난방설비1) 중 일부 – 1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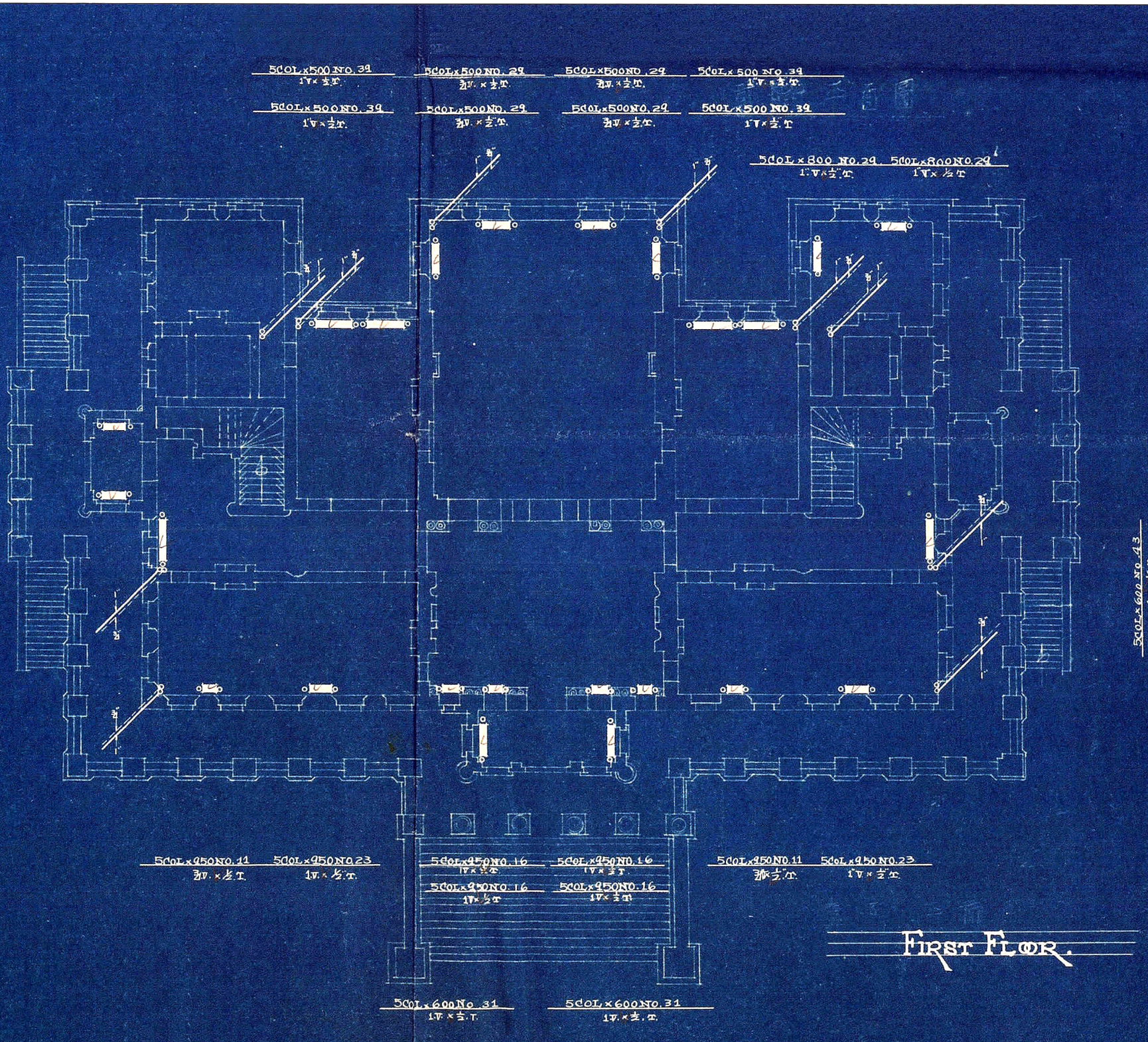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석조전 난방설비1) 중 일부 – 2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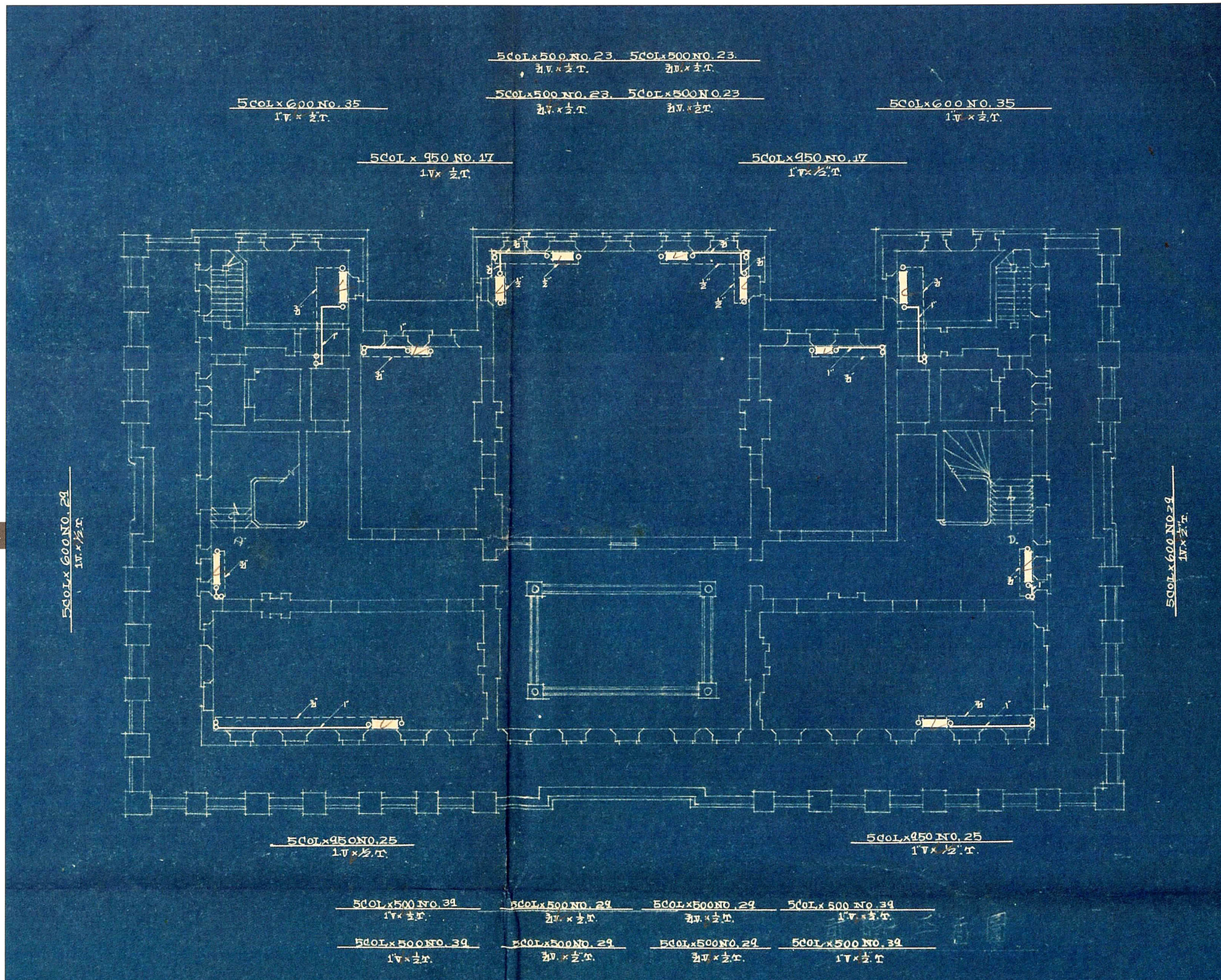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석조전 난방설비2),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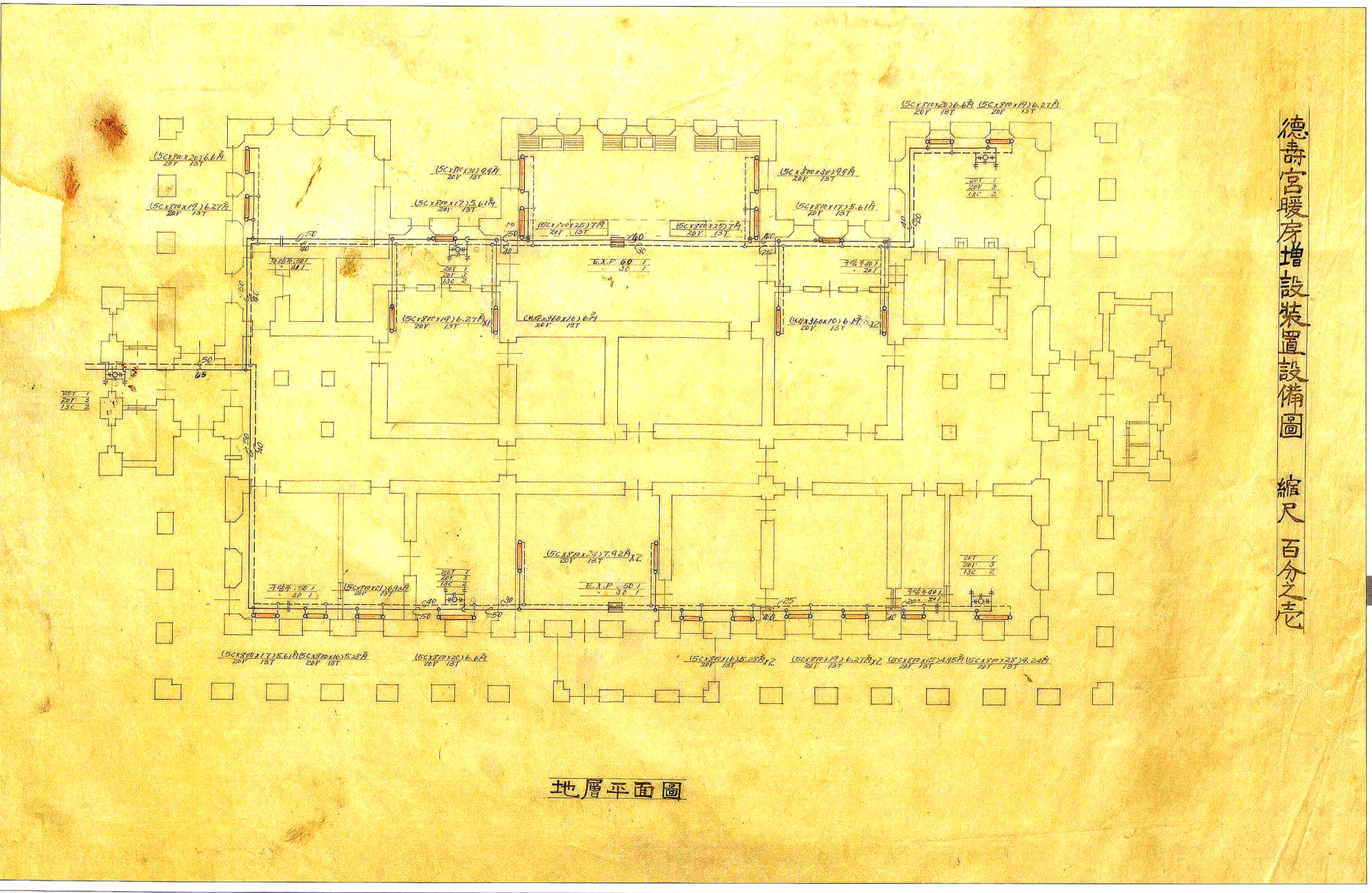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 [석조전 난방설비2] 중 일부 – 지하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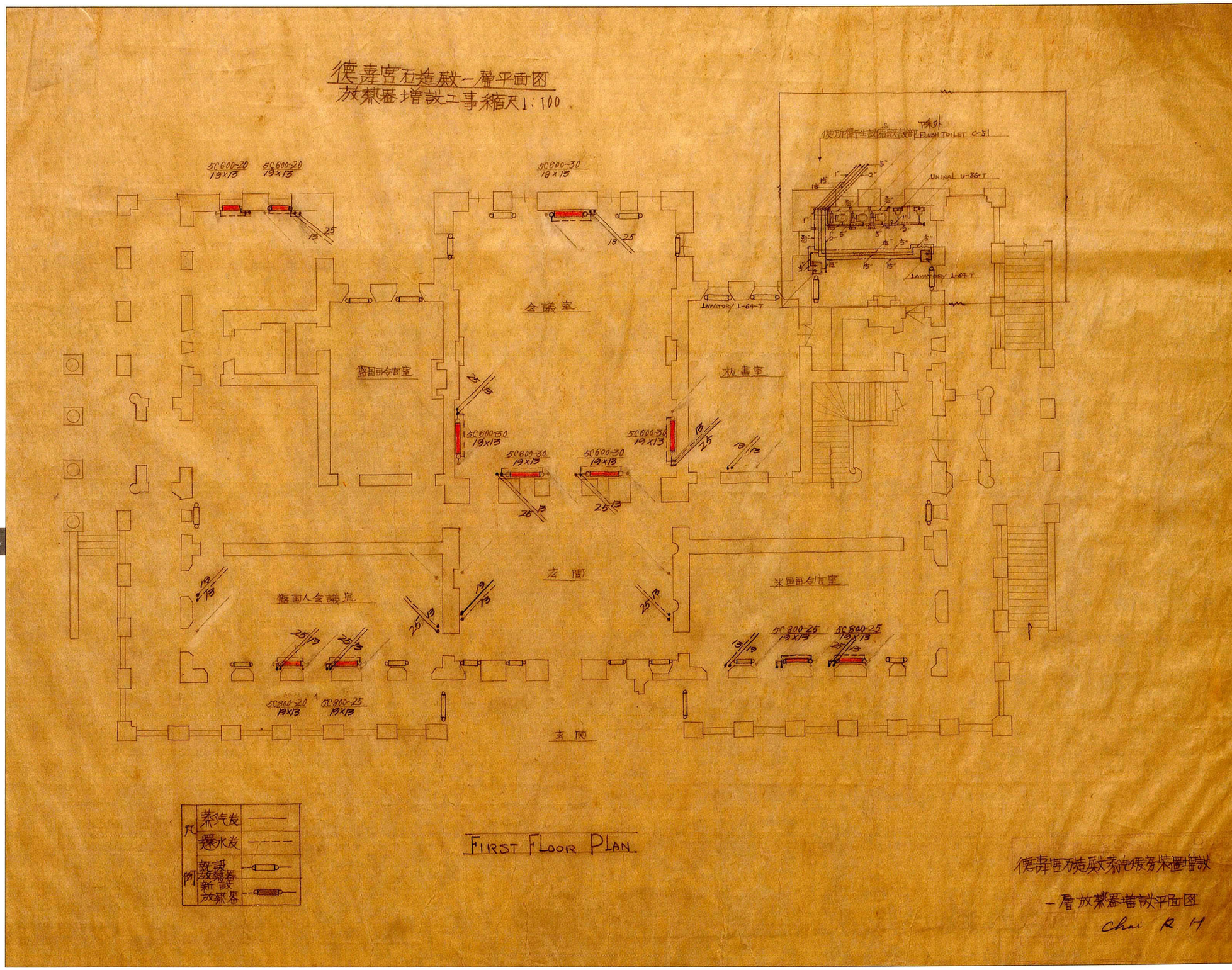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석조전 난방설비2) 중 일부 – 1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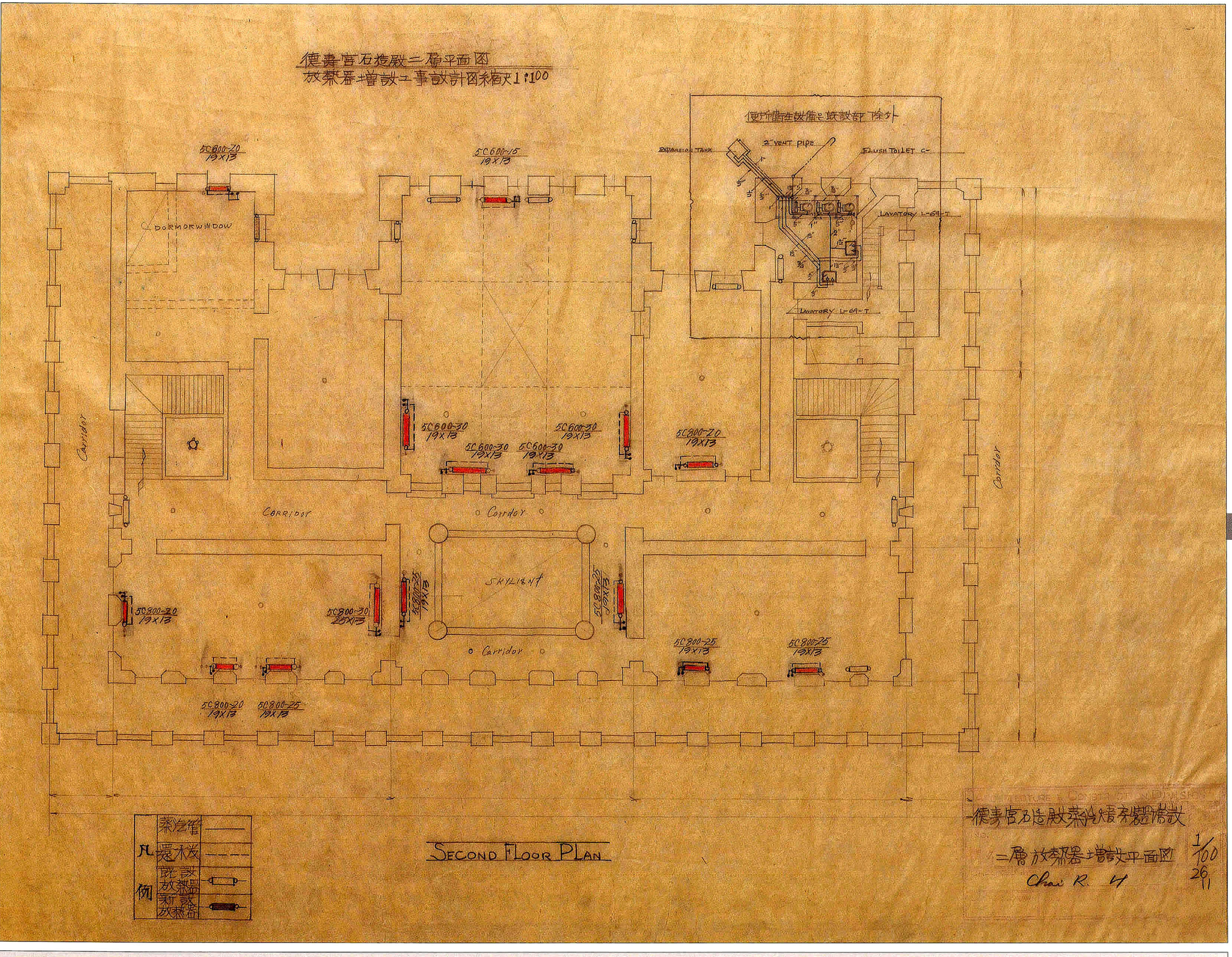
덕수궁미술관설계 (석조전 난방설비2) 중 일부 – 2층, 1:200, 1936년 7월 17일, 트레이싱지, 78.0cm * 54.5cm,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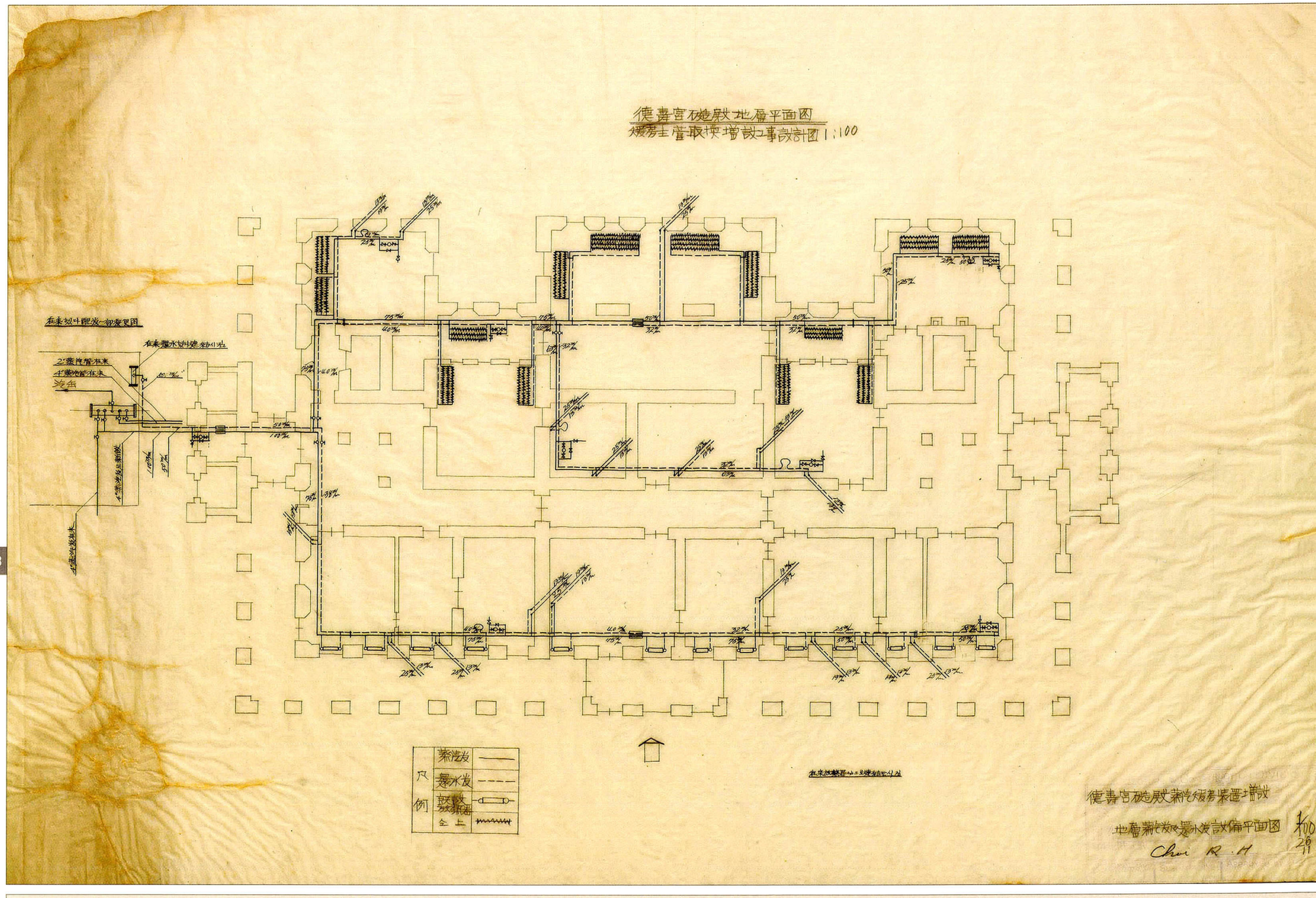
덕수궁 난방증설장치 설비도 – 지하층(1),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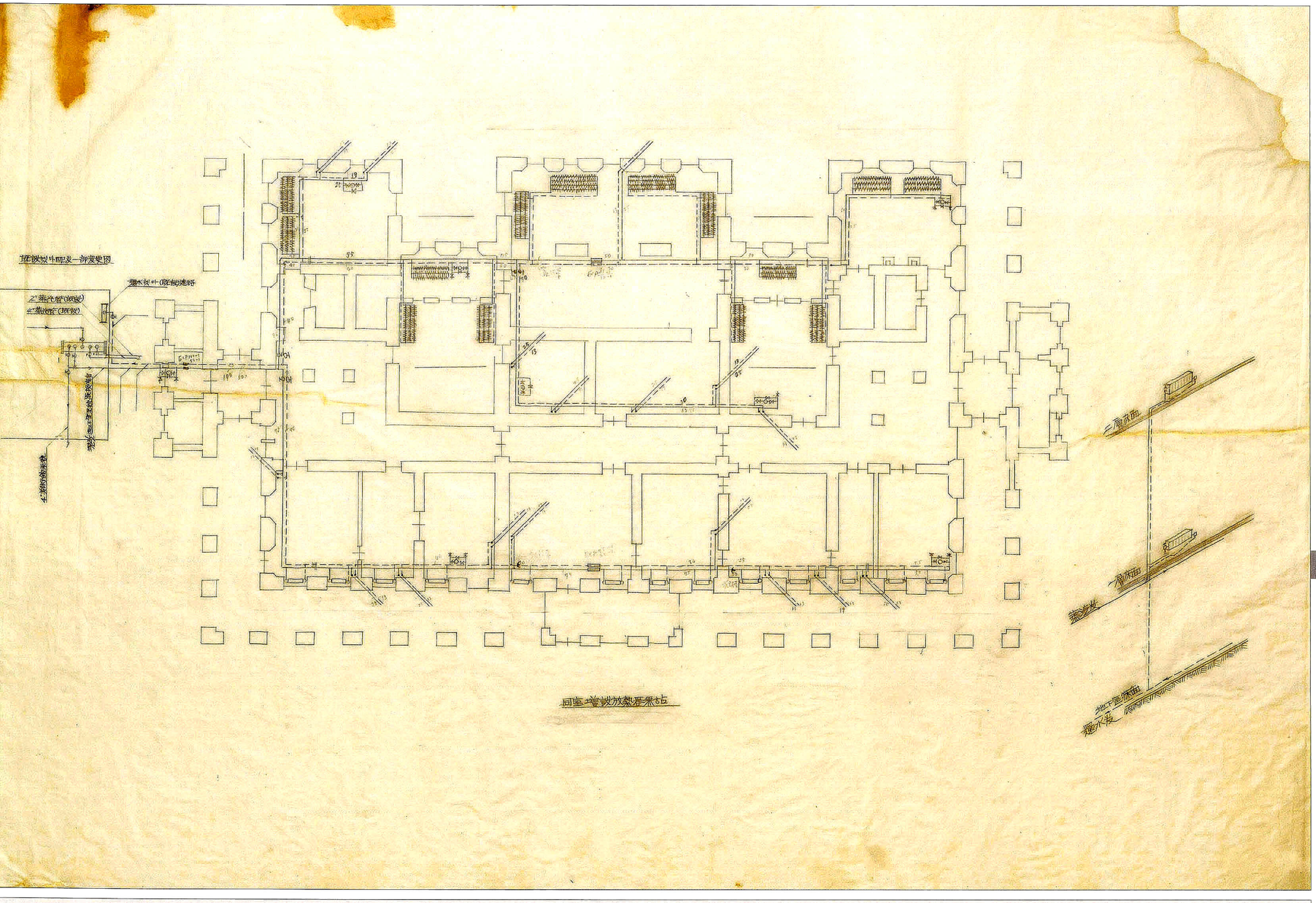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일층 평면도/방열기 증설공사 – 1층,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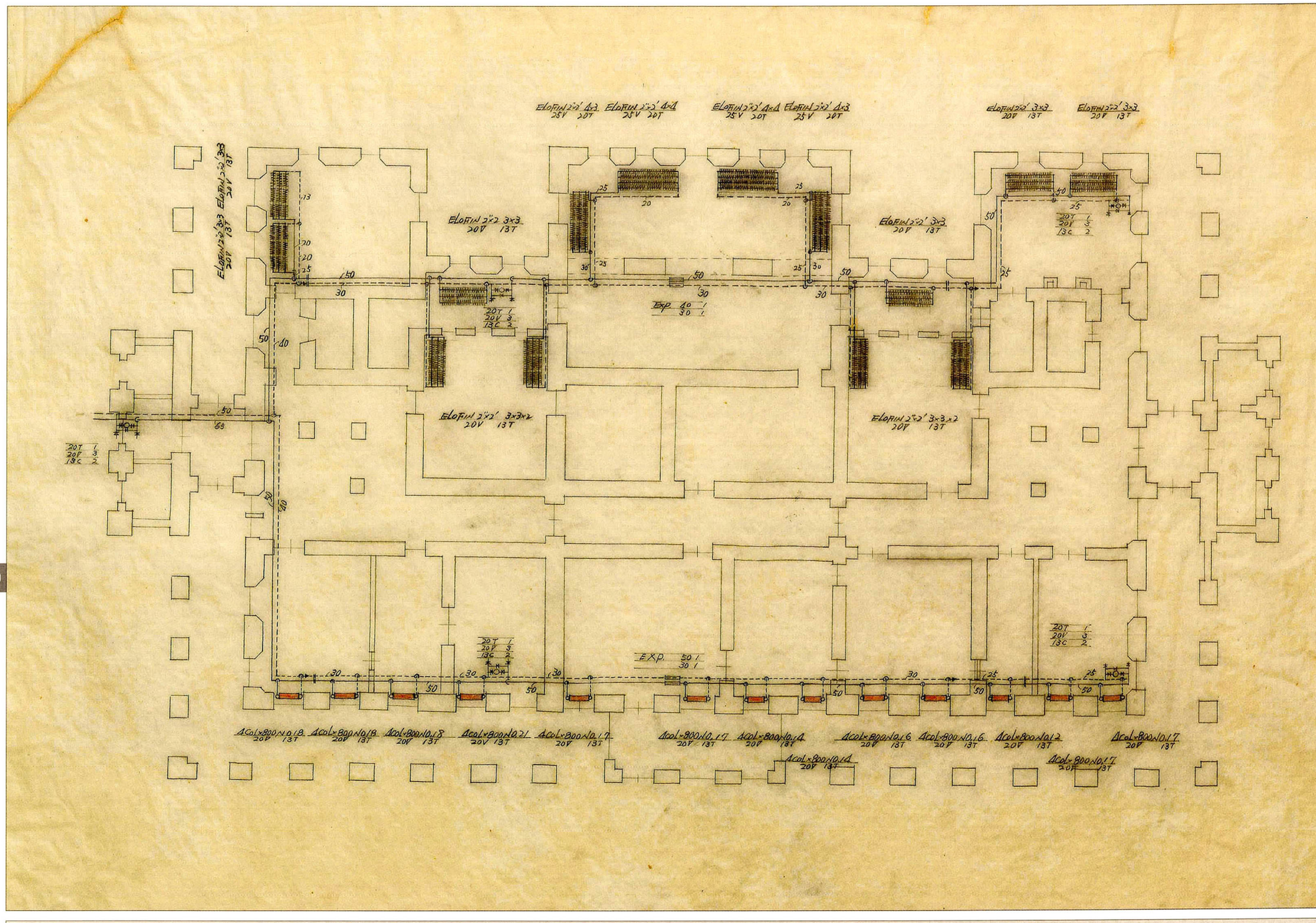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이층 평면도/방열기 증설공사 설계도 – 2층,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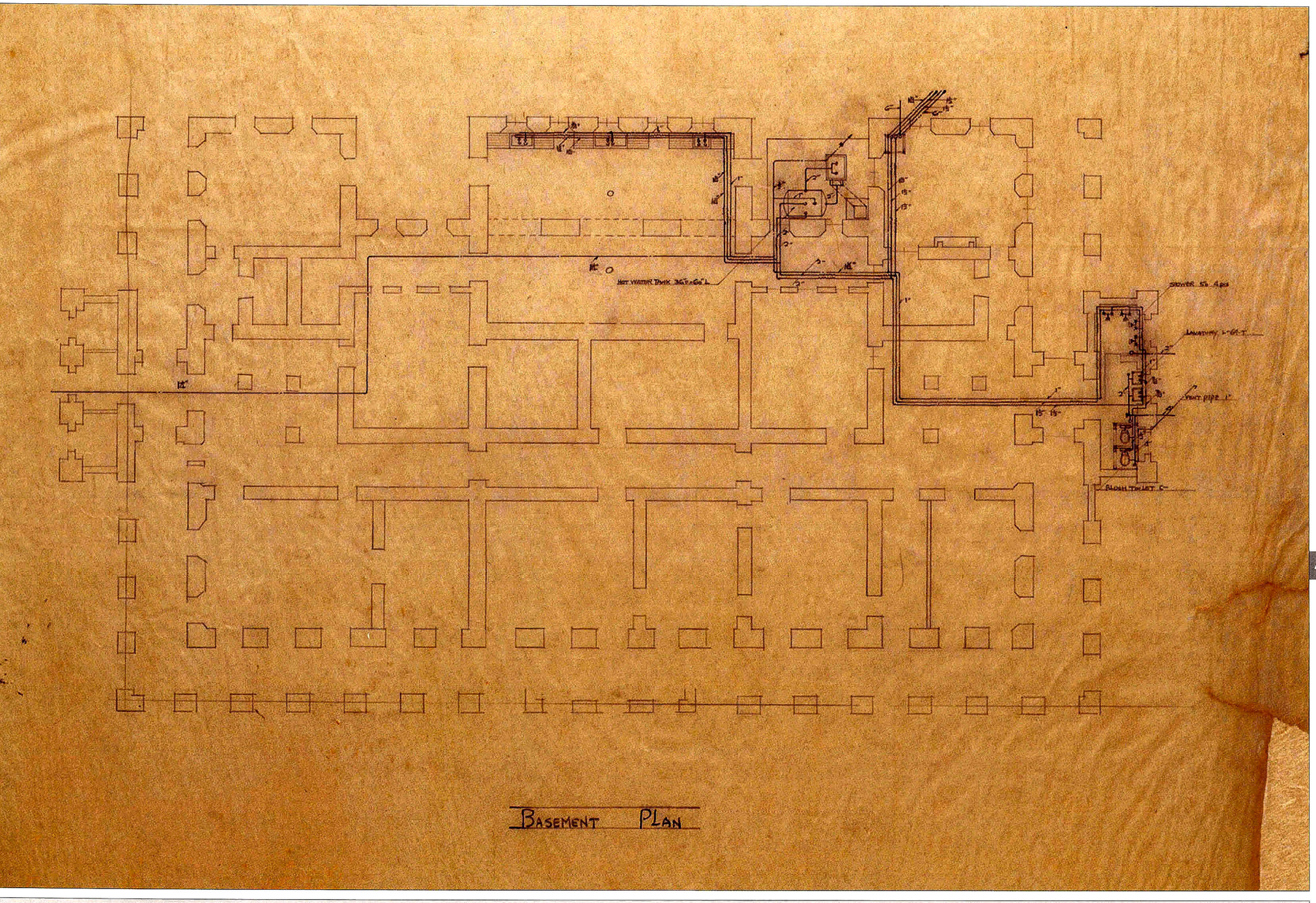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평면도 / 난방주관취환증설공사 설계도 – 지하층(2),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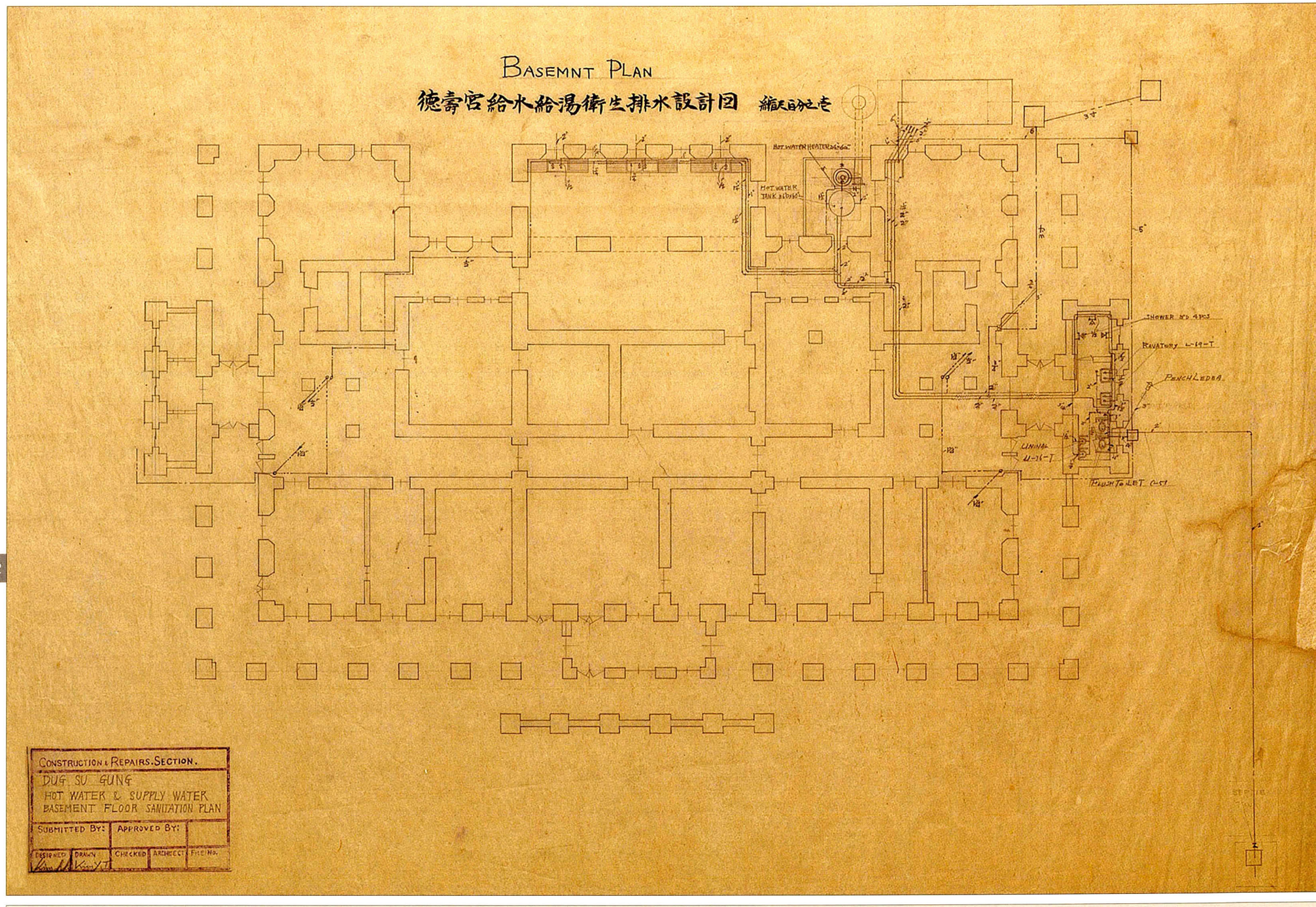
석조전 증기난방설치 – 지하층(3),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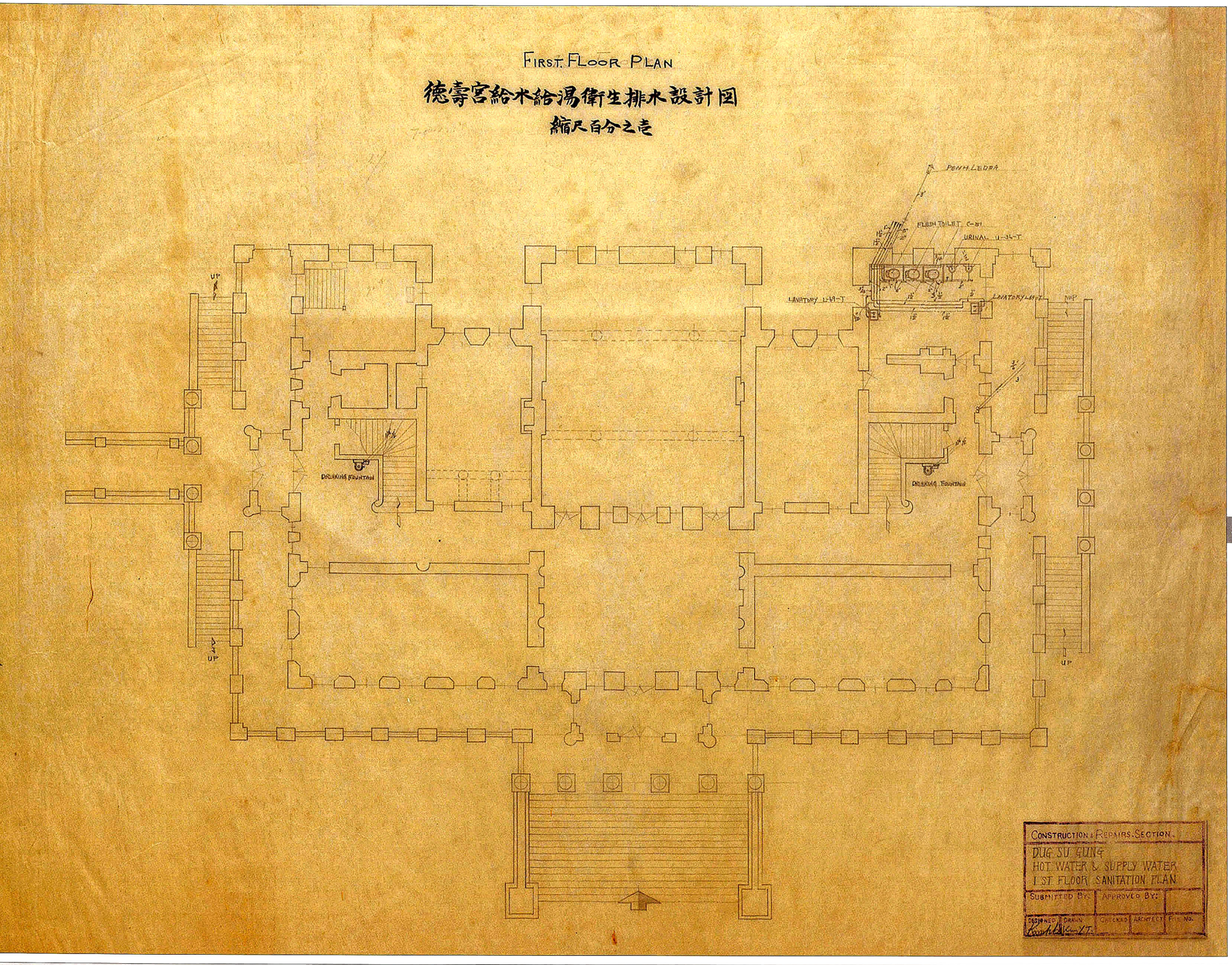
석조전 증기난방설치 – 지하층(4),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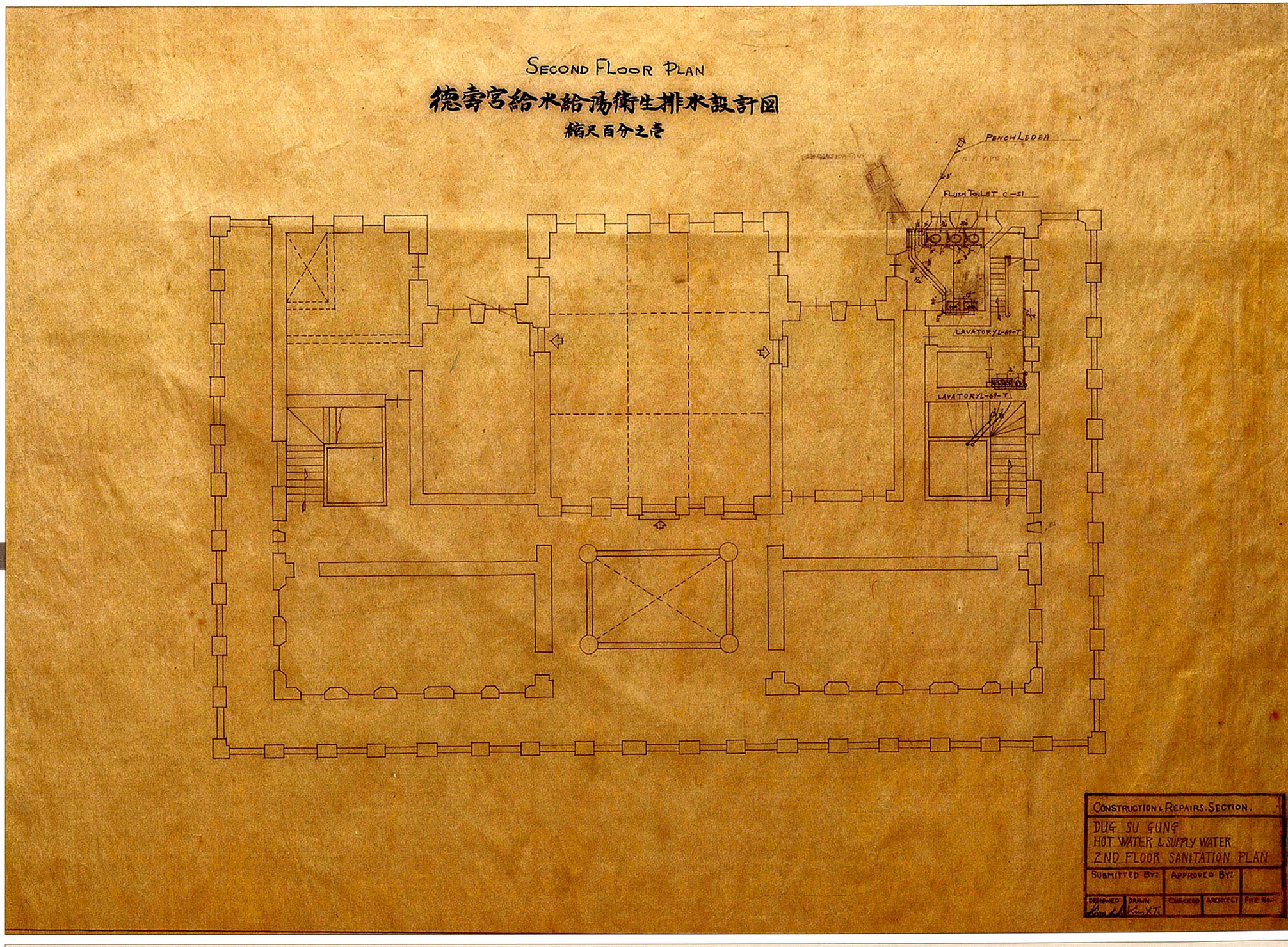
석조전 증기난방설치 – 지하층(5),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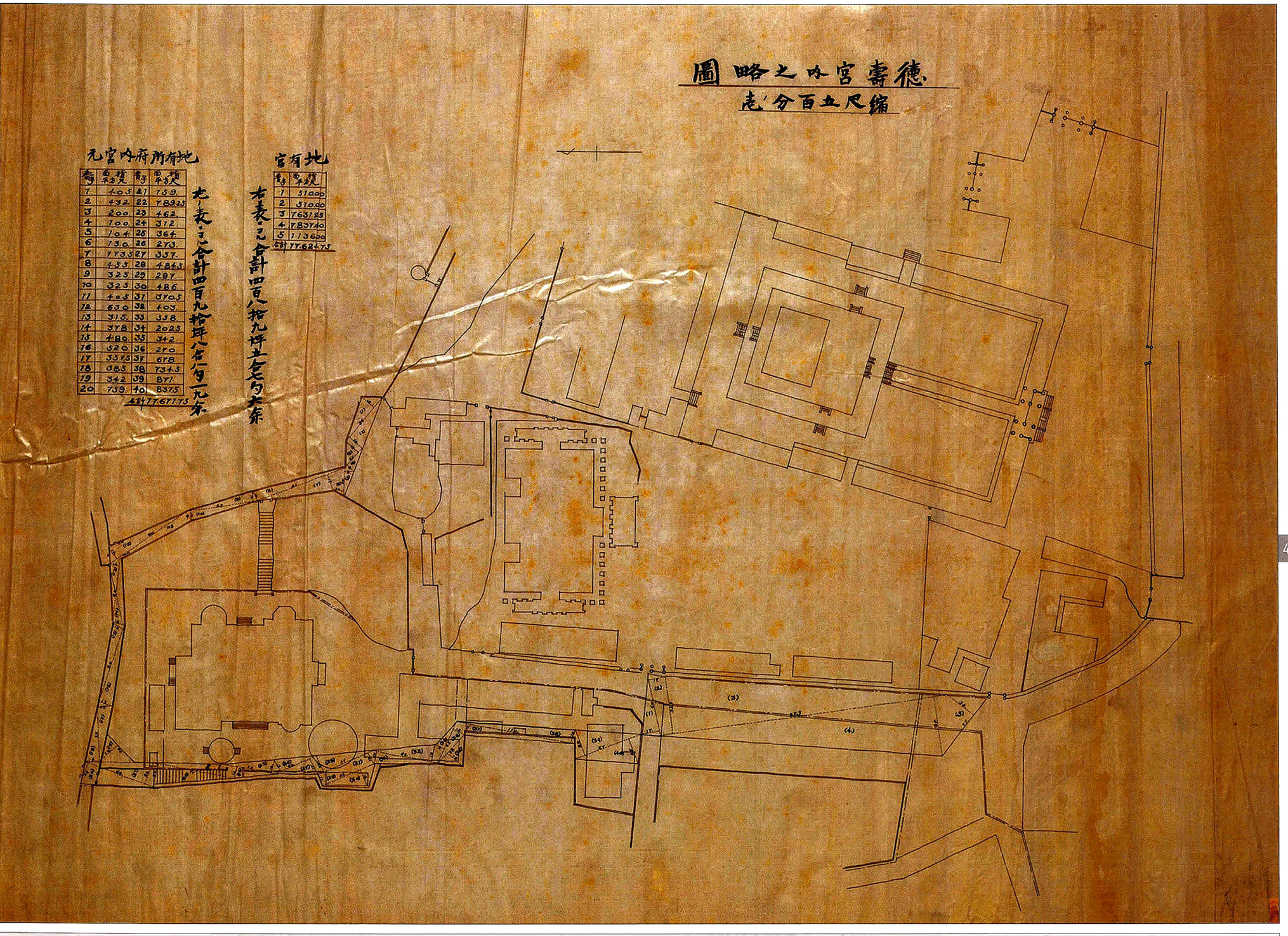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 – 지하층,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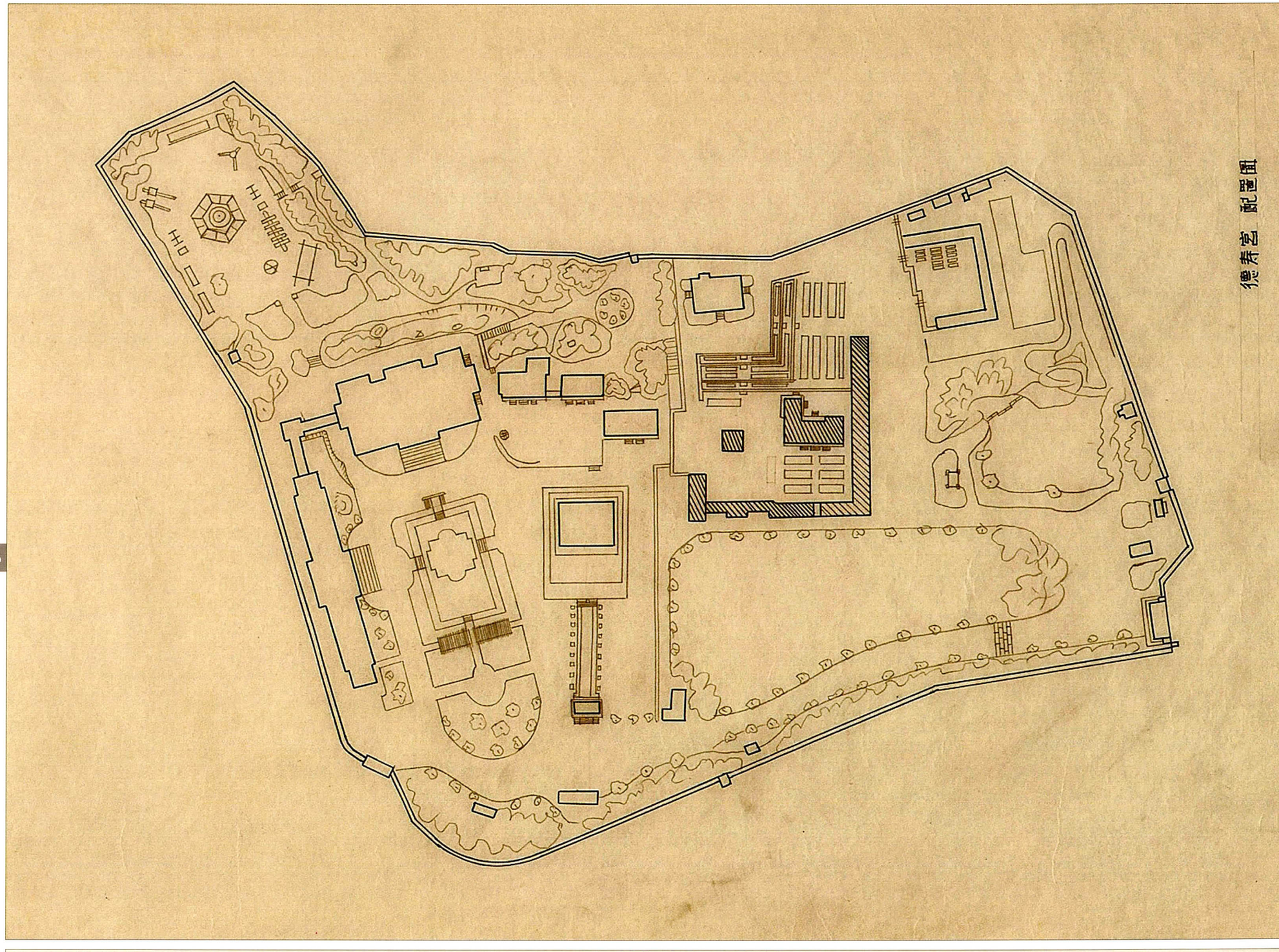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 – 1층,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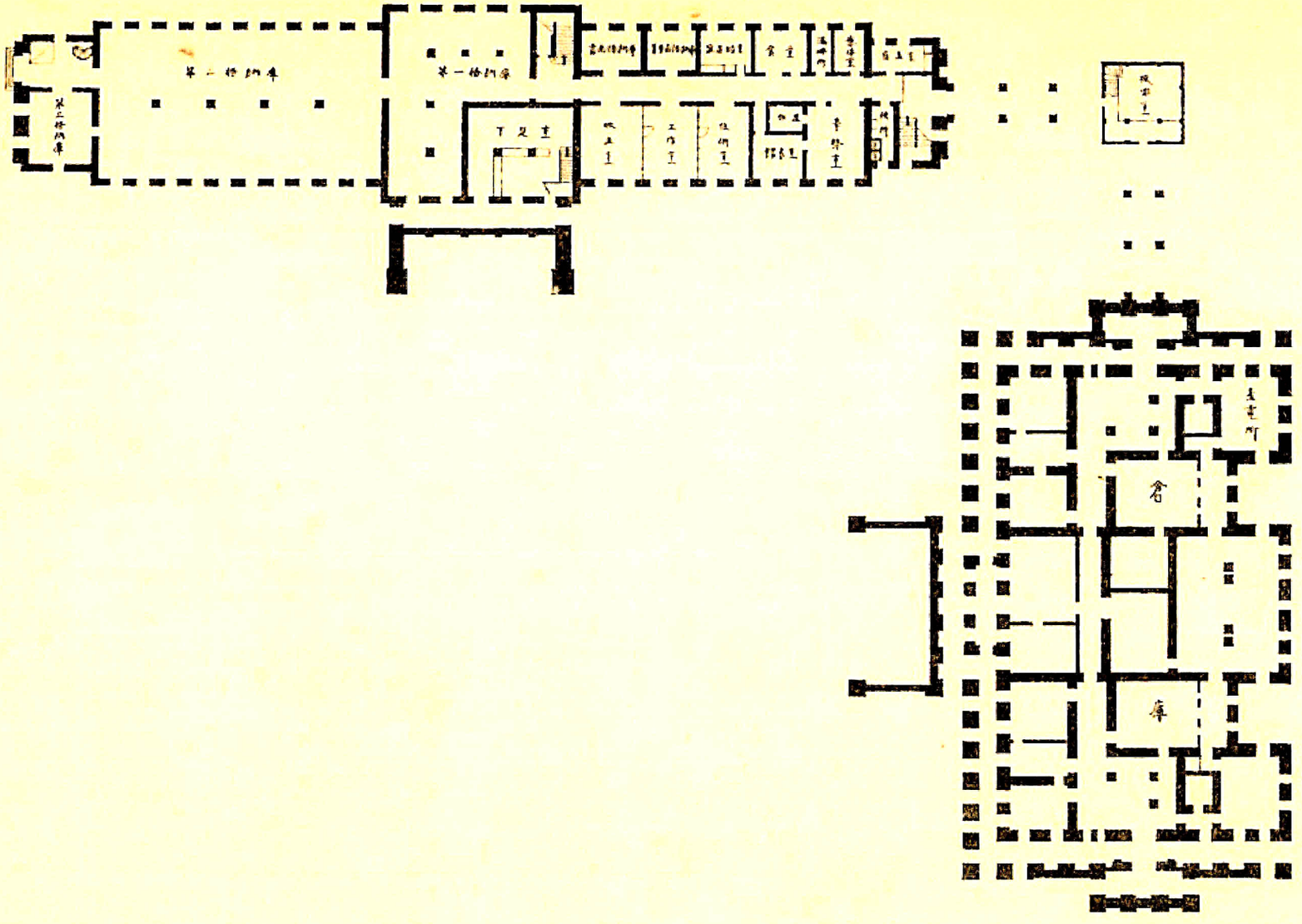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 – 2층, 1:1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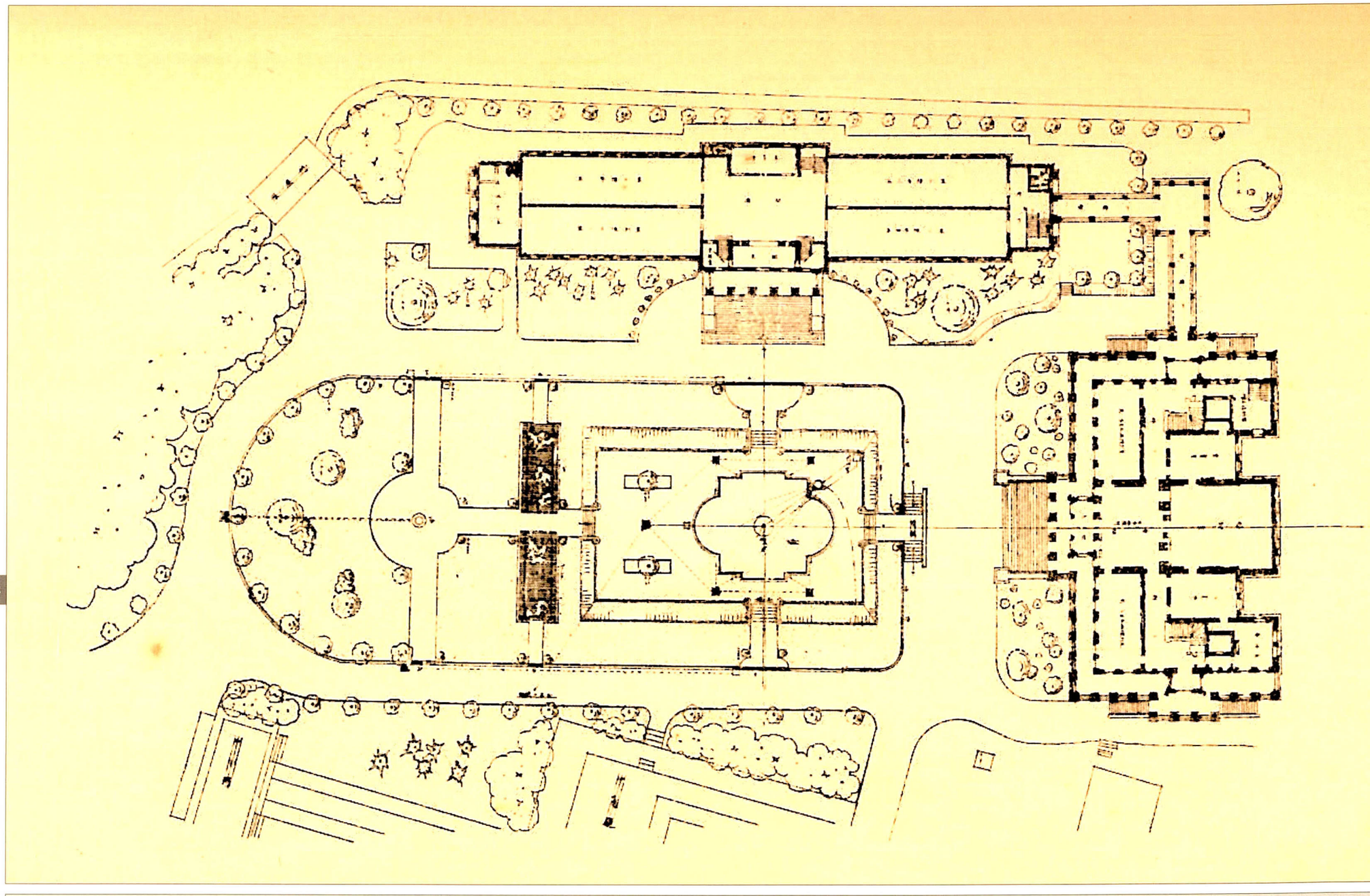
덕수궁내지약도, 1:500,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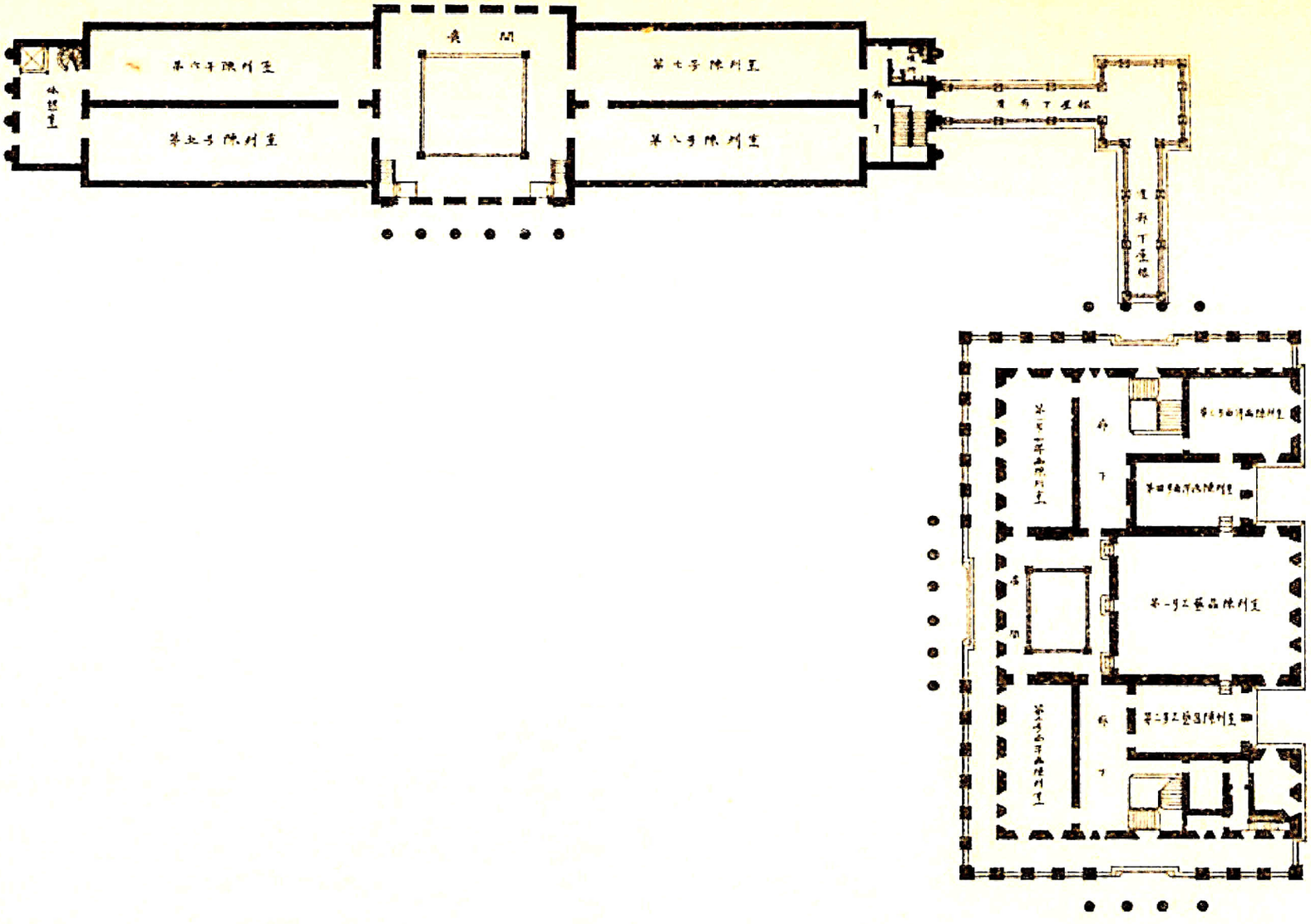
덕수궁배치도, 트레이싱지,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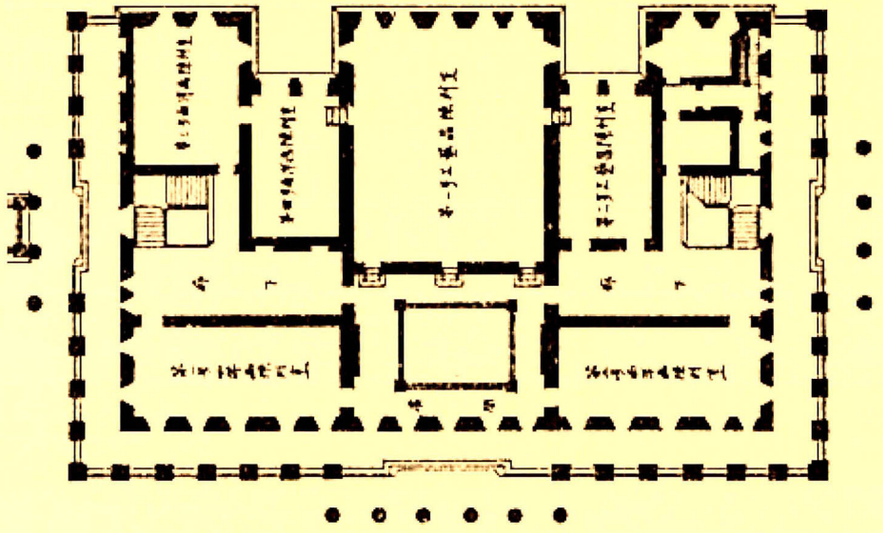
신관평면일계도(新館平面一階圖) / 석조전과 덕수궁미술관(신관) 평면도 – 지하1층,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1938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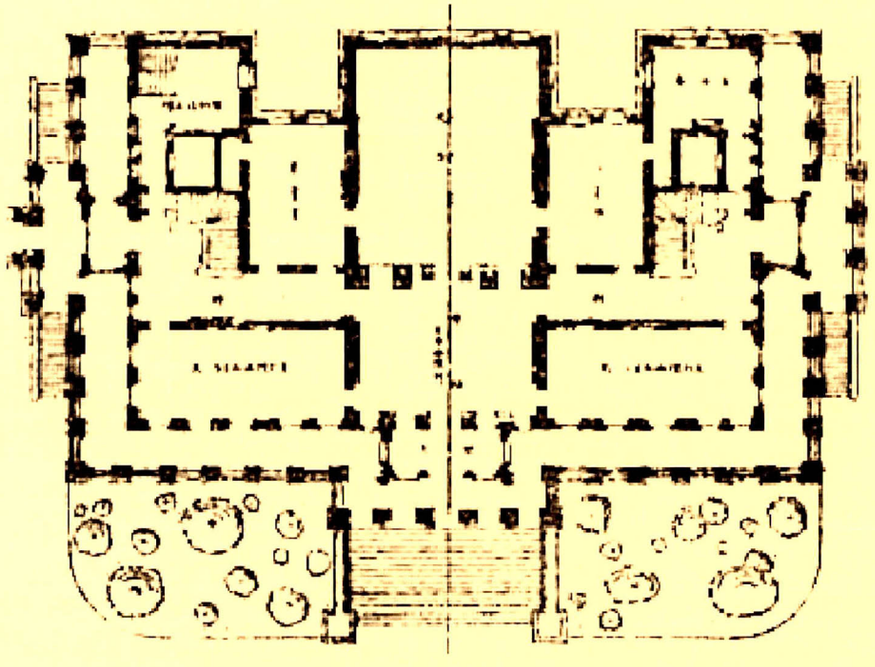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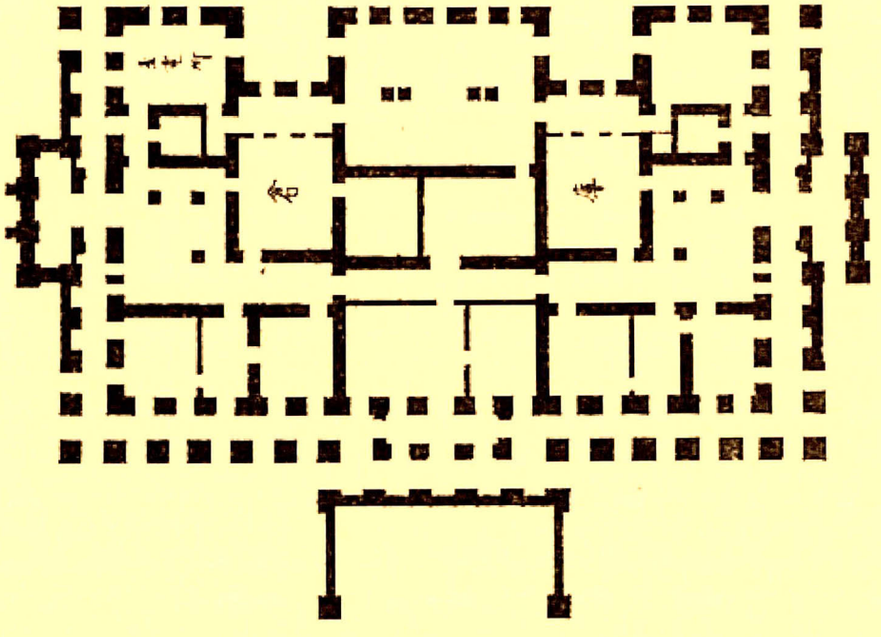
신관평면이계도(新館平面二階圖) / 석조전과 덕수궁미술관(신관) 평면도 – 1층,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신관평면삼계도(新館平面三階圖) / 석조전과 덕수궁미술관(신관) 평면도 – 2층,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1938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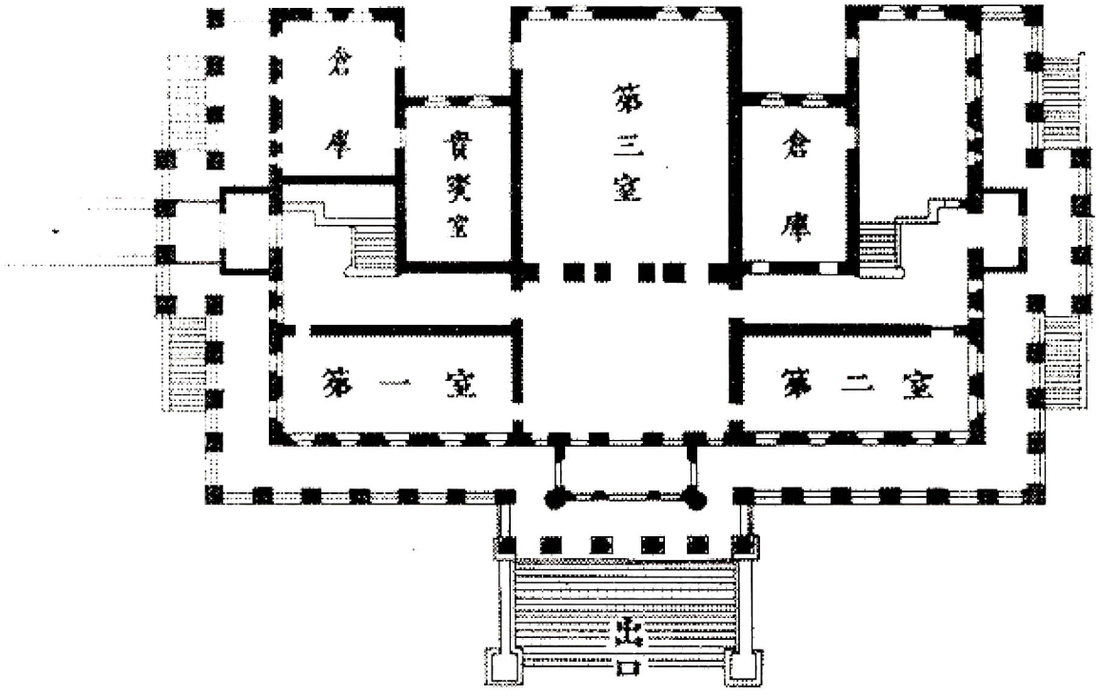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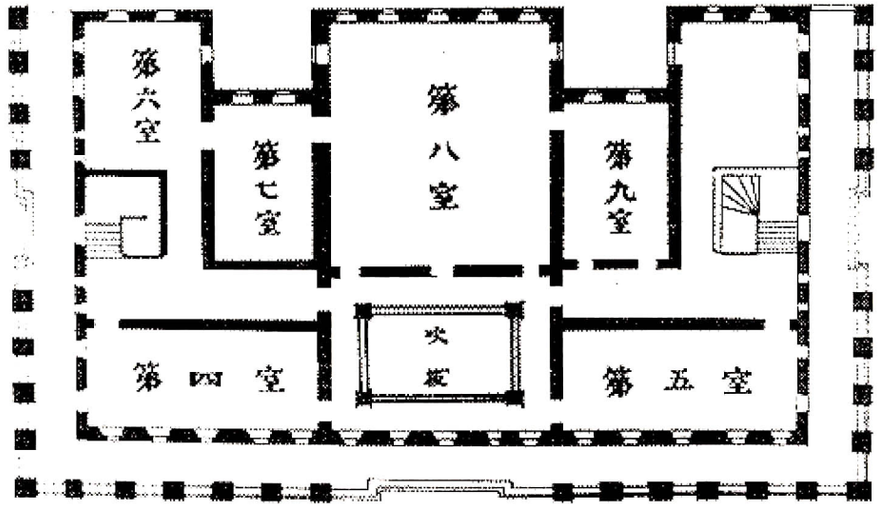
석조전 부분(新館平面一階圖·新館平面二階圖·新館平面三階圖),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近代日本美術陳列館

第一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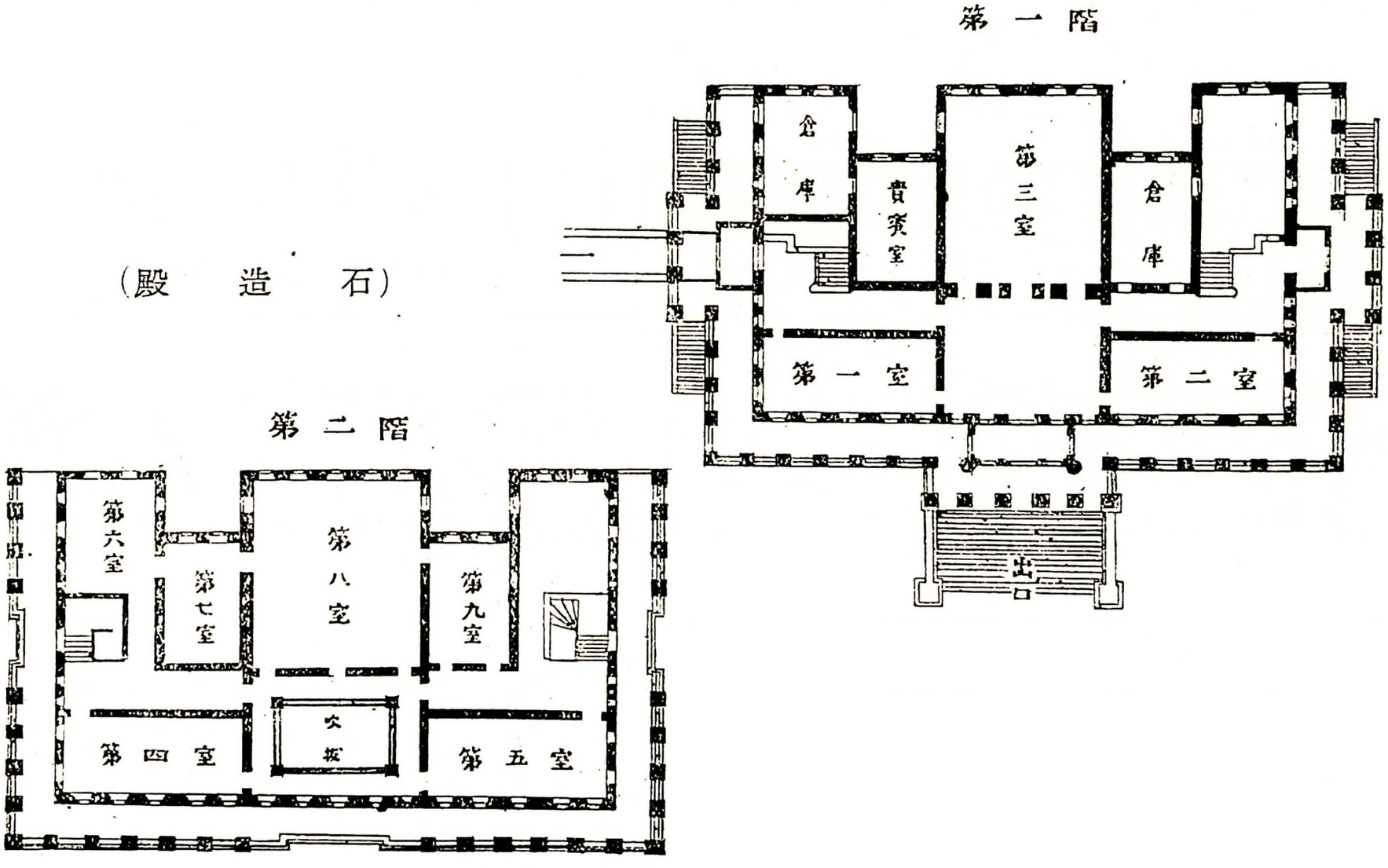


第二階



근대일본미술진열관(近代日本美術陳列館),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日本近代美術陳列館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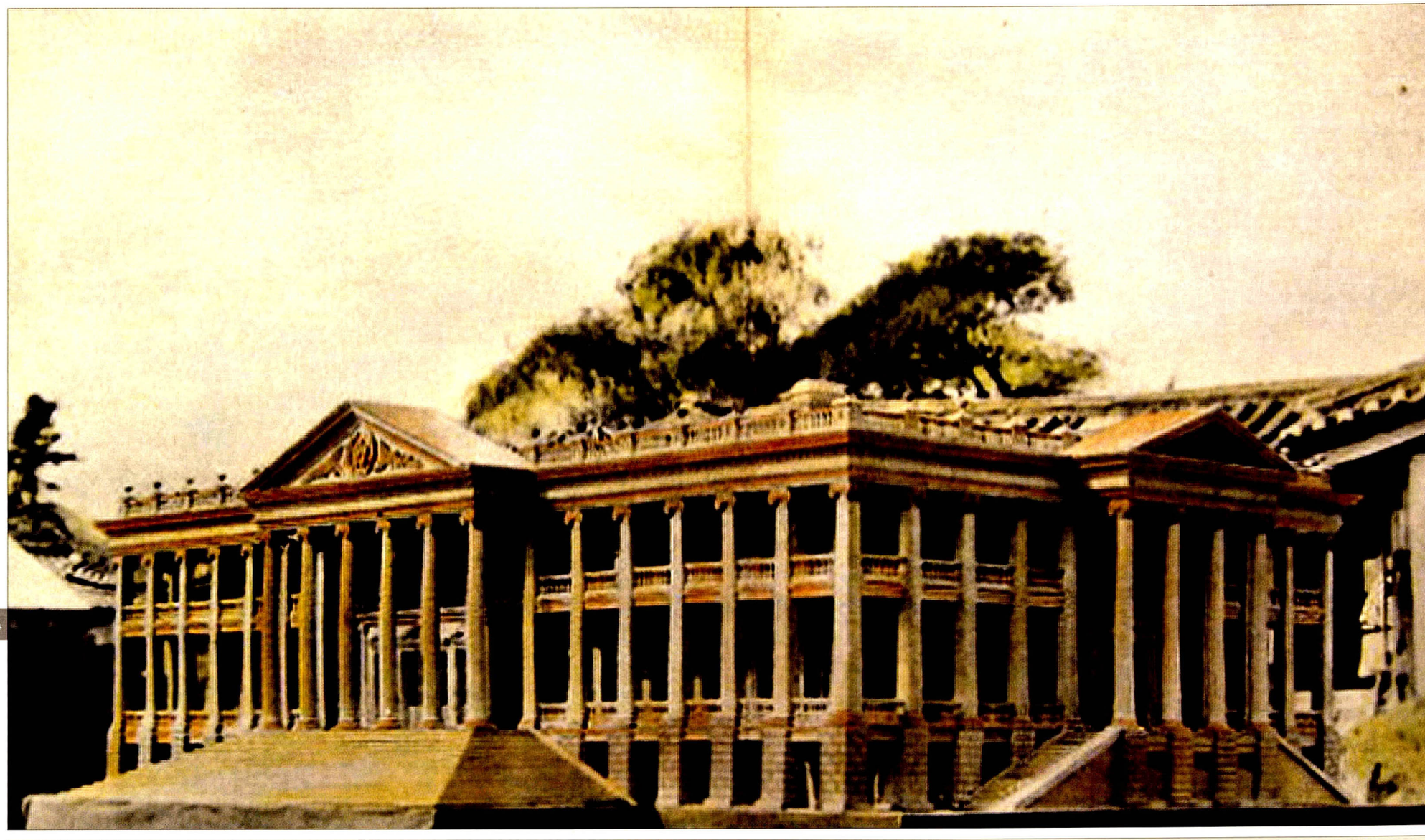


일본근대미술진열관(日本近代美術陳列館), 1940년, 『쇼와15년 이왕가미술관안내(昭和十五年李王家美術館案內)』(1940년)

사진을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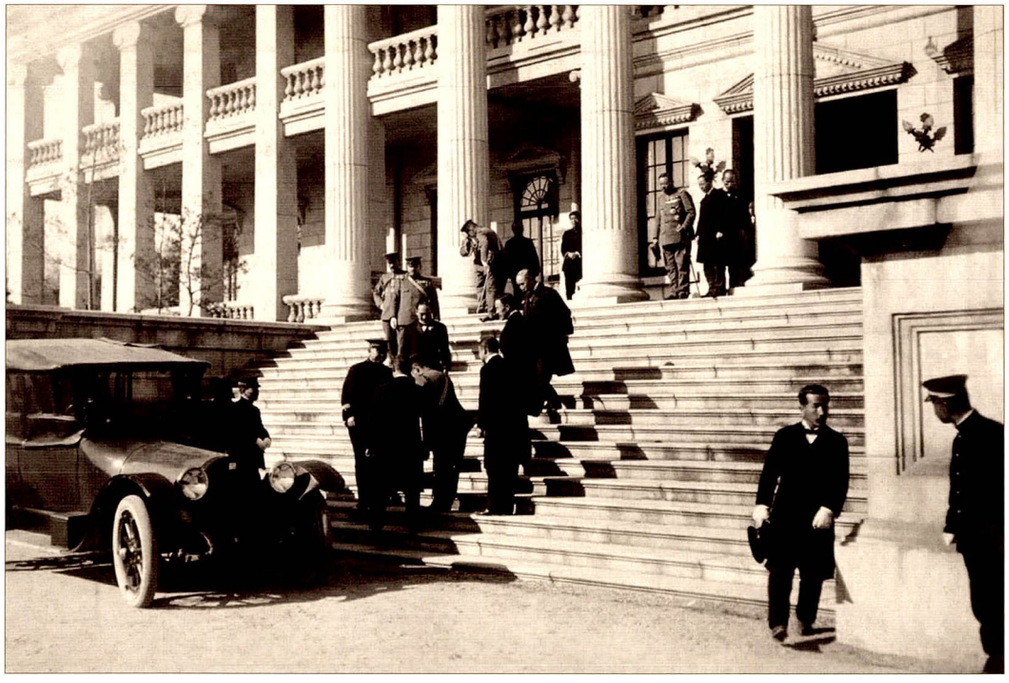
-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
- 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
-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
-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 덕수궁사(德壽宮史)
-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 조선(朝鮮)
-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
- 궁 · 능 관련유리원판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 사진첩(고종)
- 조선명승기
- 2012국립대구박물관특별전—근대를 향한 비상 대한제국
- 건축잡지(建築雜誌)
- 선철연선 명소사적 미술대관(鮮鐵沿線明所史蹟美術大觀)
- 일본궁내청소장 창덕궁사진첩
- 국사편찬위원회
- LIFE지
- 미소공동위원회
-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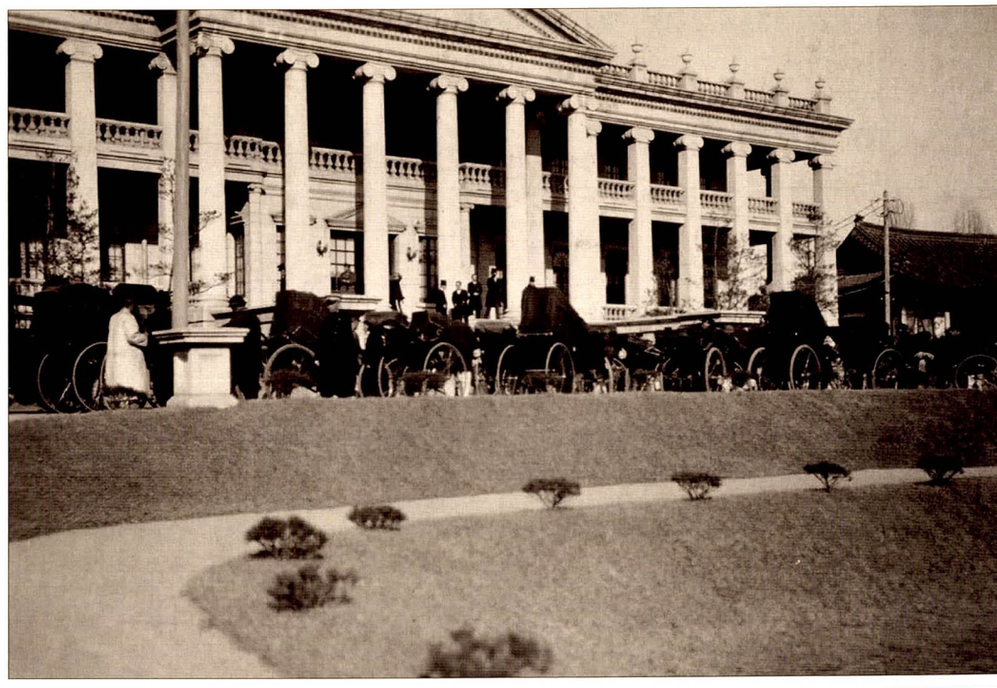


The New Palace for H.M. The Emperor of Corea, South East Front View, J. Reginald Harding, Architect,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1900년 5월 26일), 안창모 제공

Emma Kroebel, 『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1909년), Verlag von R.Jacobsthal & Co.,berlin-Schoneberg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각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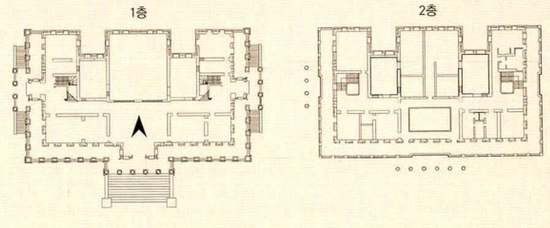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각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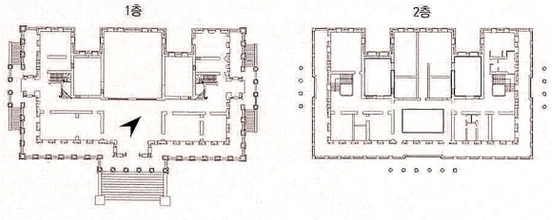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각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26.5cm * 20.4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각 26.5cm * 20.4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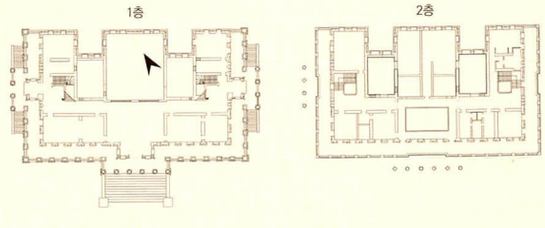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26.5cm * 20.4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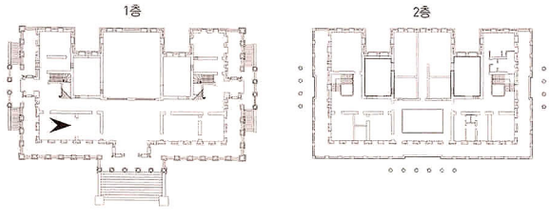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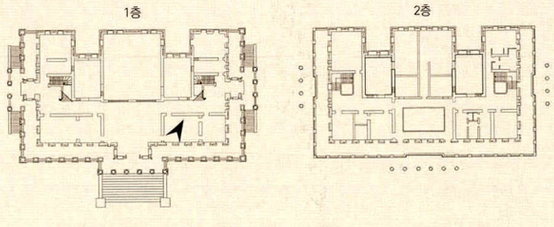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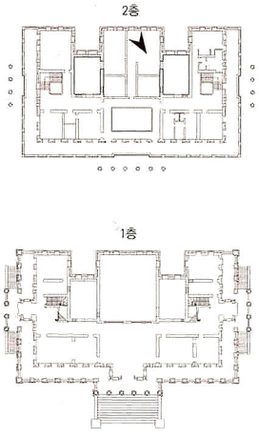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14.3cm * 9.2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918년), 9.2cm * 14.3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20세기 초, 13.7cm * 9.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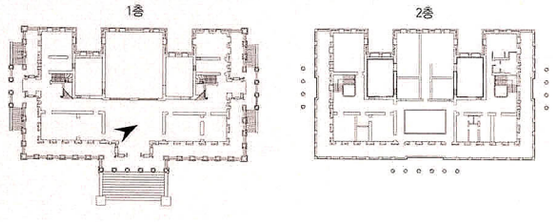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13.6cm * 9.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13.9cm * 9.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20세기 초, 13.5cm * 8.2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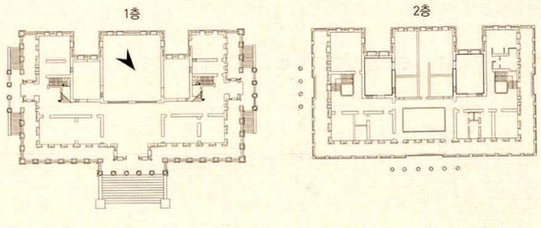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20세기 초, (좌) 8.4cm * 13.5cm (중) 13.5cm * 18.3cm (우) 8.2cm * 13.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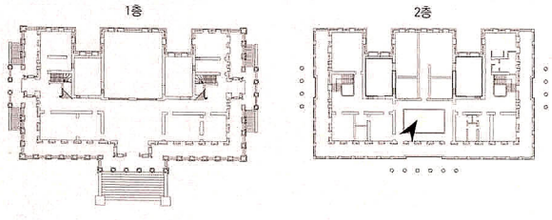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20세기 초, (좌)8.4cm * 13.6cm (우)8.3cm * 13.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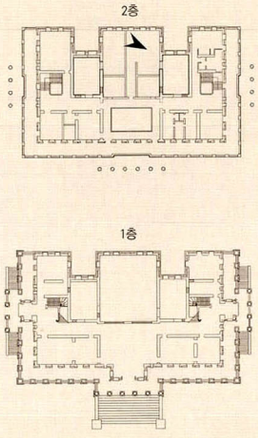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13.7cm * 9.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13.7cm * 9.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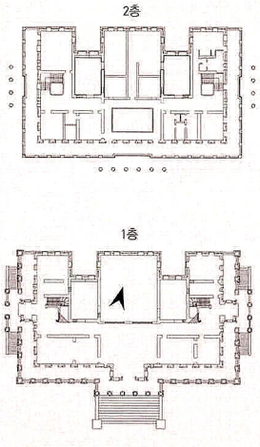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13.7cm * 9.6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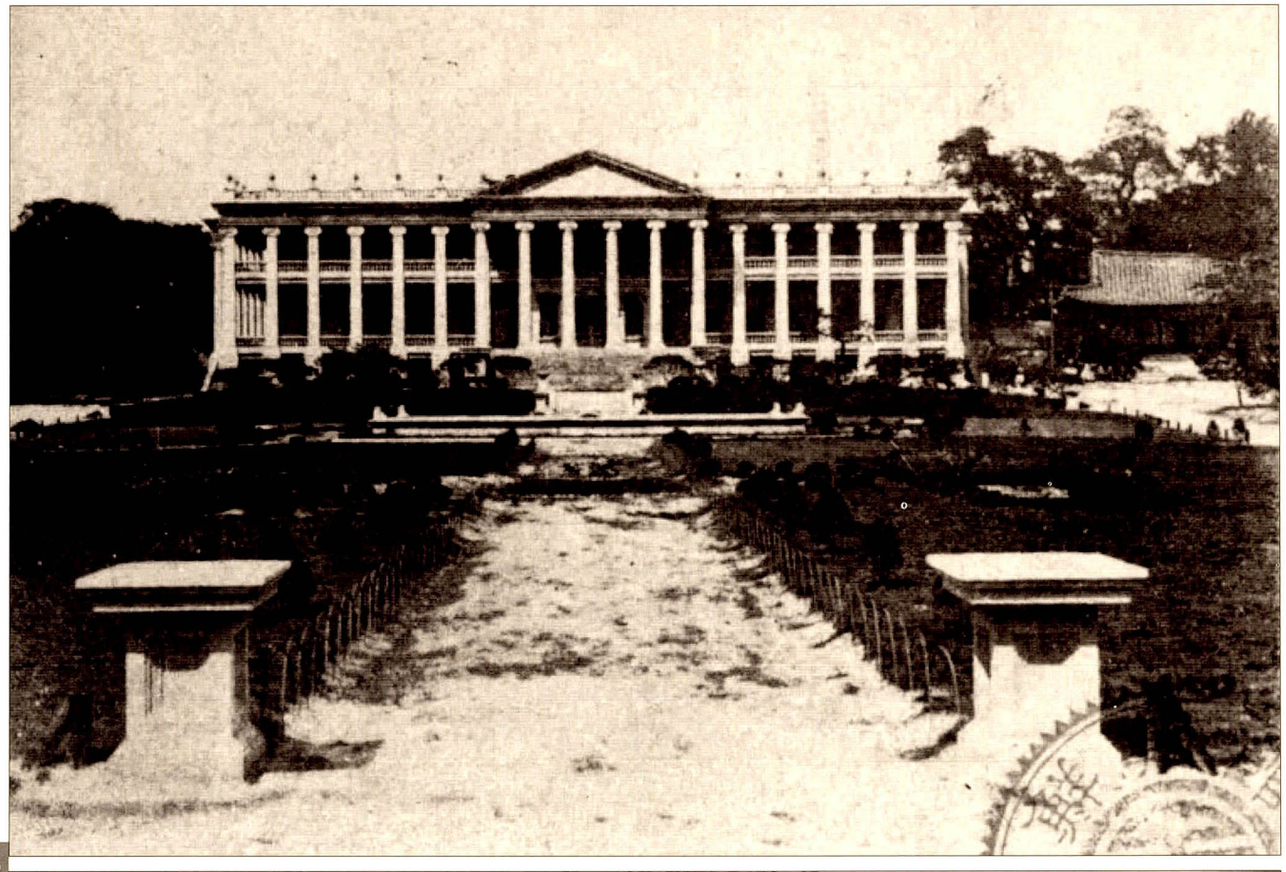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9.7cm * 13.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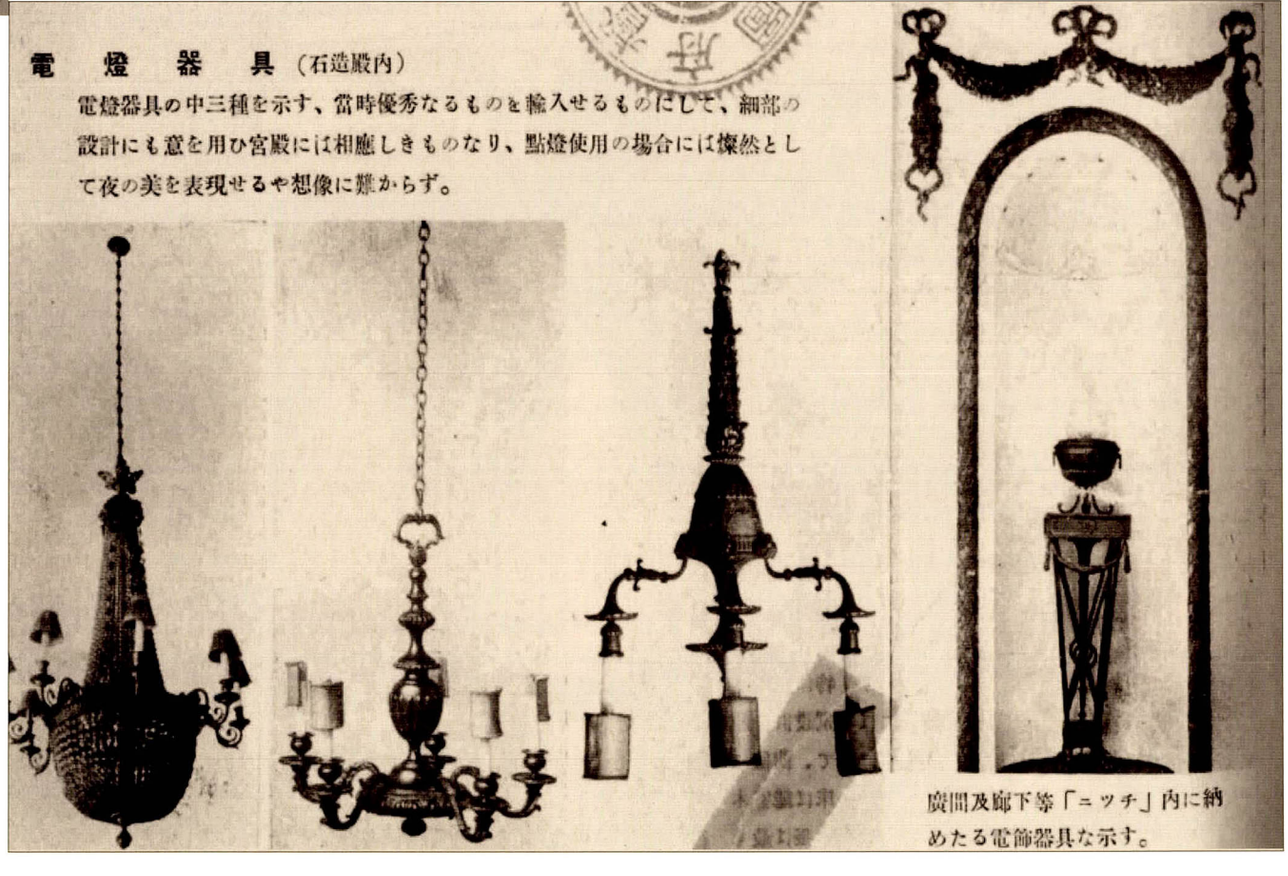
석조전(石造殿), 20세기 초, 『덕수궁사(德壽宮史)』(李王職,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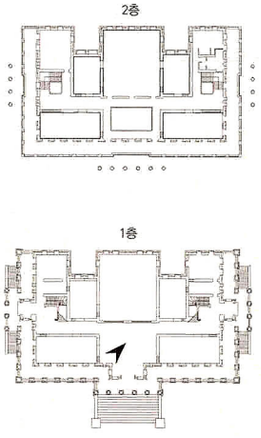
석조전내부(石造殿內部), 20세기 초, 『덕수궁사(德壽宮史)』(李王職,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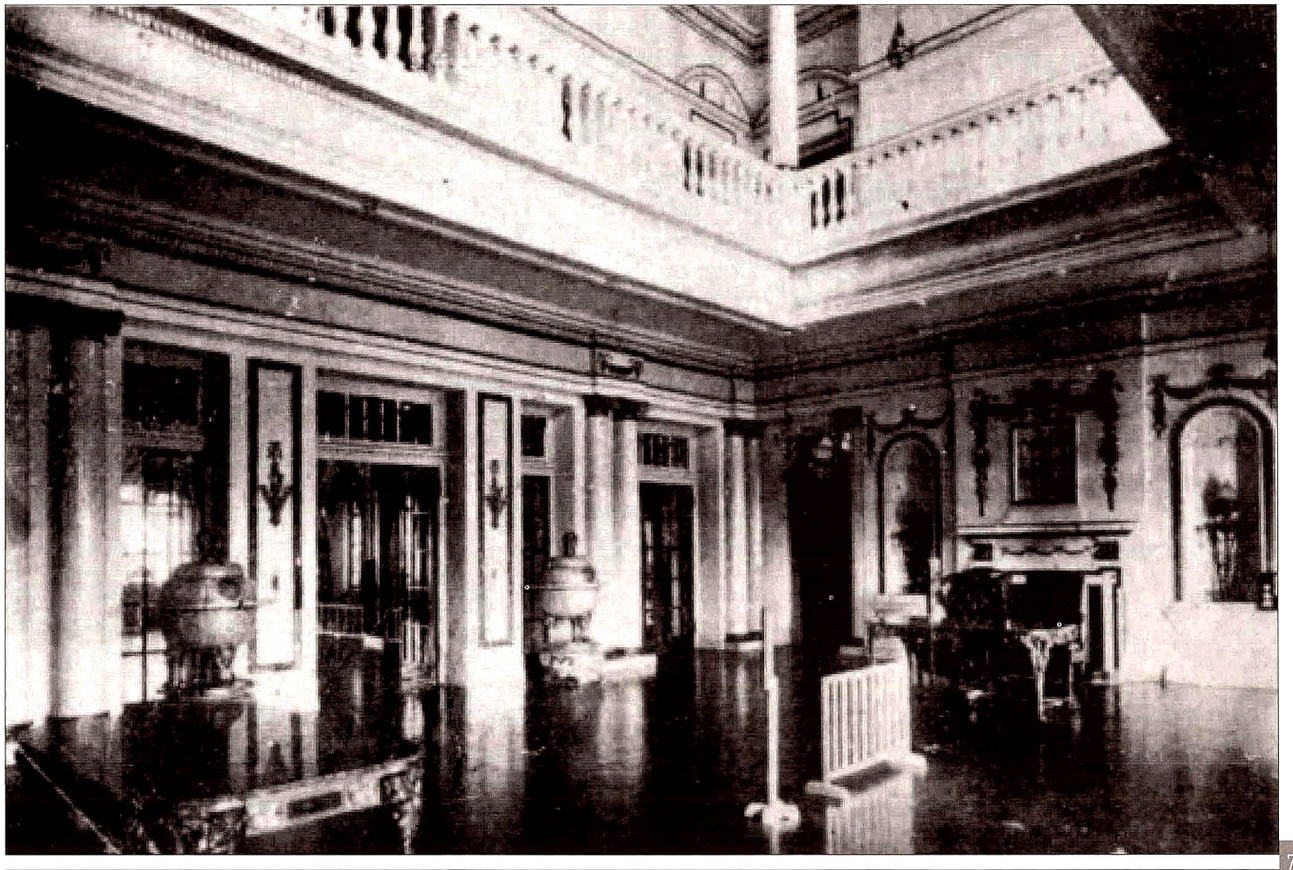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정면(德壽宮石造殿正面),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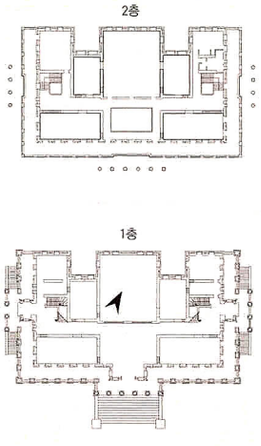


전등기구(電燈器具),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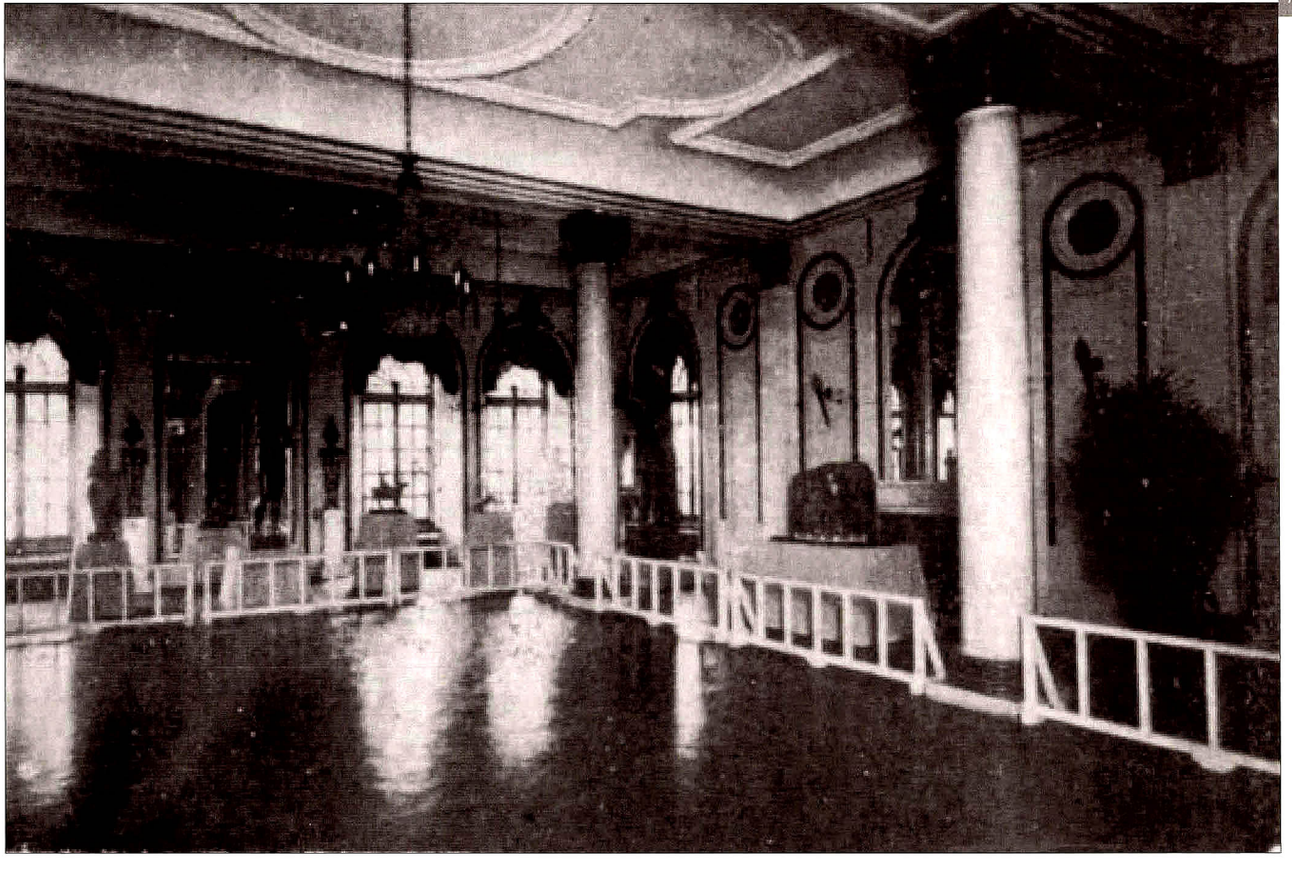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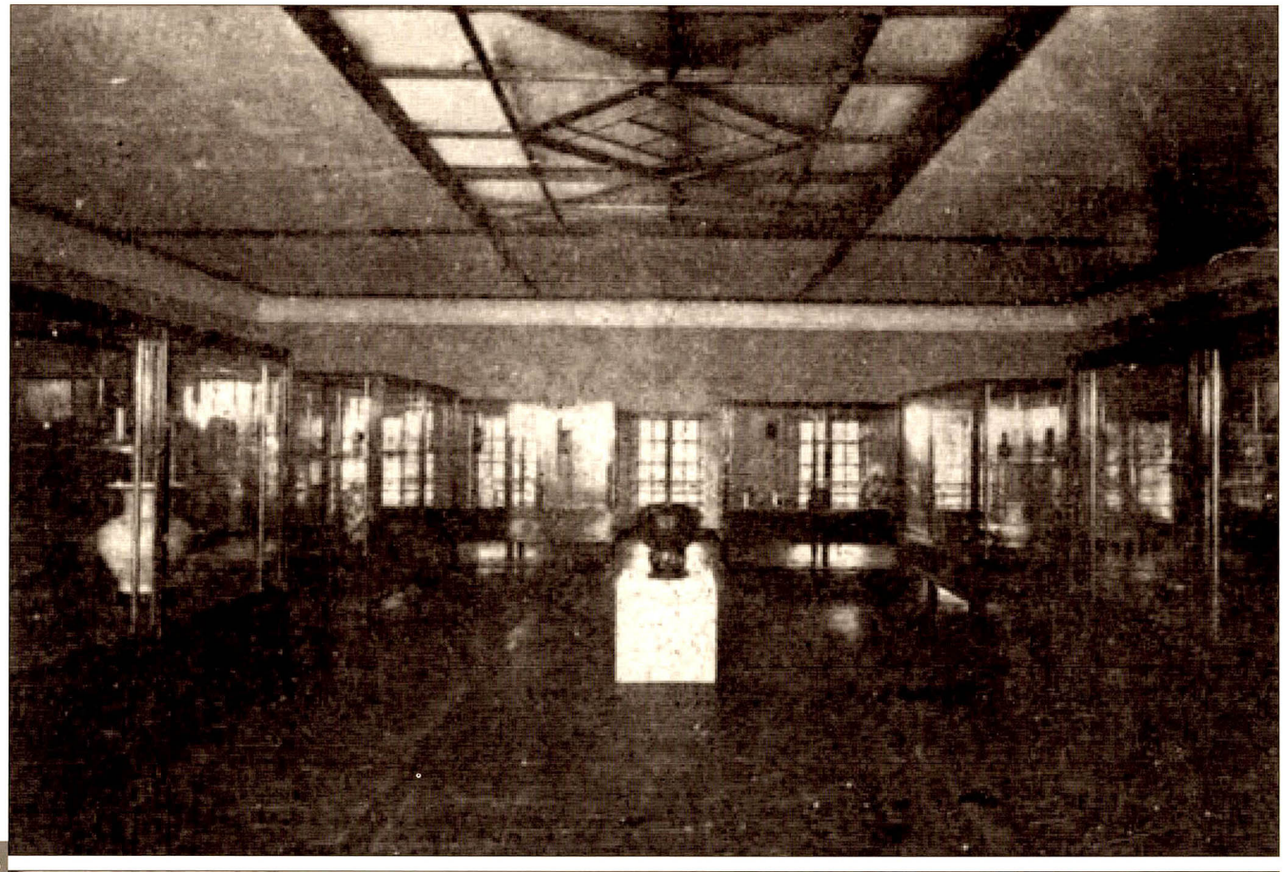
대광간(大廣間),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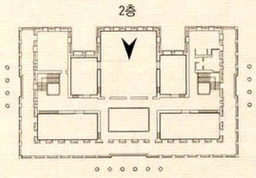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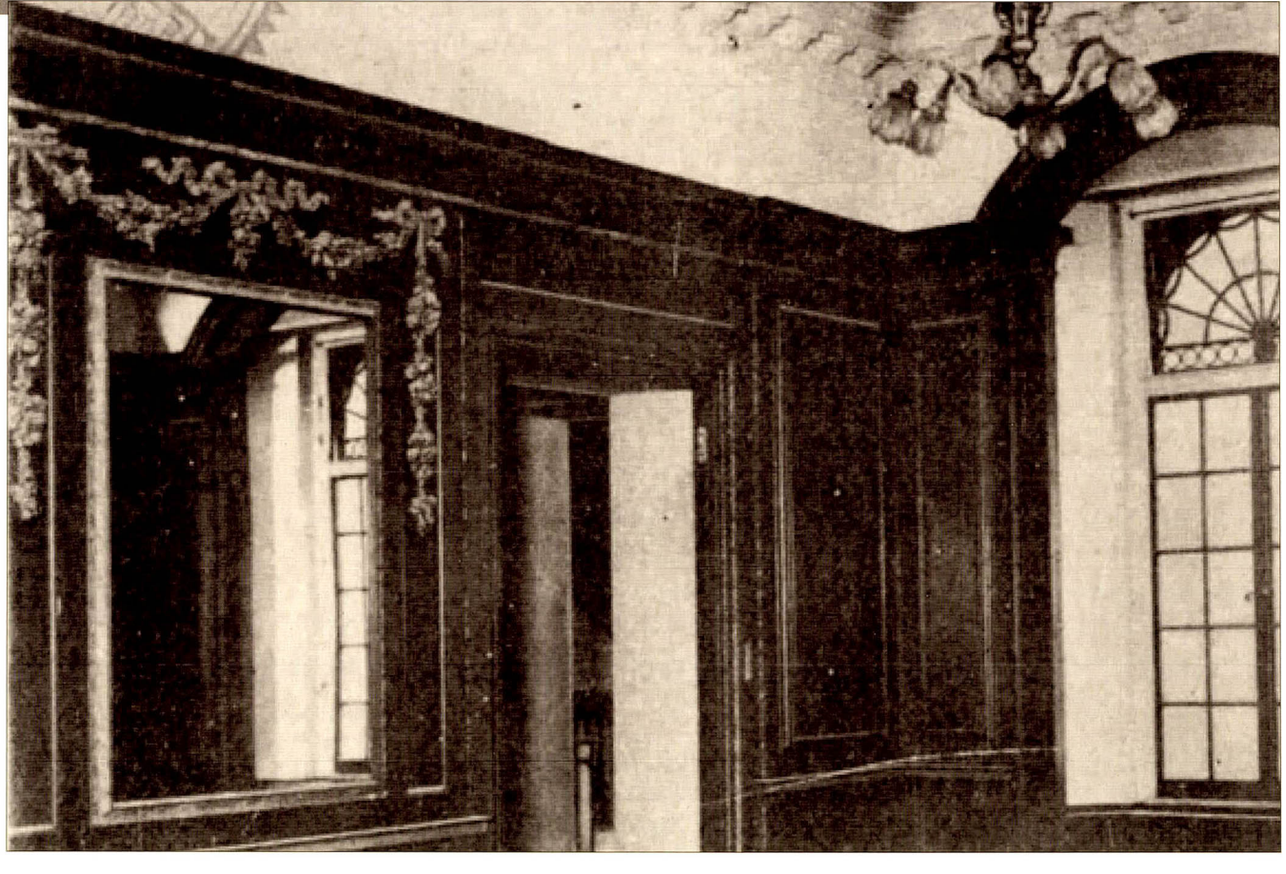
구 알현실(舊謁見室),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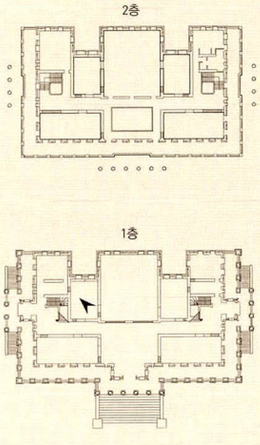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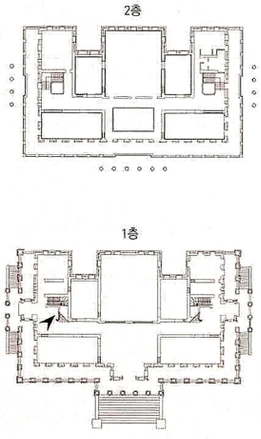


구 어거간 및 어침실(舊御居間及御寢室),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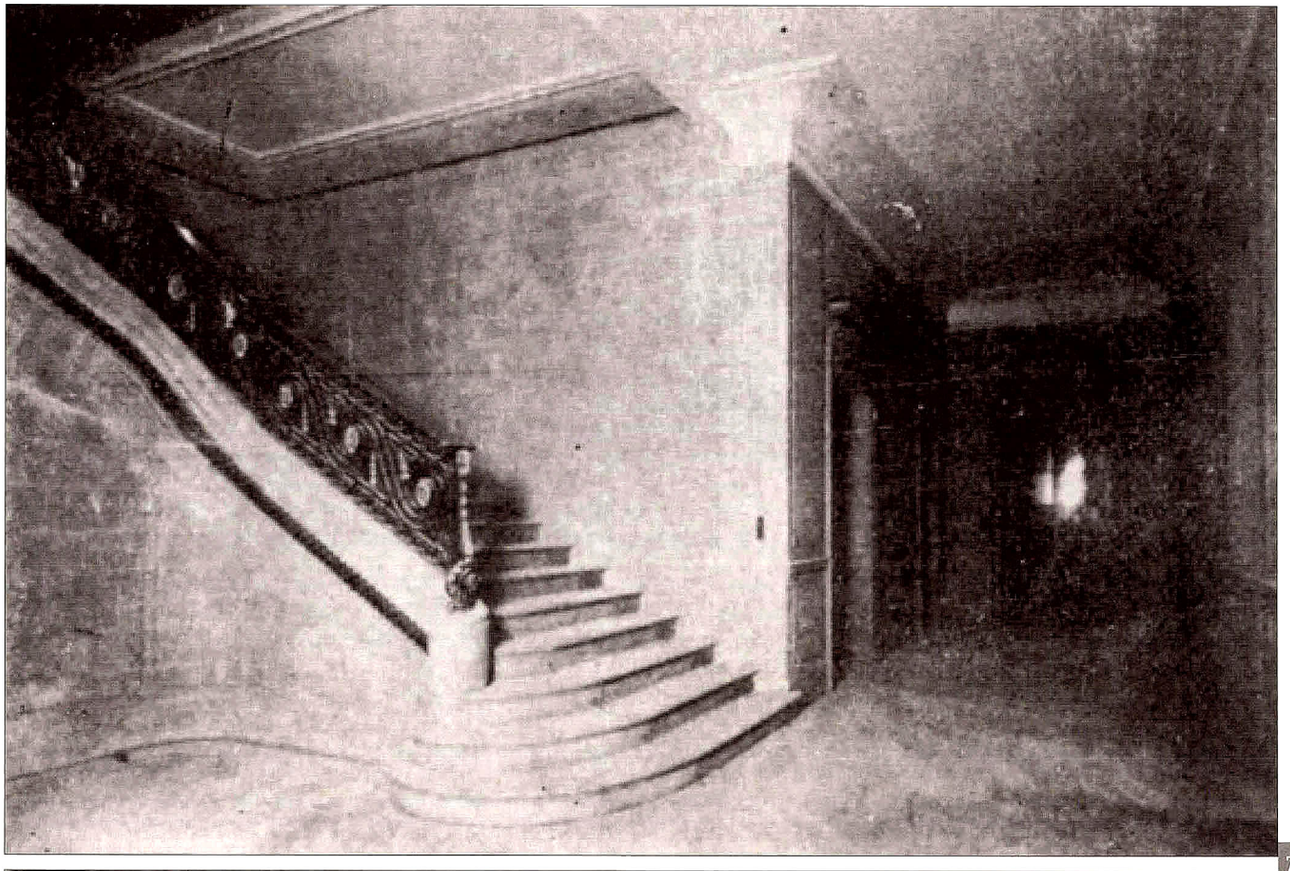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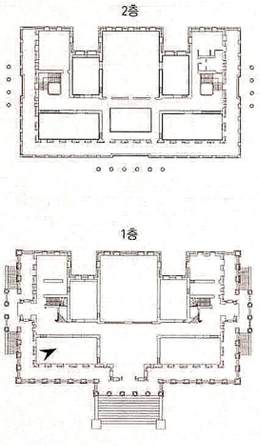


소식당(小食堂),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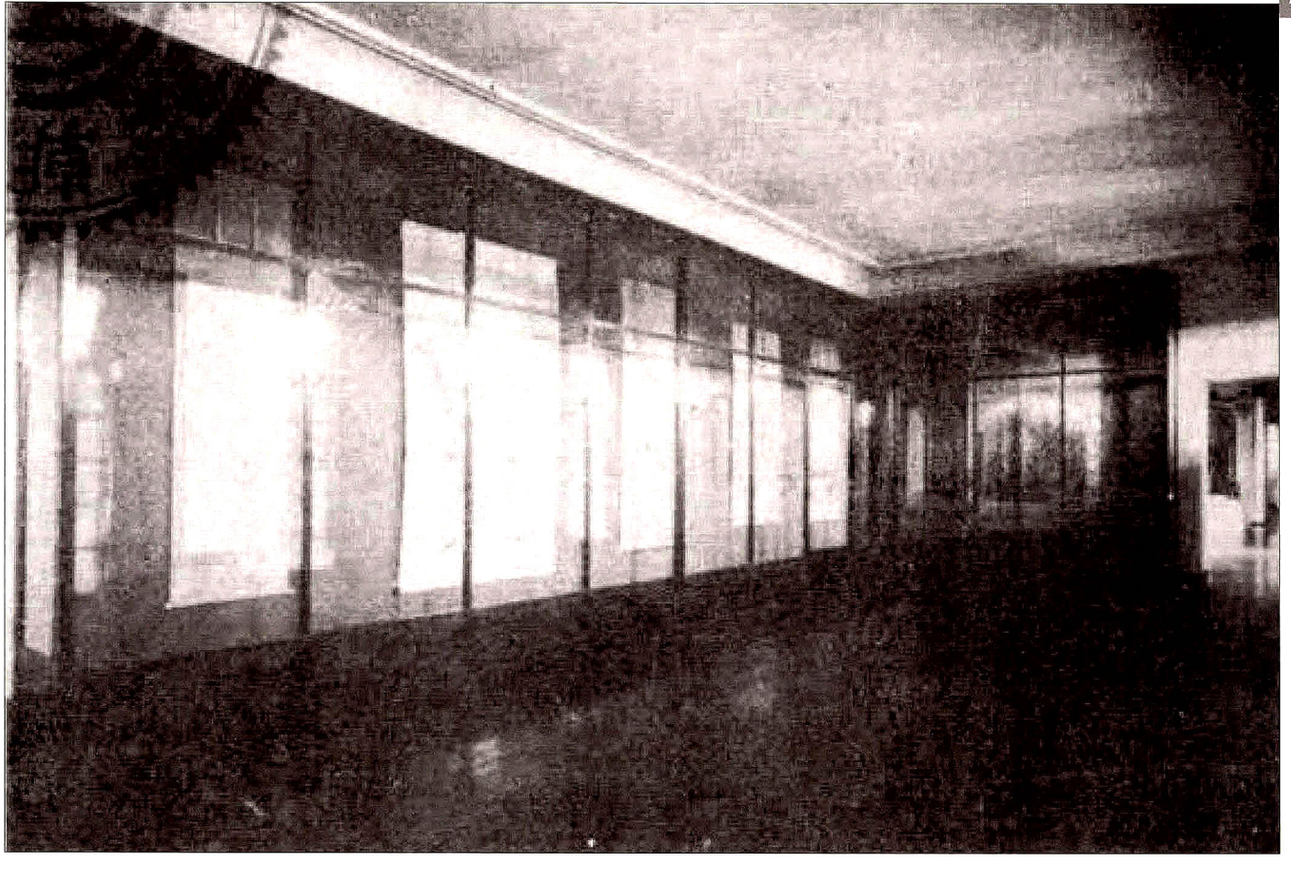


계단실(階段室),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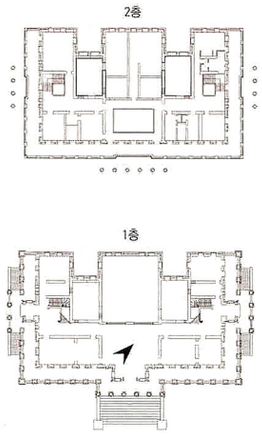




구 귀빈식당(舊貴賓食堂), 1933년,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조선건축학회, 193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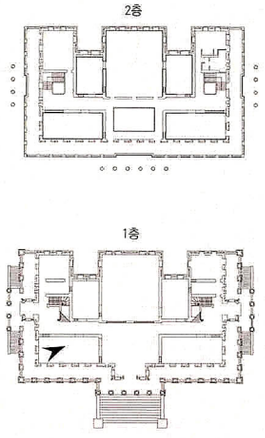


석조전전면(石造殿の前面), 1934년, 『조선(朝鮮)』 제234호(조선총독부, 193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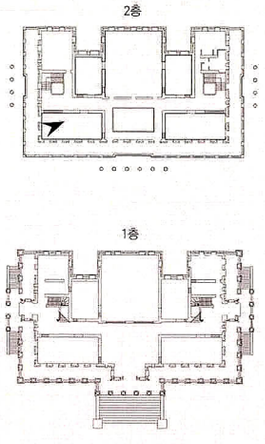


석조전내부(石造殿の內部), 1934년,
『조선(朝鮮)』 제234호(조선총독부, 193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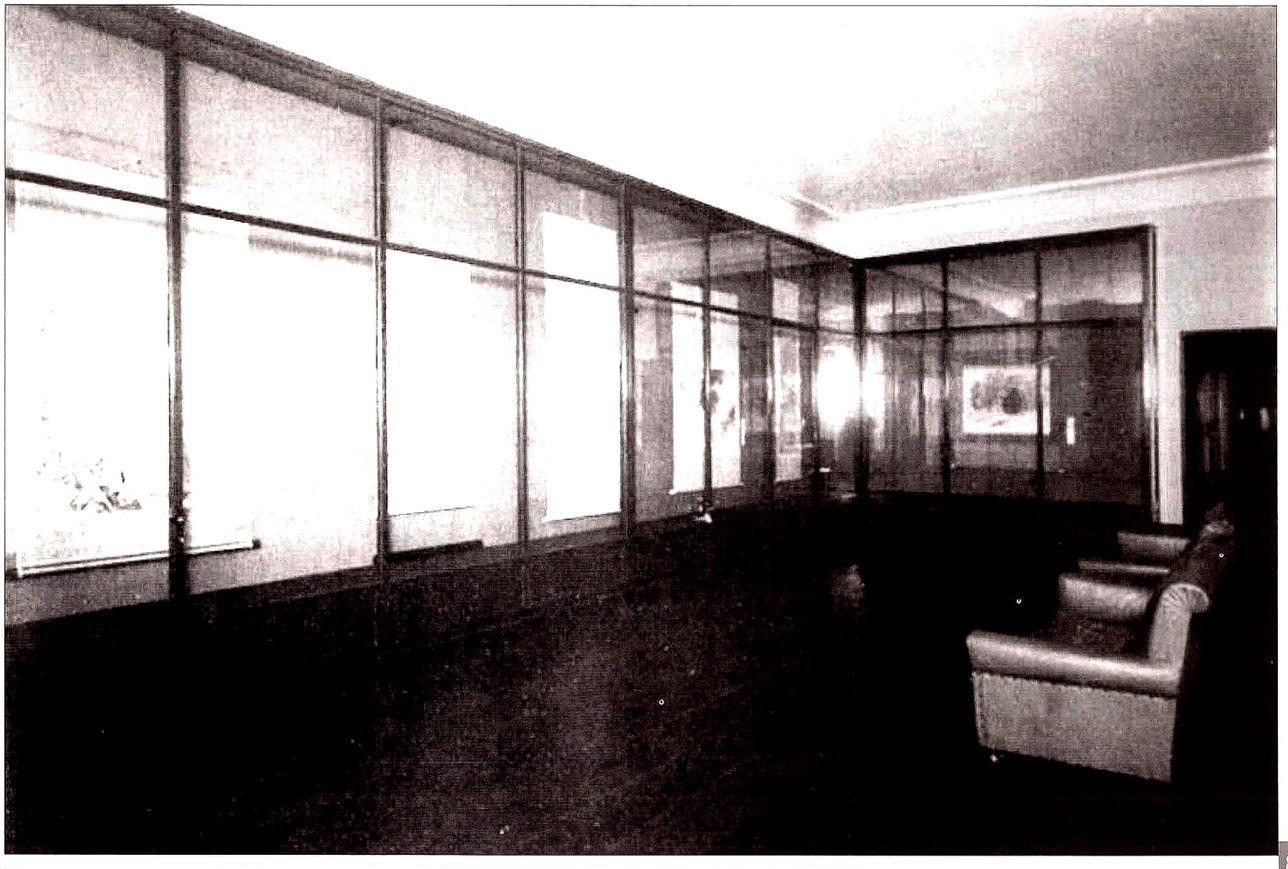
미술관 구관(美術館舊館),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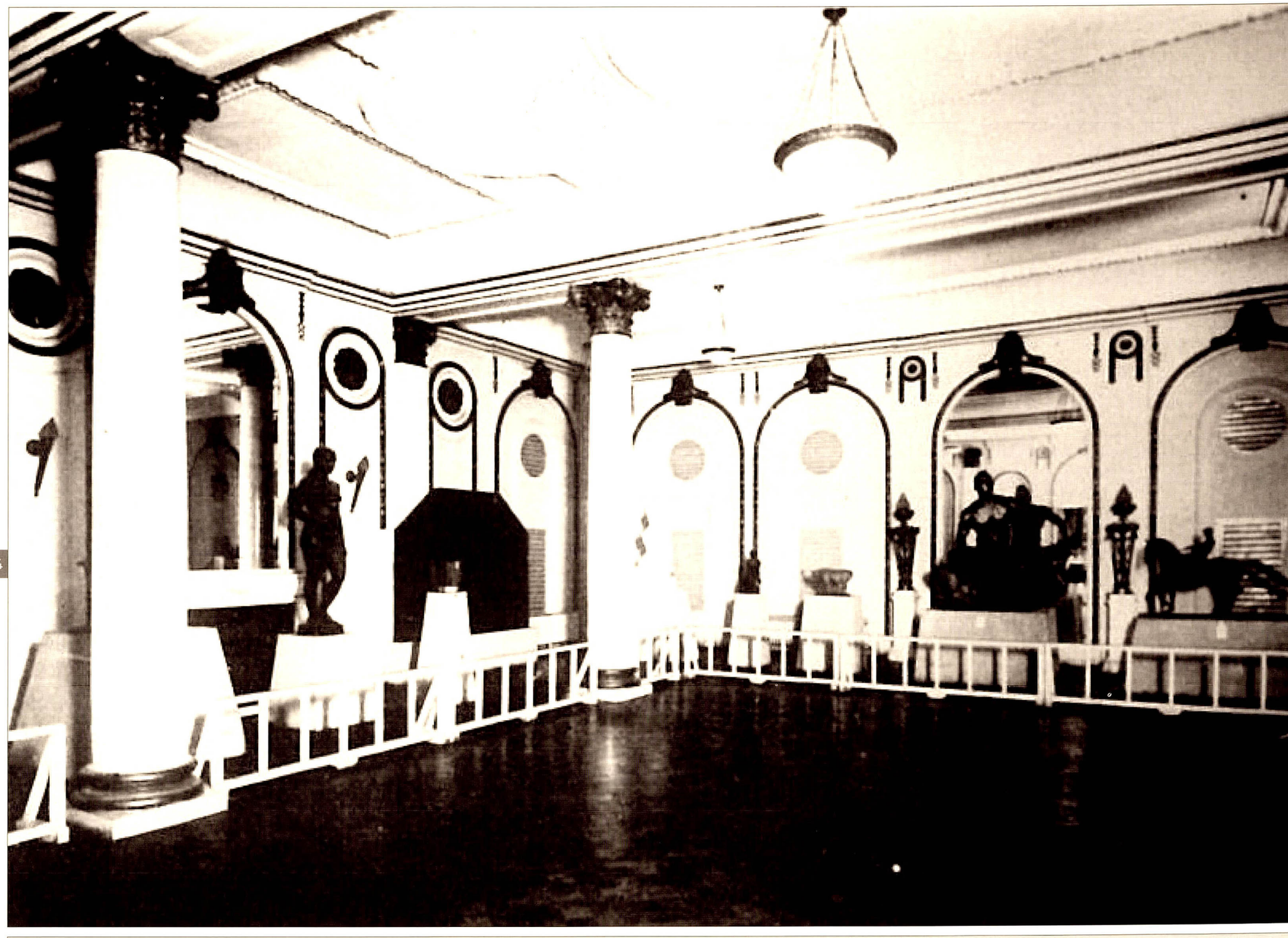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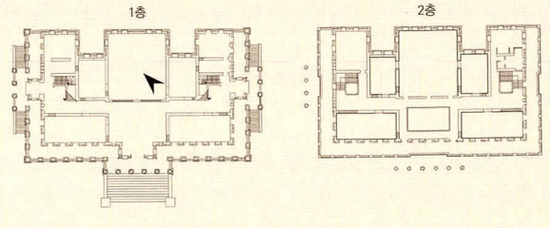
구관 일본화 진열실(舊館日本畵陳列室),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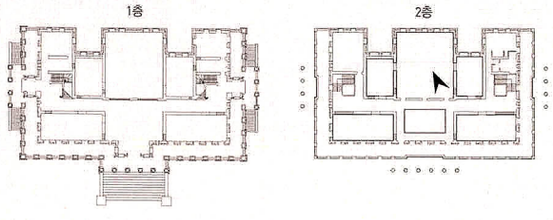
구관 서양화 진열실(舊館西洋畵陳列室),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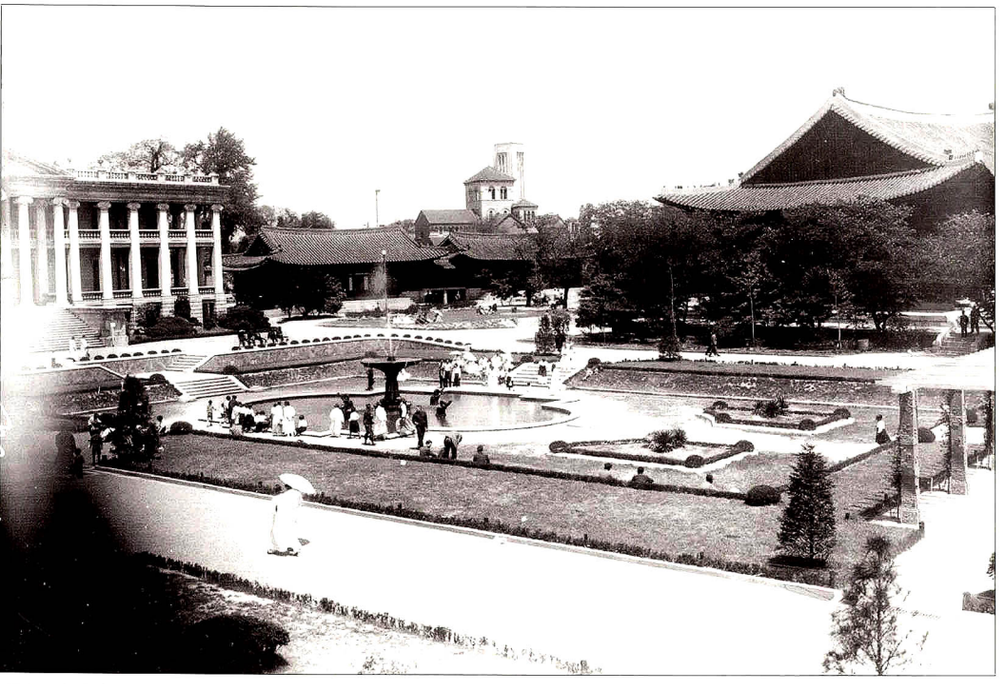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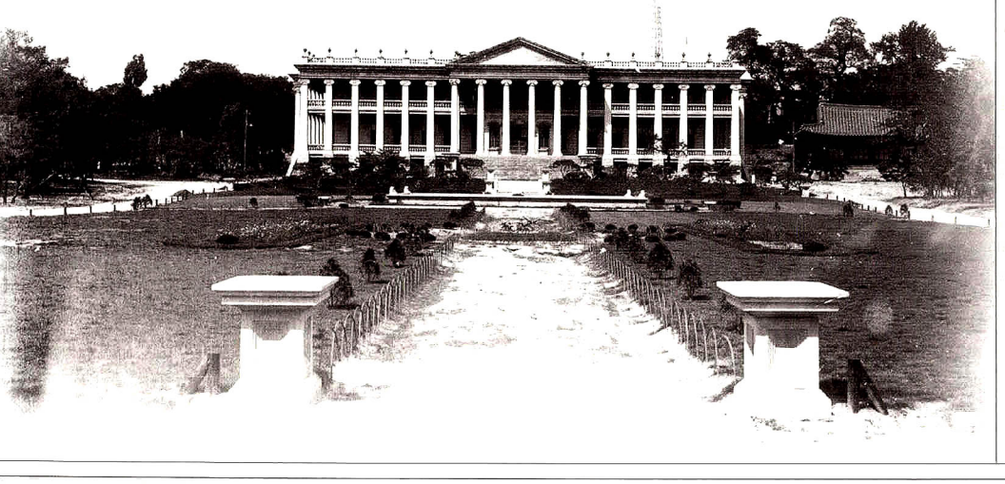
구관 조각 진열실(舊館彫刻陳列室),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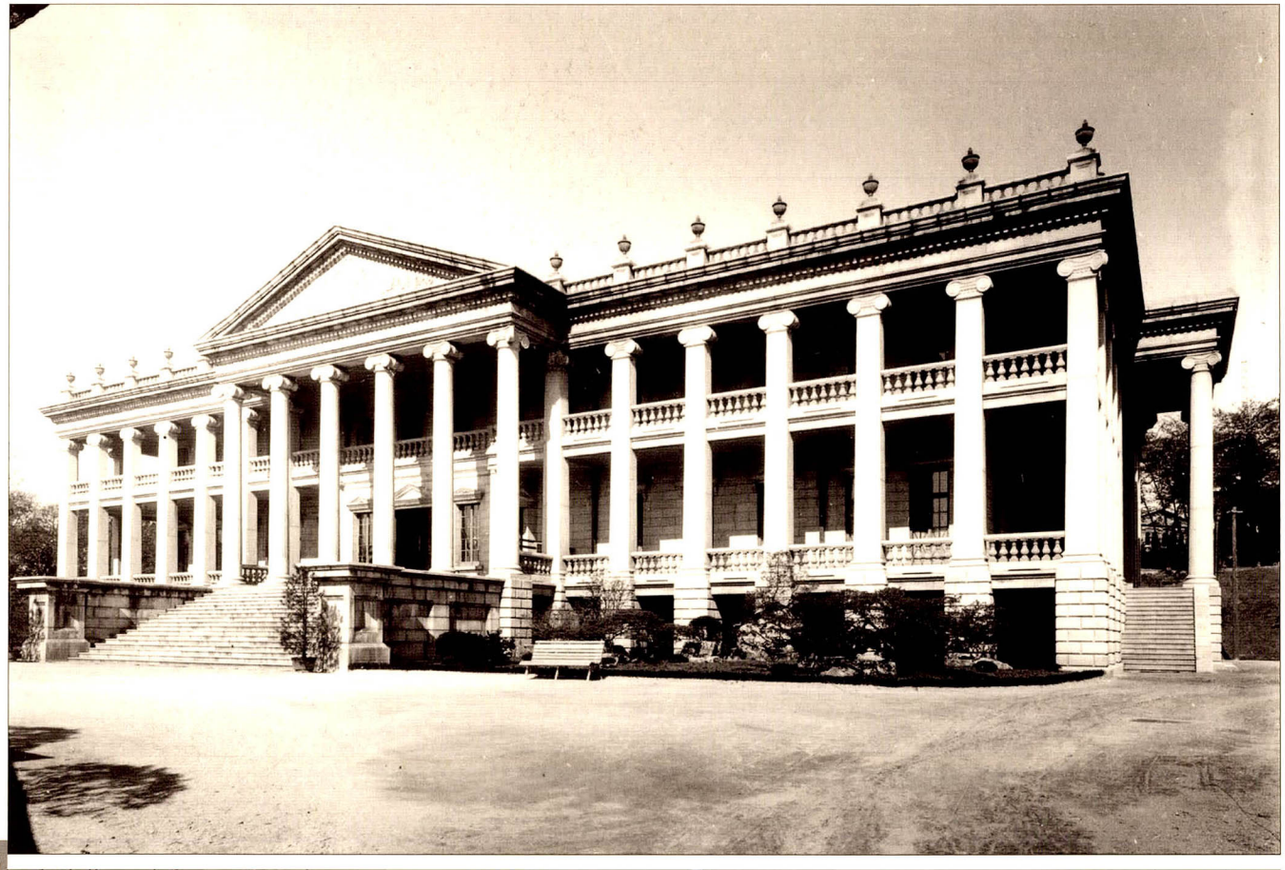
구관 공예품 진열실(舊館工藝品陳列室),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년 6월 5일)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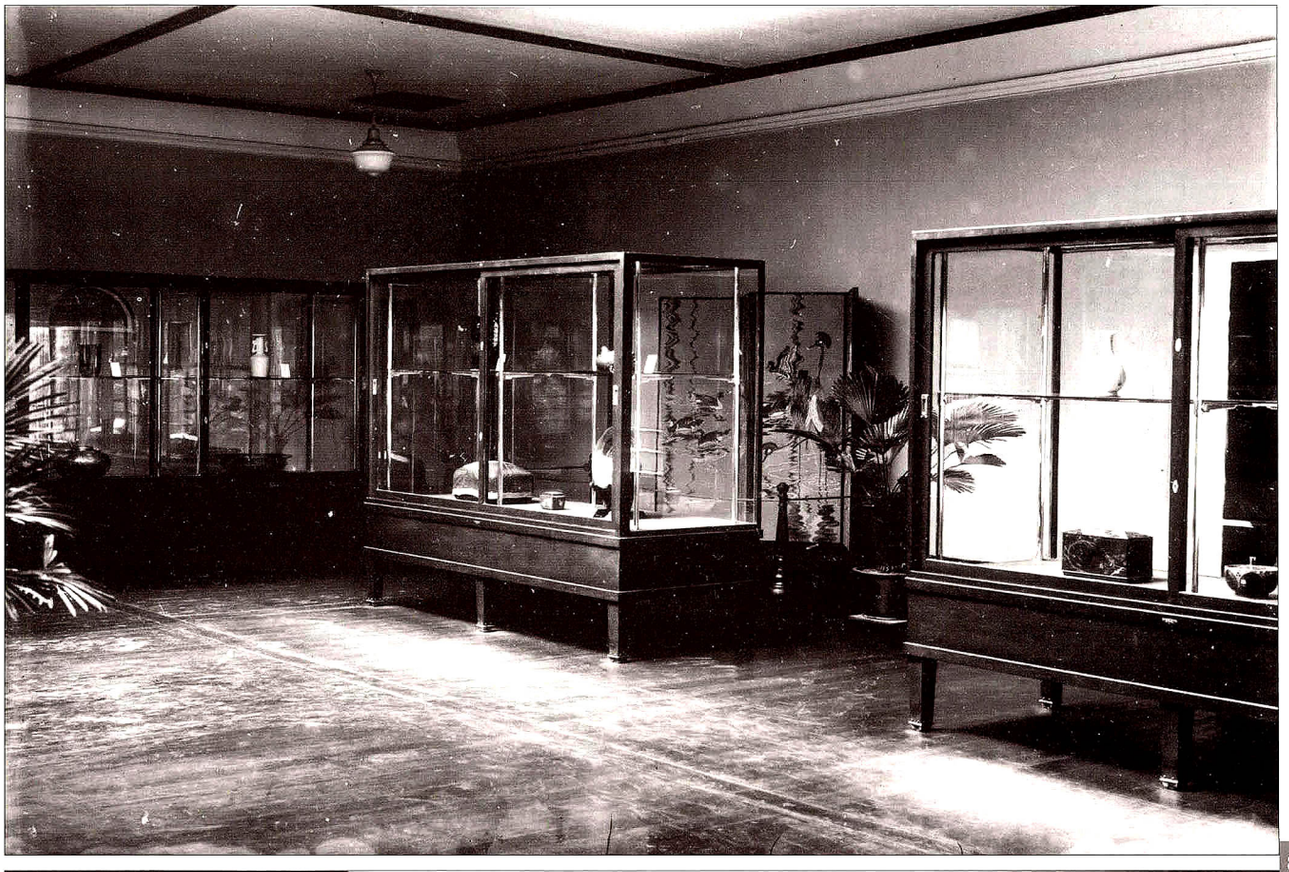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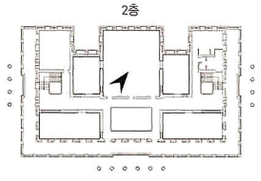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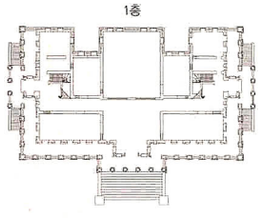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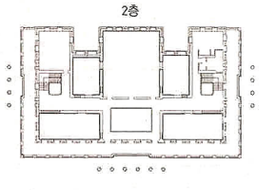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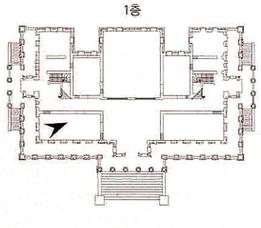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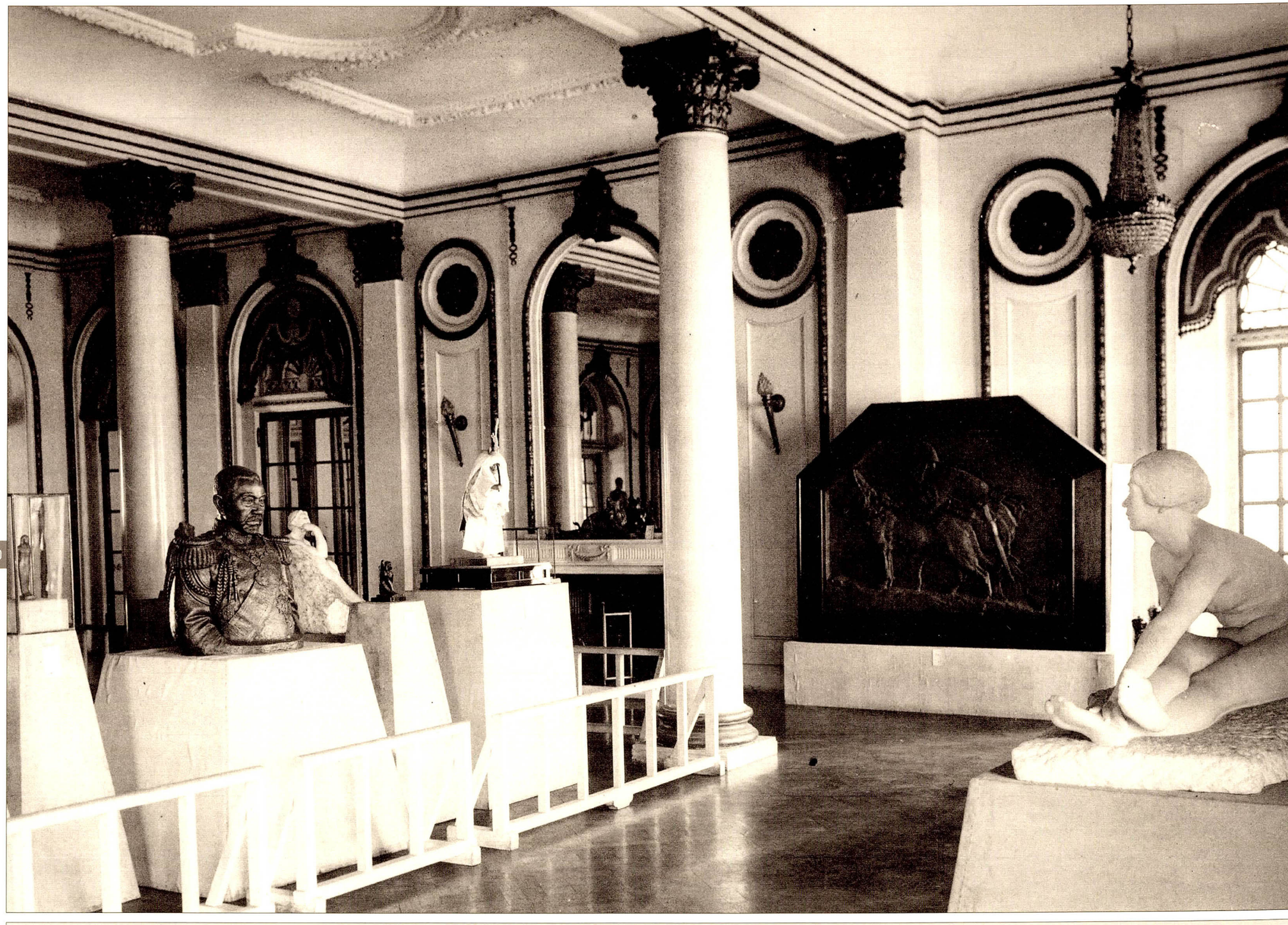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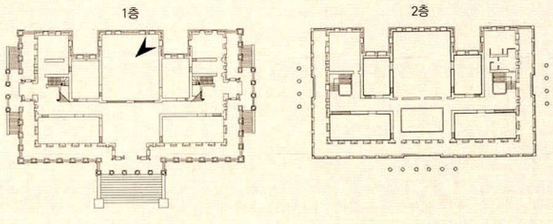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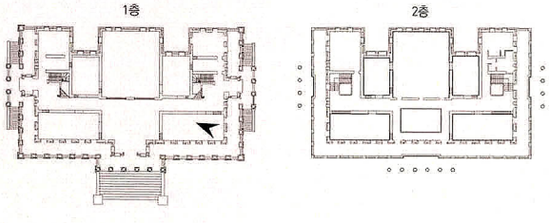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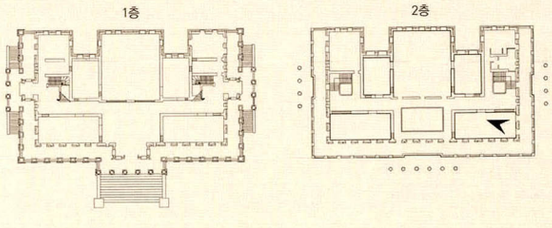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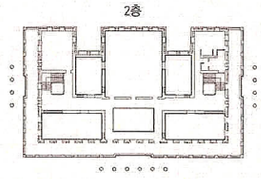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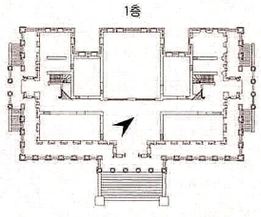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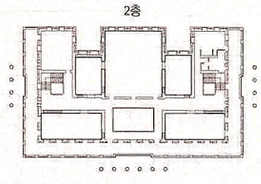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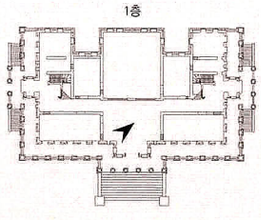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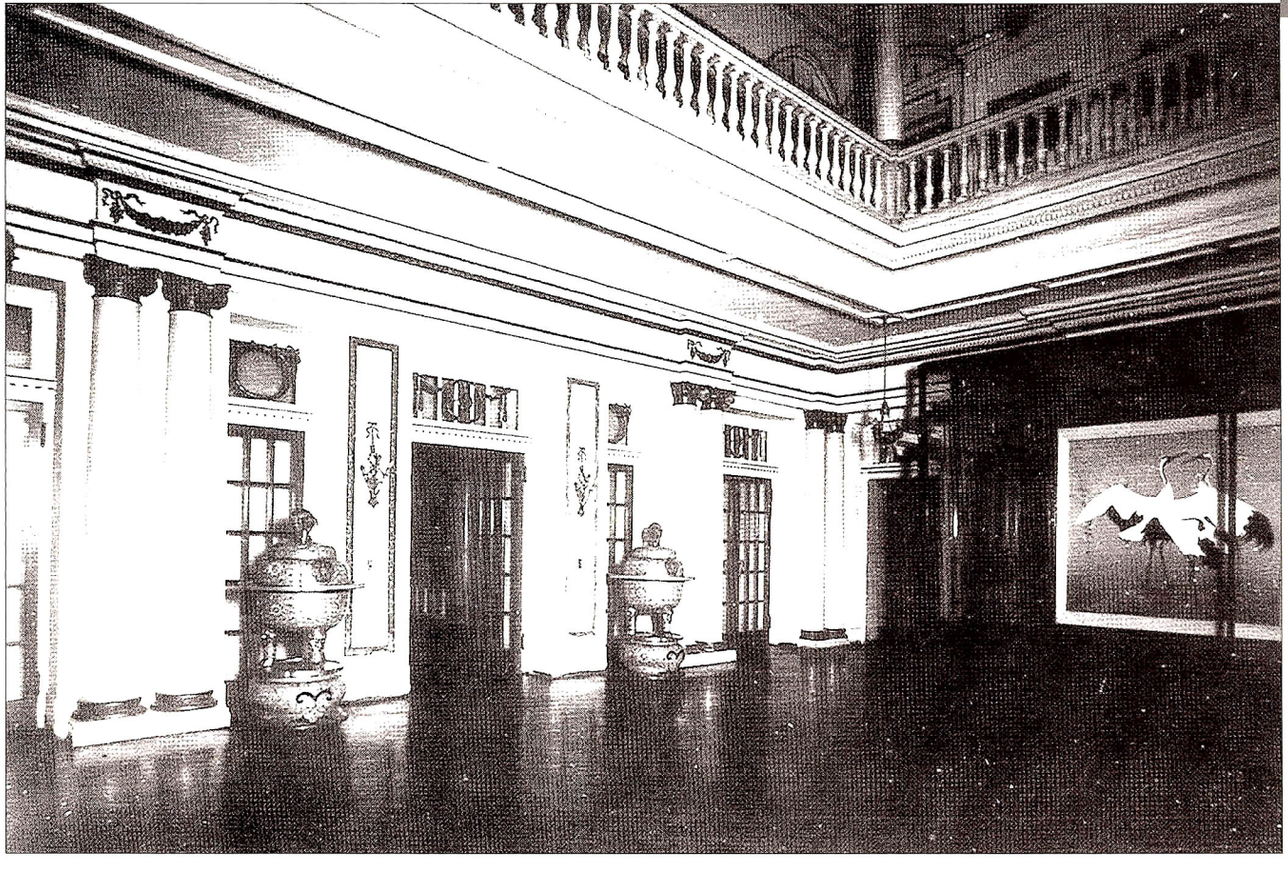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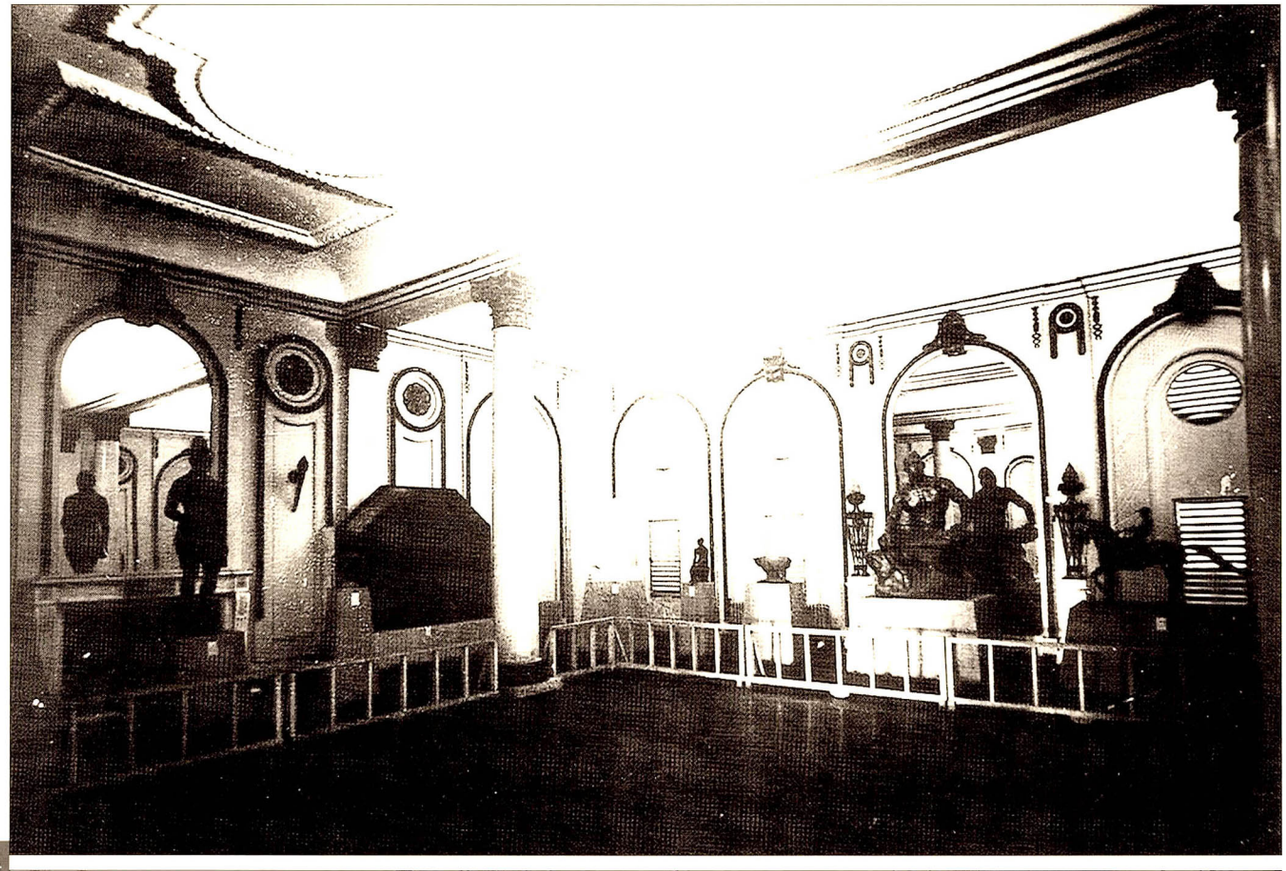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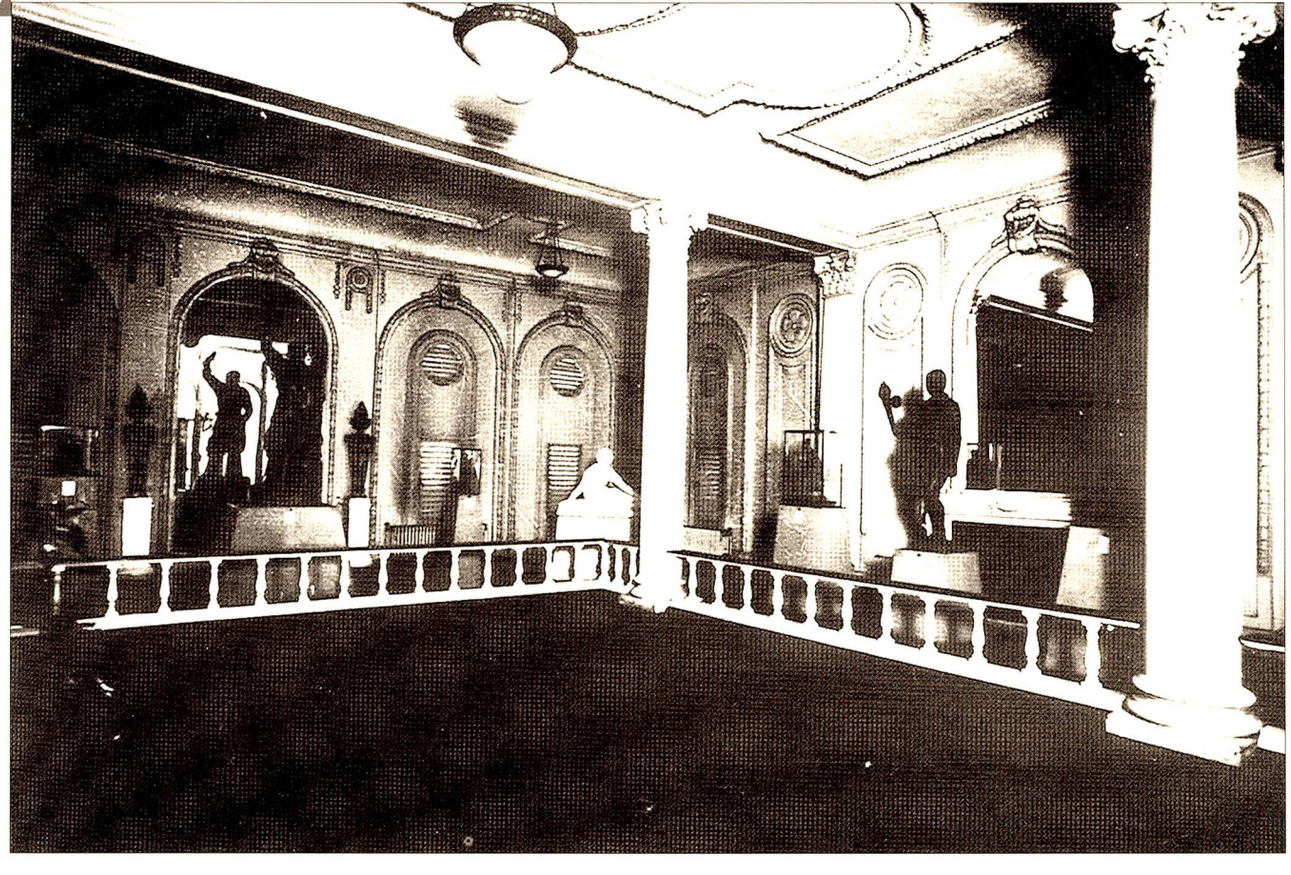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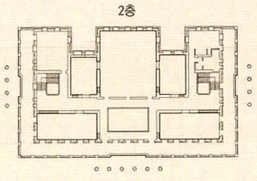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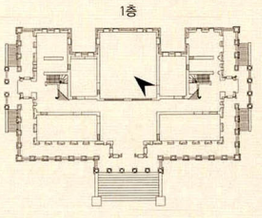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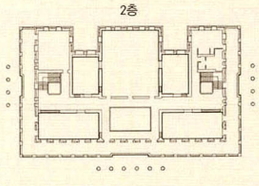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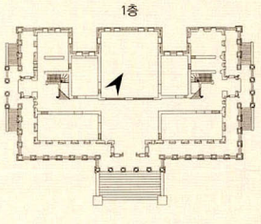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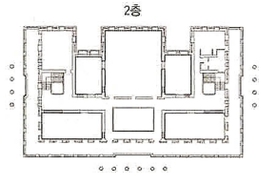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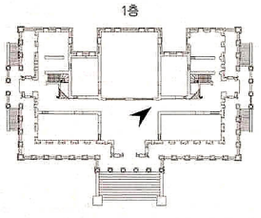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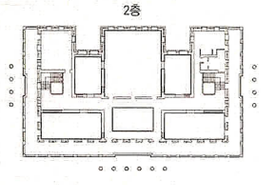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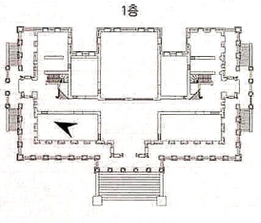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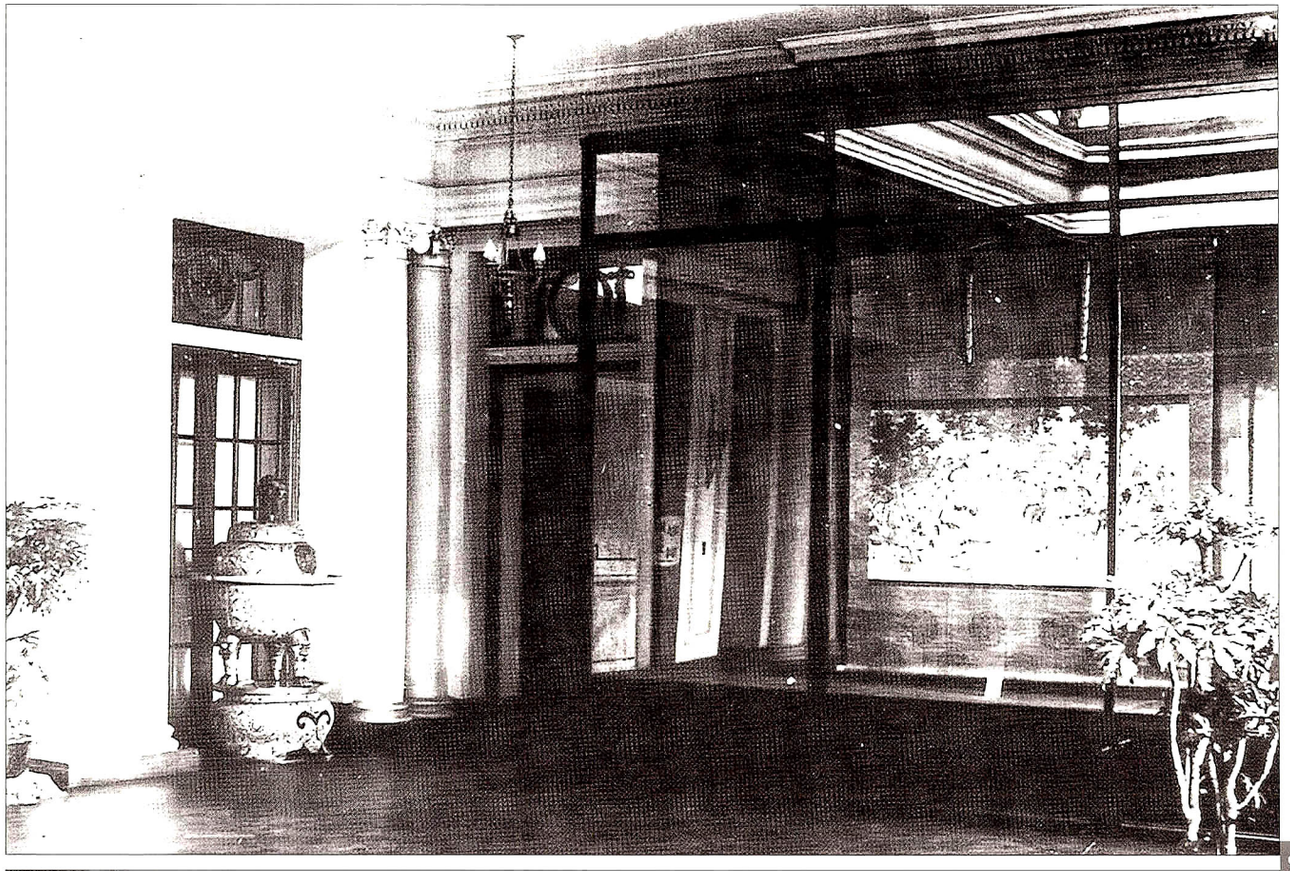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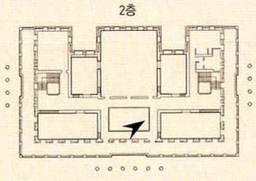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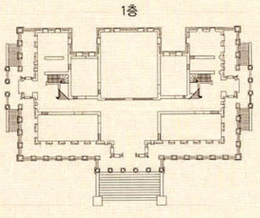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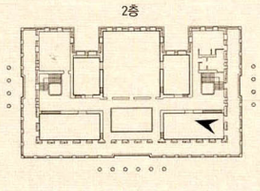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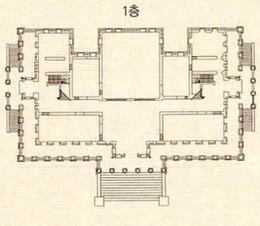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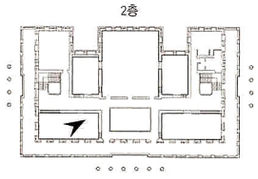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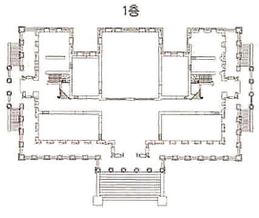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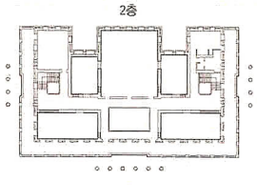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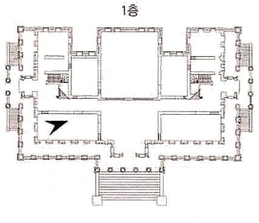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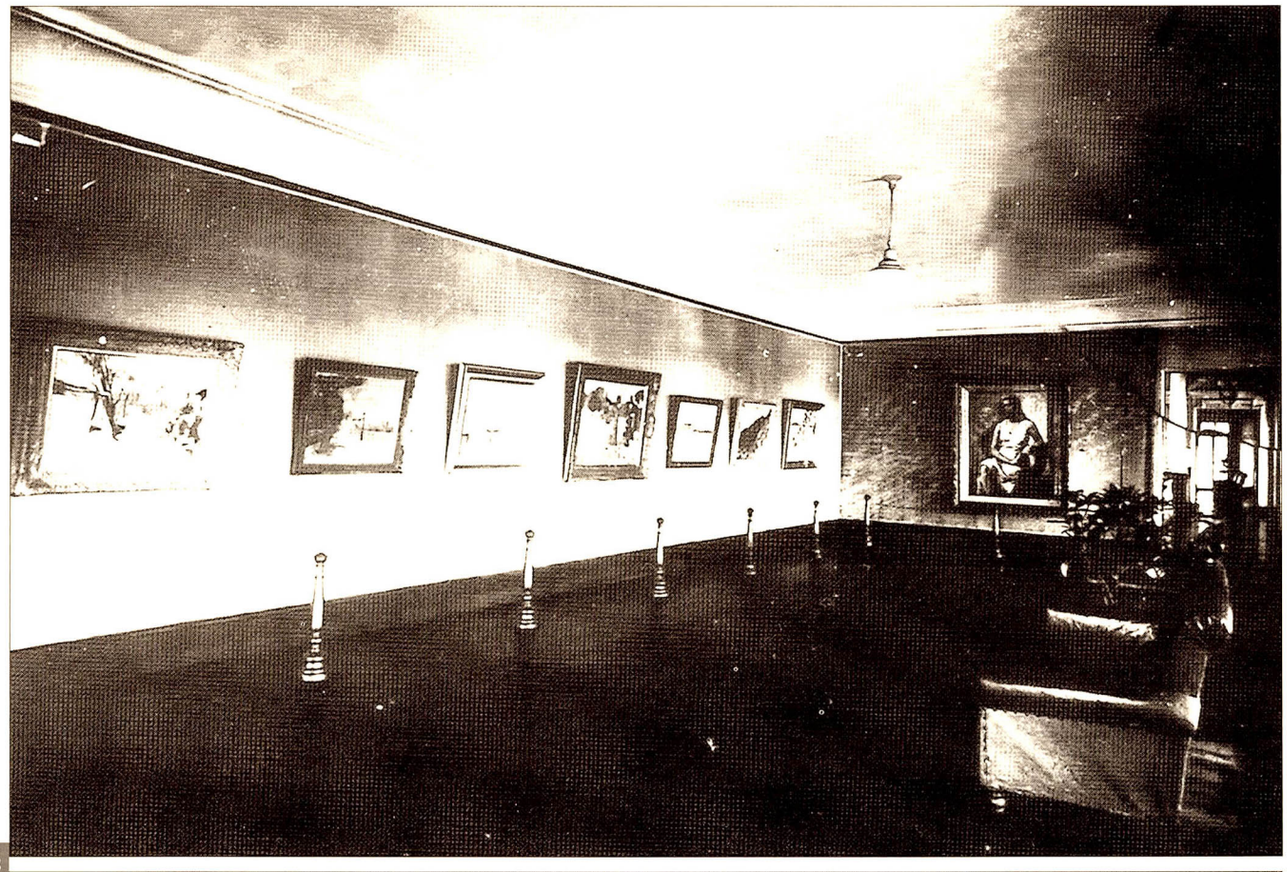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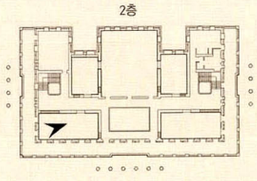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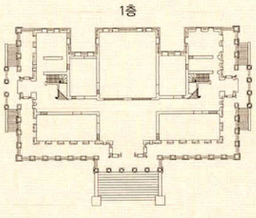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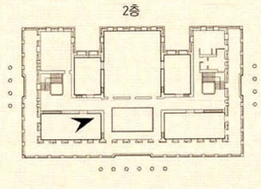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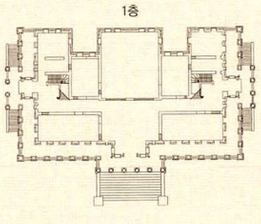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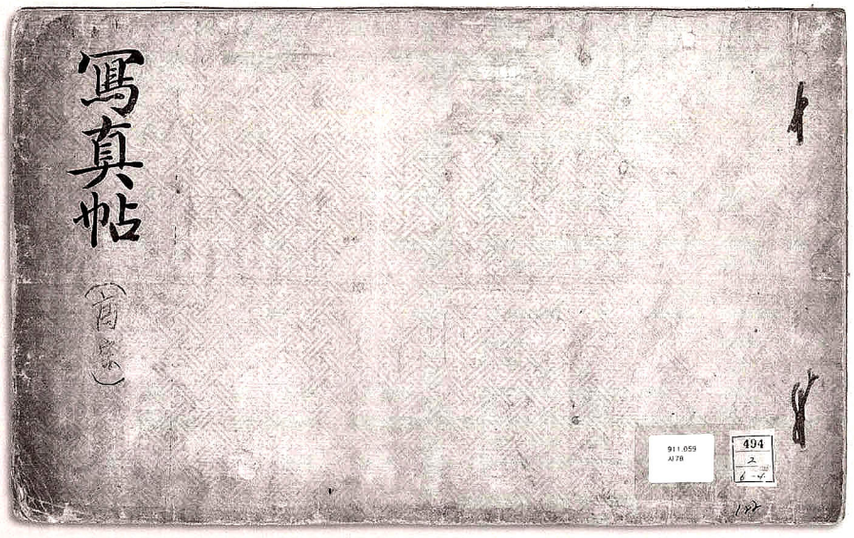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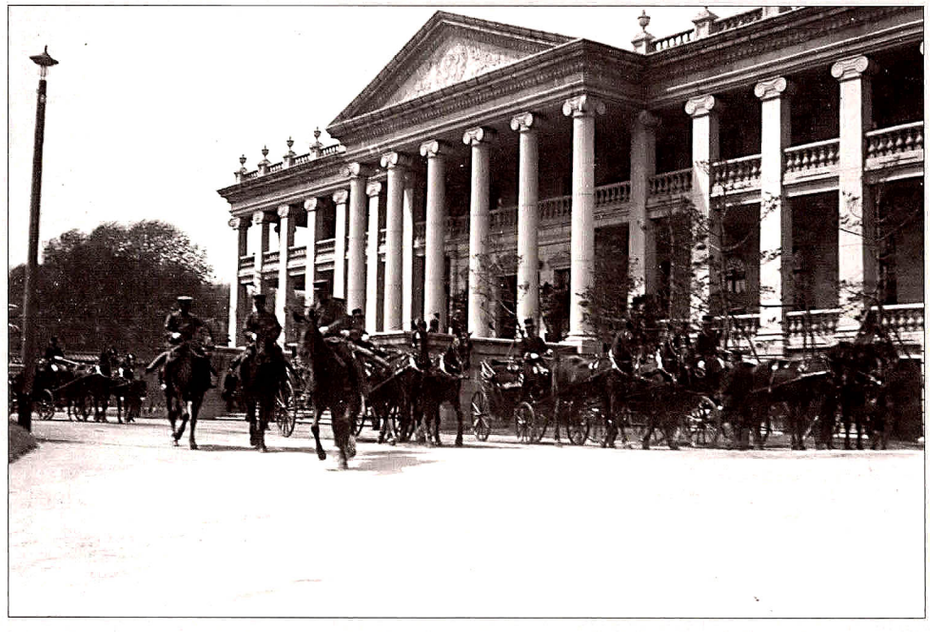






유리원판, 1938년,
『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문화재청,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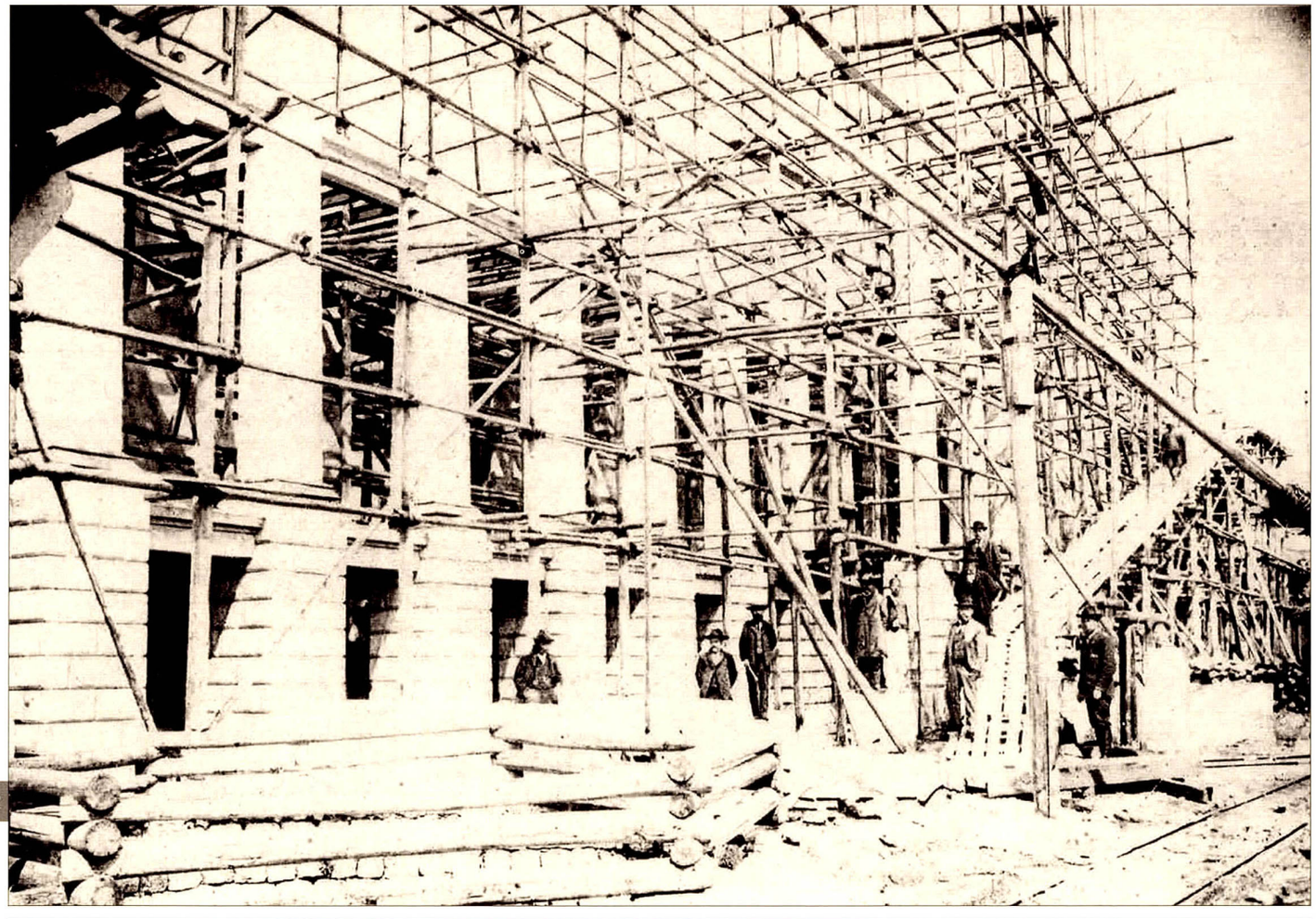


사진첩(고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사진첩(고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조선명승기(朝鮮名勝記)』(1910년)

신황성경운궁(新皇城慶運宮), 1902년~1904년 추정,
『2012국립대구박물관특별전-근대를 향한 비상 대한제국』(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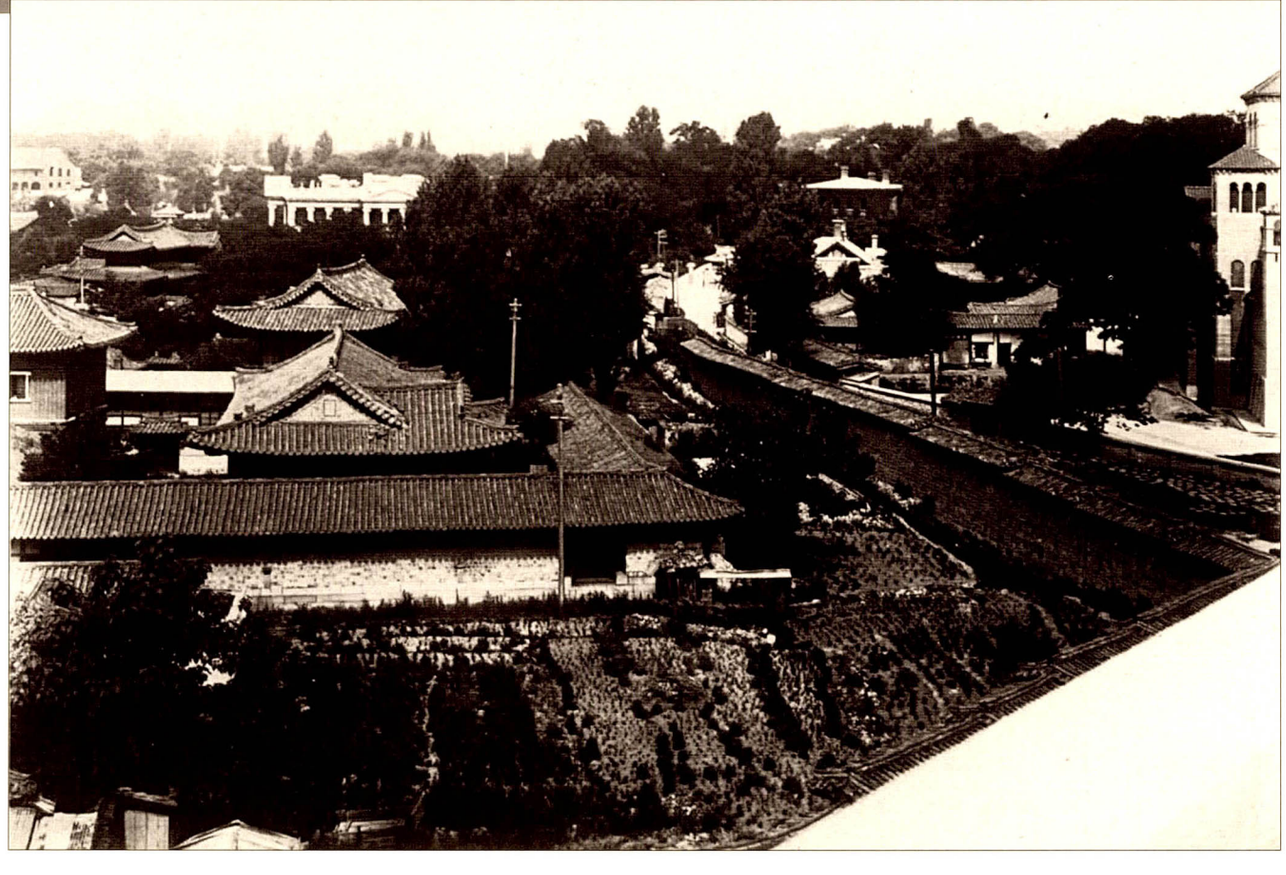
한국의 건축현장(韓國の殿造リ), 1905년,
『건축잡지(建築雜誌)』(1905년 6월)

『선철연선 명소사적 미술대관(鮮鐵沿線明所史蹟美術大觀)』
(만선출판협회, 19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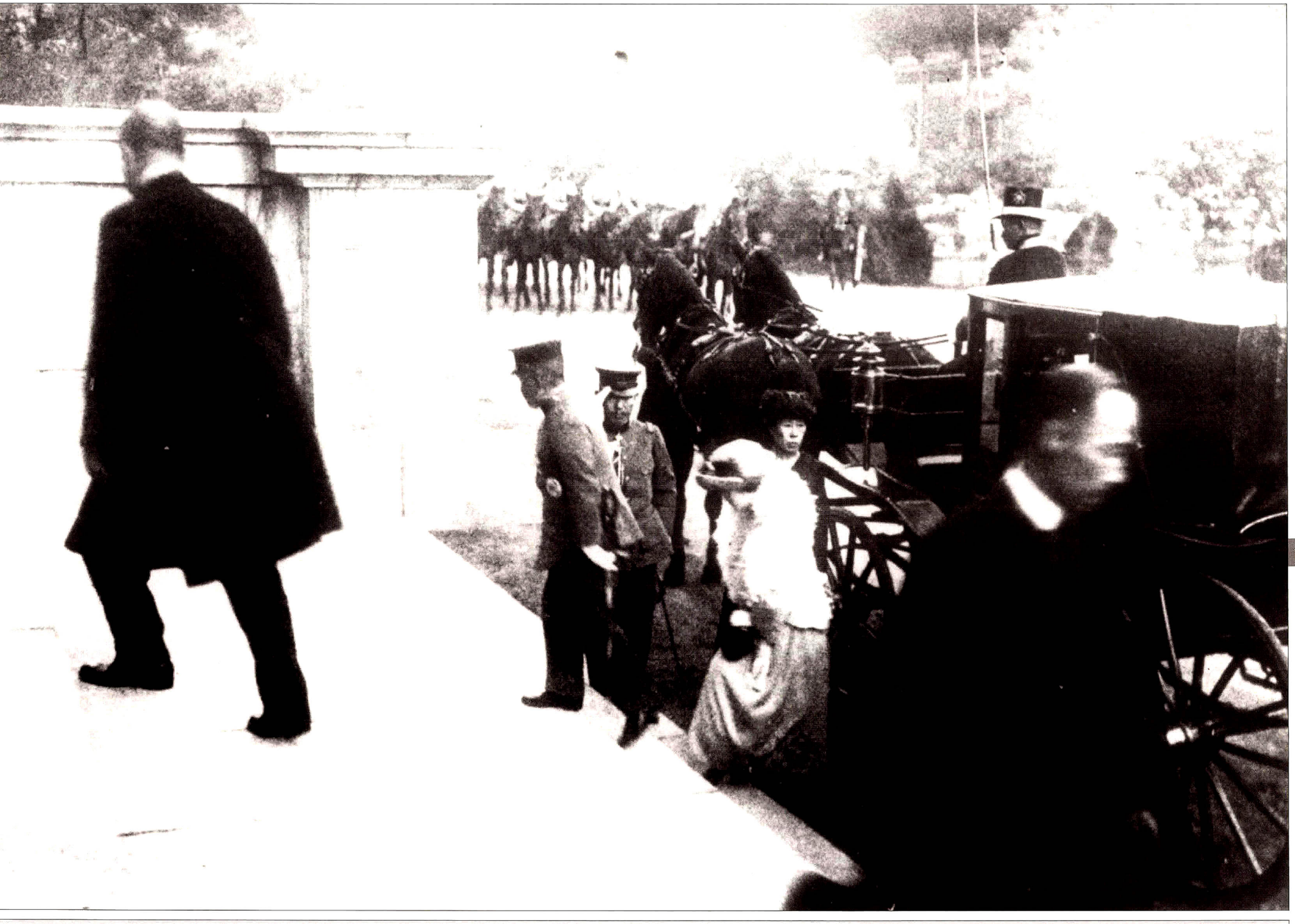
석조전(石造殿), 1907~1910년 추정,
『일본궁내청소장 창덕궁사진첩』(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6년)

석조전 정원(石造殿 庭園), 1907~1910년 추정,
『일본궁내청소장 창덕궁사진첩』(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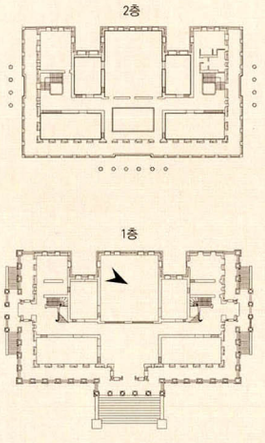
석조전 전경,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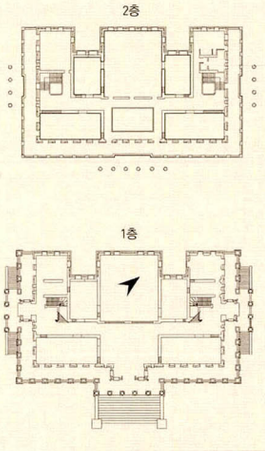
덕수궁 전경,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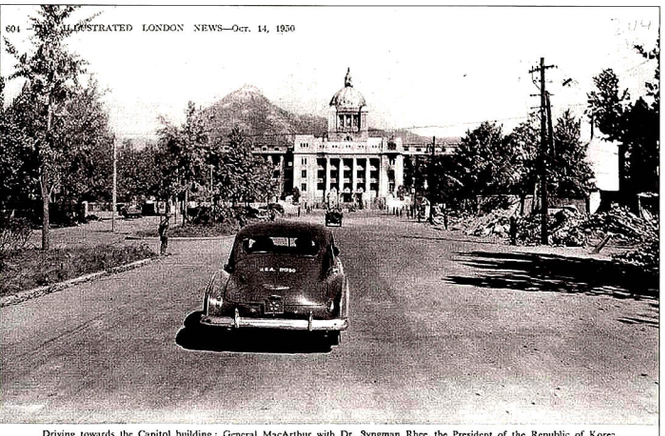
석조전에 들어서는 영친왕과 이방자여사, 1922년, 강석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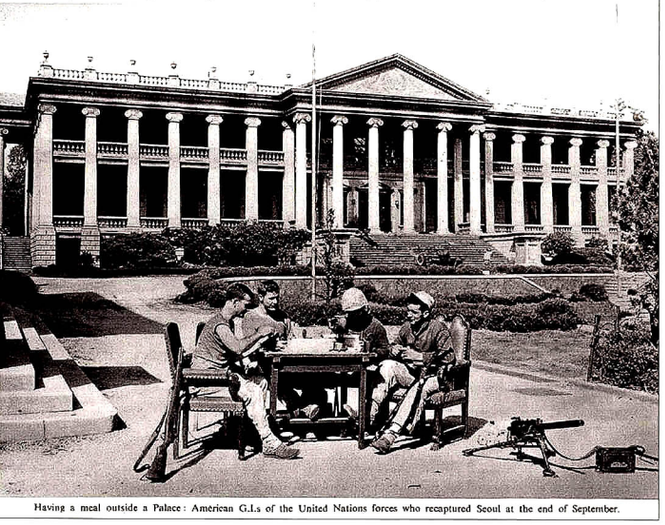
LIFE지, 1947년 5월 1일



미소공동위원회, 1948년 2월 20일, 국가기록원 소장



Driving towards the Capitol building: General MacArthur with Dr. Syngman Rhe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a meal outside a Palace: American G.I.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who recaptured Seoul at the end of September.

Having a meal outside a Palace, 1950년,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1950년 10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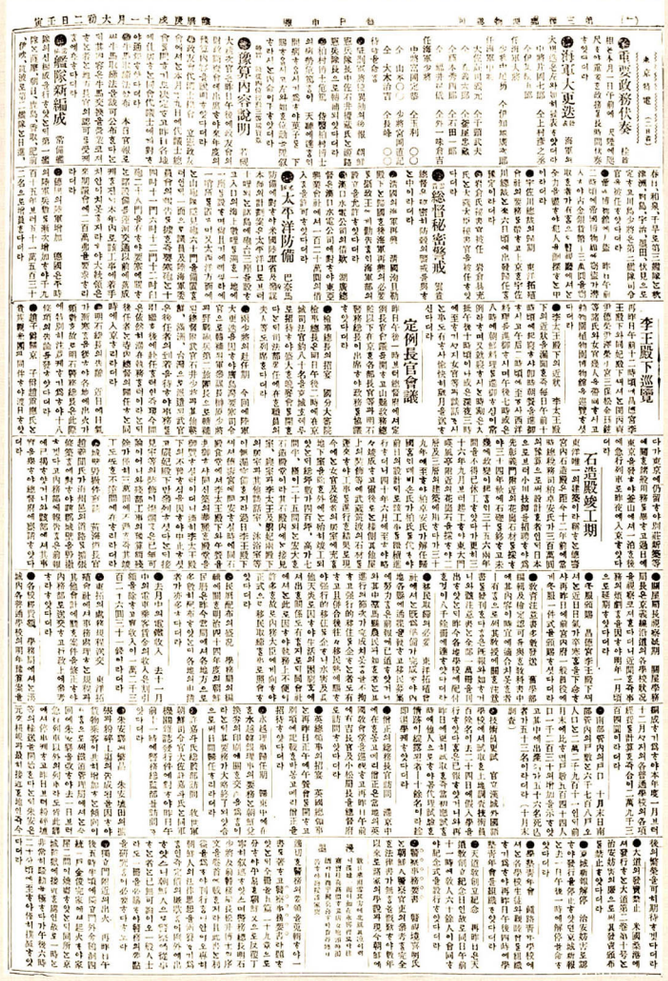
신문, 잡지류, 기타 석조전 복원자료

III

- 매일신보
- 건축잡지(建築雜誌)
- 건축세계(建築世界)
-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 덕수궁사(德壽宮史)
-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
- 대성건설사사(大成建設社史)
-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Gertrude Bell Archive)
- 메이플(Messrs Mapls & Co.)사 카달로그

石造殿竣工期

東洋唯一의建築이라稱ᄒᆞᄂᆞᆫ德壽宮內石造殿은距今十二年前에當時總稅務司柏卓安氏가三百萬圓의豫算으로써設計ᄒᆞᆫ者인ᄃᆡ日本으로브터小川技師를招聘ᄒᆞ야爲先彰義門附近의花崗石材를採ᄒᆞ야三十四年秋에石礎를終ᄒᆞ고未幾에政變이起ᄒᆞᆷ의三十五六兩年間을不得已休工ᄒᆞ얏다가更히三十六年九月브터起工ᄒᆞ야東大門暎風亭附近의花崗石을採ᄒᆞ야二層及三層의建築에用ᄒᆞ다가三十九年에至ᄒᆞ야柏卓安氏가解任歸國ᄒᆞᆷ의ᄃᆡ비손氏가柏氏를代ᄒᆞ야前日의設計ᄃᆡ로該工事를繼續進行ᄒᆞ더니四十年六月에至ᄒᆞ야略々竣成ᄒᆞ고爾後로ᄂᆞᆫ椽側其他屋上의裝飾等에武藏築波의石材를運來ᄒᆞ야工事를進行ᄒᆞᆫ結果로現今에ᄂᆞᆫ女官及從者의居室에充ᄒᆞᆷ地下室을除ᄒᆞᆫ外에ᄂᆞᆫ殆히竣工되얏ᄂᆞᆫᄃᆡ總坪數가四百坪、高가七間半、橫이二十五間되ᄂᆞᆫ宏大ᄒᆞᆫ石造殿堂이라其石殿內에ᄂᆞᆫ接見室、寢室과李太王及嚴妃兩殿下의居室과其他談話室、沐浴室等이無漏完備ᄒᆞᆫ지라過日李王殿下ᄭᅴ셔德壽宮에問安ᄒᆞ실時에同石殿食堂에셔李太王殿下와午餐을共御ᄒᆞ샤同新築의華麗ᄒᆞᆫ殿堂을御覽ᄒᆞ실ᄃᆡ터이ᄃᆡ니適히李太王殿下의不豫ᄒᆞ심을因ᄒᆞ야中止ᄒᆞ셧고嚴妃殿下만參列ᄒᆞ셧다ᄂᆞᆫᄃᆡ接見室等의裝飾이燦爛ᄒᆞᆫ은已無可論이어니와殘部工事의豫算額殘餘가僅히三萬圓에不過ᄒᆞᆫ즉其竣工도또ᄒᆞᆫ不遠間에在ᄒᆞ리라더라



석조전 준공기(石造殿竣工期), 『매일신보』(1910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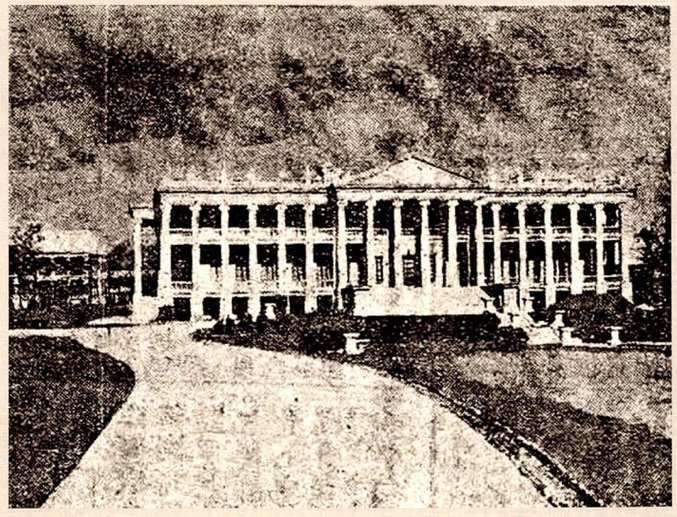
석조전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사이다. 1898년 브라운의 제안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1901년 기초공사, 1906년 구조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내부공사가 이뤄졌다. 높이(7.5間) 및 가로(25間) 길이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이는 석재 기둥열 칸수가 아니고 '1칸=6자'로 길이를 산정한 것이다. 접견실, 침실, 황제거실, 황후거실, 담화실, 목욕실, 식당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원문내용 : '석조전 준공기(石造殿竣工期)'

동양유일(東洋唯一)의 건축이라 칭하는 덕수궁 안 석조전은 12년 전에 당시 총세무사(總稅務司) 柏卓安씨(브라운)가 삼백만원의 예산으로써 설계한 것인데, 일본으로부터 小川(오가와) 기사를 초빙(招聘)하여 창의문 부근의 화강석재를 채굴하여 34년(1901년을 말함) 가을에 석재기단(石礎)을 마치고 미기(未幾)에 정변이 일어나 35, 6년(1902, 1903년을 말함) 두 해간을 부득이 휴공하였다가 다시 36년(1903년을 말함) 9월부터 기공하여 동대문 영풍정(暎風亭) 부근의 화강석을 채취하여 2층 및 3층의 건축에 사용하다가 39년(1906년을 말함)에 이르러 柏卓安씨(브라운)가 해임 귀국하게되어 데비손씨가 柏씨를 대신하여 전일(前日)의 설계대로 당해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니 40년(1907년을 말함) 6월에 이르러 약약준성(略略竣成)하고 이후로는 연측 기타 옥상(椽側 其他 屋上)의 장식(裝飾) 등에 무장축파(武藏築波)의 석재를 운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에는 여관 및 시종(女官 及 從者)의 거실(居室)에 해당할 지하실(地下室)을 제한 외에는 거의 준공되었는데 총평수가 사백평, 높이가 칠칸반(七間半), 가로가 이십오칸(二十五間)되는 웅대한 석조전당(石造殿堂)이라. 이 석전내(石殿內)에는 접견실(接見室), 침실(寢室)과 이태왕(李太王) 및 엄비(嚴妃) 양전하(兩殿下)의 거실(居室)과 기타(其他) 담화실(談話室), 목욕실(沐浴室) 등이 빠짐없이 완비된지라, 지난날 이왕전하께서 덕수궁에 문안하실 때에 이 석전식당(石殿食堂)에서 이태왕 전하와 오찬을 함께하셔 이 신축건물의 화려한 전당을 어람(御覽)하실 터이더니 적(適)히 이태왕 전하의 불예(不豫)하심으로 인하여 중지(中止)하셨고 엄비 전하만 참열(參列) 하셨다는데 접견실 등의 장식이 찬란함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남은 공사의 예산액잔여(豫算殘餘)가 근(僅)히 삼만원(三萬圓)에 불과한 즉 이 준공도 또한 머지않아 있으리라더라.

덕수궁 석조전(德壽宮石造殿)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12년 8월 8일)

매일신보에는 석조전 관련 사진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1912년 8월 8일에는 조경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경사진이 게재되었다. '今上陛下(일본천황)의 御聖德' 특별기사 하단에 첨부사진으로 덕수궁 석조전 전경이 삽입되어 있다.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15년 4월 8일)

매일신보에는 석조전 관련 사진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1915년 4월 8일에도 이전과 비슷한 각도에서의 석조전 전경이 실려 있다. 사진 캡션은 '德壽宮內의 春(石造殿의 全景)이다.

御殿의修理와諸設備

도착하실때까지에완성됨

八工夫二,火夫一給仕一

◇會計係 事務官井世鏞(勲官六,雇員二,傭人二,自動車運轉手,外雜役馬丁若干)

◇祭祀係(御告祭) 事務官金東完(主任)事務官李源昇,典祀申圭善

屬官三,典祀補二,守僕八,仕丁四

列車乘客을滿載

눈치雪中에埋沒

뉘디각디의머칠회

동경뎐보에의하즉 동회도쵝「東海道線」미원머원「米原大垣」간은 칠월밤이릐로 폭풍셜이심하야 쳑셜오쳑이상에달하얏스며 맛춤닉 렬챠를불동케하얏든닉 목하그두뎡거장 사이에진릐유무되야잇스렬챠가다셧렬챠에밋쳣고뎐부승직을만저눈치도잇셔각뎡거장에셔는승직을 다시 눈치여내기위하야 복돗,北陸」관쳘「鹿越」신쳘「信越」의 각셧도다불동되는곳이만흐닉뎐업던 큰셜히를 당하는듸어더라

仁寺洞에火災

御殿의修理와諸設備

도착하실때까지에완성됨

八工夫二,火夫一給仕一

◇會計係 事務官近藤左右一(主任)事務官井世鏞(勲官六,雇員二,傭人二,自動車運轉手,外雜役馬丁若干)

◇祭祀係(御告祭) 事務官金東完(主任)事務官李源昇,典祀申圭善

屬官三,典祀補二,守僕八,仕丁四

列車乘客을滿載

눈치雪中에埋沒

뉘디각디의머칠회

동경뎐보에의하즉 동회도쵝「東海道線」미원머원「米原大垣」간은 칠월밤이릐로 폭풍셜이심하야 쳑셜오쳑이상에달하얏스며 맛춤닉 렬챠를불동케하얏든닉 목하그두뎡거장 사이에진릐유무되야잇스렬챠가다셧렬챠에밋쳣고뎐부승직을만저눈치도잇셔각뎡거장에셔는승직을 다시 눈치여내기위하야 복돗,北陸」관쳘「鹿越」신쳘「信越」의 각셧도다불동되는곳이만흐닉뎐업던 큰셜히를 당하는듸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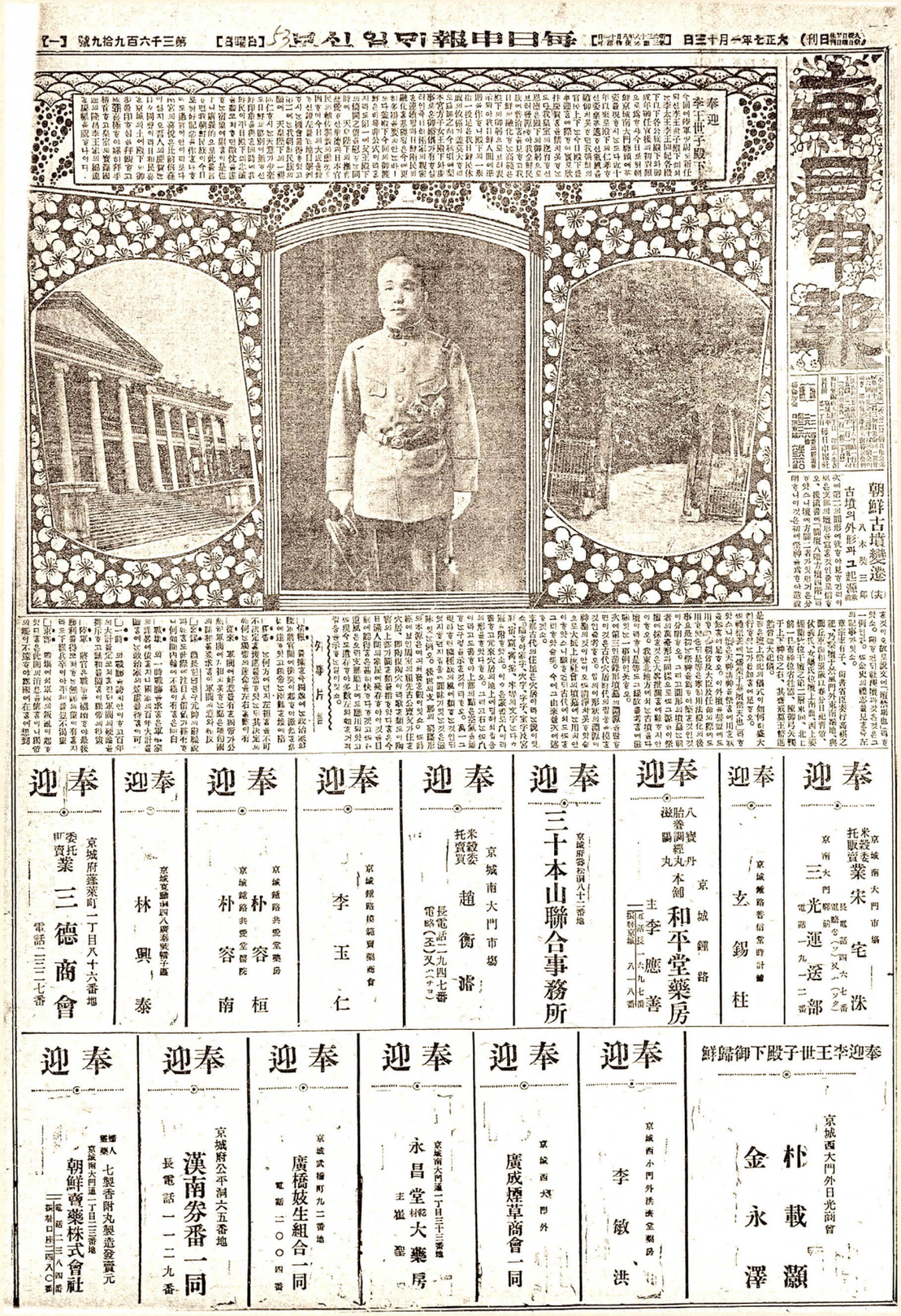
仁寺洞에火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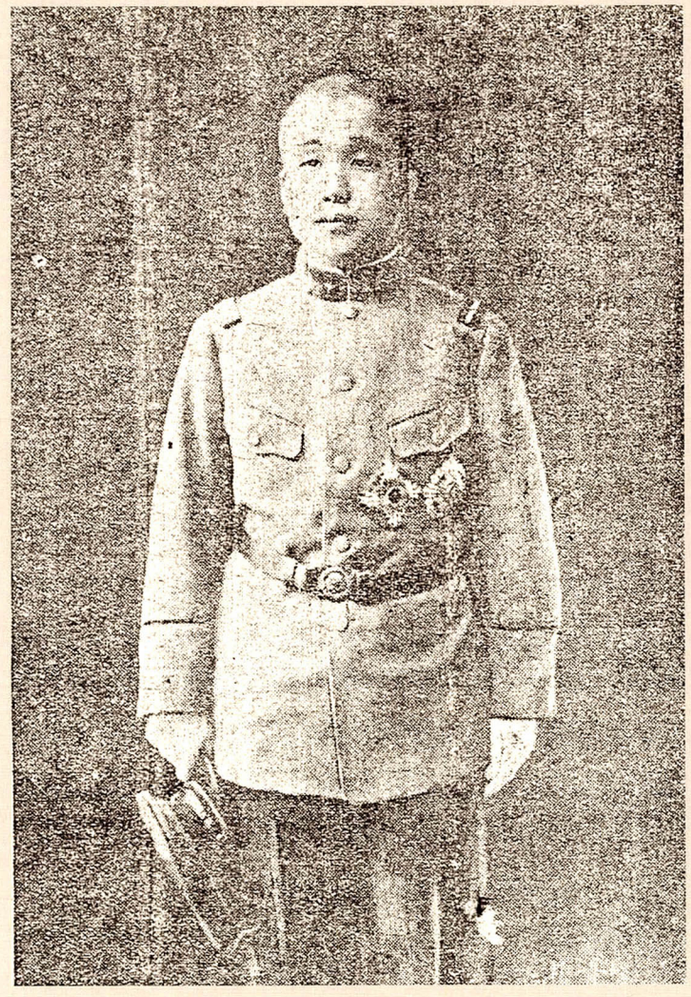
어전의 수리와 제설비(御殿의修理와諸設備), 『매일신보』(1918년 1월 9일)

1918년 1월 9일에는 중화전의 배면으로 석조전이 원경으로 보이는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 캡션은 '왕세자 전하를 기다리는 석조전'이다. '어전(御殿)의 수리와 제설비'라는 기사와 같이 실렸다. 기사에는 2층(최상층)에 욕장 및 세면소가 각 3곳인데, 수도의 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수도연관이 얼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증기난로(라디에이터)로 보완했다는 내용이다. 2층에 3곳의 욕장 및 세면소가 있었다는 내용은 1933년 미술관 개수 당시 도면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원문내용 : '御殿의 修理와 諸設備-도착하실 때까지 완성됨(도착하실 때 까지에 완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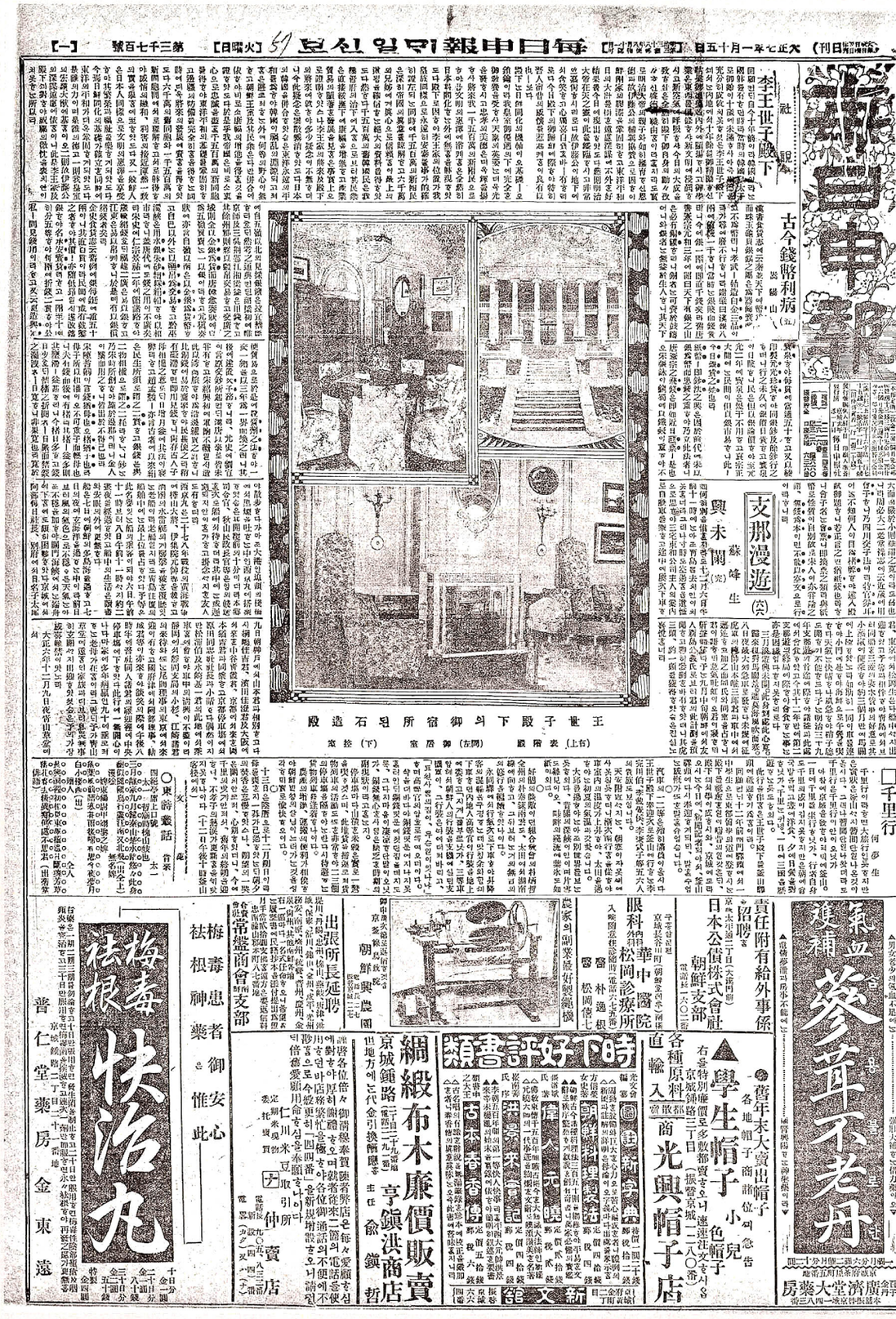
이왕직에서는 왕세자전하께서 거쳐할 덕수궁 석조전을 급히 수리하여 오는 12일까지에는 전부 장식을 마칠 것인데 주선과 기술원의 이야기를 들은 즉 동전(석조전)은 2층에 왕전하와 동비전하의 사용하는 것과 근시제원들의 사용할 욕장과 세면소가 각 세곳이므로 수도의 연관은 전부 벽사이로 끌어올렸으며, 따라서 요새같이 날씨가 추운때에는 그 수도연관이 얼어버리는 터라 그것을 녹이기 위하여 9일부터 증기난로를 피우는 등 의외에 다사하였으나 세자전하께서 도착해오시기까지에는 일체 준비를 마칠예정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왕직에서는 자기직원을 어제중 덕수궁에 파송하여 접대에 종사케 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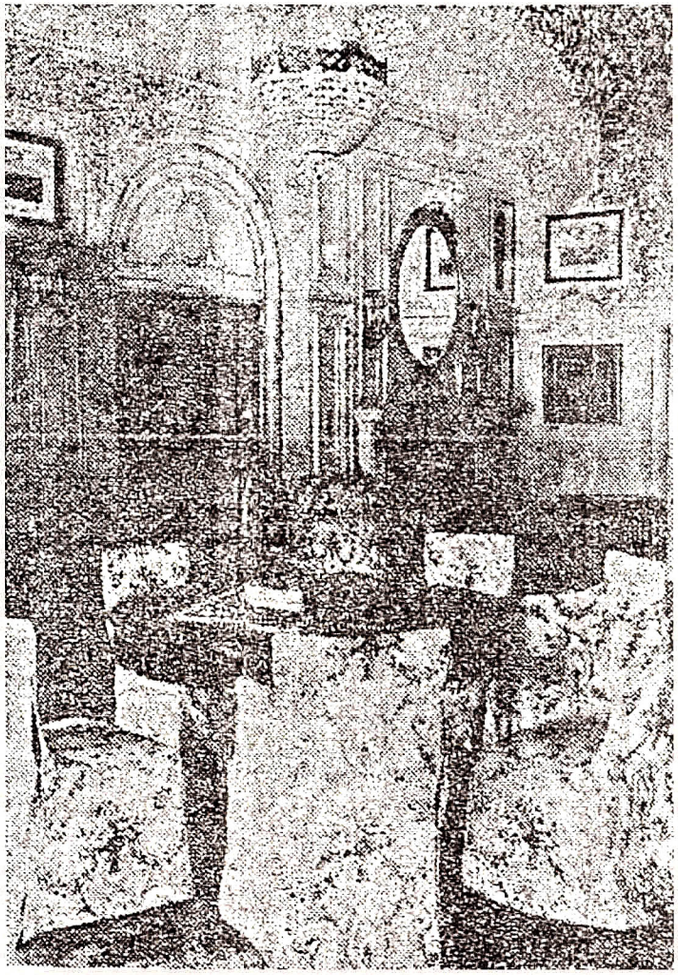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18년 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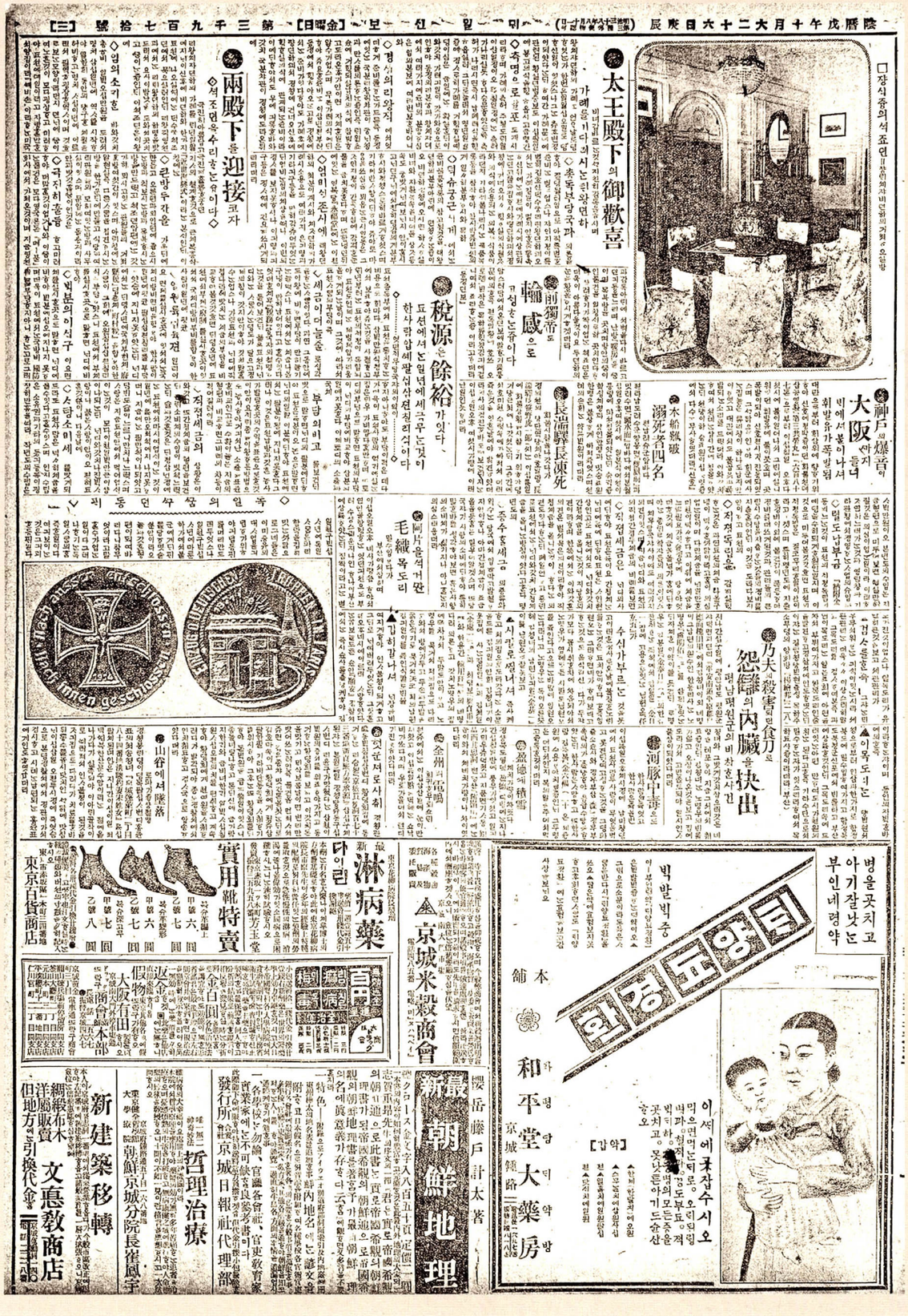
매일신보 1918년 1월 13일에는 영친왕 방한을 즈음하여 영친왕의 사진과 석조전의 사진이 같이 게재된다. 제1면에 게재된 이 사진은 '환영 이왕세자전하(奉迎 李王世子殿下)'라는 기사제목과 함께 육군소위로 임명된 영친왕을 소개하고 있다. 석조전을 영친왕의 처소로 인식하는 것이 드러난다.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18년 1월 15일)

매일신보 1918년 1월 15일에는 석조전의 내부사진도 같이 나와 주목할 만하다. '왕세자전하(王世子殿下)의 어숙소(御宿所)된 석조전'이라는 제목으로 우측상단 - 계단(表階殿), 좌측상단 - 어거실(御居室), 하단 - 공실(控室)이라는 실명까지 덧붙여 있다. 두 사진은 『한말궁중관계사진첩』(1918년)에 수록된 사진과 같다. 어거실은 2층 황제거실의 사진이며, 공실은 1층 홀과 면한 우측방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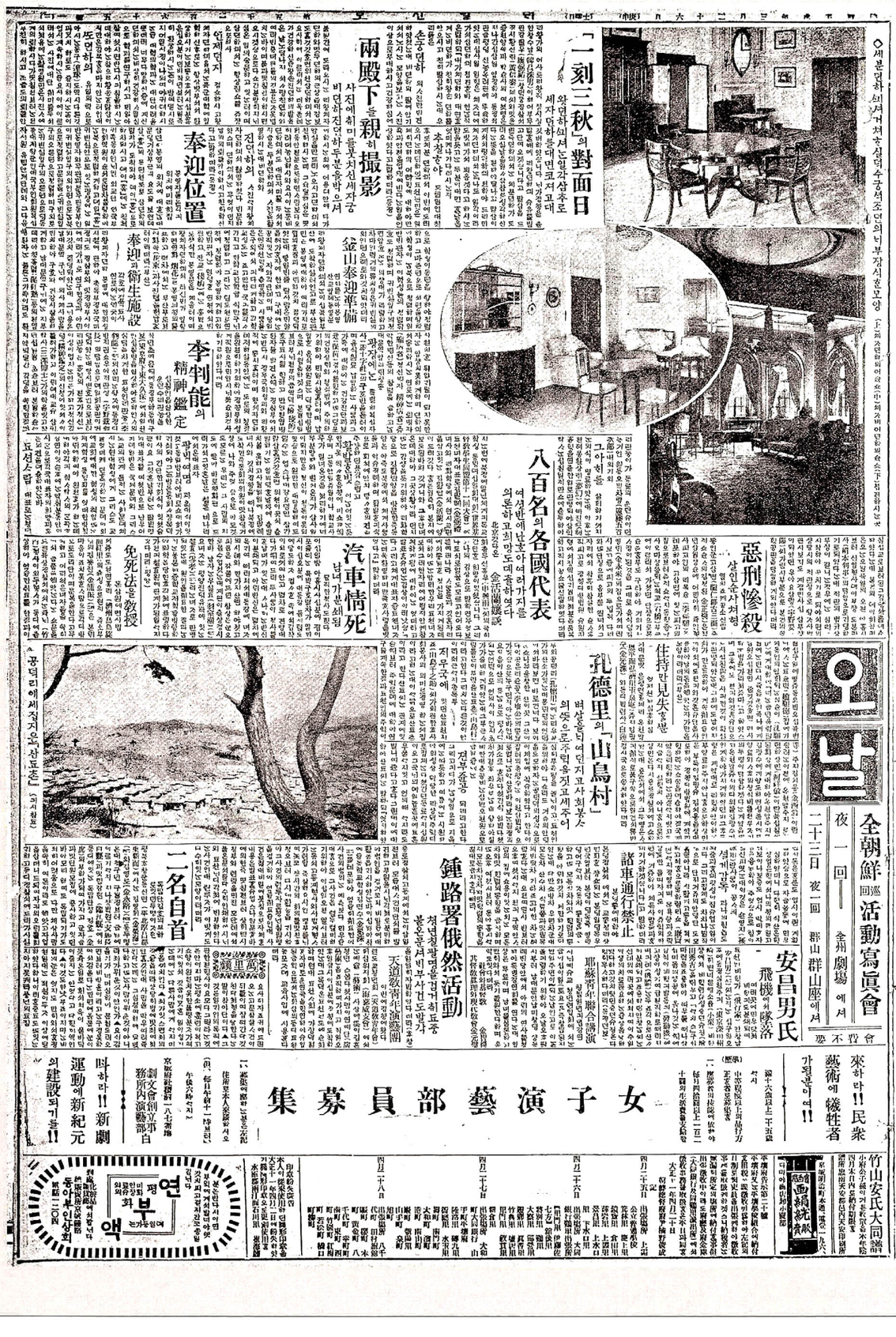
兩殿下를 迎接코자

◇셕조뎐을수리ᄒᆞᄂᆞᆫ슝이다◇

극진히아름답고극진히 훌륭ᄒᆞᆫ궁뎐

리왕세자뎐하의 가례를 릭년릭월 기시의 셜계ᄒᆞᆫ것으로 근셰부흥식에지나이신후에 비뎐하와 함긔지 「近世復興式」이라ᄂᆞᆫ 본시인ᄃᆡ 이청에ᄂᆞᆫ 덕슈궁 셕조뎐에셔 묵으실터인ᄃᆡ 리왕직영션과에셔ᄂᆞᆫ 릭년릭월릭일 하명을밧드러셔 요사이밤낮으로 도와셔곳치고 ᄭᅮ미ᄂᆞᆫ 즁인ᄃᆡ 이셕조뎐은이왕 ◇큰방두칸을 가운ᄃᆡ에 ◇임의소기ᄒᆞᆫ 바와갓치 명치 삼십일년에 역ᄉᆞ를 시작ᄒᆞ여 열ᄒᆞᆫ 해 동안의 장구ᄒᆞᆫ 셰월을 허비ᄒᆞ고 메이지 사십이년에 이르러셔 필역ᄒᆞᆫ 광장ᄒᆞᆫ 역ᄉᆞ이며 겉으로 보ᄂᆞᆫ 모양이라던지 뎐ᄂᆡ에 ᄭᅮ미여노흔것이 모ᄃᆡ 광장ᄒᆞ고 미려ᄒᆞᆫ 야 표쉰에뎌일이ᄃᆡ고 자랑ᄒᆞᆯ만ᄒᆞᆫ 논물건은 일쳥셔로ᄒᆞ 곳치인다ᄒᆞᆫ 셕조뎐은 더욱이 아름다울것이요 두뎐하의 눈을 황홀ᄒᆞ시게ᄒᆞᆯ것더라

◇극지히 훌륭 ᄒᆞᆫ고ᄃᆡ려 ᄒᆞᆫ고ᄃᆡ려 ᄒᆞᆫ고ᄃᆡ려


◇세분뎐하 쇠셔거쳐ᄒᆞ실덕수궁석조뎐의 ᄂᆡ부장식ᄒᆞᆫ모양

「一刻三秋」의 對面日

왕뎐하 쇠셔ᄂᆞᆫ일각삼추로 세자뎐하를대면코져고대

兩殿下를 親히 撮影

사진에취미를붓치신세자궁 비뎐하진뎐하두분옹박으셔

奉迎位置

奉迎과 衛生施設

李判能의 精神鑑定

金山奉迎準備

八百名의 各國代表

여셧반에난호아여러가지를 의론하고희망도데ᄒᆞᆫ하엿다

惡刑慘殺

살인순사처형

汽車情死

남녀가분쇄됨

免死法을 敎授

孔德里의「山鳥村」

벼살을ᄂᆡ여던지고사회봉ᄉᆞ 의뜻으로주력을짓고세주어

住持만見失ᄒᆞ뿐

오날

全朝鮮巡回活動寫眞會

夜一回 全州劇場에서

二十三日 夜一回 群山群山座에서

會費不要

安昌男氏

飛機에서墜落

諸車通行禁止

鍾路署俄然活動

청년칠팔명을검거취됴중 불온문셔비부사건도발각

二名自首

天道敎青年演藝團

耶蘇青年聯合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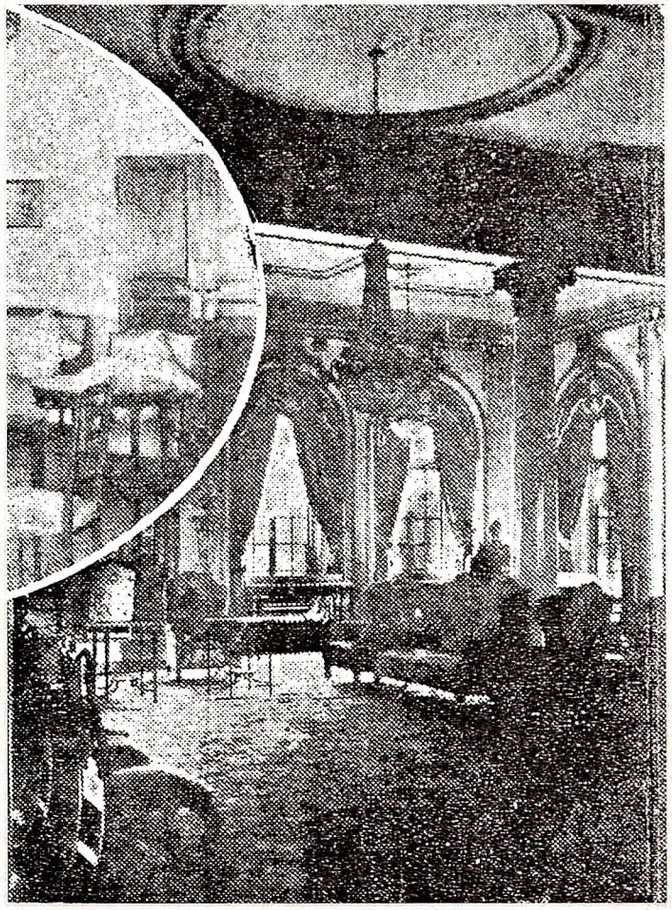
女子演藝部員募集

來하라!! 民衆藝術에 犧牲者가될분이여!!

叫하라!! 新劇運動에新紀元의建設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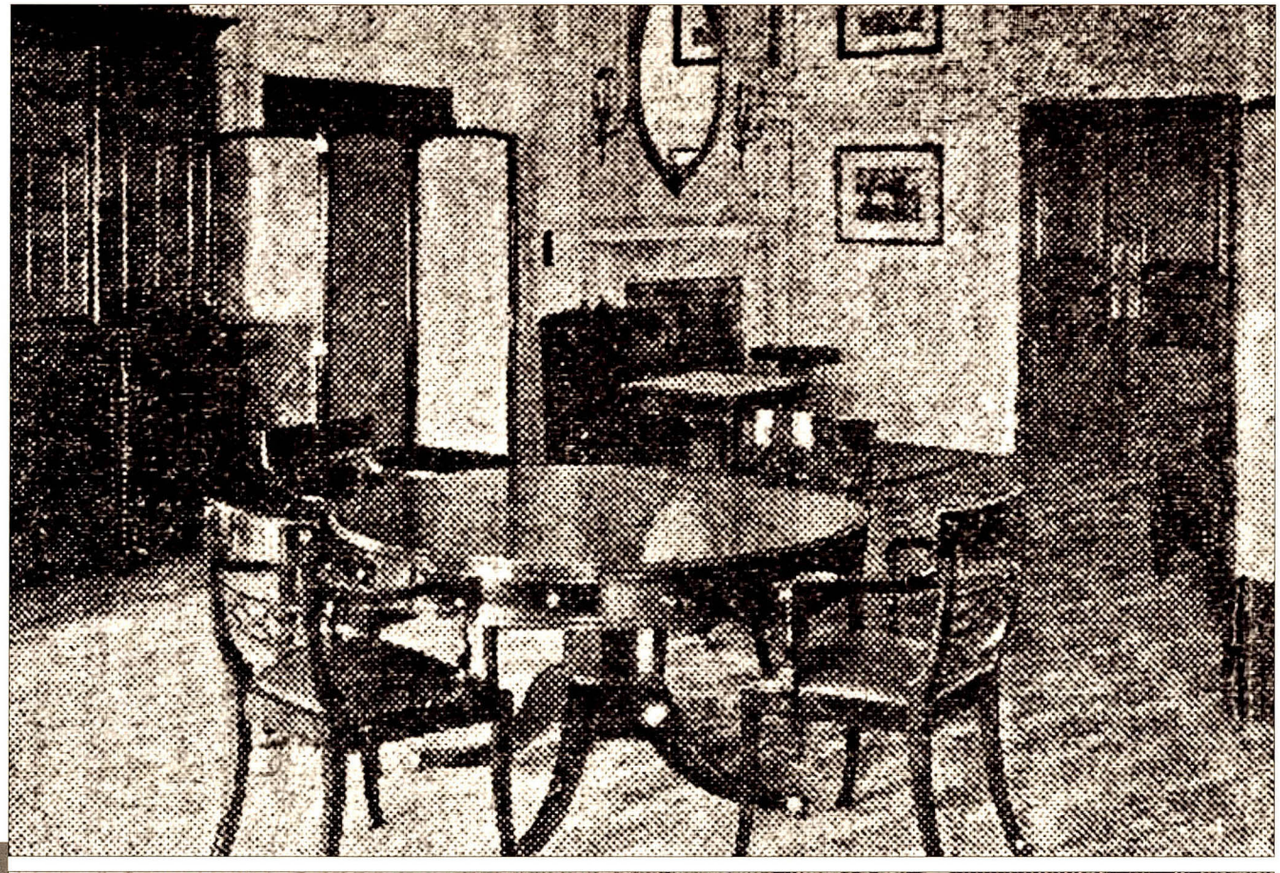
竹山安氏大同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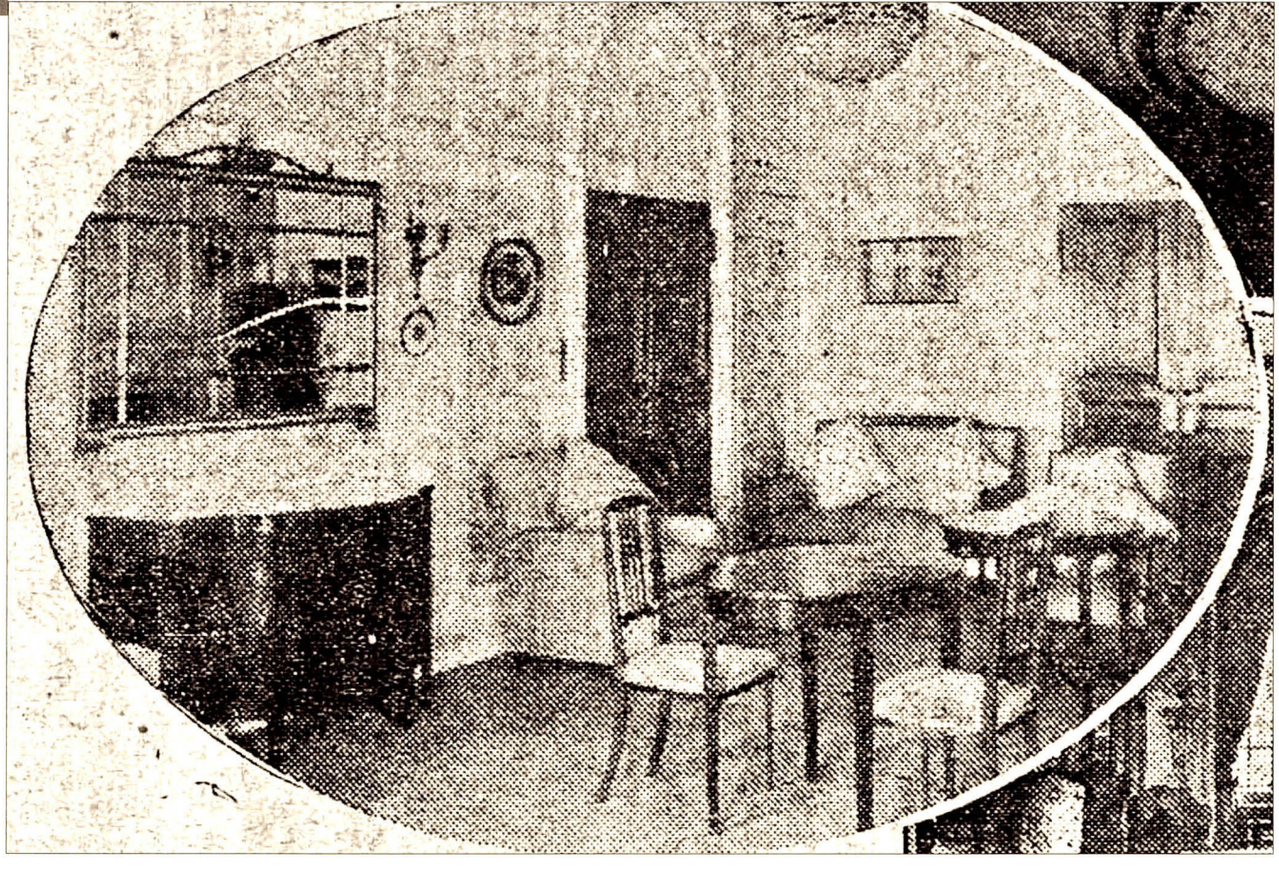
연 부 액 평화 미화 인상 외유 기증 의 연 부 액 동아부인상회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22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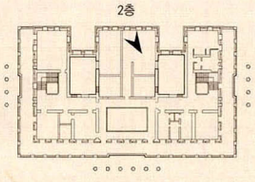
1922년 4월 22일자에는 석조전 2층의 내부사진이 게재되었다. 캡션제목은 '세분뎐하께서 거처하실 덕수궁 석조전의 내부장식한 모양'으로 맨위의 사진이 '세자전하의 어숙소'로 2층 황제거실부분이다. 가운데 '세자비 어전하의 숙소'는 2층 황후거실부분이다. 아래에는 '접견하시는 곳'으로 1층 알현실의 모습니다. 황제거실과 황후거실의 부분은 드문 사진으로, 복원공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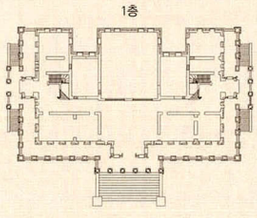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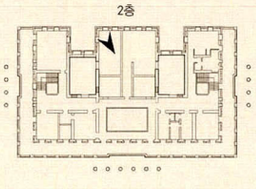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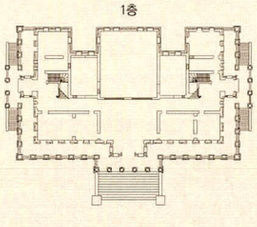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 (1922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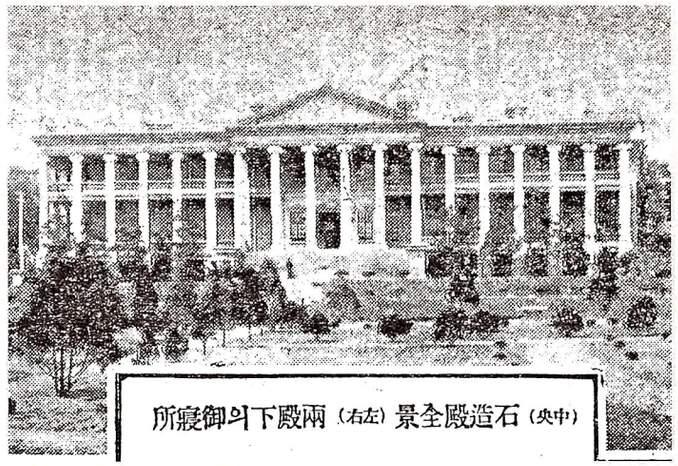
1922년 4월 22일자에는 석조전 2층의 내부사진이 게재되었다. 왼쪽이 '세자전하의 어숙소'로 2층 황제거실부분이다. 오른쪽이 '세자비 어전하의 숙소'는 2층 황후거실부분이다.











所寢御의下殿兩 (右左) 景全殿造石 (央中)

석조전 관련 사진기사, 『매일신보』(1922년 4월 26일)

1922년 4월 26일에는 영친왕 내외와 이진의 귀국 특별기사가 실린다. 그 중 3면에는 '質素하고 莊嚴한 石造殿 - 三殿下의 御旅館'이라는 기사가 게재되는데, 상부에는 1922년 4월 22일 게재된 석조전 내부사진과 함께 전경사진이 실린다.

質素하고莊嚴한石造殿
三殿下의御旅館

今番에王世子殿下께서同妃殿下와晋殿下同伴으로朝鮮中의宿所로定하신德壽宮石造殿을爲始하야展謁酌獻하실德安宮、宗廟와展拜하실昌德宮의璿源殿、毓孝殿、六宮、洪陵、諸陵、永寧園이며親히宴會가잇슬大造殿仁政殿과周遊會가잇슬秘園을拜觀하게되얏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其後한時々지內定되얏든二十一日에는午後에石造殿으로參集하라는通知가잇섯스며또다시時間과順序를記載하야通知가잇섯스며이에對하야는다시말하지아니하얏스나午前十一時에는德壽宮正門인大漢門을들어가라고하얏스나그곳은지금까지使用하지아니하는門이라하야門에는鎖鑰이채워잇고宮의左右壁에는坪餘의大照鏡과小照鏡을各堂個式걸엇스며「싯구리」壁에는비단을발너잇고窓掛도亦是嚴飾하얏스며東壁에는大廳에不過하나아릿에繡屛을세워잇고英人「리비손」의設計로燦爛하다고할수업고甚히莊嚴하고도風雅하다今番의接見式은勅任官以上者로만室內에列立하야一時에接見하신다고하며

다본즉三門이鐵壁굿치굿게닷기얏다또已往에番을보던巡査도업시寂寞하기짝이업다올치왓가이문으로들어오라고하얏더면크게狼狽홀번하얏다싱각을가다듬엇다그리면서도엇지홀일인지굿게닷친大漢門을도라다보고십흔生覺이마지못하매四五次발을멈추고東으로부터西을向하야一二三四號室과應接室이잇는데已往에는一二三號室에女官이잇고四號와應接室에는男子의侍從이잇섯는데今番에는男子들은二層에서物이오第四號室은晋殿下의居處라하며一二三號室은全部女官의看護等이占領하며兩殿下處所에는御用以外에는出入치못한다고하며三殿下의處所가다接見室보다더나흔點은업고但品雅하고談話室이며李太王殿下께서쓰시던圓形卓子를中央으로最椅子其他安樂椅子五六脚만되는대로노히엇다그리고地下室에는厨房倉庫電氣瓦斯의設置가잇는대地下室은十二로間을分하야스며一層은七間이오二層이十二間이오總坪數는四百二十五坪이라고하며冨時에必要하던것이지!하면서中和殿西便을지나서어다보니燈과如홈도或者는蠟燭과갓치裝飾하얏더라안을大綱拜하고二層으로올나간즉接見室바로

우가兩殿下의居處인二室이接하얏는데東은世子殿下의居處이오西는同妃殿下의居處하실곳이며東室은東便으로各寢室이잇고室의入口되는南便으로는各各浴室과西洋式의便所가잇스며그入口의압호도는廊下가通하얏고廊下박건너편으로는東으로부터西을向하야一二三四號室과應接室이잇는데已往에는一二三號室에女官이잇고四號와應接室에는男子의侍從이잇섯는데今番에는男子들은二層에서物이오第四號室은晋殿下의居處라하며一二三號室은全部女官의看護等이占領하며兩殿下處所에는御用以外에는出入치못한다고하며三殿下의處所가다接見室보다더나흔點은업고但品雅하고談話室이며李太王殿下께서쓰시던圓形卓子를中央으로最椅子其他安樂椅子五六脚만되는대로노히엇다그리고地下室에는厨房倉庫電氣瓦斯의設置가잇는대地下室은十二로間을分하야스며一層은七間이오二層이十二間이오總坪數는四百二十五坪이라고하며冨時에必要하던것이지!하면서中和殿西便을지나서어다보니燈과如홈도或者는蠟燭과갓치裝飾하얏더라안을大綱拜하고二層으로올나간즉接見室바로

질소하고 장엄한 석조전 – 세전하의 어여관(質素하고莊嚴한石造殿 三殿下의御旅館), 『매일신보』(1922년 4월 26일)

1922년 4월 26일에는 영친왕 내외와 이진의 귀국 특별기사가 실린다. 그 중 3면에는 '質素하고莊嚴한石造殿 三殿下의御旅館'이라는 기사가 게재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층의 공간구획으로 미루어 평면의 간살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1층 접견실 상부의 2층에는 동측에 세자의 거처, 서측에 세자비의 거처가 있었으며 각각 면하여 침실이 연결된다. 세자와 세자비 거처의 남측에는 서양식의 변소, 욕실이 위치한다. 2층의 남측부분은 원래 우측 세칸을 1, 2, 3호실, 좌측 2칸을 4호실, 응접실로 쓰였다. 본 기사는 하마마츠 시립 도서관 소장 도면과 연계하여 본 복원공사에 사료적 뒷받침이 되었다.

원문내용 : '질소하고 장엄한 석조전 – 세전하의 어여관(質素하고莊嚴한石造殿 三殿下의御旅館)'

금번에 왕세자전하께서 동비전하와 진전하 동반으로 귀국중의 숙소로 정한 덕수궁 석조전을 위시하여 전알(展謁) 작헌(酌獻)하실 안궁(安宮), 종묘(宗廟)와 전배(展拜)하실 창덕궁의 선원전, 의효전, 육궁 수릉, 우릉, 영휘원이며, 알현과 연회가 있을 대조전 인정전, 희정전과 원유회가 있을 비원을 배관하게 되었다. … 〈중간생략〉 … 약 한 길되는 층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니, 이곳은 56칸으로 이번 세자전하의 접견실의 앞 대청이오, 예전에 알현실의 대청인데, 아래에는 전체에 침목을 모아서 들인 마루로 요세기하리(寄木張)라는 식(式)이오, 그 좌우에는 약 7칸 응접실과 식당이 있는바 쓰던 테이블과 의자만 아직 손이 미쳐 못 갔는지 묵은 먼지는 그 양이 있고, 벽에는 서양화가 곳곳에 걸렸으며, 서쪽 창으로는 낙조만 비칠 따름이다. 대청(大廳)으로부터 접견실로 들어가니 북쪽창으로만 반사되는 일광은 심히 약하여 실내는 음음하다. 이 석조전은 원래 이태왕전하께서도 1년 1차탄생일(一次誕生日)에 사용하셨음으로 남쪽을 향하여 북쪽창 안으로 양전하의 의자가 있고, 그 좌우에는 높이는 한 길 남짓이요 직경 1자 가량의 청동향로가 있으며, 이로부터 황색비단의 크고 작은 의자가 좌우로 4~5개씩 놓여있고, 방의 좌우벽에는 평여(坪餘)의 큰거울과 작은 거울을 각 1개씩 걸었으며, '싯구리' 벽에 비단을 발랐고 커튼도 역시 장엄하게 장식하였는데, 접견실의 넓이는 대청에 불과하나 아래에 융단(絨緞)을 깔려있고, 영국인 '리비손'의 설계로 찬란라다고 할 수 없고, 심히 장엄하고도 풍아하다. 이번 접견식은 칙임관(勅任官)이하로만 실내에 시위하도록 하고, 한 번에 접견하신다고 하며, 방의 좌우에도 식당이 있다. 이로부터 2층으로 올라간 즉 접견실 바로 위가 두 전하의 거처인 두 방이 접하였는데, 동쪽은 세자전하의 거처이오, 서쪽은 동비전하의 거처하실 곳이며, 동쪽방은 동쪽편, 서쪽방은 서쪽편으로 각각 침실이 있고, 방의 입구되는 남쪽편으로는 각각 욕실과 서양식의 변소가 붙어있으며, 그 입구의 앞으로는 복도(廓下)가 통하였고, 복도의 건너편으로는 동에서 서를 향하여 1, 2, 3, 4호실과 응접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1, 2, 3호실에 여관이 있고 4호실과 응접실에는 남자 시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들은 2층에는 금물이오 제4호실은 晋전하의 거처라하며, 1, 2, 3호실은 전부 여관 간호 등이 점령하며, 두 전하의 처소에는 어용(御用)이외에는 출입치 못한다고하며, 세 전하의 처소가 다 접견실보다 더 나은 점은 없고, 단 정아(晶雅)하고 '談◯' 뿐이며, 이태왕전하께서 쓰시던 원형탁자를 중앙으로 긴의자 기타 안락의자 5~6개만 되는대로 놓였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주방창고 전기가스(電氣瓦斯)의 설치가 있는데, 지하실은 12칸으로 나누었으며, 1층은 7칸이오, 2층이 12칸이오, 총 평수는 425평이라고하며, 전등과 ◯함도 혹자는 '◯燭'과 같이 장식하였더라. 안을 대강배(大綱拜)하고 2층 전면의 노대로 나오니 반칸폭의 노대는 동서남 3면으로 통하였다. 수 걸음을 배회하면서 앞을 내려다보니 도시의 한면을 마주하고 있으며, 남산의 송백은 만년수를 축하하듯 ……

立入ることをゆるさぬ、併し學生及び特別關係ある親族のものはこの隣室の上方より硝子越しに手術の狀を見ることの出來るやうにしてある、手術室とこの室とに喇叭管を備へてあつて手術の狀況を醫員が隣室へ傳聲することになつてゐる また電氣光線療法室と電氣光線療法室と水治療法室がある、いづれも獨逸より取り寄せた最新式の器械が裝置されてある、電氣光線療法室は强度の光線に依つて治療する室である、此の室内に四方を硝子張りにしてその周圍に强い電氣を傳はらせる仕掛の箱やうのものがある、患者がこの箱の中に這入つて坐るとその線の身體だけが包まれるやうになつてゐる、かうして電氣光線療法を施す、また水治療法室は醫員がネヂを一寸廻して加減すると室内にある管から水が出る、湯が出る霧のやうなのもあれば湯と水とを合して細い滝となつて出るのもある、これは皮膚病や神經病に適用するのだ其他肺病患者を數人一時に酸素を一人宛別々に吸入させる器械や電流の磁石で眼に鐵片の入つたものを取る器械などもある。（朝日）

○大阪の取引所

昨年大火の際烏有に歸したる堂島米穀取引所は設樂貞雄氏の設計にて今回愈よ竣工す本館は煉瓦建、總建坪二百坪、内八十坪が事務室、會議室、應接室、重役室、市場は總て百二十坪で其内三十坪が正面の高壇と左右の直取引高壇、高壇事務等に充てられ殘りの九十坪が立會場と參觀場とで尚今回高場の隣りに新聞記者席を設けてある建築費は一坪平均三百七十五圓の割合で高場の後の事務室に隣る地下室六十五坪は天井が鐵骨で厚さ一尺五寸のコンクリートで四邊を固めたものだから先づ此處は何樣火事の折でも殆んど燃焼の憂ひがない、只遺憾なのは 周圍の硝子窓に扉のない事で之は僅が八千圓で豫算が合はない爲め出來なかつたのだとのこと！（大阪毎日）

○朝鮮德壽宮の石造殿

朝鮮平城内 德壽宮内の石造殿は今より十二年前にブラオン氏に依りて工費三百萬圓の豫算の下に設計されたるものなり日本より三十三年に小川技師を聘し 先づ石奴亭先きなる彰義門附近の花崗石材を用ひて三十四年石礎を了りしが其後改變の爲め三十五六兩年は休工し更に三十六年九月より起工し石材は東大門外英風亭の花崗石を以て二階及び三階の建築に用ひしが卅九年に至りブラオン氏は其郷里英國に歸るやデビソン氏 代りて設計に從事し昨年十六年六月に至り暑々竣成し後ち緣側其他屋上のバラペット等は茨城縣筑波山の石材を取寄せ着々工事を進めたる結果今や女官及從者の居間たる地下室を除くの外は殆ど竣成し總坪數四百坪にして高さ七間半横廿五間奥行十五間の宏大なる石造の殿堂を仰ぎ見るに至りしが二階なる接見室は約百廿疊其正面なる大廣間は卅疊を敷き三階なる李太王の御居間は四十疊嚴妃の御居間は三十疊兩殿下の寢室は孰も三十疊宛にして、其他談話室浴場等の設備となせり。

○新築の臺中倶樂部

去二十八日落成式を擧げたる 臺中倶樂部は本年五月二十日 起工し本年九月三十日竣成せるものなるが工事費は總て 九千五十九圓餘を要し 建築物は本家木造六十七坪、玄關木造葺卸二坪、浴室廊下湯沸所二十五坪、圓二坪餘、周圍土止五十六間外に附屬工事として上り段煉瓦造四箇所物置木造平家六坪、大弓射場六坪的場三坪周圍埒柵二百一間餘正門裏門 各一箇所、道路十二間、下水溝百二間餘、暗渠九間等あり（臺灣日日）

○建築鎖談

遞信技師 内田四郎

▲建築の研究　余は營繕課に職を奉するに就き、今回の渡歐中にも主として建築に關する材料を研究し歸れり故に余は全世界に於ける 各大都市の知名なる建造物は、時間の許す限り是を觀覽せしが、就中大都市の電話交換局は洩さず視察歸朝したり、左に電話交換局の建築に就き、聊か 小見を談ちん

▲採光と通風　脊に交換局のみ然りといふに非ざれど、我國に於ける 大なる諸建築は多く採光と通風に多くの注意を拂ひつゝあるが、中にも幾多の 小孔を有する交換臺を操縱せざるべからざる電話交換局にありては 層一層採光の如何を考慮せり、然るに海外に於ける各交換局を見るに、建築上の採光設備に關しては、寧ろ我に劣るもの 尠少ならず、即ち採光の設備に於てはさのみ重要視し居らざるには非ずやと想ひたるが、仔細に是れを監察すれば、採光の必要は認め居るも、其設備の點につきては建築以外の力にとれを待ち而して着々其の目的を達し居るものなる事を知悉せり

▲進歩と進歩　其原因は即ち都市の發達よりする市街稠密の度が 逐年繁を加へて進むより、何處の建築物（交換局）を見ても、其位置は比較的繁華なる土地にあり、而して周圍の建造物が漸次高きに築かれるより、如何に之れに等しき設備を行はんとするも、建築上の力にては殆んど不可能に屬するが如し、一面には彼の電氣事業の發達亦年々歲々進歩し行くの狀態にあり、其供給力の潤澤なる事は到底夢想し得べき事ならず、玆に於てか建築上の不備なる採光の點に關しては、此進歩せる電力を應用し、晝夜間斷なく點燈を爲さしめ、以て其不備を補足し居れり、蓋し斯くの如きは即ち進歩の短所を進歩の長所が補ひ居れるものと云はざる可らず

▲ノーセンシング　電氣なるものは未だ日本には之無きが頃者開局されたる倫敦局の現業室に於て、親しく其効果如何を實見せり、抑もノーセンシング電氣と稱するは直接電光を室内

조선 덕수궁의 석조전(朝鮮德壽宮の石造殿), 『건축잡지(建築雜誌)』(제 288호, 1910년 12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건축잡지(建築雜誌)에 실린 석조전 준공에 관한 기사이다. 1901년 기초공사 시작, 1902, 3년은 휴공하였고, 1903년 9월 다시 공사에 들어간다. 데비손이 공사를 계속해 46년 6월에 준공하였다고 나오는데, 이는 40년(明治40년=1907년) 6월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년 11월 2일자 매일신보와 같은 내용의 공사일지로 유추할 수 있다. 건축잡지의 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면적에 관한 내용이다. 2층 접견실 120조, 대광문(홀)이 30조이고 3층 고종의 거실은 40조, 왕비의 거실 30조, 양전하의 침실 30조이다. 이 기사로 2층 접견실 상부가 3층에서 3개 이상의 실로 나눠진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내장재 해체조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원문내용 : '조선 덕수궁의 석조전(朝鮮德壽宮の石造殿)'

조선 평성내의 덕수궁 석조전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에 브라운씨가 발의하여 공사비 3백만원의 예산아래에 설계된 것이다. 일본에서 1900년(일본식연도표기를 바꿈, 이하동일)에 오가와 기사를 초빙하여 석노정 앞 창의문 부근의 화강석재를 이용하여 1901년 기초공사를 끝냈지만 그 이후 정변 때문에 1902, 3년 두 해는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1903년 9월부터 기공 하게 된다. 석재는 동대문 밖 영풍정의 화강석으로 2층 및 3층 건축에 이용되고 1906년에 이르러 브라운씨가 고향인 영국에 돌아가고 데비손씨가 대신하여 설계에 준해 공사를 계속해 46년(원문이 오타로 판단된다) 6월에 이르러 대략 준공한다. 이후 테라스(緣側)와 옥상의 바라페트(parapet) 등은 이바라키현 쓰쿠바산 석재를 주문하여 공사를 착착 진행한 결과 지금 궁녀와 나인의 공간인 지하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준공하였다. 총면적 4백평으로 높이 7칸반 너비 25칸 깊이 15칸의 굉장한 석조 전당이 완공되었다. 2층 접견실(알현실)은 약120조이며, 그 정면이 되는 대광문(홀)은 30조 규모이다. 3층 고종의 거실은 40조, 왕비의 거실은 30조, 양전하의 침실은 30조로 하고 그외 담화실, 욕탕 등의 설비를 하였다.

只直接此任に當るものを妻木工學博士に俟つたものとも考へられるされば其製品たる妻木式コーパルワニスも決して博士自身の所有す可きものでなく國家全體が其御蔭を受けて可然ものであるといふ所から化學界に有名なる植村澄三郎氏が熱心なる盡力の結果遂に妻木博士の製法に則つて所謂妻木式コーパルワニスを製造して洽く江湖に頒つこととしたので明治四十五年正月を期して大規模に製作するとのとで東京府下豊多摩郡澁谷町上澁谷二十四番地にある妻木式ワニス製造所は繁忙を極めつゝある茲に製作するものは同じ品質で以て出來上りの體裁の如何によりて一號品より三號品迄三通りを作つて色々な用途に適する樣にし又容器にも壹英哩入より貳分壹英哩入四分壹英哩入の大小三個を作つて需要者の便利を謀つて居る容器の體裁に到つては最新なる意匠を凝らしたるものて携帶にも便で間然する所がない需要者は先づ品質外の優美に驚き再び其出來上りの結果の卓絶に舌を巻くであろう吾々此發明があつた今日何を苦んでか價の高い外國製の塗料を用ふるの愚を爲さうか試に一鑵を購ふて塗料の研究に資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思ふ。

二年に及び英人技師エフ、エ、カートマン氏の現場監督にて地形基礎工事を了り側ら木製模型を完成したるも三十二年冬カートマン氏辭し去り工事を繼續すべき適當の人を得す一時中止の姿となりしも三十三年の春ブラウン氏より適當なる日本人建築家を雇聘したき希望ありて偶々前年第一銀行仁川支店の石造建築に從事し竣工後東京支部省に在勤中なる技師竹本方松氏を推薦し同年六月より同氏建築主任となり小川清雄氏英譯主任にて共に再び建築工事に著手而して同年十一月より小路甚三氏建築助手として雇はれ工事は漸く進行するも此間政治上其他種々の關係より障害頻々として起り時には一部分の工事のみを緩漫に實行するに止まり遂に十三ヶ年の如き長日月を費す事となつた三十八年に至り大體の建築竣工し同年十二月ブラウン氏總稅務司の職を目賀田財政顧問に譲りて歸英せしも書記デヴイツトソン氏留任し本職の傍ら工事を監督し三十九年大部分の工事を終り四十年一月竹本氏辭職東京に歸り以後小路氏主任となり四十年夏ブラウン氏の囑托により英國より技師ロヴエル氏出張空地調査及び内部裝飾の設計を爲し四十一年夏メーブル會社技師出張更らに内部の裝飾を調査して歸り四十二年六月倫敦メーブル會社より技師職工渡鮮しロヴエル氏の監督にて裝飾工事を始め四十三年春漸く完了して歸英し以後地下室及び外塀並に庭園工事等も漸く進行し殆んど全部の竣工を見る事となつた。

◎淺草國技館の落成　曩て本誌に報道せる淺草公園六區の淺草國技館は此程竣工したるが總地坪千六百坪に間口二十間奥行廿二間のサラセニック式四階建の大建物にて北寄正面に土俵(舞臺に改造する事も容易)あり之に面して約二百五十の桝を設け館内の全席數は一等のみにても二千を算すと云へば規模の大體が推して知らるべく館内の電燈數は千九百七十箇を算し本館に接して建設せる力士養成所は全部杉丸太の奇抜なるものにて十八間四面あり八千人の觀覽者を容るべく貴賓休憩館は建坪六十坪の三階建にて外に茶屋八軒と力士寄宿舍消防舍等の設けあり總經費六十二萬圓本館のみにても廿萬圓を要したりと開館式は舊臘廿五日に擧行して當日は大相撲の餘興あり初春の第一興行は兩國々技館打揚次第十日間大相撲を催す筈なりと。

◎臺北廳舍新築　臺北廳舍の新築は來年度の豫算中に計上せられたる十二萬圓を以て著手さるる事となるべし而して同廳舍の位地に就ては種々の議論ありたるも市民の出入頻繁なる廳舍の如きは市街の中央に在ると否とにより市街の繁榮に大關係を有し附近商家の營業上の消長には殊に痛切の關係を與ふるを以て多數の臺民は現在の位置に其建設を希望する者の多き模樣なり然るに從來の敷地は前面及兩側面とも市區改正により約三分の一を市街道路敷地に使用せらるるを以て新築廳舍の敷地としては頗ぶる狹少なれと現在の位地を巧みに利用し出入口を三面に付し三箇年計畫を以て内部の構造の如きも事務の敏活を計り出入に便利なる特種の考案に成れるものなりと

◎電氣局長屋計畫　市電氣局にては淺草玉姫町に建設せる公設長屋の成績に顧み電車車掌、運轉手、其他下級從事員の住居すべき公設長屋を建築し從事員の生活を簡易ならしむると同時に一方是等下級員の衛生狀態を善良ならしめんとの方針にて目下調査中なるが假りに現在從事員總數を七千餘名とし一戸四人平均とせば約三萬内外を收容すべき家屋の建築を要すべく長屋の位置は車庫所在地の附近をトし其他從事員の員數に比例し建設する筈にて先づ第一着手として本所深川方面より着手すべしと云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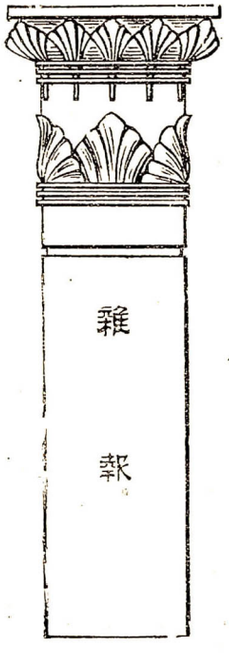
◎勅使と建物會社　東京建物株式會社は曩に兵津の日本租界に泰西式家屋の建築をなし既に六百餘戸の貸家を有するに至り又漢口に二萬三千餘坪の地所を買入れ將に建築に著手せんとする折柄今回の革命亂起りたれば一時或は其の災禍を受くるにあらざるかと危まれしも事は意外に出で革軍が北京を襲ふべしとの説傳はると同時に北京より天津に遡け來るもの多く彼等は外國租界に居住するの身命財産の安固なるを信じ我が租界内の家屋を競うて借入れ六百戸更に空屋なきに及び續益々需用者多きを告ぐるが故に同會社にては本春早々右租界の十八區即ち日本人公園附近に多數の洋式家屋建築の準備中なり又漢口に於ては支那市街兵營に權り家屋缺乏を告げ少なからず困難し居れとを以て同會社は其の所有の地所に急遽家屋の建築をなし同地の缺陷を補ふべく是亦準備中のよし猶同會社は是迄朝鮮京城に出張所を置き建築請負又は不動産抵當資附をなし居れるが其の事業益々發展の見込あれば本春早々出張所を支店に擴張して一切の業務を取扱ふべしと

◎國鐵改良工事　明年度國鐵改良工事に關しては廣軌問題未だ決定せざる今日横須賀線の複線海山市八本松間の複線、神戸停車場の新築、逢坂山線路の改良等を決するとを得ざるも本年度の着手工事にして目下用地の買收中なる京都大阪兩停車場の改築は廣軌問題に關係あるに拘らず明年度も工事を繼續すべし又廣軌問題に關聯せざるも明年度着手すべき北陸線中の鄉今庄間複線工事は中の鄉敦賀間に止むべく其他城東線の單線區間玉造梅田間及電車線たる上野日暮里間は

◎第十五銀行新築落成　日本橋區人形町通りに建築中なりし株式會社十五銀行支店は十二月廿五日落成したるを以て二十七日一般關係者に覲覽せしめたり、妻木博士の設計にて去四十一年八月三日起工し、總建坪二百六十六坪、煉瓦造總二階、間口十三間半、奥行二十間、地上よりの高さ四十尺、間數二十餘、對震、防火のため壁心三陵に礎礪鐵を施し、階下の床は煉瓦迫持の上にコンクリート、二階の床はエ形梁の間に弧狀生子板を渡し其上にコンクリートを渡し其上に寄木をアスファルトにて附け、外壁には凡て防火扉を施したり。

◎銀座教會落成　京橋西紺屋町にある日本メソジスト銀座教會にては舊建物を撤廢して去三月より新築に著手したるが此程落成しゴシック式三階建にて階下十二室は日曜學校、諷音英語夜學校に、二階五室は教會用に、三階は聽衆席に充つ、總地坪百十八坪、工費約四萬を要したり。

◎大漢門内慶運宮石造殿竣成　大漢門内慶運宮の一部に巍然として聳ゆる石造の大建築がある普通之れを稱して石造殿と云つて居るが此程漸く全部の竣工を見るに至り近々李王家に引渡しをなす相であるが此の石造殿は實に十三ヶ年の長日月を費した建物であつて内部の裝飾等に至つては至善至美を盡し朝鮮唯一の建築のみか日本にては殆んど其の比を見る事の稀なる建築である建物總坪四百八十坪地下十三室、一階九室二階十三室廻廊下を用ひ屋上は陸屋根にて四方の眺望を擔にす抑も同殿は明治二十八年韓國改變後當時の國王李熙陛下今の李太王が景福宮を棄て新王城たる慶運宮を修覆して移御せらるゝ事となり越へて明治三十年總稅務司ゲエ、マクリサ井、ブラウン氏が此慶運宮の本殿を洋式の石造に改築せん事を計劃し國王の嘉納を得て在清國の英人技師ゲエ、アル、ハーリング氏に其の設計を依頼し敷地を新王城の北隅九成軒の南に選定し明治三十一年より三十



대한문 안에 경운궁 석조전 준공(大漢門内慶運宮石造殿竣成), 『건축세계(建築世界)』(1912년 1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건축세계(建築世界)에 실린 석조전 준공에 관한 기사이다. 각 층마다 실의 개수가 나타나는데, 1층이 9실, 2층이 13실로 이는 1층 접견실과 같은 면적으로 2층에는 황제거실, 황후거실 등이 계획되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본 기사에는 공사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건축가 J. R. Harding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석조전은 구성헌의 남쪽에 대지를 정하여 설계의뢰 후 1898년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 1906년 건축공사가 끝나고, 이후 내부공사가 진행되었다.

◎大漢門內慶運宮石造殿竣成

大漢門內慶運宮の一部に巍然として聳ゆる石造の大建築がある普通之れを稱して石造殿と云つて居るが此程漸く全部の竣工を見るに至り近々李王家に引渡しをなす相であるが此の石造殿は實に十三ヶ年の長日月を費した建物であつて內部の裝飾等に至つては至善至美を盡し朝鮮唯一の建築のみか日本にては殆んど其の比を見る事の稀なる建築である建物總坪四百八十坪地下十三室、一階九室二階十三室廻廊下を用ひ屋上は陸屋根にて四方の眺望を擅にす抑も同殿は明治二十八年韓國改變後當時の國王李熙陛下今の李太王が景福宮を棄て新王城たる慶運宮を修覆して移御せらるゝ事となり越へて明治三十年總稅務司ヂエ、マクリウ井、ブラウン氏が此慶運宮の本殿を洋式の石造に改築せん事を計劃し國王の嘉納を得て在清國の英人技師ヂエ、アル、ハーリング氏に其の設計を依賴し敷地を新王城の北隅九成軒の南に選定し明治三十一年より三十二年に及び英人技師エフ、エ、カートマン氏の現場監督にて地形基礎工事を了り側ら木製模型を完成したるも三十二年冬カートマン氏辭し去り工事を繼襲すべき適當の人を得ず一時中止の姿となりしも三十三年の春ブラウン氏より適當なる日本人建築家を雇聘したき希望ありて偶々前年第一銀行仁川支店の石造建築に從事し竣工後東京文部省に在勤中なる技師竹本力松氏を推薦し同年六月より同氏建築主任となり小川清雄氏英譯主任にて共に再び建築工事に著手す而して同年十一月より小路甚三氏建築助手として雇はれ工事は漸く進行するも此間政治上其他種々の關係より障害頻々として起り時には一部分の工事のみを緩漫に實行するに止まり遂に十三ヶ年の如き長日月を費す事となつた三十八年に至り大體の建築竣工し同年十二月ブラウン氏總稅務司の職を目賀田財政顧問に讓りて歸英せしも書記デヴイツトソン氏留任し本職の傍ら工事を監督し三十九年大部分の工事を終り四十年一月竹本氏辭職東京に歸り以後小路氏主任となり四十年夏ブラウン氏の囑托により英國より技師ロウエル氏出張空地調査及び內部裝飾の設計を爲し四十一年夏メーブル會社技師出張更らに內部の裝飾を調査して歸り四十二年六月倫敦メーブル會社より技師職工渡鮮しロウエル氏の監督にて裝飾工事を始め四十三年春漸く完了して歸英し以後地下室及び外塀並に庭園工事等も漸く進行し殆んど全部の竣工を見る事となつた。

원문내용 : '대한문 안에 경운궁 석조전 준공(大漢門內慶運宮石造殿竣成)'

대한문 안 경운궁 한켠에 외연히 우뚝 솟은 석조 대건축이 있는데, 보통은 칭하여 석조전이라고 한다. 점점 완공이 되어가서 근래에 이왕가에 인도하였다. 석조전은 실제로 13년의 오랜 시일이 걸린 건물이고 내부의 장식 등이 극도로 선하고 아름다워 조선 유일한 건축으로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건축물이다. 건물 총면적 480평에 지하13실, 1층 9실, 2층 13실이다. 회랑을 이용하고 옥상은 수평지붕으로 사방으로 조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전각은 1895년 한국개변(을미사변) 후 당시의 이왕폐하, 지금의 이태왕(고종)이 경복궁을 대신하여 신 왕성으로 경운궁을 수리하여 이어하면서 계획되었다. 1897년 총세무사 J. Mcleavy Brown씨가 경운궁 본전을 서양식의 석조로 개축 계획하고 국왕의 승낙을 얻어 영국인 기사 J. R. Harding씨에게 그 설계를 의뢰하고 대지를 신왕성의 북쪽 구성헌의 남쪽으로 정하였다. 1898년부터 1899년에 영국인 기사 F. A. 카트만 씨를 현장 감독으로 하여 기초 공사를 완료하는 반면 목제 모형 등을 완성하였다. 1899년 겨울 카트만을 사임하고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일시중시하다가 1900년 봄 브라운씨에 의해서 적당한 일본인 건축가를 초빙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우연히 전년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석조 건축에 종사하여 준공 후 도쿄 문부성에 근무 중인 기사 타케모토(竹本力松)를 추천하고 같은 해 6월부터 건축주임이 되었다. 오가와(小川淸雄)는 영어통역주임으로 다시 건축 공사에 배치하고, 같은 해 11월부터의 코우지(小路甚三)를 건축 조수로서 불러 공사를 점점 진행하였다. 지난번 정치 및 그 밖의 관계로부터 장애가 자주 일어나서 일부분의 공사만 질질 끄는데 그치다가 마침내 13년과 같은 오랜 시일을 소비한 후 1905년에 이르러 대체의 건축이 준공되었다. 같은 해 12월 브라운 총세무사의 자리를 메가다 재정고문에 양도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서기 데비드슨씨를 유임하고 본업의 공사를 감독하여 1906년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다. 1907년 1월 타케모토가 사직하고 도쿄로 돌아간 이후, 코우지를 주임으로 하여 1907년 여름 브라운씨의 촉탁에 의하여 영국에서 기사 로월(다른문헌에는 로빌)씨가 와서 공지(空地) 조사 및 내부장식의 설계를 하였다. 1908년 여름 메이플 회사의 기사가 다시 내부장식을 조사하고, 1909년 6월 메이플 회사로부터 기사직공이 조선으로 와서 로월의 감독 하에 장식 공사를 시작하여 1910년 봄에 점점 완료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지하실과 바깥담장에 정원 공사 등도 진행하여 전부가 준공 되었다.

德壽宮石造殿その他

本會幹事
李王職營繕係主任 保元平三郎氏述

石造殿由來

舊韓國政府總稅務司英國人白卓安（ブラオン）ノ計畫ニヨリ目賀田財政顧問ノ時ニ及ビシモノニシテ、建築ハ英國技師「ハーデンイング」、內部裝飾ハ同國人「ダヴイツトソン」、竝ニ日本人助手三名ニヨリテコレヲ行ヒタリ本殿工事ハ明治三十三年（光武四年）着手、同四十二年（隆熙三年）竣功セリ。

……　……

私個人として氣のついたことを申上げれば、あの建築は御承知の通り、純英國式復興式で當時の英國そのまゝの建築をこちらへ移したといつてもいゝのです。ハーデングはその當時石造殿ばかりでなく、內地にも諸方にデザインをしてをります。今でもこのハーデイングのやつた建築を研究する人があるのです。さういふ意味からいへば、石造殿に殘つてをる設計なり細工手法については、參考になるものが我々にとつても多いのです。建築家としてもそれについてよく見られゝば、當時の英國式建築なるものを偲ぶことが出來ようかと思ひます。

石材・セメント・煉瓦のやうな重材の外は、殆んど材料は本國から持つて來てをります。今では何でもないのですが、その當時は非常に秘密にしてをつたらしいのです。而してその當時に於て水道・電燈を既に計畫してをり、通風にも特殊な裝置をしてをつたのです。例へば屋內に扇風機を以て通風するかゝいふやうな方法を講じてをつたのです。一法として我々が學ぶべきものは、或は寄木張の如きも、單に板の上に築かないで、その間に丈夫な厚製の布を使用してをるとか、壁に張る緞子にしました所が、フエルトみたやうな布を張るとかして、非常に柔らかな感じ、好感を與へてをります。タイルの如きもやはりさうで、張り方は造作はないですが、なかなかいゝ感じをもつてをります。タイルも無論本國から持つて來たもので、主に硝子タイルを澤山使つてをります。

家具は特に設計がよかつたと思ひます。これは私だけでなく色々の大家が見られてもさう言はれてをります。建築は必ずしも優れてをらんといふ批評がありますが、家具については衆口一致してをる譯であります。家具は特に念が入れてあるので今に狂つてをりません。故に今新築の東京邸に一部を使用してをります。尙は殘つた一部は總督府のほうで使つてをります。

最後に美術館にすることについて、大分模樣替をしたのですが、幸ひに滯りなく出來ました。元の形を壞さずにやるといふことについて工夫したのです。相當我々も苦心し、長官の意見も聞いたのですが、併し宮殿を美術館にすることは外國にその例も多いことで、最も意義のあることであるのです。さういふ意味から專門家あたりの應援を得て、結局宮殿美術館として內地にもないといふやうなものが出來た譯です。あそこに以前の裝飾として元の儘殘つてをりますのは、ホールと應接間と、この二つは毫も變更を加へなかつたのです。その他は多少なり、殆んど變へてしまひました。併し電燈器具等は當時のまゝ使つてをります。

咸寧殿由來

寢殿ニシテ殿下ノ御居間タリシ所、大正八

덕수궁 석조전과 기타(德壽宮石造殿その他),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1933년 11월)

1933년 석조전을 미술관으로 전용하면서의 기사이다. 당시 궁궐영건은 이왕직 관할이었으므로 이왕직영선계의 야스모토(保元)씨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 전등, 통풍장치와 쪽매마루바닥, 타일 등의 사용이 영건당시 최신의 기술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를 극찬하면서 일부는 당시 준공된 도쿄별저(아카사카프린스호텔舊館이 1930년 완공되었음)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개수하면서의 건축계획인데, 홀과 접견실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다음 부분은 미술관에 맞게 전용하였다.

원문내용 : '덕수궁 석조전과 기타(德壽宮石造殿その他)'
본회간사, 이왕직영선계 주임 야스모토 히라사부로 씨 글 석조전 유래

구 한국정부 총세무사 영국인 백탁안(브라운)의 계획에 의해 메가다 재정고문 당시에 했던 것이다. 건축은 영국 기사 「하딩」, 내부 장식은 같은 나라의 「다비드손」이 담당하고, 아울러 일본인 조수 3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본 건물의 공사는 1900년(광무4년)에 착수, 1909년(융희3년)에 준공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났던 것을 말씀 드리면 저 건축은 아는 바와 같이, 순 영국식의 부흥식으로 당시 영국 건축을 그대로 이쪽에 옮긴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딩은 그 당시 석조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여러 곳에 디자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하딩이 한 건축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석조전에 남아 있는 설계 세공수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많다는 것이다. 건축가로서도 그것에 대해 잘 살펴보면, 당시 영국식 건축이 되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석재·시멘트·벽돌 같은 중요재료 외에, 대부분의 재료는 일본에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상당히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수도·전등을 미리 계획하고 통풍도 특수한 장치를 하였습니다. 예로 옥내에 선풍기로서 통풍을 하는 것과 같은 여러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공법으로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쪽매마루구성과 같은 것인데, 단지 판 위에 쌓지 않고 그 사이에 좋은 마제의 포를 사용하고, 벽에 붙인 단자(rug)를 한 곳이 펠트 같은 옷감을 덮은 것 같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호감이 듭니다. 타일도 물론 일본에서 갖고 온 것으로 주로 유리타일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가구는 특히 설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은 우수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습니다만 가구에 관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가구는 특히 신중히 고려한 것이기에 지금도 훌륭합니다. 또한 지금 신축한 도쿄저택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긴 일부는 총독부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에 관해 상당히 모양 변화를 한 것입니다만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의 형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궁리한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여 장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궁전을 미술관에 한 것은 외국에 그 예도 많은 것으로 가장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의 응원을 얻어 결국 궁전미술관으로서 일본에도 없는 것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장식을 원형 그대로 남겨둔 부분은 홀과 접견실로, 이 두실은 조금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실은 많든 적든 거의 변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등기구 등은 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石造殿　本殿は特別の名稱なく普通に石造殿と稱せられ、本宮建築物中最も異彩を放つ所のものである。其の全部竣成したのは少しく後であるが、之が起工に着手せられたのは甲辰の火災以前であるから、此處に於て說述することゝする。

抑々慶運宮內數多の建築物中、純西洋式のものには惇德殿・九成軒・靜觀軒・重明殿などがあつたが此等は何れも皆支那煉瓦を建築材料としたものである。然るに本殿のみは花崗石を以て建造せられ、其の樣式もルネッサン式で、規模も他より遙かに群を拔き、本宮諸建築物中の白眉と稱すべきものである。然るに本殿建設の年代を初として本殿に關する諸事項は當時の宮廷記錄中にも何等の記事を見出すこと能はざるのみならず、別に本殿に關し記したるものがないのは甚だ遺憾とする所である。惟ふに本殿の建築は專ら英國人の手に委せられてあつたから、自然此等に關する文書・記錄を失つたものであらう。然るに幸にも該石造殿の建築監督者たりし英國人デヴイツドソン氏(M. H. W. Davidson)が今尙京城に居られるので、同氏によつて粗々本殿の來歷を知ることを得た。下に其の概要を述べる。

本殿は舊韓國政府總稅務司英國人ブラオン(Sir. John Melevy Brown)指揮の下に創始せられ以て目賀田財務顧問の時に及んだものである。本殿は最初慶熙宮內に建設する豫定であつたが、後に總稅務司の意見で現在の位置に決定せられたのである。それは恰も明治三十三年(光武四年一九〇〇年)であつた。本殿の建築は英國技師ハーデイング(Mr. G. R. Harding)の設計に成り、內部工事は同國建築技師ローヴエル(Mr Lovell)の設計したものである。

最初は先づ花崗石を東大門外の採石所より取り來り、基礎工事は韓國技師(內部技師沈宜碩)監督の下に實行された。次に建築は之を大倉組にて請負ひ、日本人監督並に其の下の日本人技師二名で本工事を進行せしめた。デヴイツドソン氏の本殿建築に關し一切の責任を有するに至りしは明治三十八年(光武九年一九〇五年)からであつて、此の時には第二層も殆んど完成して居つた。英國技師ローヴエルに內部工事の設計を命じたのは明治四十年(光武十一年一九〇七年)であつて、鉛管敷設、煖爐及び電燈裝置はロンドンのクリツタル會社(Crittall & Co.)で、內部裝置及び調度品はロンドンのメープル會社(Messrs Mapls & Co.)で之を請負つた。而して工事全部の竣成したのは明治四十二年(隆熙三年一九〇九年)で、本建築物の李王家に引繼がれたのは明治四十三年

석조전(石造殿), 오오타 쇼고(小田省吾), 『덕수궁사(德壽宮史)』(1938년 5월)

（隆熙四年一九一〇年）八月であつた。

次に本殿の周圍を整理し本殿の壯觀を飾るべく庭園の完成したのは工事竣成の翌年卽ち明治四十三年であつて、ぶなの木、とちの木、野櫻、月桂樹、しやくなげ等の樹を態々外國から取寄せ植栽したが、最後の二種の外は皆枯死してしまつた。

本殿建築に要したる總ての經費は最初總稅務司より九十四萬圓を支出し、其の後目賀田顧問から三十五萬圓を支出したから、前後合して約百二十九萬圓に上つて居る。（以上はデヴイツドソン氏手記に據る）

此處で一言附記して置きたい事は、本宮と惇德殿との關係が石造殿建築以後非常に變化したことである。昔は今の石造殿の背後から英國領事館の墻壁に沿うて細き道路があつて惇德殿は全く本宮宮墻外となり、其の道路の南側に沿うて九成軒並に緝敬門があつた。然るに石造殿の建設に當り、デヴイツドソン氏の斡旋の結果、遂に此の道路を本宮域內に取入れ、惇德殿の西側に道路を變更することに成功し、之が爲め現在見る如き狀態となり、昔の九成軒並に緝敬門の敷地は恰も石造殿の敷地內に取入れられることになつた。

〔註〕アラオン（柏卓安）は明治二十六年から朝鮮政府の總稅務司となりて財政の實權を握つたが、明治三十七年第一日韓協約の結果日本人一名を財務顧問とすることゝなり、同年十月大藏省主稅局長目賀田種太郎氏が招聘せられて顧問となり、明治三十七年十一月總稅務司の事務を引繼い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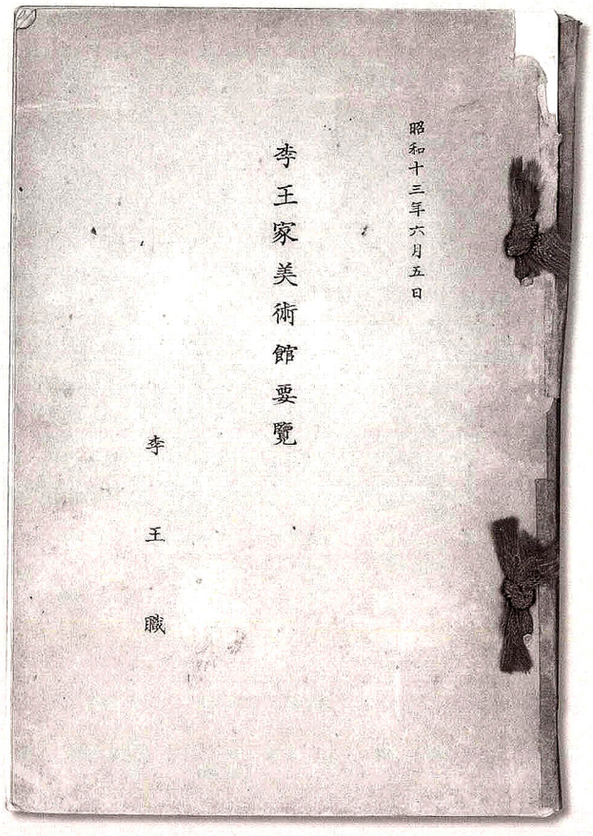
석조전(石造殿), 오오타 쇼고(小田省吾),
『덕수궁사(德壽宮史)』(1938년 5월)

덕수궁사(德壽宮史)의 제6절 중화전, 대한문 및 석조전에 실린 글이다. 1900년 대지가 결정되고 영국인 G.R.Harding(J.R.Harding을 잘 못 쓴 것이다)의 설계, 내부는 Lovell이 설계하였다. 외부 의장설계와 내부설계가 분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기초공사에 한국인 심의석이 참여하였고, 총경비 129만원은 다른 기사와 차이가 있다.

원문내용 : '석조전(石造殿)'

본전(本殿, 석조전)은 구한국정부 총세무사 영국인 Brown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고, 이후 메가다(目賀田) 재무고문에 이르렀다. 본전은 최초 경희궁 내에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총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결정된 것은 1900년(광무4년) 일이다. 본전의 건축은 영국기사 Mr. G. R. Harding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졌고, 내부공사는 영국건축기사 Lovell이 설계한 것이다.

최초에는 화강석을 동대문 밖 채석소에서 채취하고, 기초공사는 한국인 기사(내부기사 심의석)의 감독 하에 실행되었다. 다음의 건축은 오쿠라도보쿠구미(大倉組)에 청부(請負, 도급)되어 일본인감독과 그 밑에 일본인기사 2명에 의해 본 공사를 진행되었다. Davidson씨가 본전건축에 관해 일체 책임을 갖게 된 것은 1905년(광무9년)부터이며 다음 시기에는 2층공사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영국기사 Lovell에게 내부공사의 설계명령이 내려진 것은 1907년(광무11년) 이며, 연관부설(鉛管敷設), 난로, 전등장치는 런던의 Crittall & Co.에서, 내부 장치 및 조도품(調度品)은 런던의 Messrs Maples & Co.에서 청부하였다. 공사 전체의 준공은 1909년(융희3년)으로, 본 건축물의 이왕가에 인계한 것은 1910년(융희4년)이다. 다음으로 본전의 주위를 정리하고 본전의 장관을 장식하기 위해 정원을 완성한 것은 공사 준공의 이듬해인 1910년이고, 너도밤나무, 칠엽수, 야생벚꽃(野櫻), 월계수, 석남화(石南花) 등의 나무를 외국에서 들여와 식재했으나 최후의 2종(월계수와 석남화) 이외에는 모두 고사(枯死)되었다. 본전건축에 사용된 총경비는 최초 총세무사가 94만원을 지출했고, 그후 메가다(目賀田) 고문이 35만원을 지출해서 전후 합 약 129만원 정도이다. (이상은 Davidson씨의 수기에 의한다)



昭和十三年六月五日

李王家美術館要覽

李王職

昭和十二年一月二十六日	漆製秋野の文庫	前大峰	高三寸六分
同	彩漆牡丹圖二曲屏風	大村友雄	横四尺九寸 縦五尺四寸
同二月十八日	勦線釉花壺	叶松谷	胴徑一尺一寸五分 高一尺二寸
同十月四日	鎏銅菩提樹古花瓶	津田信夫	同一尺四寸 同一尺一寸
同十二月十四日	果樹林溝屏風	鹿島英二	横四尺九寸 縦五尺九寸
同	菱紋手箱	小川雄平	高三寸 幅七寸

昭和十一年秋新文展出品

同

同

同

同十年和光會出品

同十二年第一回文展出品

同

四　美術館建築概要

所在地　東城府貞洞町五番地の一德壽宮内

宮内面積　二萬百十四坪七合

美術館は德壽宮境内の西北隅に位置して舊館(石造殿)は南に面し新館は東面す。其の近代式建築たる白壁の殿堂は、中央の洋式庭園を隔てゝ丹碧を凝らせる德壽宮の正殿中和殿を始め淸明堂等と相對し新古建築美の景觀を出現してゐる。又後方の小阜上には兒童遊園及鳥獸飼育場があり遠く仁王北岳の峻峰を眺め南に終南山の翠巒を望み地形高燥にして常綠の樹木は白壁殿に相映じ前庭の蓮池には白鷺が浮び芝草には孔雀の遊歩するあり老若男女觀客の行樂の地である。

美術館

一　舊館(石造殿)　近代美術品陳列

二　新築美術館　朝鮮古代美術陳列

三　新築渡廊下　前兩者の連絡に充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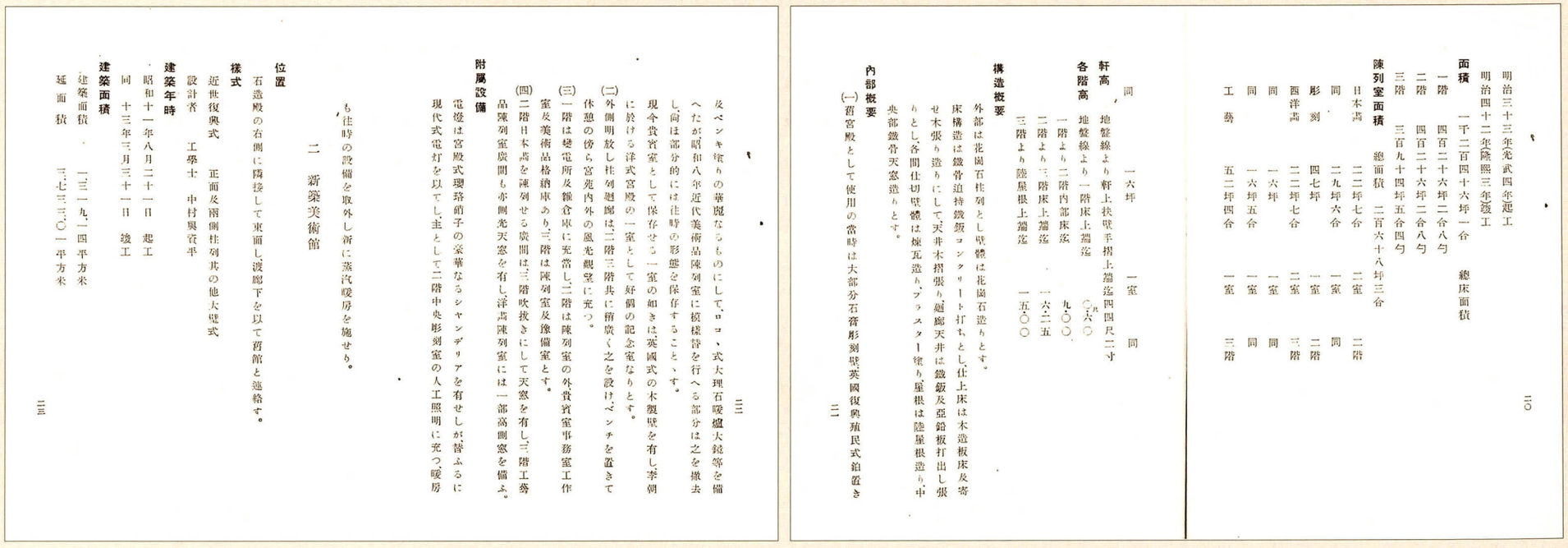
一　舊　館(石造殿)

樣　式　英國殖民式宮殿　三方柱廊中央破風

設計者　英國人技師　ハアデイング

建築年代

미술관 건축개요[美術館建築概要] / 구관(석조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 [1938년 6월 5일]



明治三十三年(光武四年)起工
明治四十二年(隆熙三年)竣工

面積　一千二百四十六坪一合　總床面積
一階　四百二十六坪二合八勺
二階　四百二十六坪二合八勺
三階　三百九十四坪五合四勺

陳列室面積　總面積　二百六十八坪三合
日本畵　二二坪七合　二室　二階
同　二九坪六合　一室　同
彫刻　四七坪　一室　二階
西洋畵　二二坪七合　二室　三階
同　一六坪　一室　同
同　一六坪五合　一室　同
工藝　五二坪四合　一室　三階

同　一六坪　一室　同

軒高　地盤線より軒上扶壁手摺上端迄四四尺二寸

各階高　地盤線より一階床上端迄　九・〇〇
一階より二階内部床迄　一六・二五
二階より三階床上端迄　一五・〇〇
三階より陸屋根上端迄

構造概要
外部は花崗石柱列とし壁體は花崗石造りとす。
床構造は鐵骨迫持鐵鈑コンクリート打ちとし仕上床は木造板床及寄せ木張り造りにして天井木摺張り廻廊天井は鐵鈑及亞鉛板打出し張りとし各間仕切壁體は煉瓦造り、プラスター塗り屋根は陸屋根造り中央部鐵骨天窓造りとす。

内部概要
(一)舊宮殿として使用の當時は大部分石膏彫刻壁英國復興殖民式鉛置き及ペンキ塗りの華麗なるものにして、ロコ、式大理石暖爐大鏡等を備へたが昭和八年近代美術品陳列室に模様替を行へる部分は之を撤去し、尚ほ部分的には往時の形態を保存することゝす。
現今貴賓室として保存せる一室の如きは英國式の木製壁を有し、李朝に於ける洋式宮殿の一室として好個の記念室なりとす。
(二)外側明放し柱列廻廊は二階三階共に簷廣く之を設けベンチを置きて休憩の傍ら宮苑内外の風光觀望に充つ。
(三)一階は變電所及雜倉庫に充當し二階は陳列室の外貴賓室事務室工作室及美術品格納庫あり三階は陳列室及豫備室とす。
(四)二階日本畵を陳列せる廣間は三階吹抜きにして天窓を有し三階工藝品陳列室廣間も亦側光天窓を有し洋畵陳列室には一部高側窓を備ふ。

附屬設備
電燈は宮殿式瓔珞硝子の豪華なるシャンデリアを有せしが曾ふるに現代式電灯を以てし主として二階中央彫刻室の人工照明に充つ暖房も往時の設備を取外し新に蒸汽暖房を施せり。

二　新築美術館

位置
石造殿の右側に隣接して東面し渡廊下を以て舊館と連絡す。

樣式
近世復興式　正面及兩側柱列其の他大壁式
設計者　工學士　中村與資平

建築年時
昭和十一年八月二十一日　起工
同　十三年三月三十一日　竣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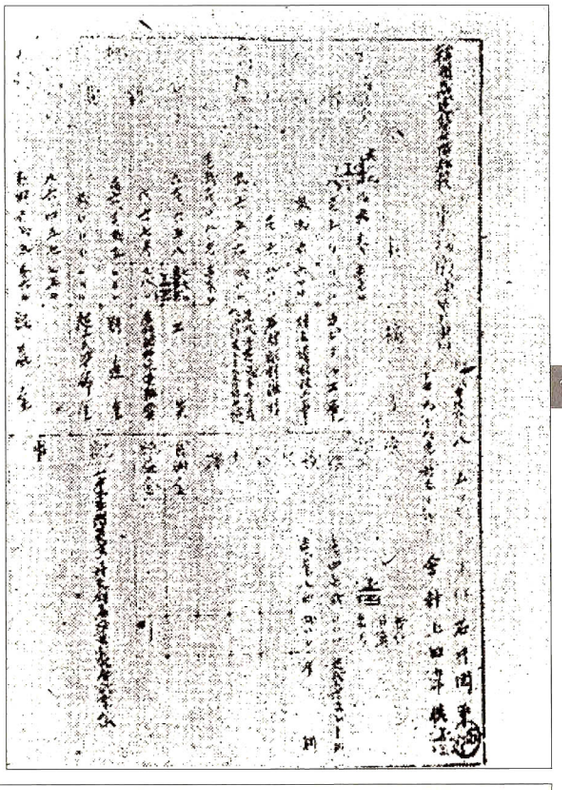
建築面積　一三一九・一四平方米
延面積　三七三三・〇一平方米

미술관 건축개요(美術館建築概要) / 구관(석조전),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1938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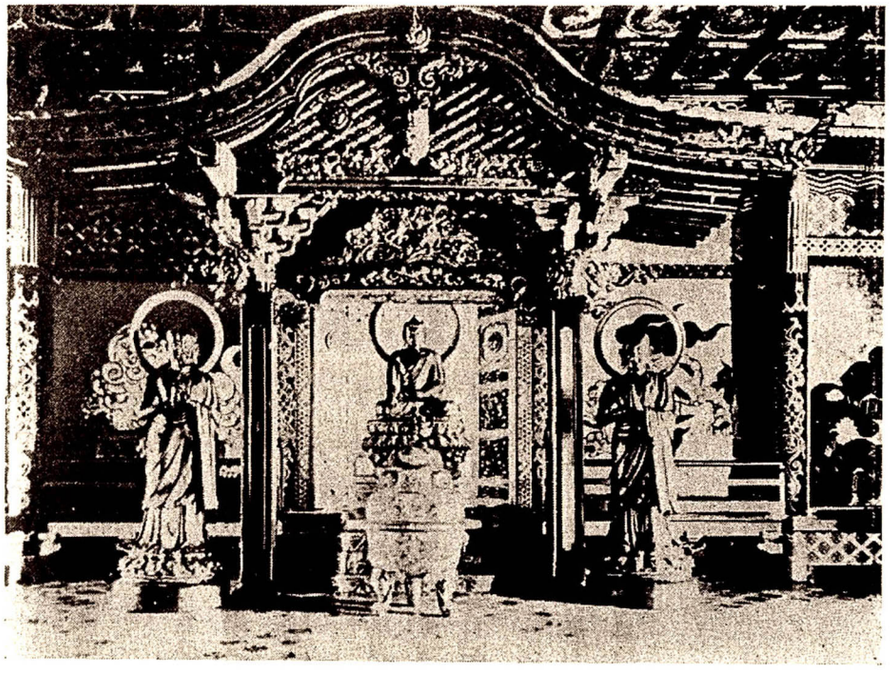
이왕직에서 발간한 이왕가미술관요람 자료이다. 여기에는 덕수궁미술관이 신축되면서 기존 석조전과 함께 '이왕가미술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도면, 사진 자료와 함께 구관(석조전), 신관의 건축개요가 실려 있다. 특히 구조개요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복원공사에 참조가 된다.

원문내용 : '미술관 건축개요(美術館建築概要) / 구관(석조전)'

- 양식(樣式) : 영국식민지 궁전, 설계자 영국인 기사 하딩
- 건축연대(樣式) : 1900년 기공, 1909년 준공
- 진열실면적, 건물높이, 계단높이 등
- 구조개요(構造概要) : 외부(外部)는 화강석 기둥열(花崗石 柱列)로 세우고, 벽체(壁體)는 화강석으로 만들었다. (花崗石造リ) 바닥구조(床構造)는 철골 아치 철판콘크리트(鐵骨迫持鐵鈑コンクリート)로 하고 바닥마감(仕上床)은 목조판바닥(木造板床) 및 쪽매식 목재마루(寄せ木長リ造リ)이다. 천정(天井)은 목재 졸대 붙임(木摺長リ)이며, 회랑천정(廻廊天井) : 철판 및 아연판 타출(鐵鈑及亞鉛板打出し張リ)이다. 칸막이벽(間仕切壁體)은 벽돌벽에 회벽(플라스터) 도장(煉瓦造リ, プラスター塗リ)으로, 지붕(屋根)은 평지붕(陸屋根造リ), 중앙부(中央部)는 철골천창(鐵骨天窓造リ)이다.
- 내부개요(內部概要) : 舊宮殿으로 사용할 당시는 대부분 석고 조각벽(石膏彫刻壁)이다. 영국 부흥 식민식(英國復興殖民式)의 금박 및 페인트 도장(鉛置き及ペンキ塗リ)으로 화려하게 하고 로코코식 대리석 난로, 큰 거울 등(ロココ式大理石暖爐大鏡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귀빈실(2층 중앙실의 서쪽 방)로 보존하고 있는 방은 영국식의 목제벽(木製壁)을 갖고 있다.



『대성건설사사[大成建設社史]』[대성건설회사[大成建設株式會社], 1963년 1월]



震災焼失前の大倉集古館内部（桂昌院霊廟の一部）

京城徳寿宮

これも日清戦争後から日露戦争後にわたっておこなわれた大工事である。

京城貞洞の徳寿宮は、旧李王家の宮殿の中でも最も重要なものの一つであった。その中でも石造殿と称されるルネッサンス式大宮殿は、目立ってすぐれた建造物であるが、これは大倉土木組の施工になる建築である。

この石造殿の建設計画が樹てられたのは、明治三十三年（一九〇〇年）である。当時韓国財政の実権を握っていた英国人ブラオンが発議し、同じく英国人の技師ハーディング・ローヴェルが設計した。

基礎工事は韓国技師の監督の下におこなわれ、主体建築は、大倉土木組、管工事、ストーブ、電灯工事は英国のクリッタル会社、内部装飾、調度品は英国のメープル会社が請負った。

大倉土木組は、石井周平を工事主任として派遣し、三十六年八月着工した。

花崗石三層の石造殿が完成したのは三十九年の十一月のことである。

この間、日露戦争があり、英人に代わって大蔵省主税局長目賀田種太郎が韓国財政顧問に迎えられるなど、大きな事情の変化があったが、ともかく日韓英三国合作の、当時としては珍しい工事であった。

경성 덕수궁(京城德壽宮),
『대성건설사사(大成建設社史)』(대성건설회사[大成建設株式會社], 1963년 1월)

석조전의 구조공사를 담당한 오쿠라도보쿠구미(大倉土木組)는 현재 일본의 대형 건설회사인 다이세이 건설주식회사(大成建設株式會社)이다. 본 글은 다이세이 건설사사(大成建設社史)에서 '제3장 오쿠라토목회사 전기 - 경성덕수궁(第3章 大倉土木組前期 - 京城德壽宮)'에 실린 석조전 관련 기사이다. 158페이지에는 '경성 덕수궁 석조전' 전경사진과 '한국 왕성건축 3층 석조조적공사(石積工事) 준공 결산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밑으로 1903년 8월 5일 기공, 1906년 11월 15일 준공으로 기입되어 있다.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축공사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내용 : '경성 덕수궁(京城德壽宮)'

이것도 청일 전쟁으로부터 러일 전쟁의 뒤에 걸쳐서 행해진 대공사이다.

경성 정동의 덕수궁은 구 이왕가의 궁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궁궐 중의 하나였다. 그 중에서도 석조전으로 불리는 르네상스식의 대궁전은 눈에 띄게 뛰어난 건조물로 이것은 오쿠라도보쿠구미(大倉土木組)의 시공으로 지어진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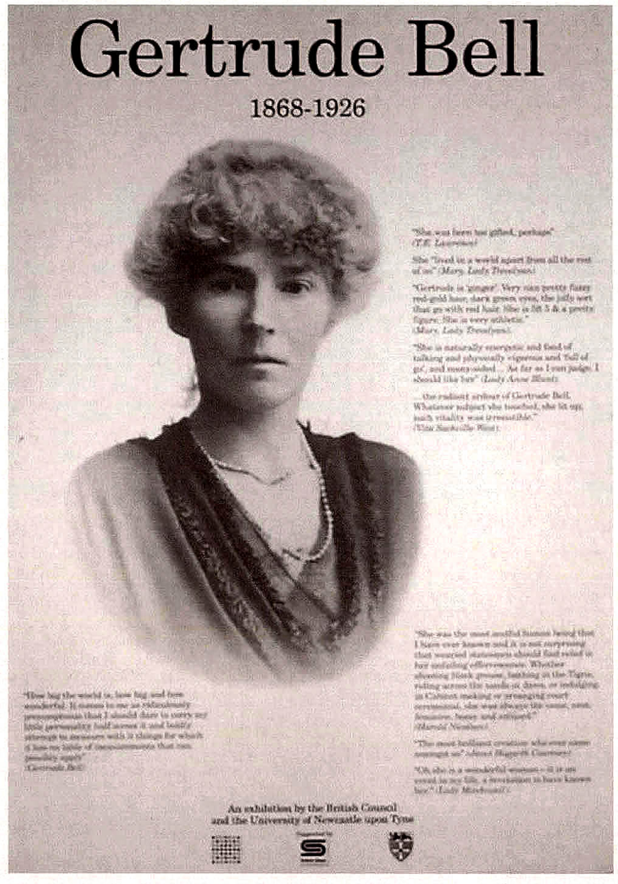
이 석조전의 건설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00년이다. 당시 한국 재정의 실권을 잡고 있던 영국인의 브라운이 발의해, 같은 영국인의 기사 하딩·로빌이 설계했다.

기초공사는 한국 기사의 감독아래에 행해졌고 주체 건축은 오쿠라도보쿠구미, 관공사, 스토브, 전등 공사는 영국의 크리탈 회사, 내부 장식, 조도품(調度品)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가 청부(도급)맡았다.

오쿠라도보쿠구미는 이시이 슈헤이를 공사 주임으로서 파견하여 1903년 8월 착공했다.

화강석 3층의 석조전이 완성한 것은 1906년 11월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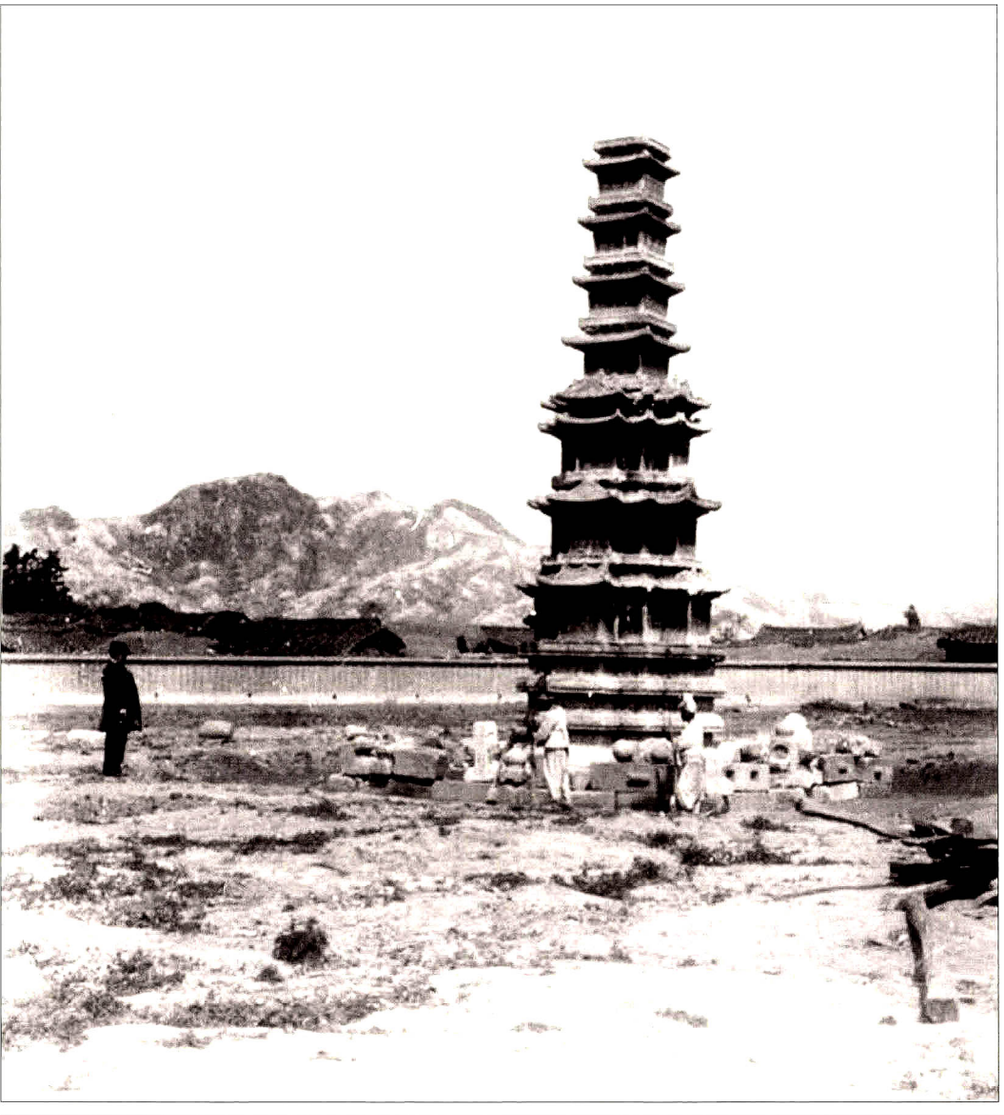
그 사이 러일 전쟁이 있어서 영국인을 대신하여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다쇼타로가 한국 재정고문으로 맞이하게 되는 등의 큰 사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일한영삼국합작으로 당시로서는 드문 공사였다.



거트루드 마가렛 벨 여사와 경운궁 전경,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Gertrude Bell Archive)』,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 소장

거트루드 마가렛 벨(Gertrude Margaret Bell, 영국인, 1868~1926)이 2차례에 걸쳐 세계일주중 1903년 5월 한국을 방문한다. 당시 대한제국의 해관총무사로서 석조전 건립을 발의하였던 브라운(Mcleavy Brown)경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물포로 입국하여 손탁호텔에 묵으며 브라운경의 인물사진과 경운궁사진 등을 촬영하여 남기게 된다. 브라운경과 손탁여사를 통하여 들었던 당시 대한제국의 사정과 고종의 사정, 그리고 공사중이던 석조전건설 도면을 본 이야기 등을 부친에게 편지로 보내 자료로 남겼다. 대한제국 촬영사진을 포함한 세계일주 사진 및 편지들은 현재 영국의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에서 별도의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Gertrude Bell Archive)를 구축하여 공개 중에 있다.

석조전 발의한 브라운 경,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Gertrude Bell Archive)』,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 소장



원각사지 10층석탑과 브라운 경,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Gertrude Bell Archive)』, 뉴캐슬대학(Newcastle University) 소장

석조전 설계자 존 레지날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카달로그, 석조전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메이플(Messrs Mapls & Co.)사, 1905년

MATERIALS for SURROUNDS to SQUARE CARPETS

Plain Felts

all shades, 48 inches wide, from 3/3 per yard.

Linoleum

numerous suitable designs, 1s 1½d to 3s 0d per square yard.

Floorcloth

in imitation of parquet, oak boards, tiles, mosaic, and other designs, 8½d to 3s 2d per square yard.

Chinese and Japanese Mattings

in creamy white, red, olive, and hundreds of fancy patterns in native dyes, 27 to 54 in wide, from 9d to 1s 9d per yard.

Patterns post free

Applications for patterns should state which materials are preferred and at about wha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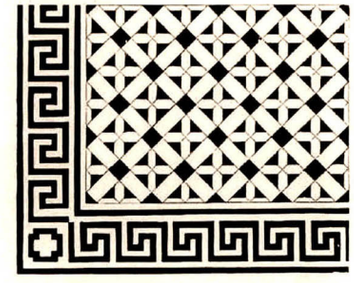
UNDERLAYS for CARPETS

render them much softer to the tread, as well as protect the fabrics from the inequalities of the floor, and thus cause them to wear much longer. Materials used for the purpose are:—

Underfelt, about 46 in wide .	1s 0d and 1s 4d per yard
Felt paper, about 54 in wide . . .	3d „
Brown paper, about 54 in wide . . .	2d „
Hessian or coarse canvas, about 54 in wide .	4½d „

PARQUET FLOORING

MAPLE & CO have always an immense stock of thoroughly dry well-seasoned Parquet in stock ready for immediate laying. Examples of all the different combinations of woods are now on view in the showrooms; and coloured illustrations, with samples showing material and workmanship, will be sent free on application, or an expert representative will attend with samples and submit estimates. The thin make for surrounds to central



carpets, can now be had at from 3d per foot. In one of MAPLE & CO'S showrooms, where the traffic is street-like in its incessancy, a Parquet Floor can be seen which has been in constant use for nearly twenty-five years, and is still in excellent condition, and likely to stand the hard wear years to come. This is incontestable proof of its excellence. Parquet Flooring should always be laid by experienced practical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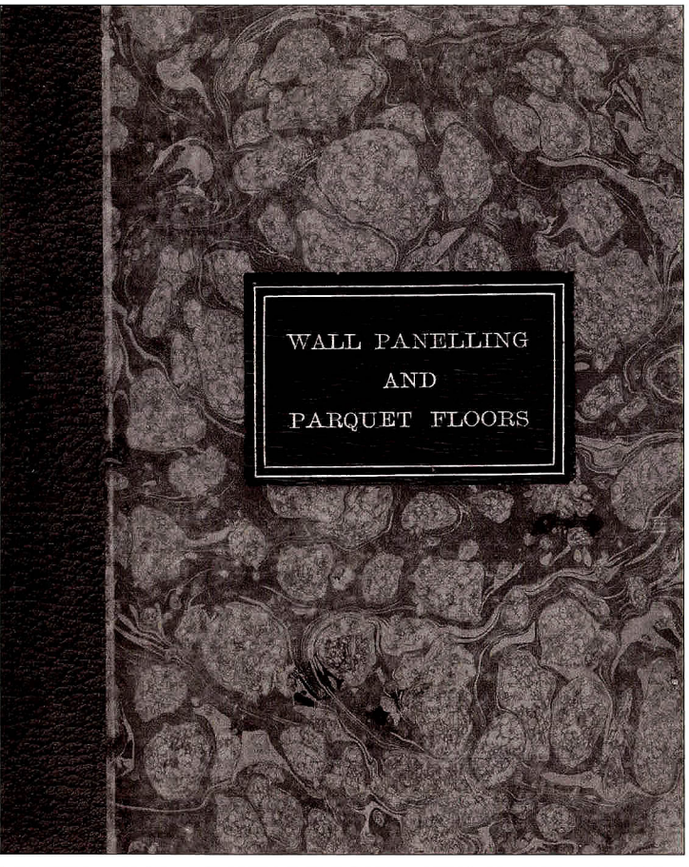
MAPLE & CO *Tottenham Court Road* London *& Rue Boudreau* Paris

"THE LARGEST FURNISHING ESTABLISHMENT IN THE WORLD"

MAPLE & CO

TOTTENHAM COURT ROAD, LONDON

THIS view represents the buildings having frontages 141-150 Tottenham Court Road, 8-46 Grafton Street, 143 to 157 Gower Street, 253 to 279 Euston Road, 1-32 Beaumont Place, &c; but besides these enormous blocks, which are mainly devoted to Showrooms, there are vast outlying Factories for the manufacture of Furniture, as well as Timber Yards, Stables, and other premises



MAPLE & CO

DECORATORS & FURNISHERS

by

Special Appointment

to

HIS MAJESTY KING GEORGE THE FIFTH

LONDON

PARIS

BUENOS AIRES MONTE VIDEO

Architrave and Over-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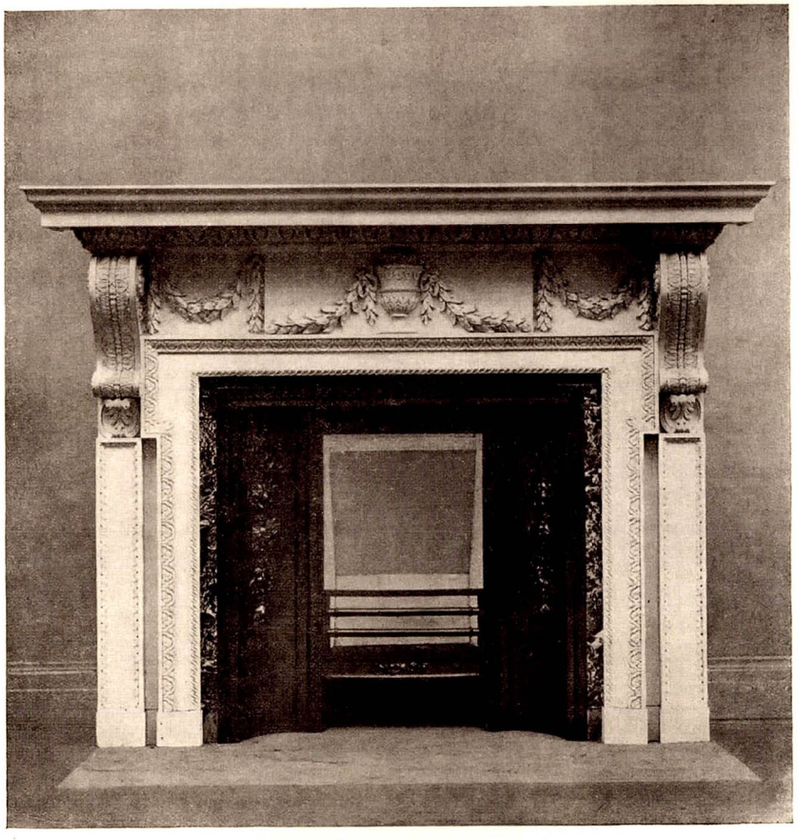
Style of
Grinling
Gibbons

MAPLE & CO

33

WALL PANELLING AND PARQUET FLOORS, 석조전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메이플(Messrs Mapls & Co.)사, 19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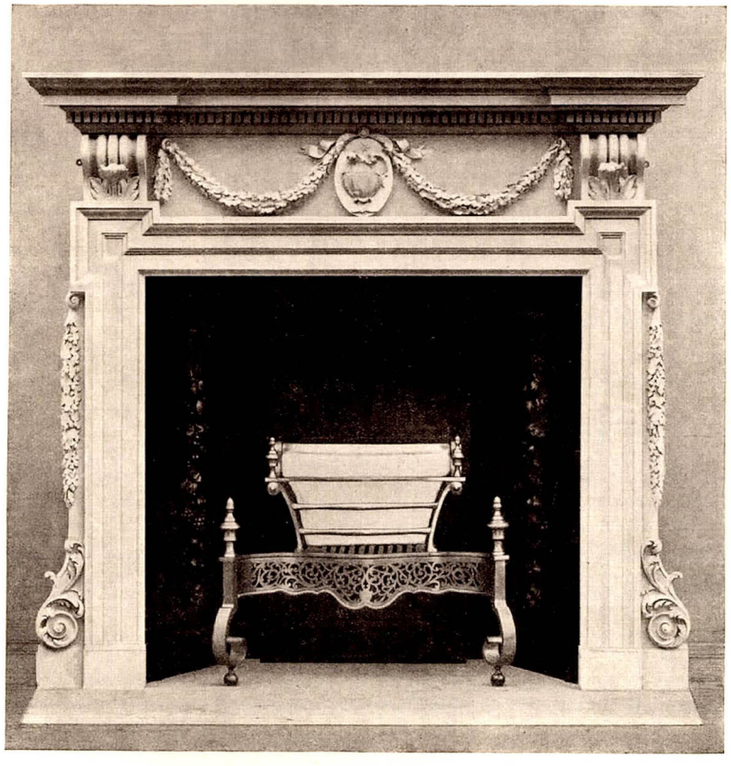
Chimney-pieces



Reproduction of a fine XVIIth Century
Chimney-piece

MAPLE & CO

Chimney-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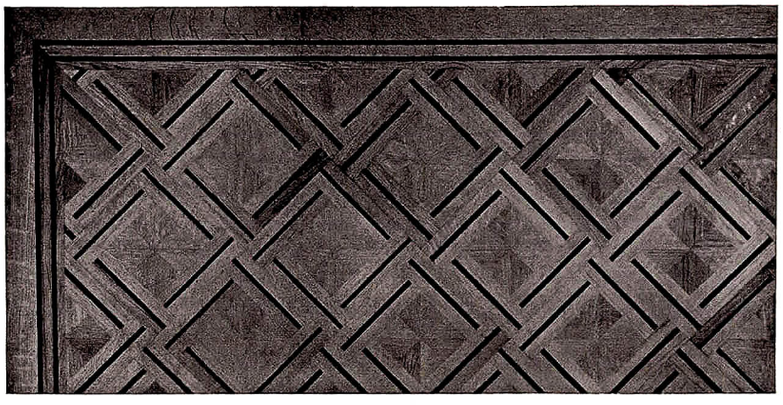


Reproduction of a fine XVIIth Century
Chimney-piece

MAPLE & CO

WALL PANELLING AND PARQUET FLOORS, 석조전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메이플(Messrs Mapls & Co.)사, 1905년

Parq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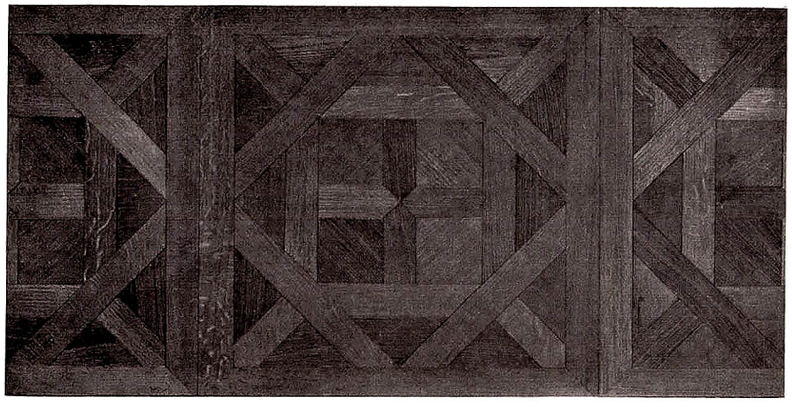


Oak and Waln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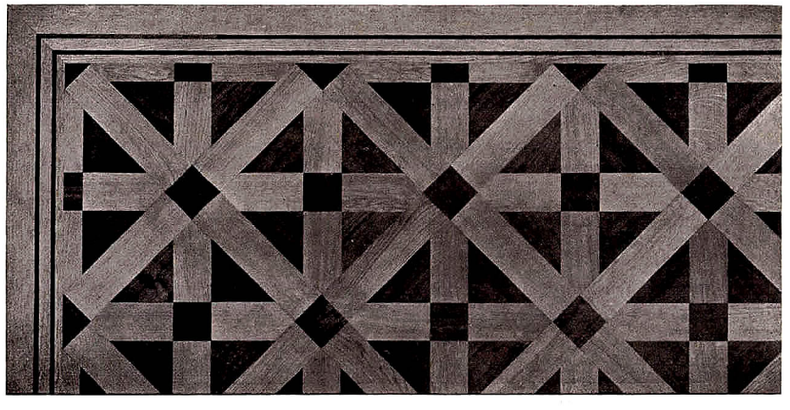
Oak with Line Border

MAPLE & CO

Parquet



Oak



Oak and Walnut

MAPLE &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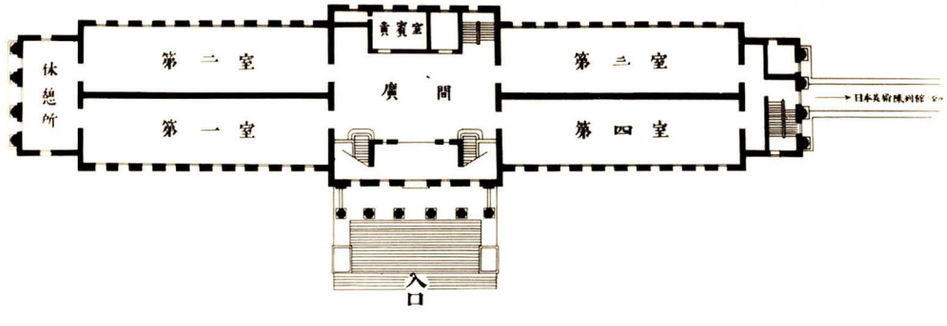
WALL PANELLING AND PARQUET FLOORS, 석조전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메이플(Messrs Mapls & Co.)사, 1905년

소장처별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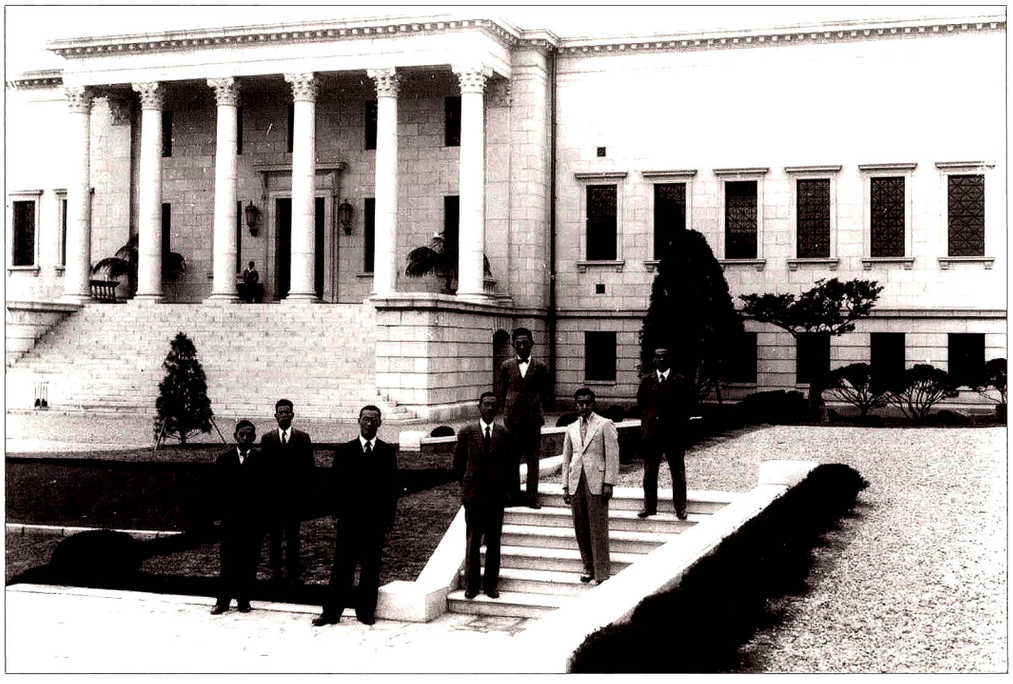
Ⅳ

- 국립중앙박물관
-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 일본 궁내청
- 일본 학습원대학

圖版二　美術館新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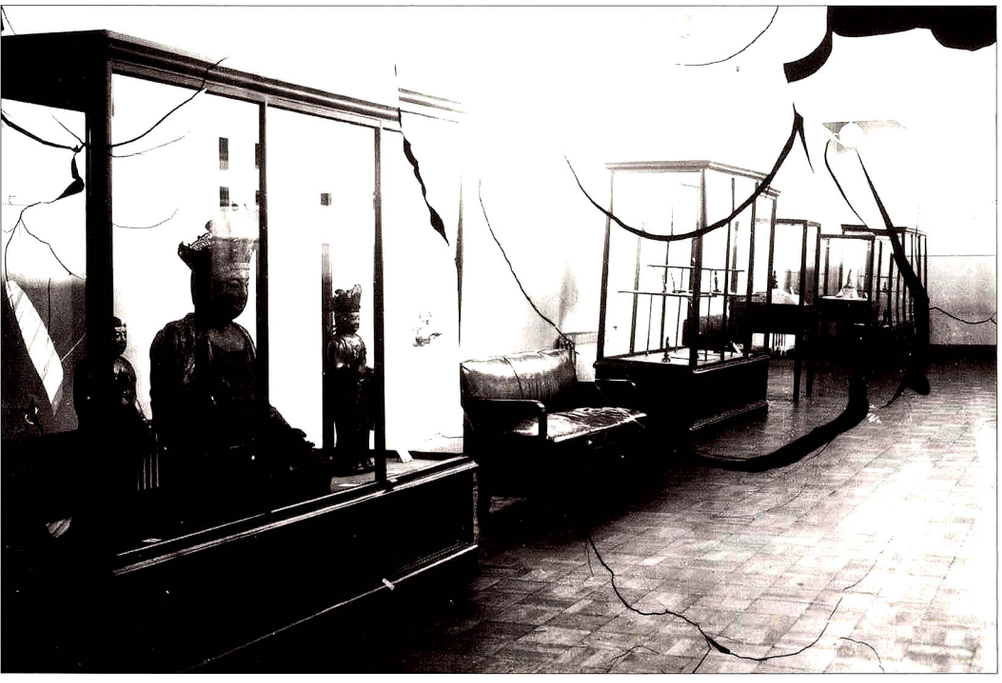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유리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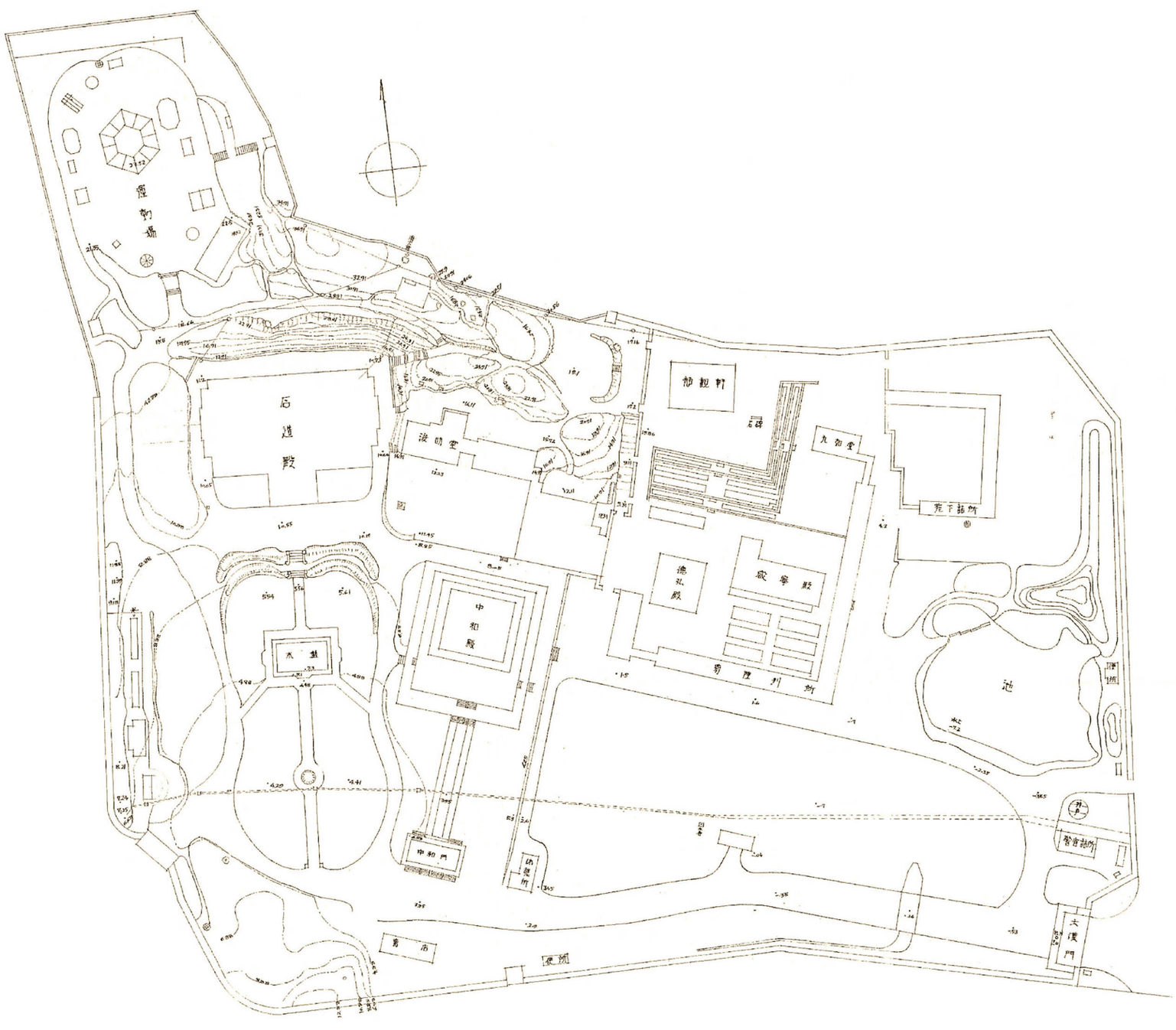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유리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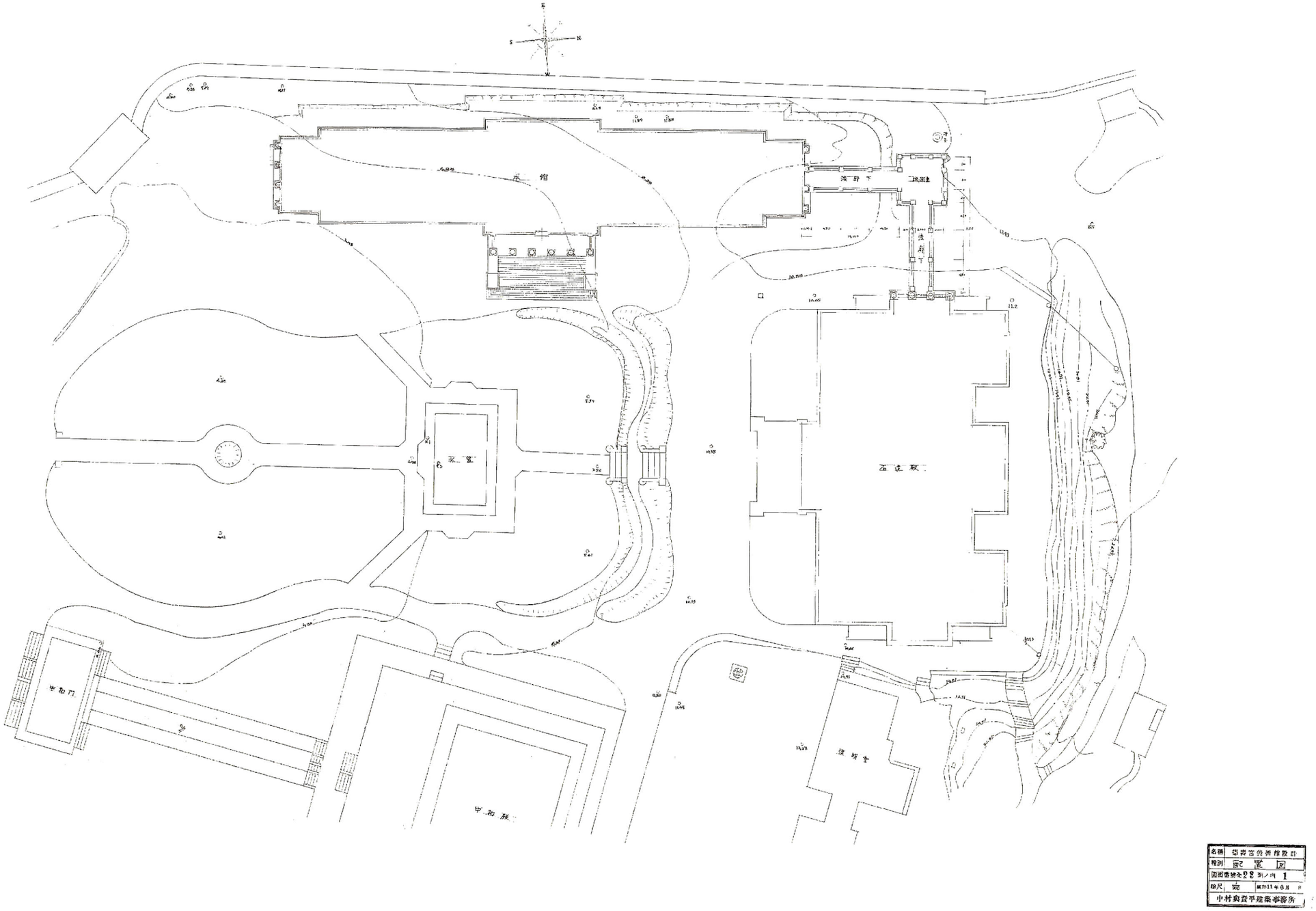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유리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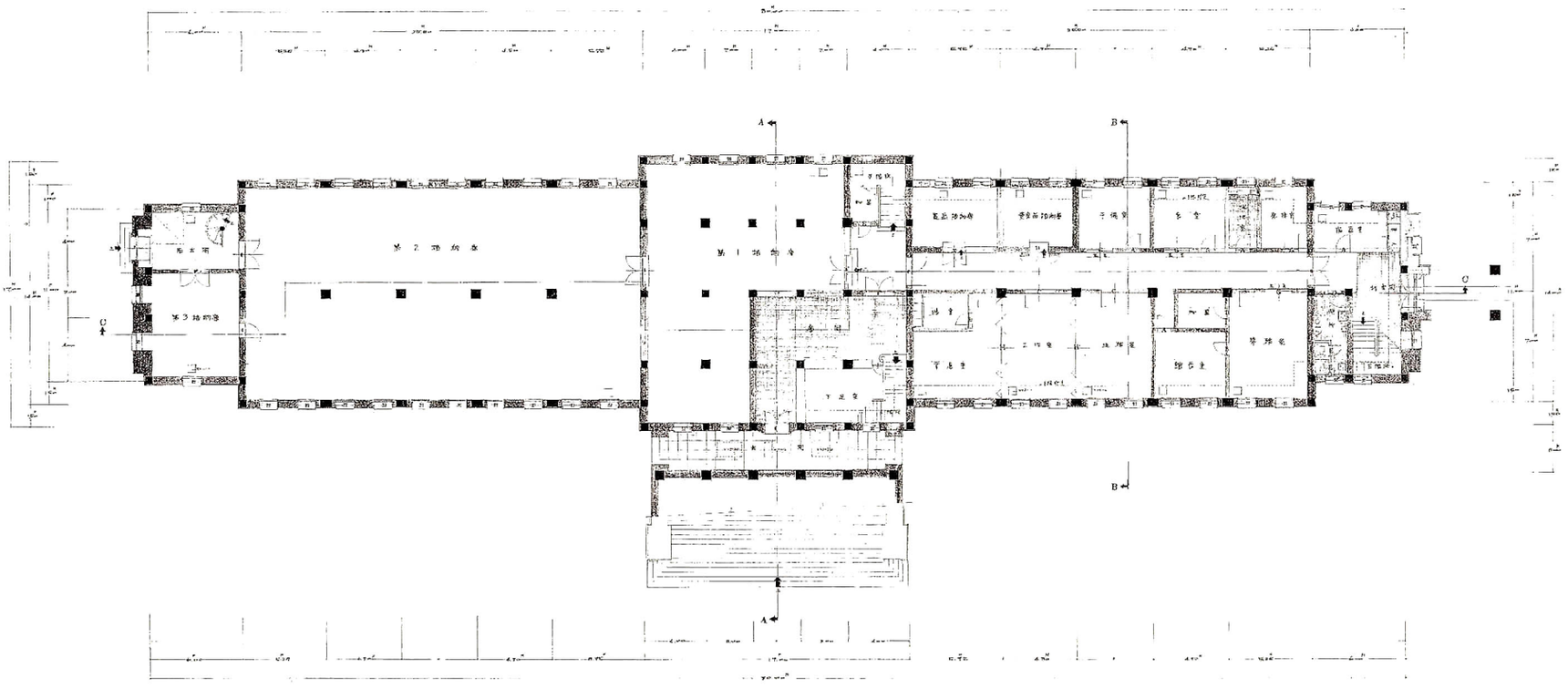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부지 배치도, 1936년 4월, 덕수궁 배치도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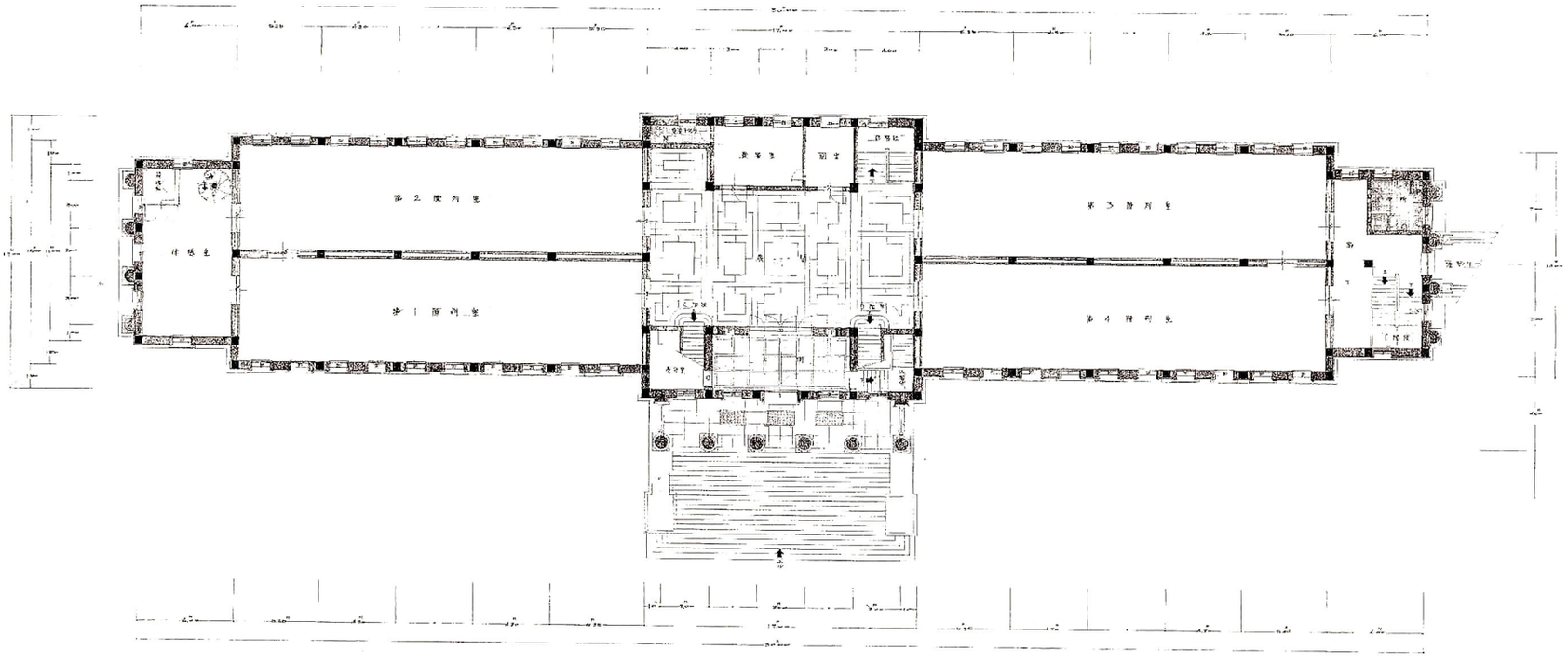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배치도, 1:200, 1936년 6월,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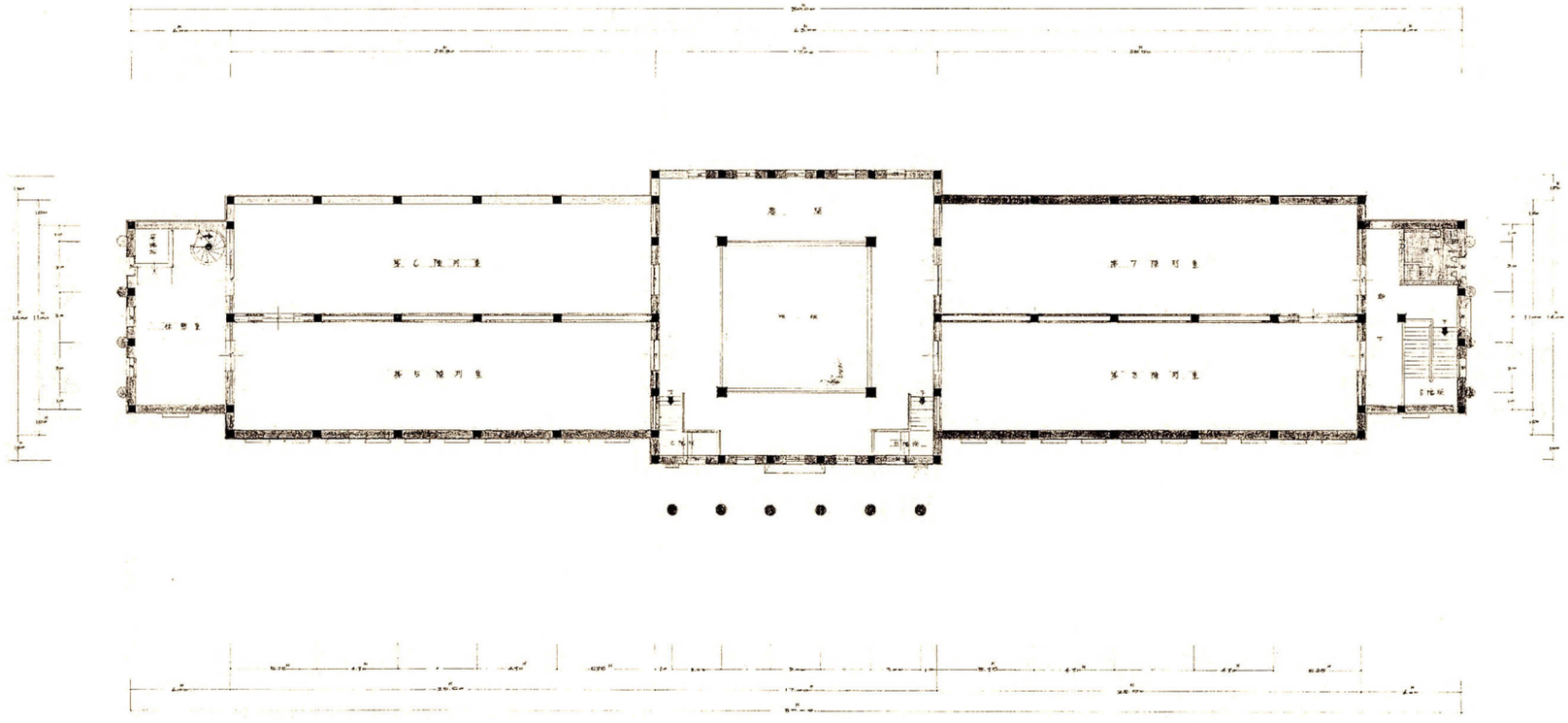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덕수궁미술관배치도, 1:6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층 평면도, 1:100, 1936년 6월,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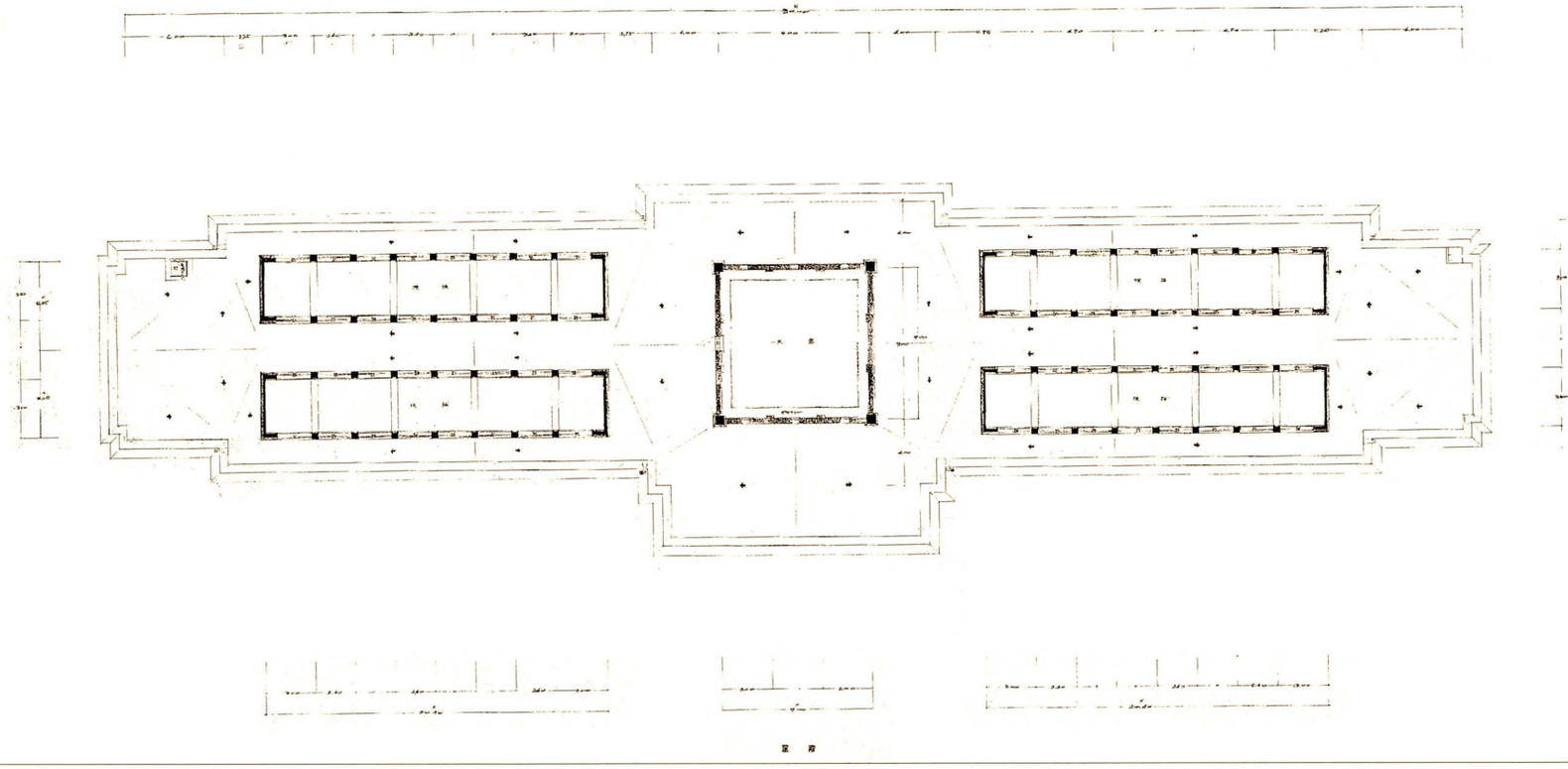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2층 평면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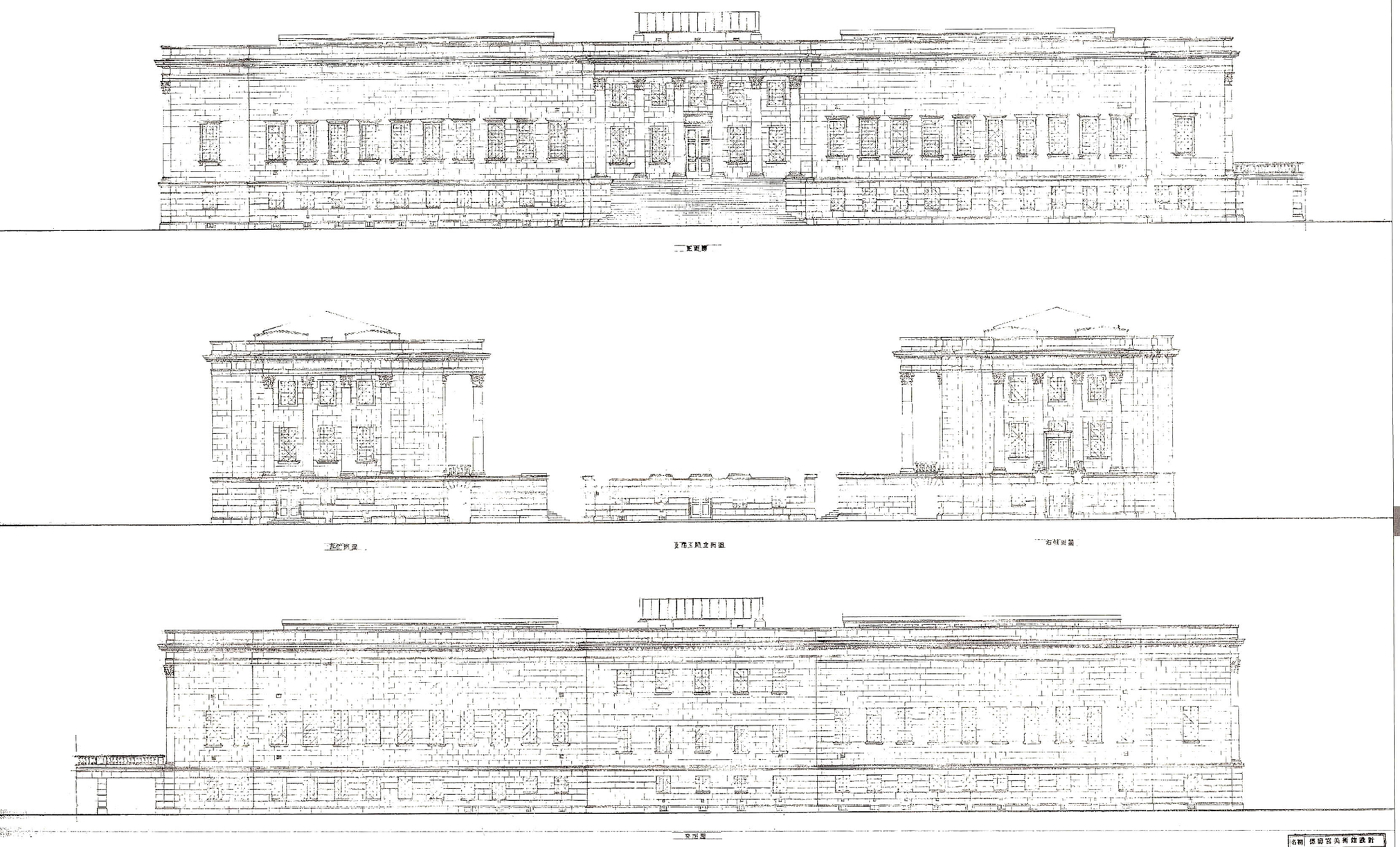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3층 평면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옥상 평면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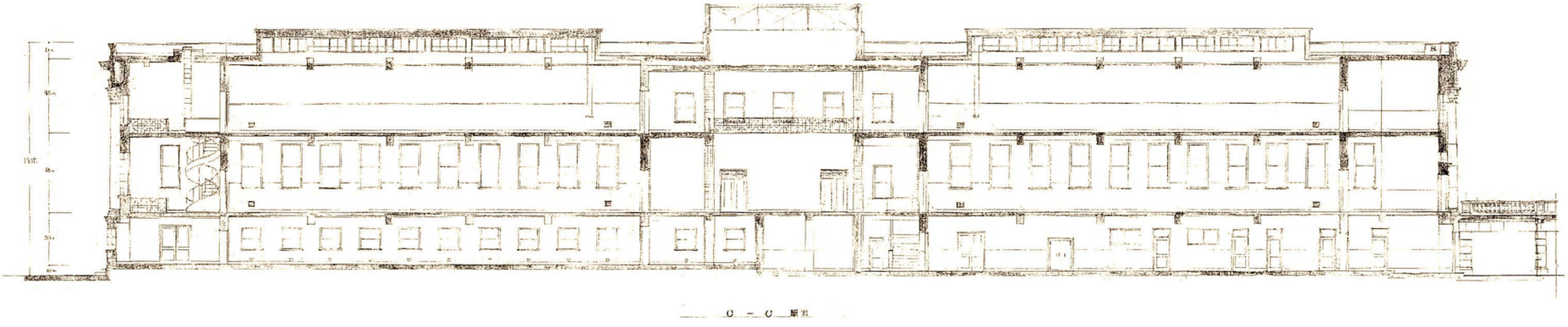


名称	德壽宮美術館設計
種別	立面圖
縮尺	1/100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입면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B ~ B 断面

A ~ A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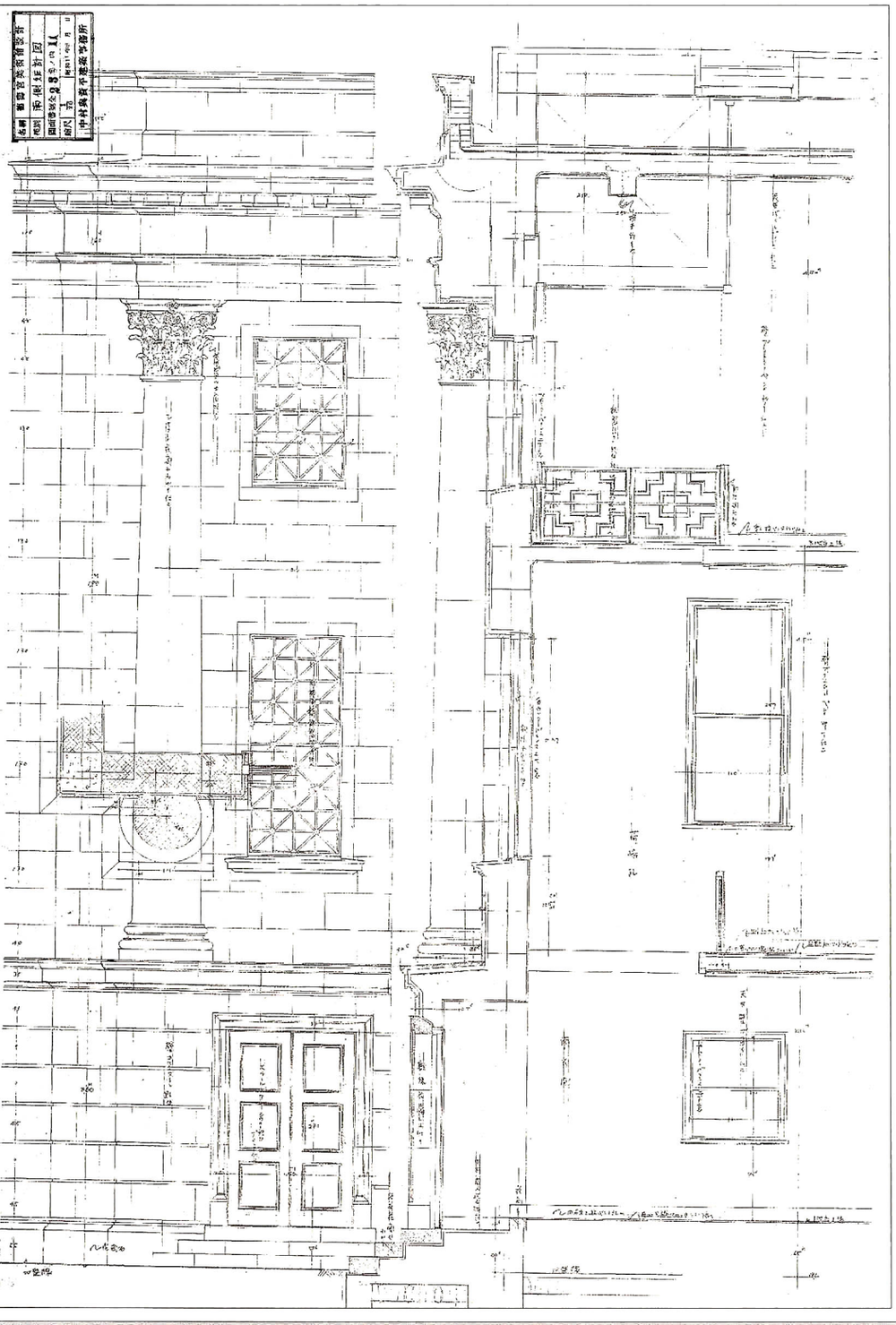


C ~ C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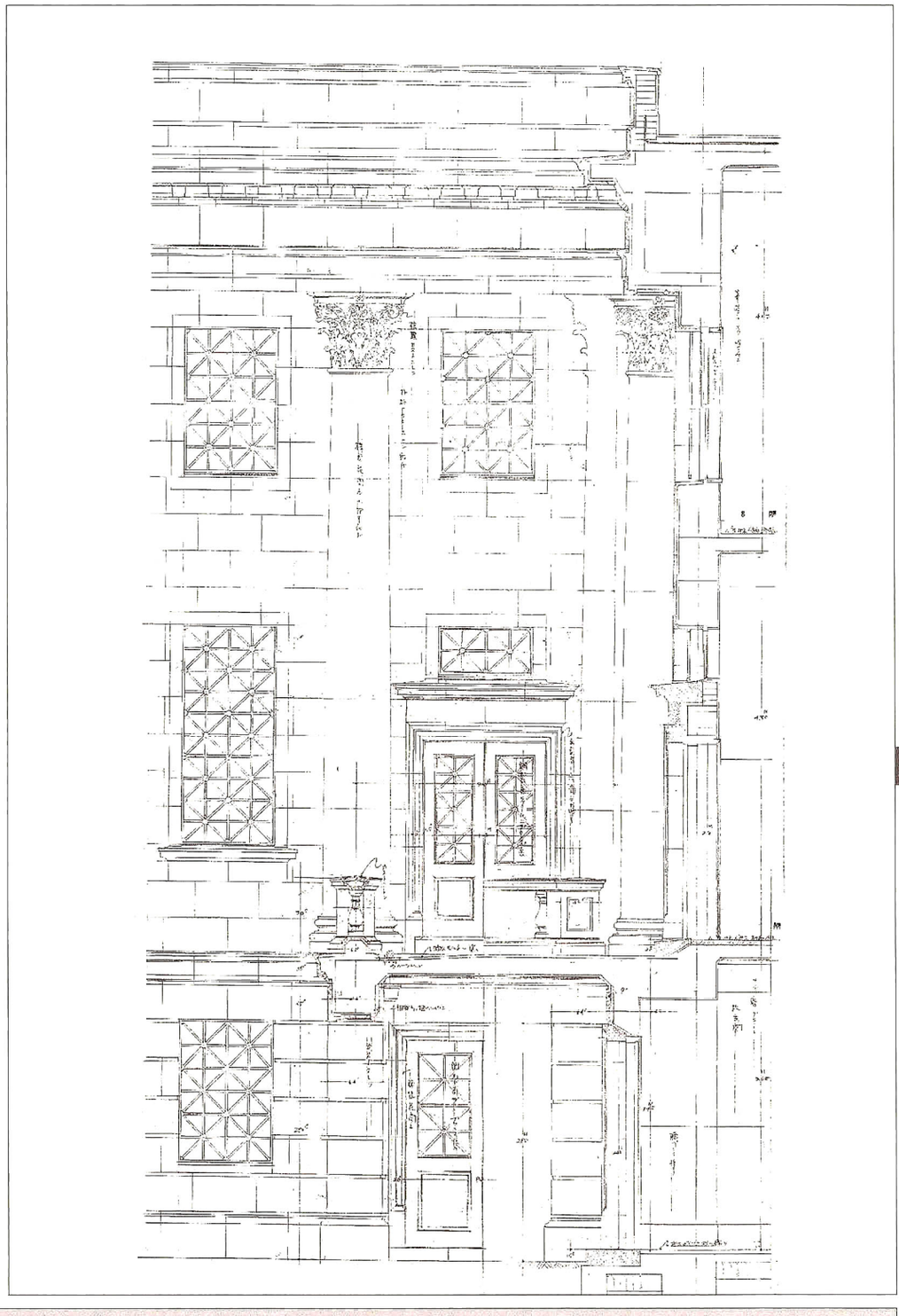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단면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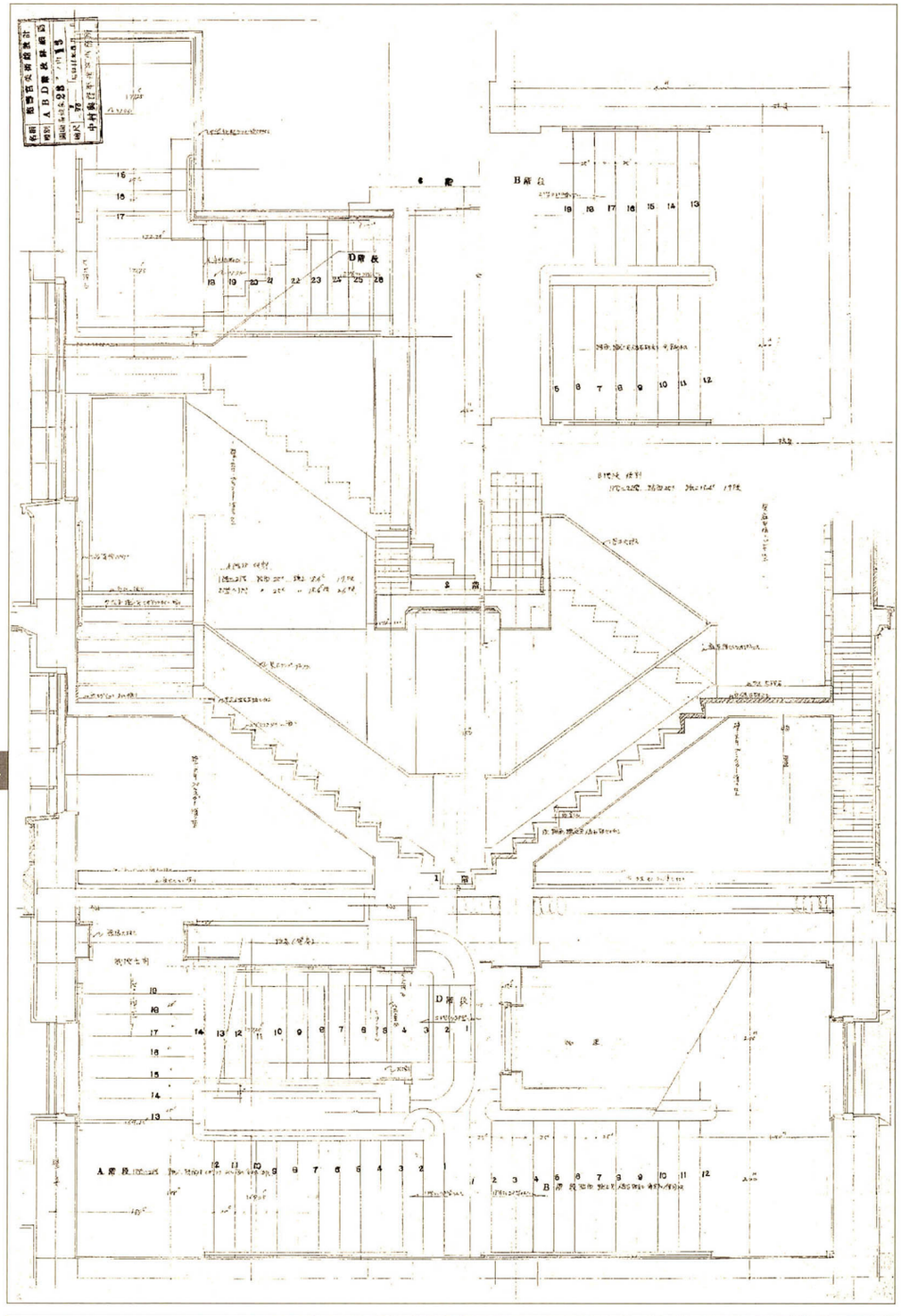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중앙 홀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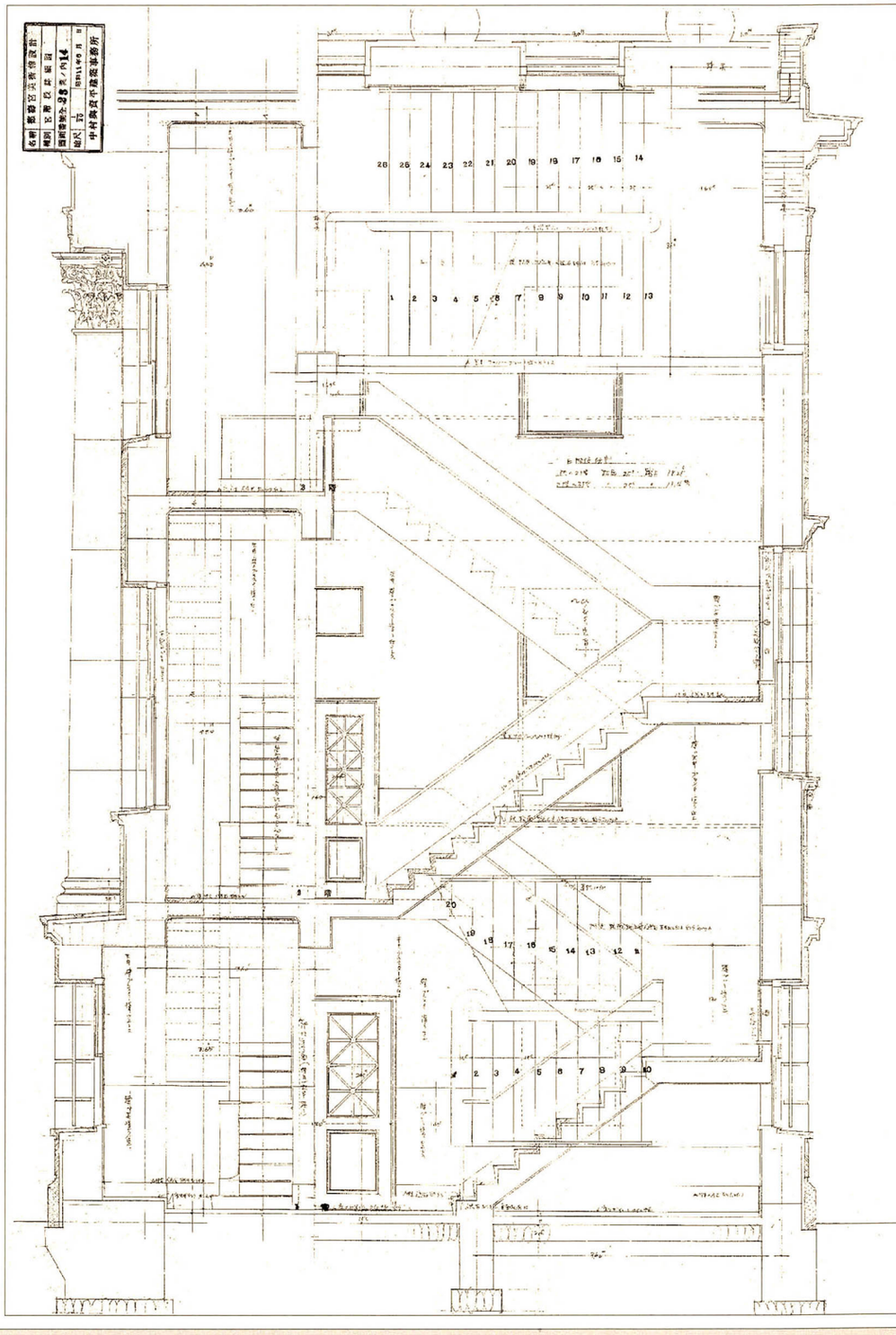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남측면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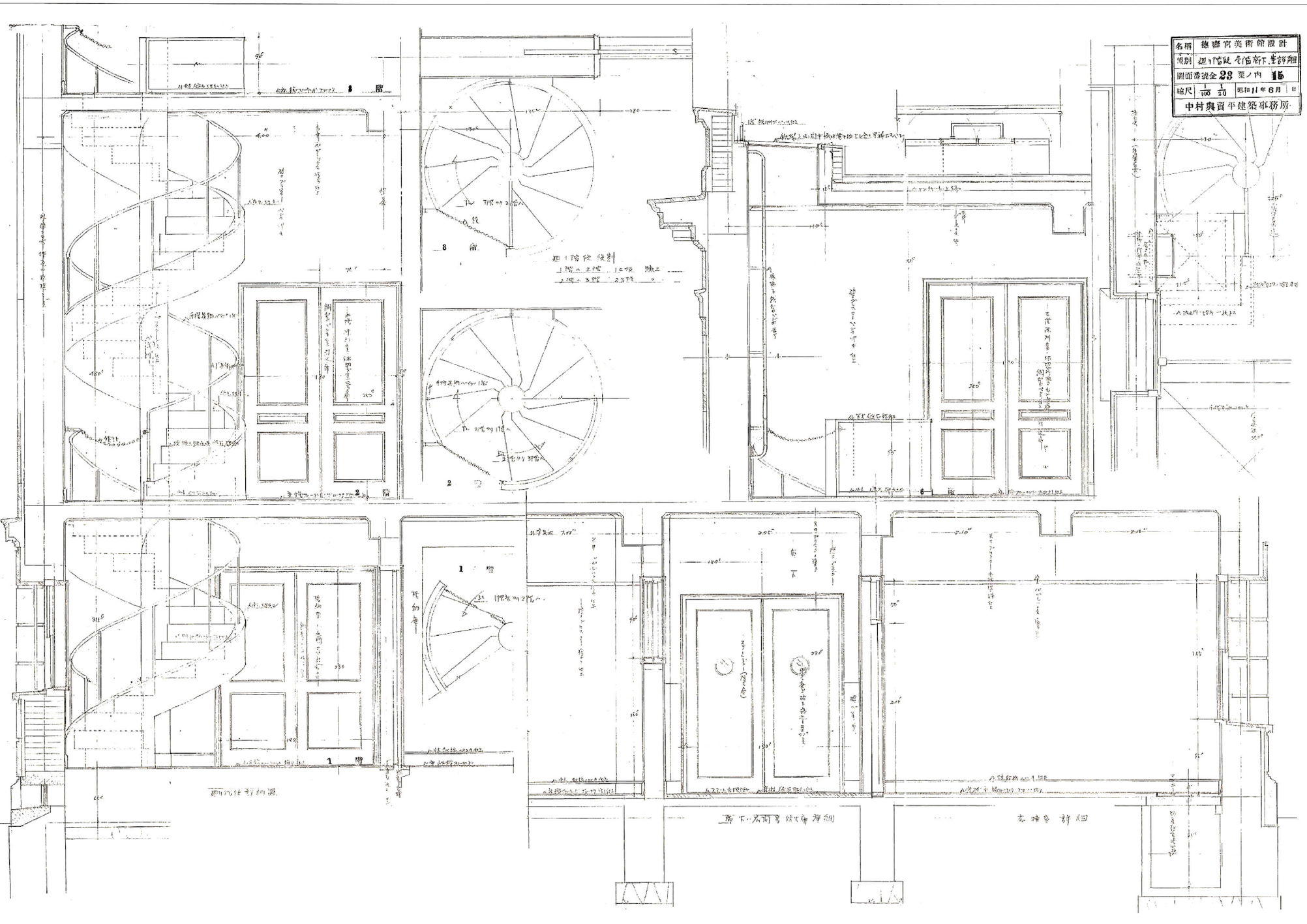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북측면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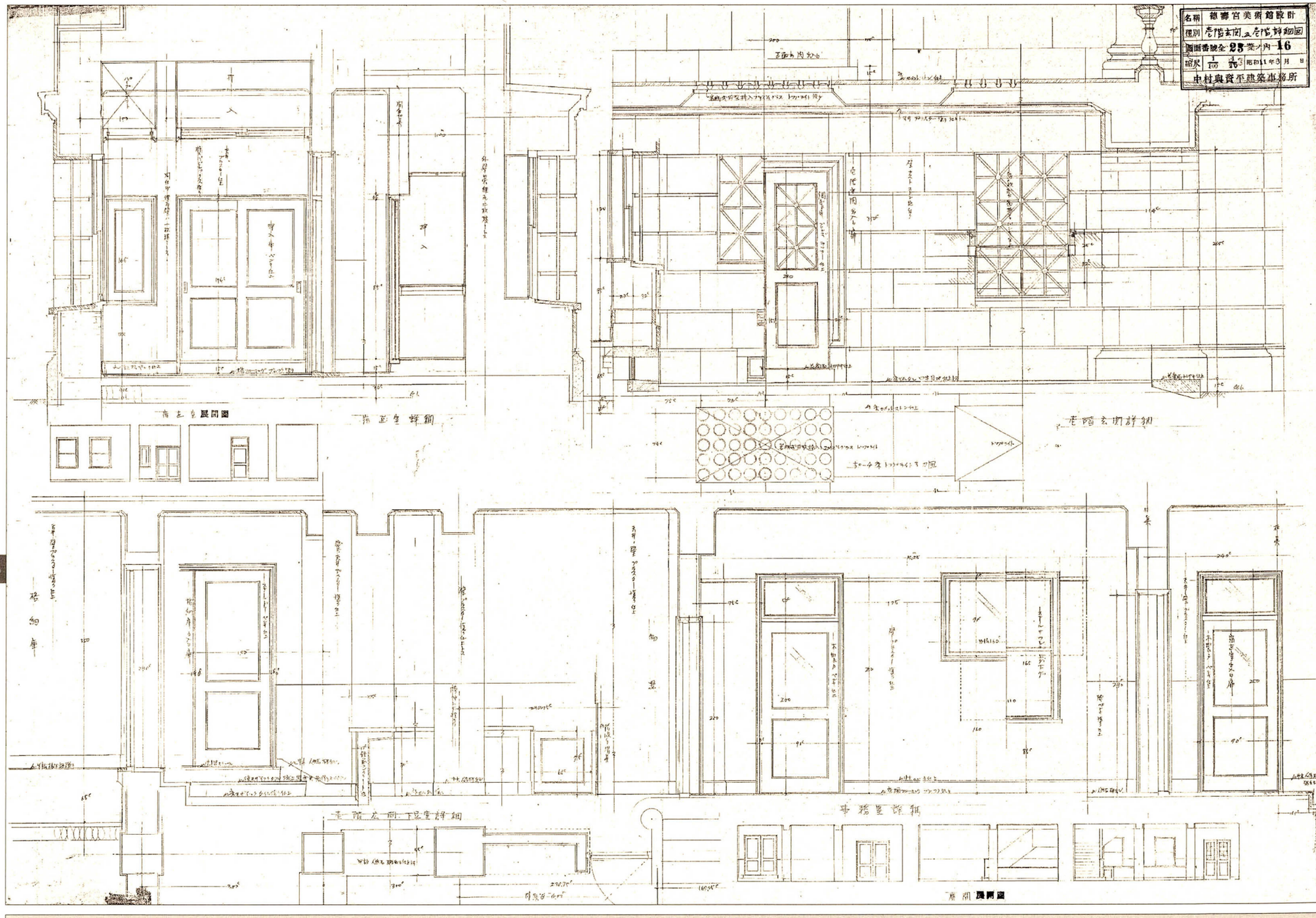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ABD계단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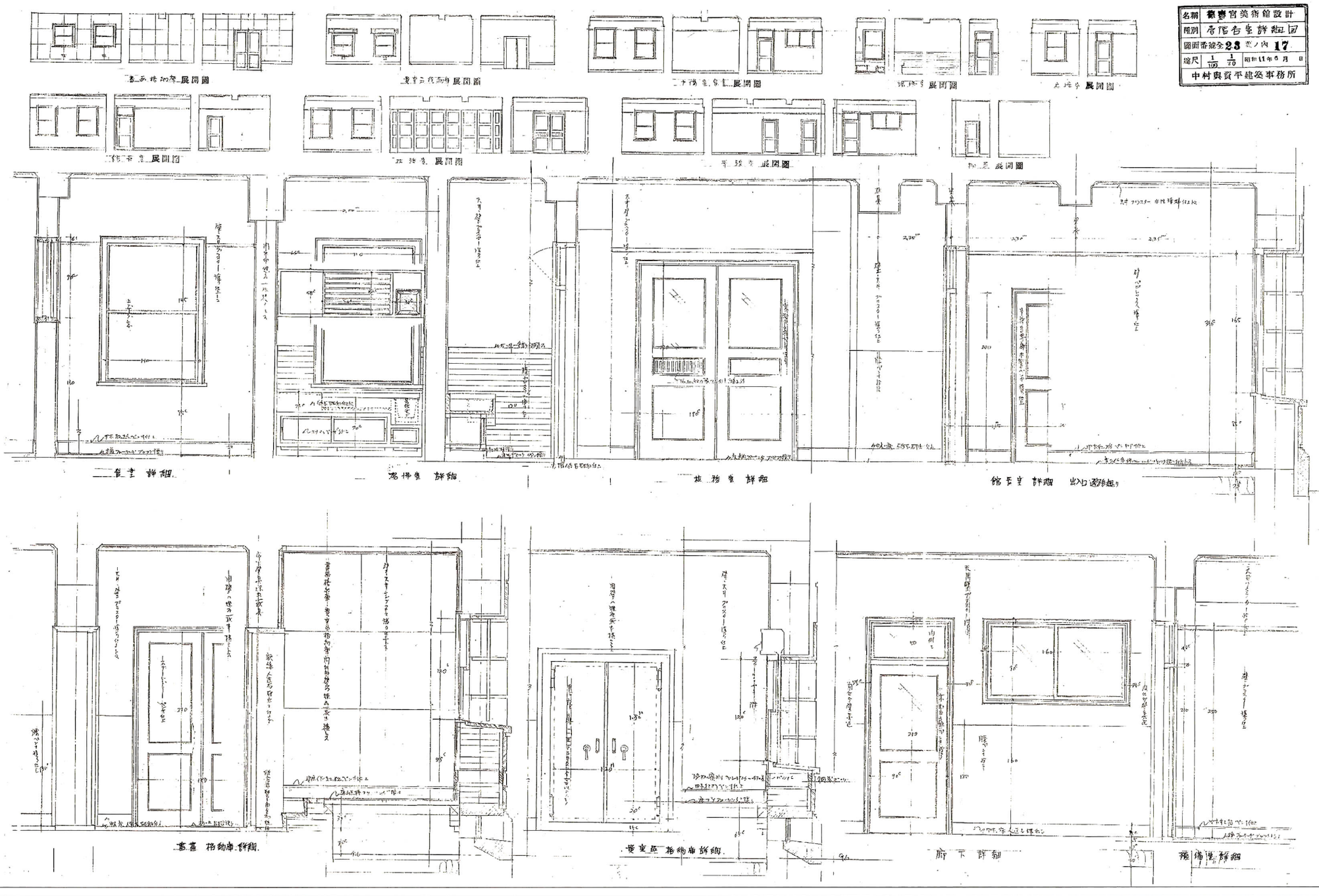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E계단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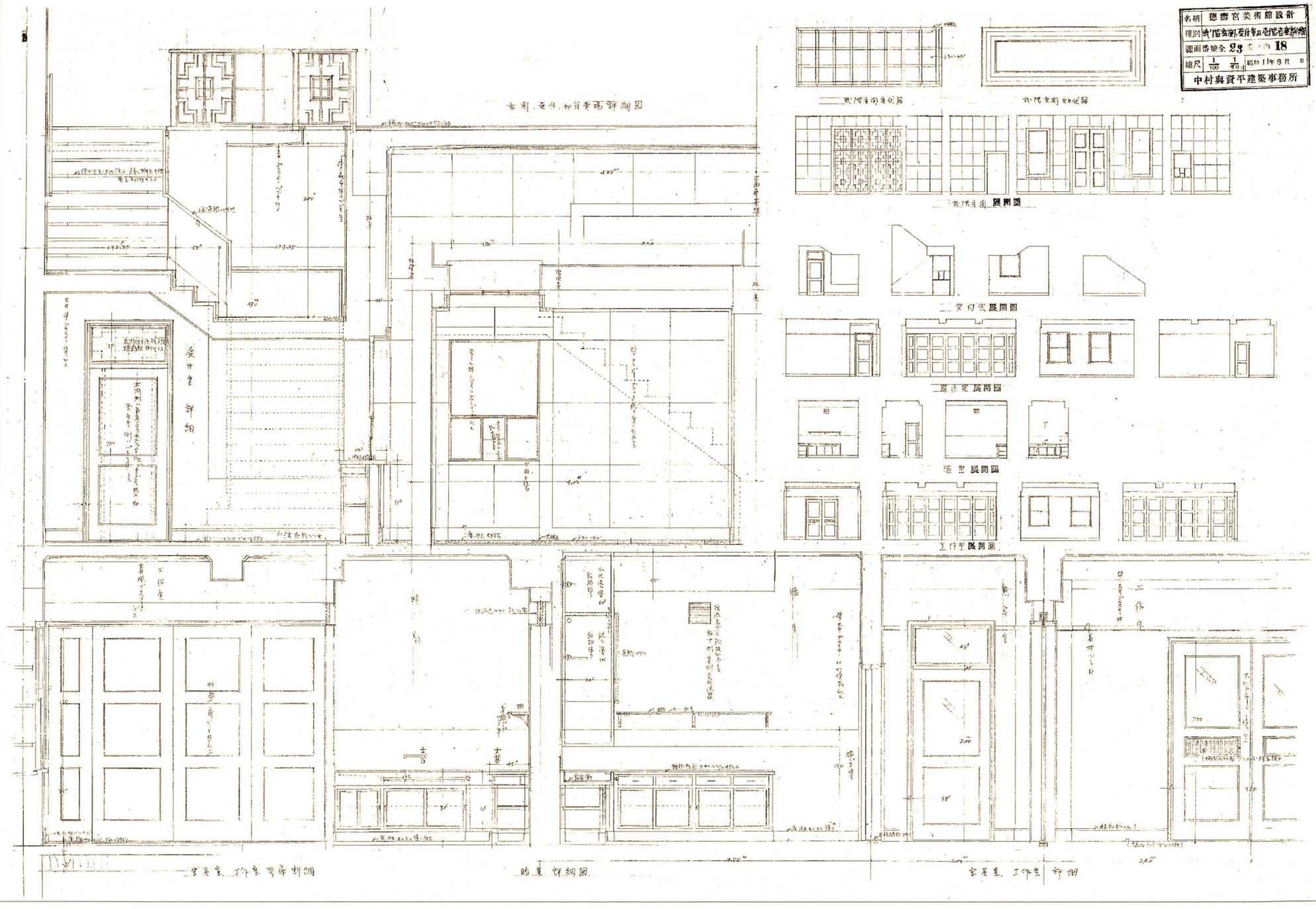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회전계단, 1층바닥,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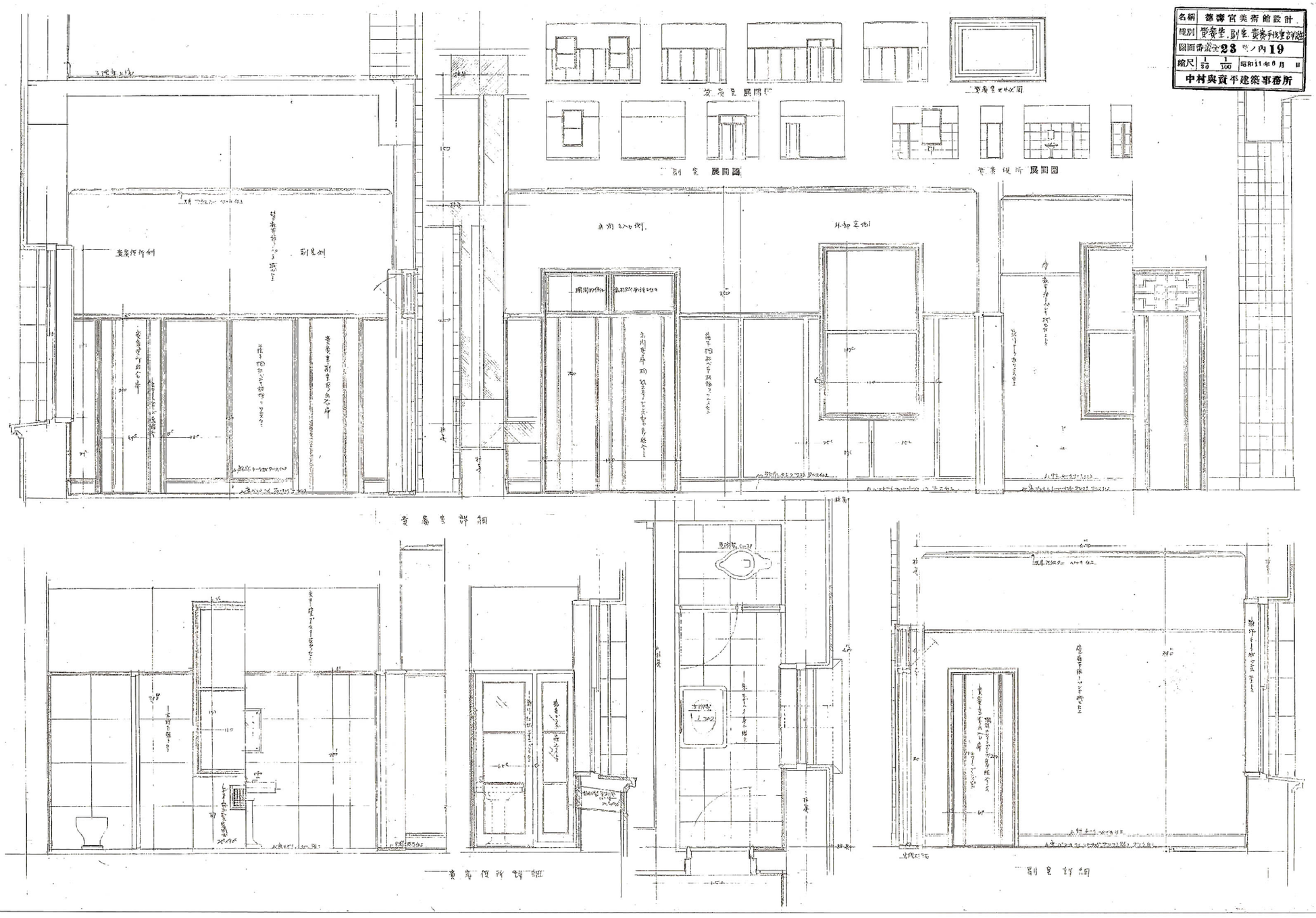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층현관 및 1층 상세도, 1층바닥,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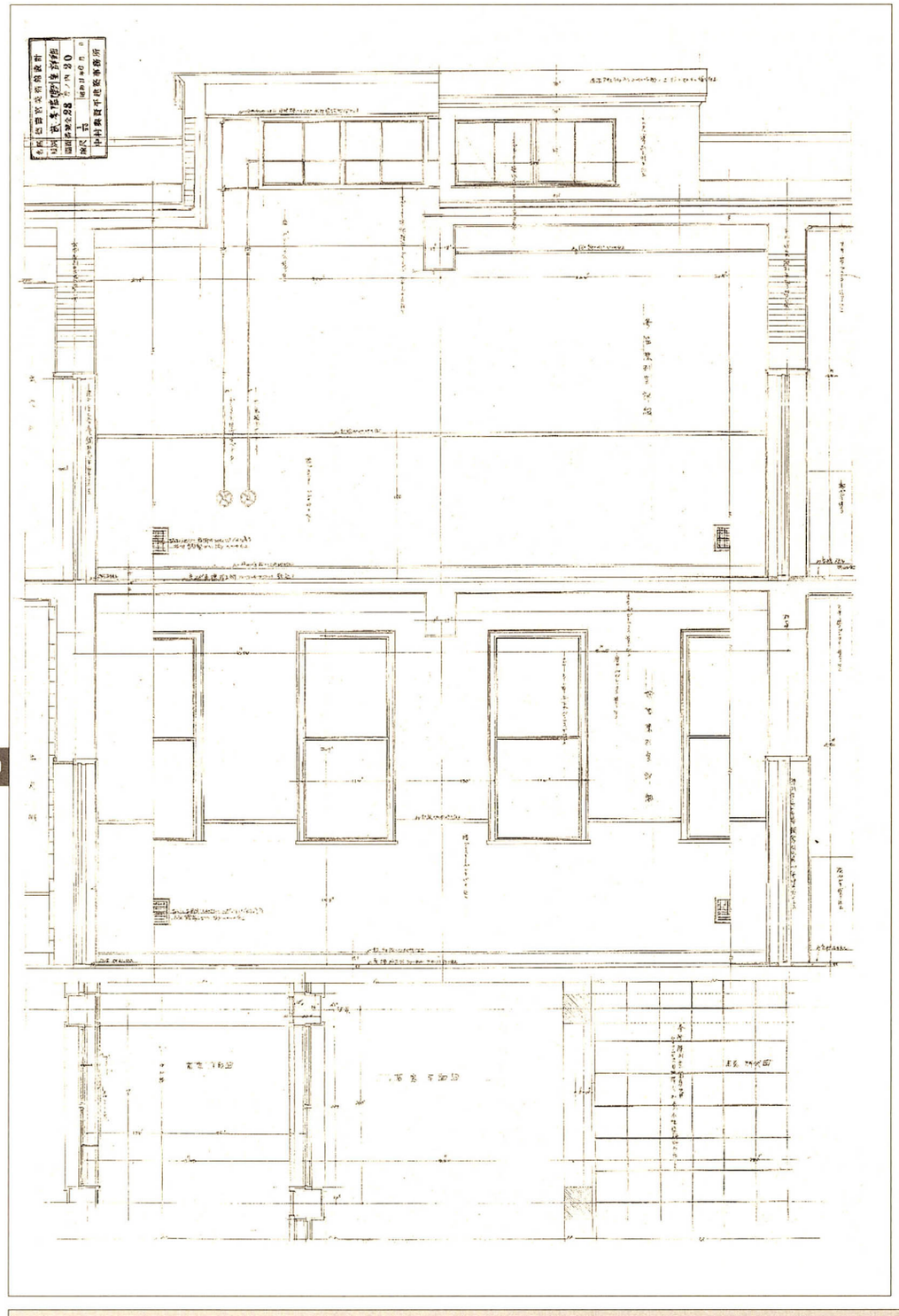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층 각실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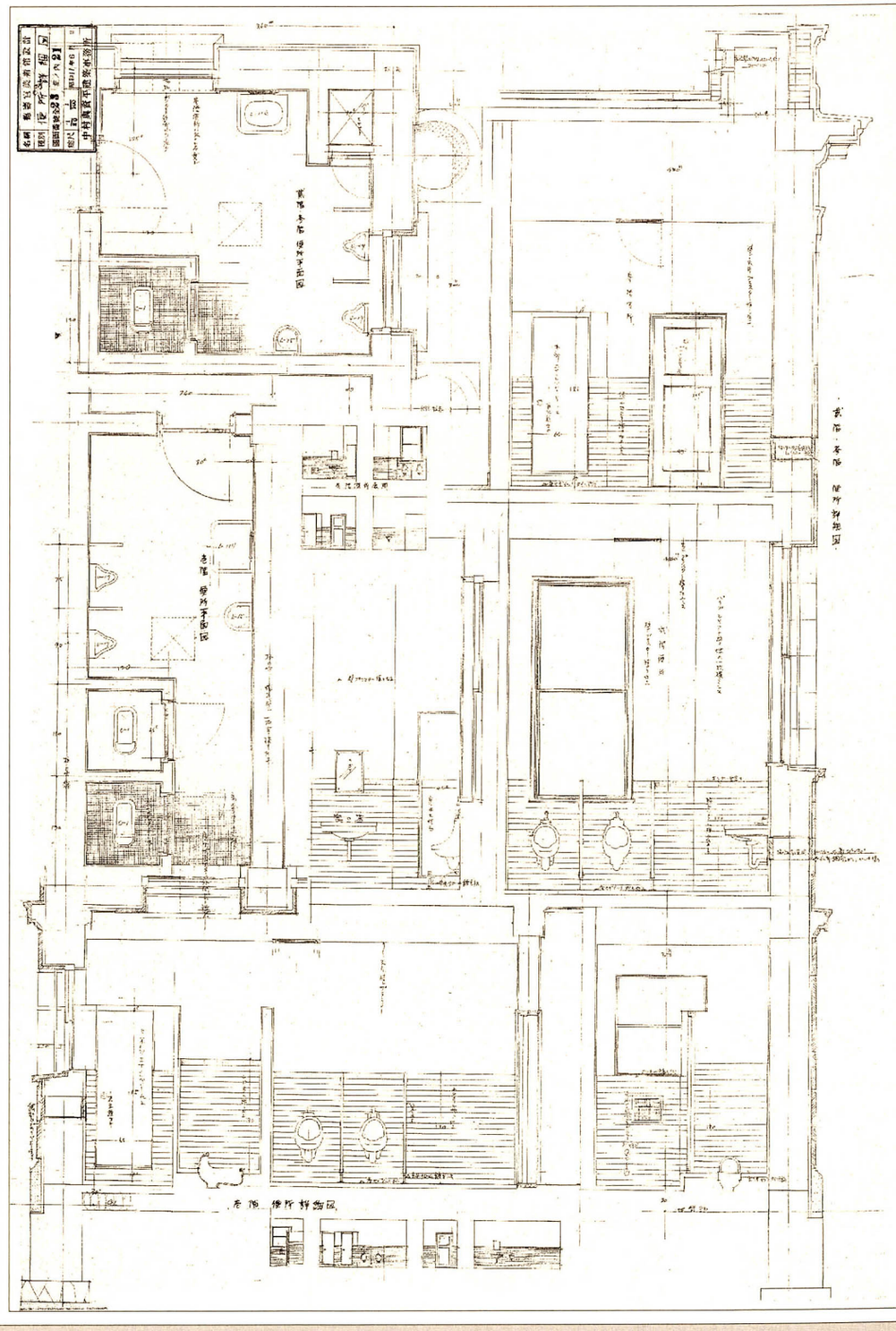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2층 현관, 접수실(受付室) 및 2층 각실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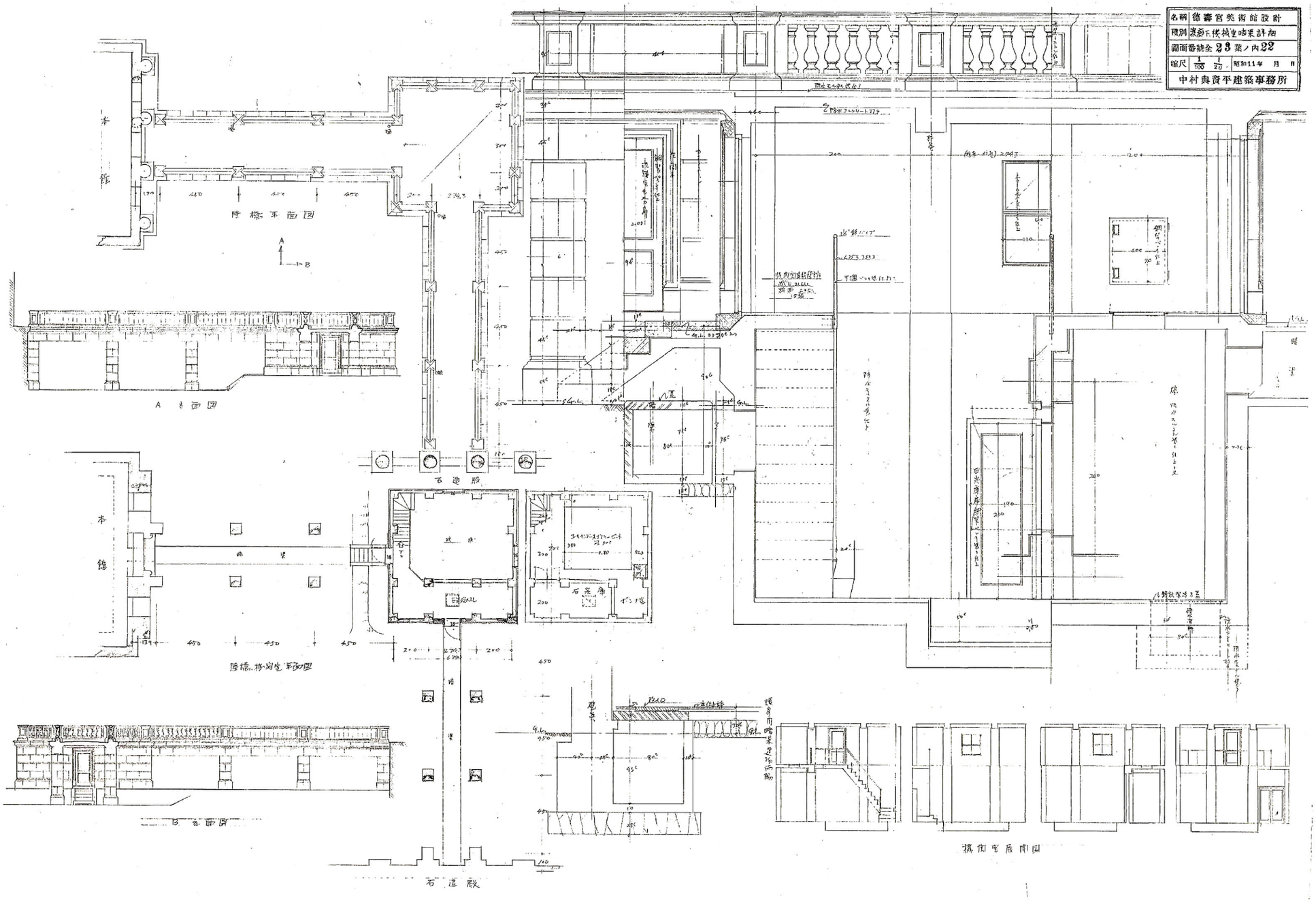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귀빈실, 부실(副室), 귀빈화장실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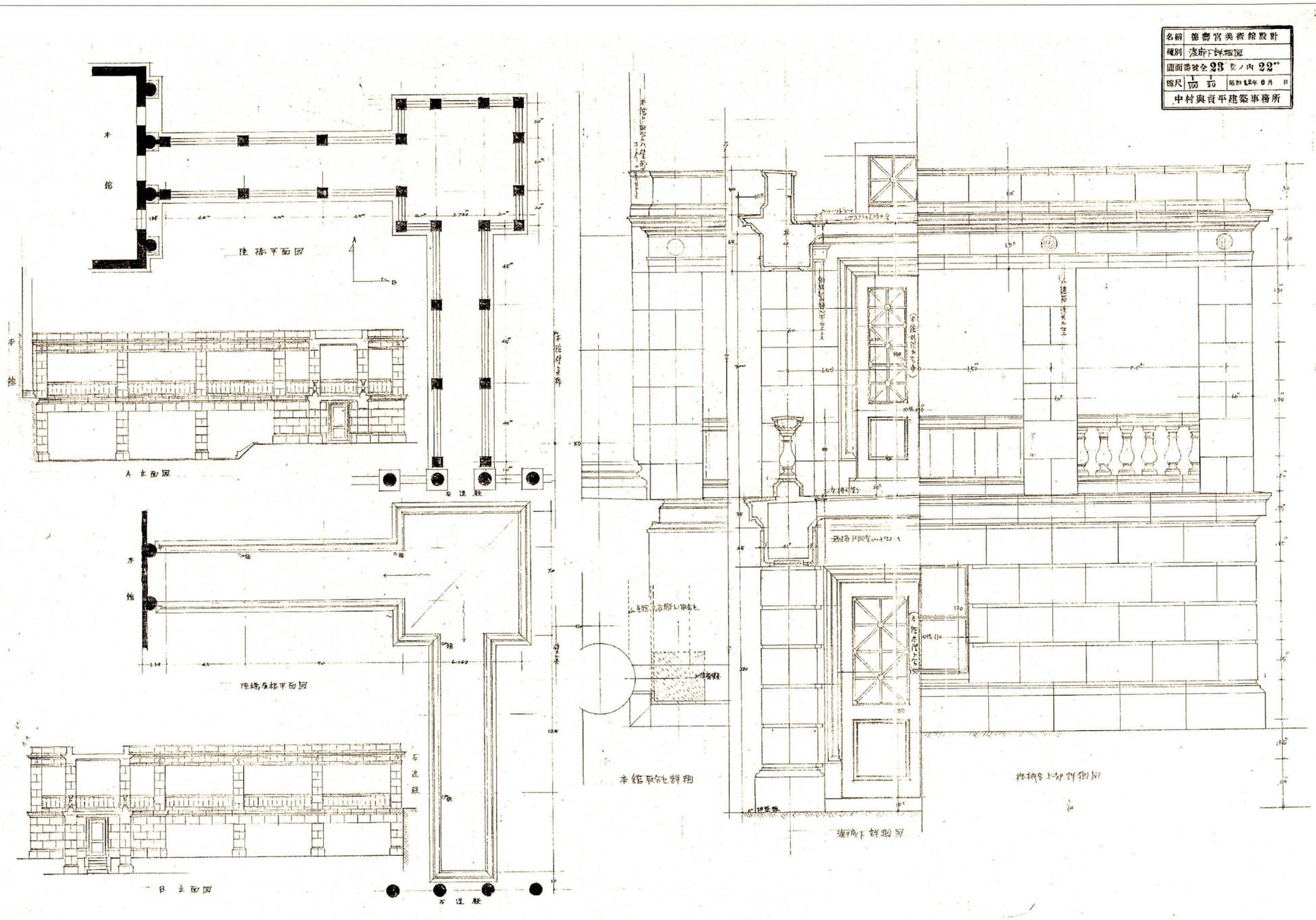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2, 3층 진열실 상세도, 1:2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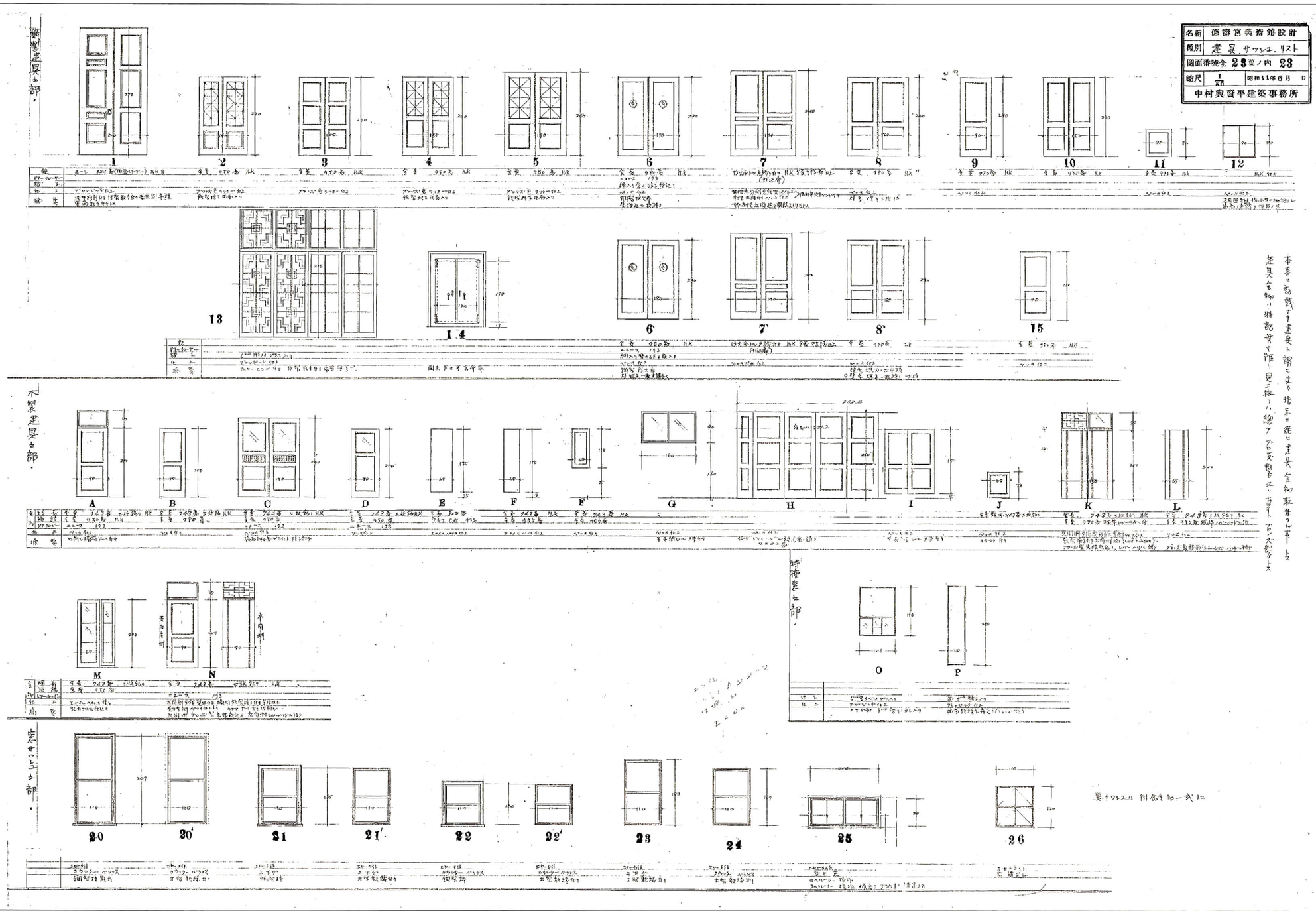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화장실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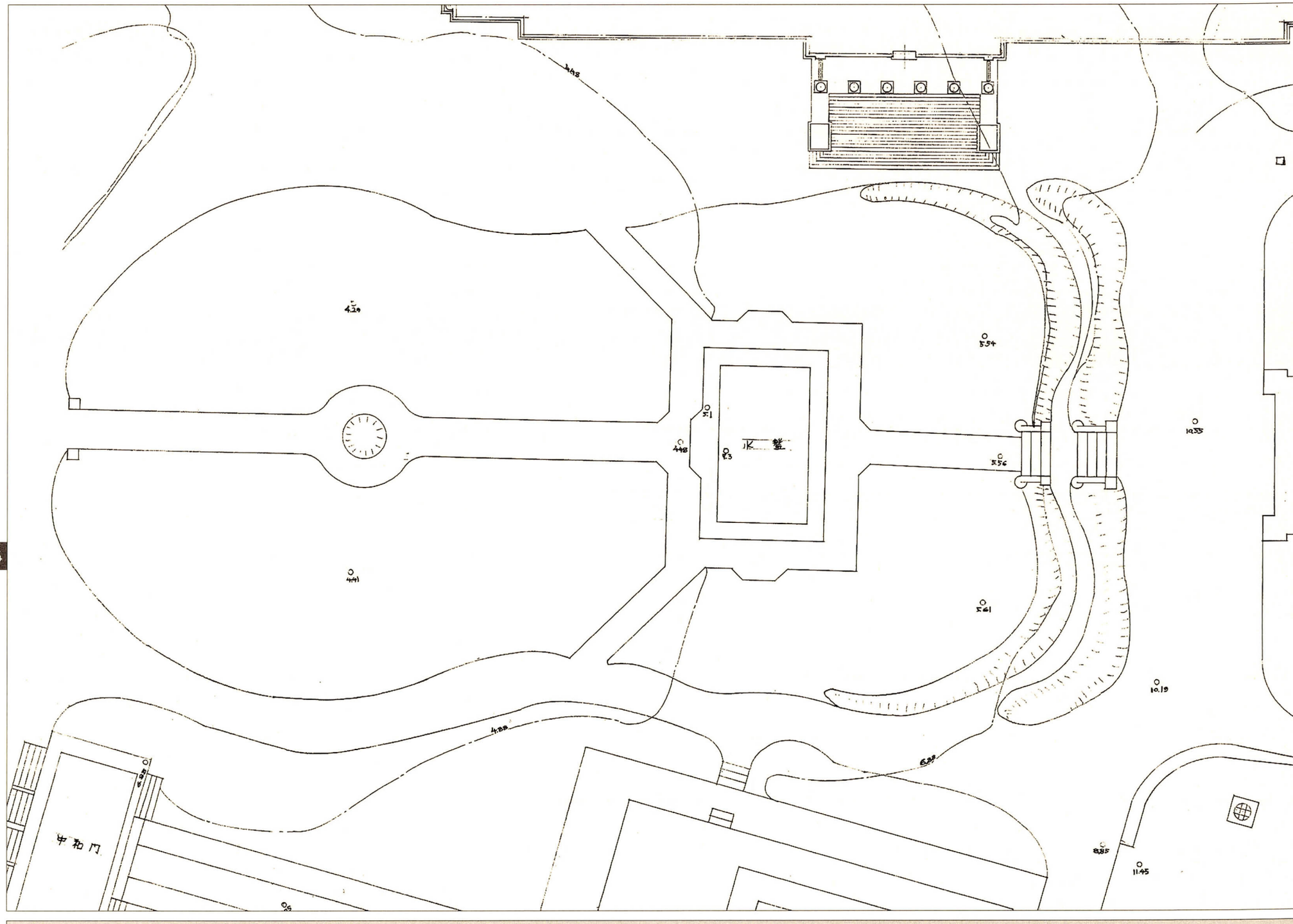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연결복도, 기계실 암거(暗渠)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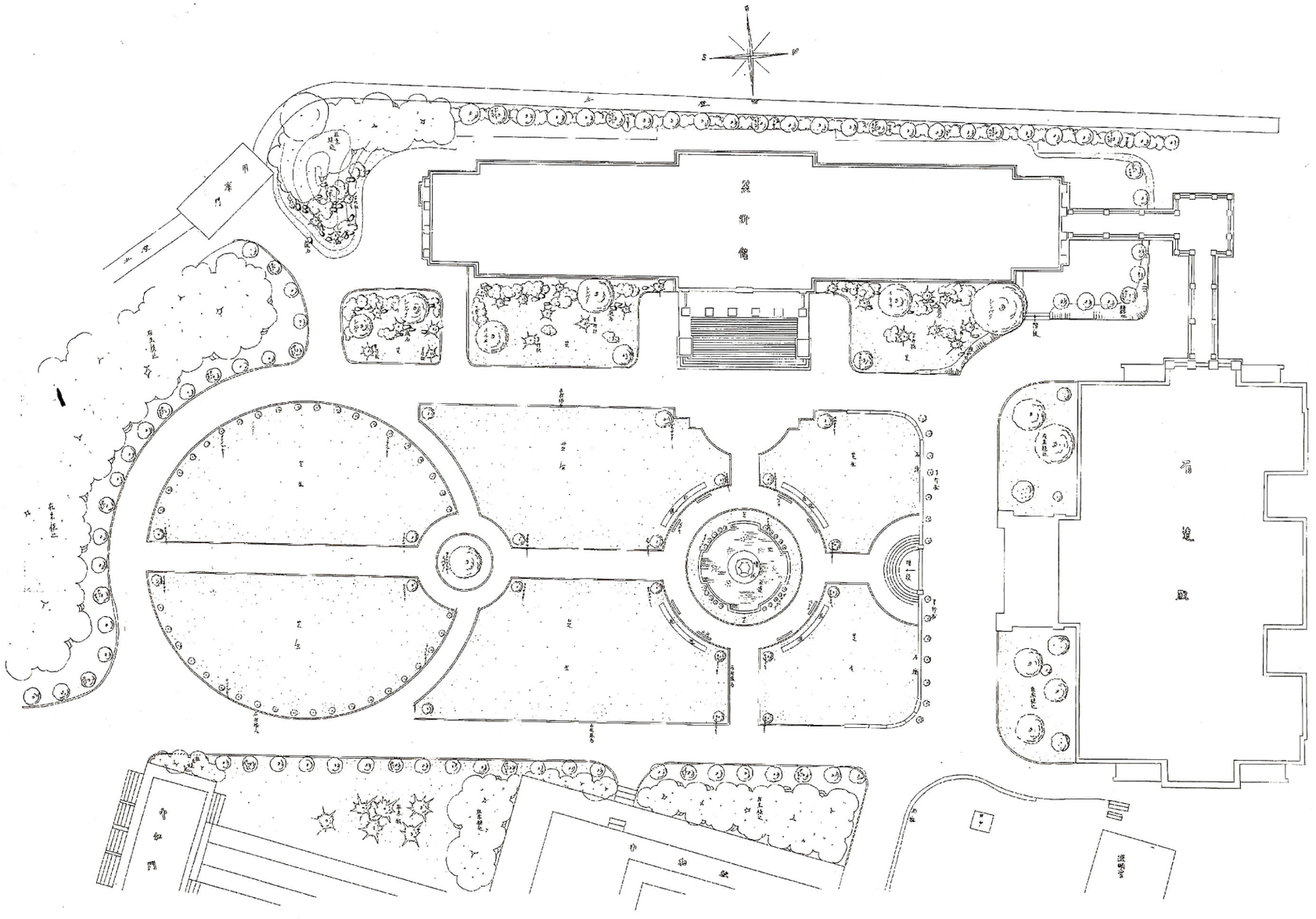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연결복도 하부 상세도, 1:20·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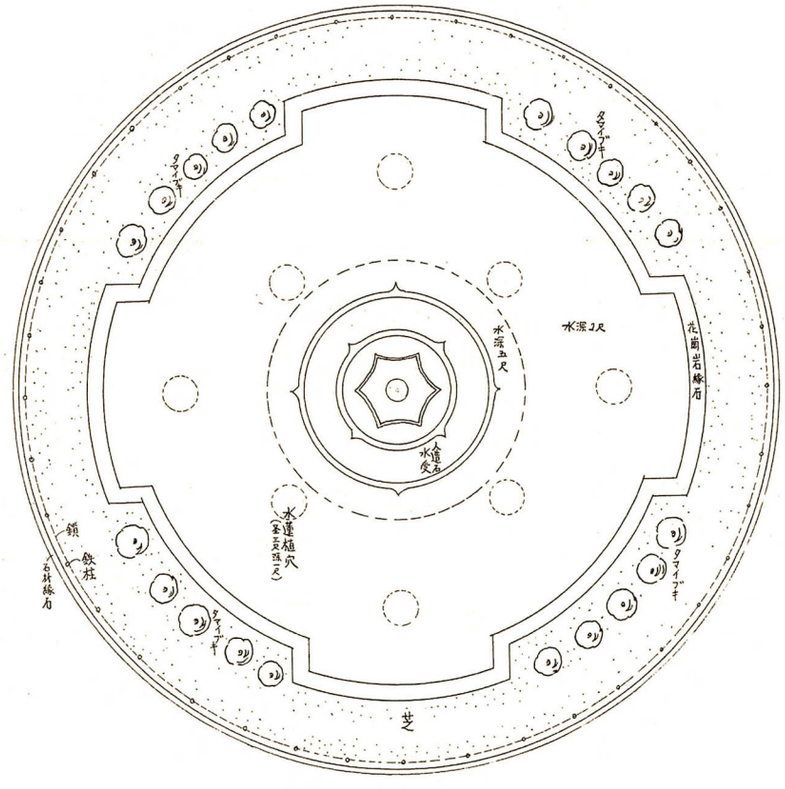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가구 샷시 리스트, 1:5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193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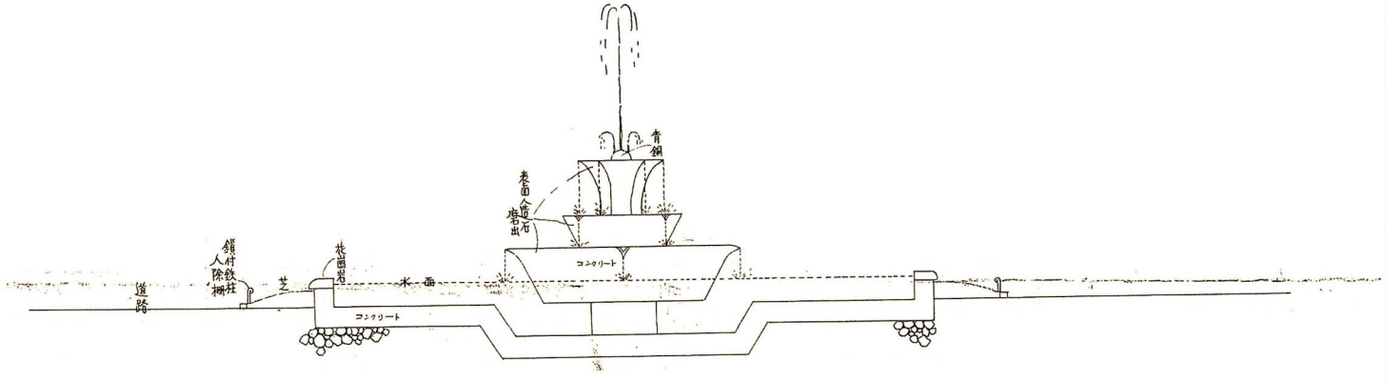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덕수궁 미술관 배치도 중 일부, 1:2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정원관련 도면, 1936년 6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미술관 정원 설계도, 1:2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정원관련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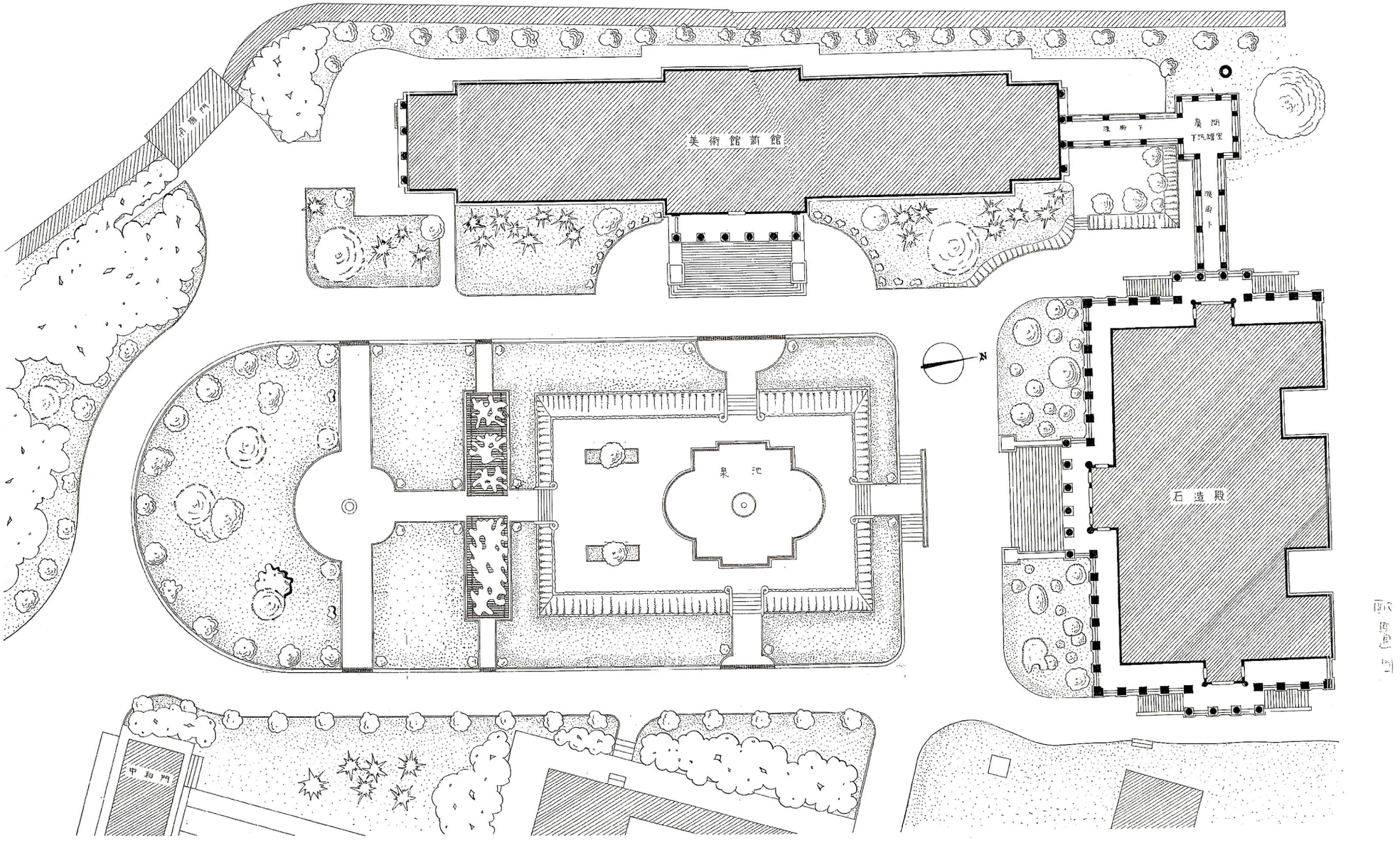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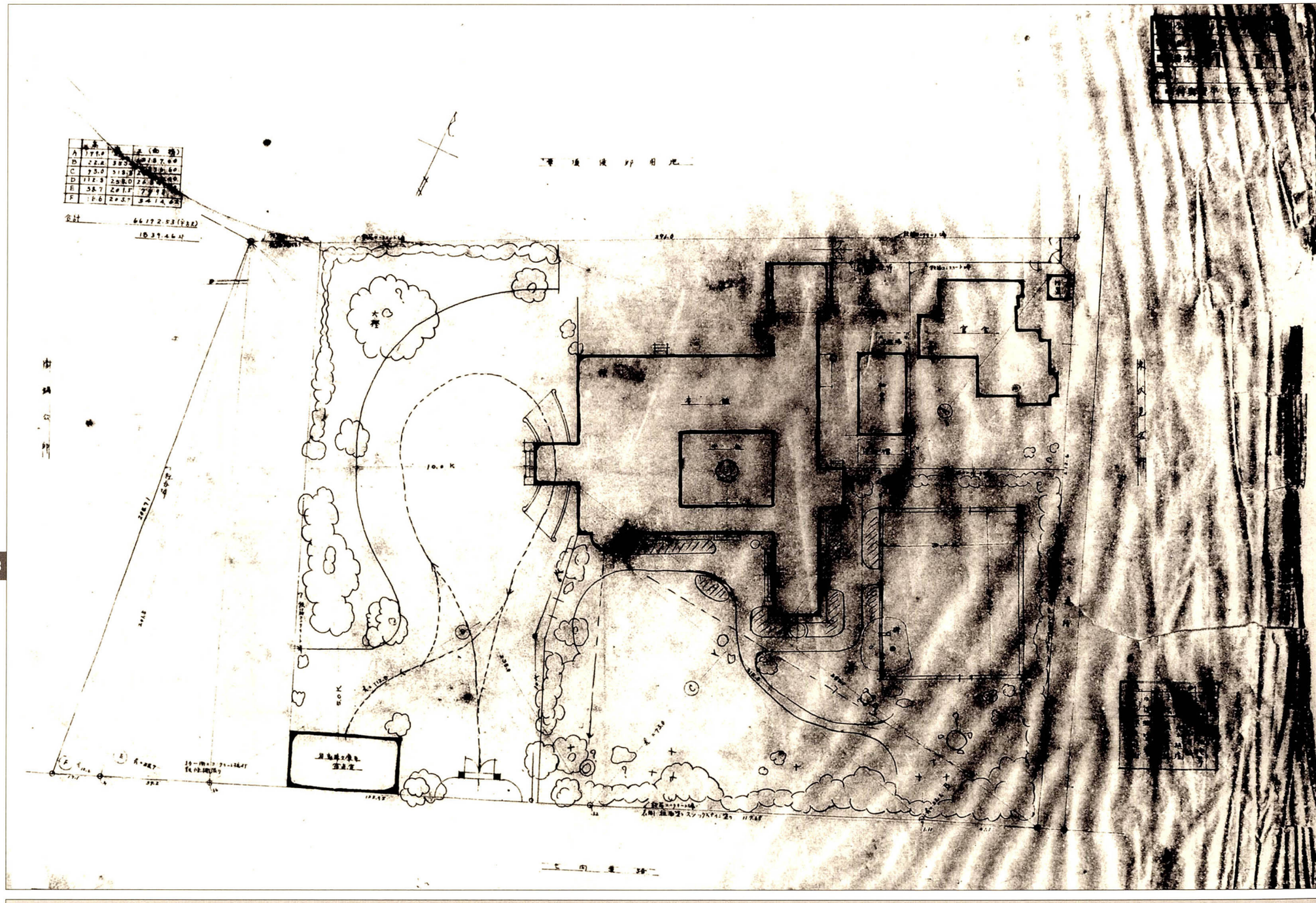
斷面圖

美術館前噴水略圖
縮尺百分之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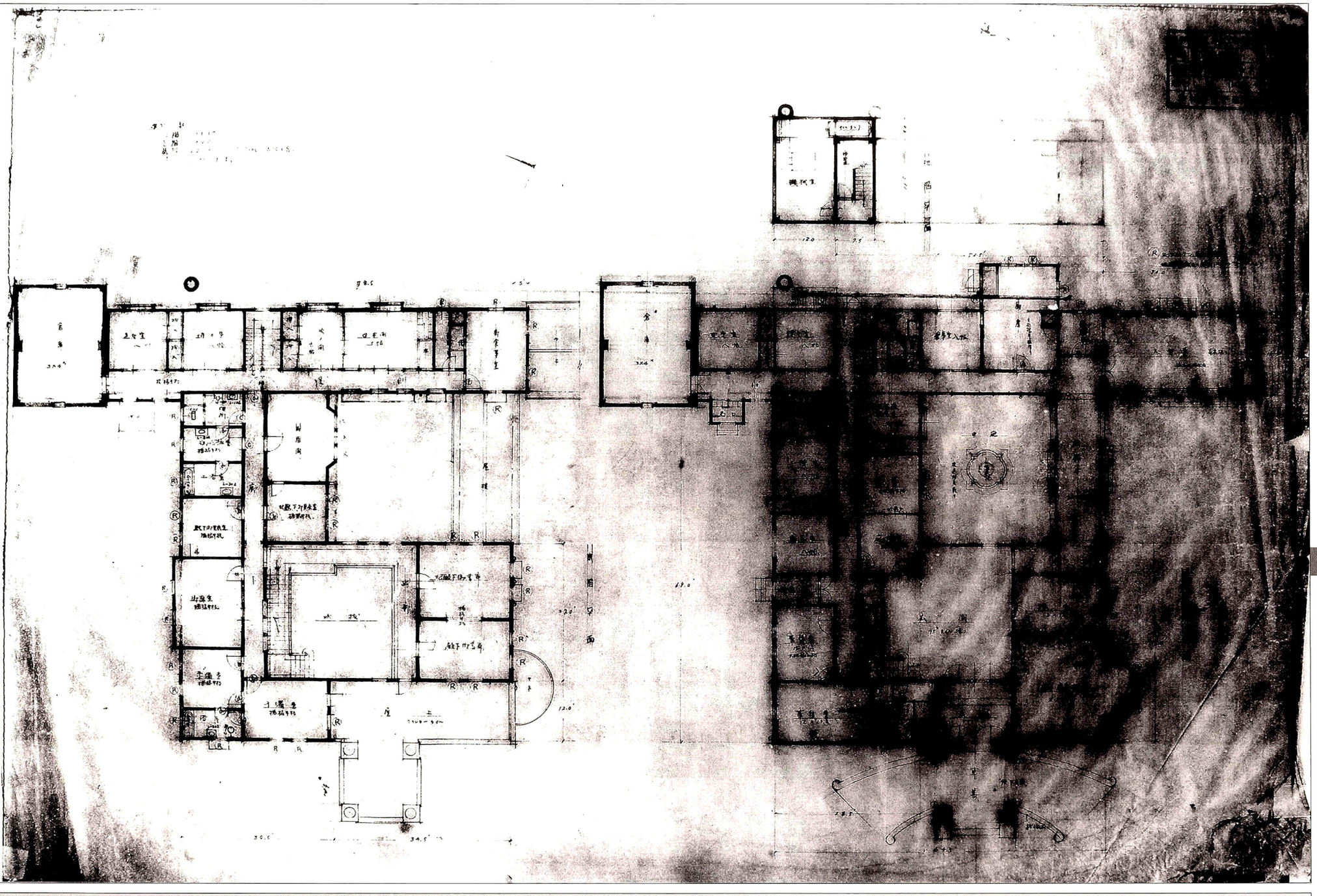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미술관 앞 분수 개략도, 1:100,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 - 정원관련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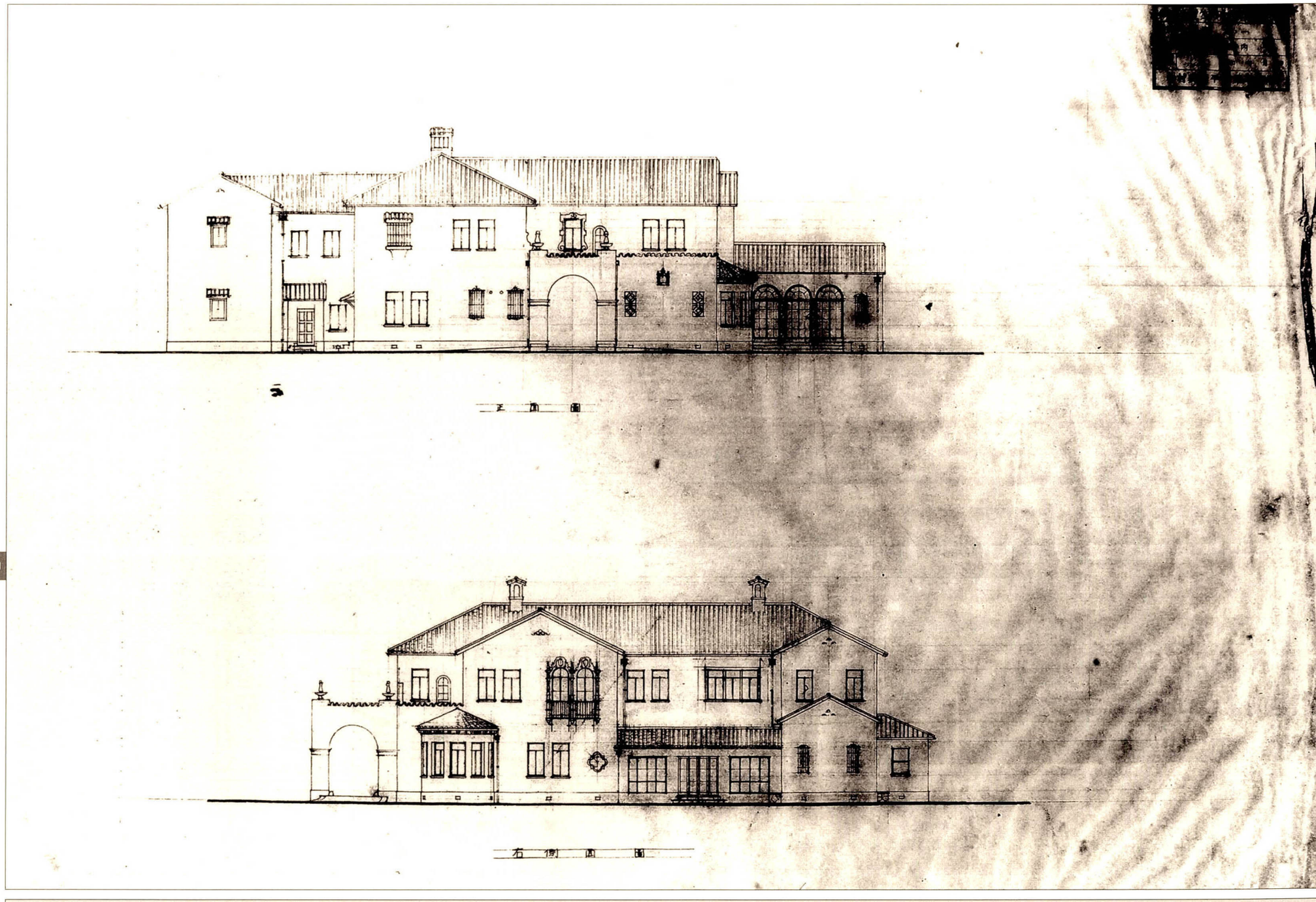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미술관, 석조전, 분수 배치도, 덕수궁 미술관(德壽宮 美術館)-정원관련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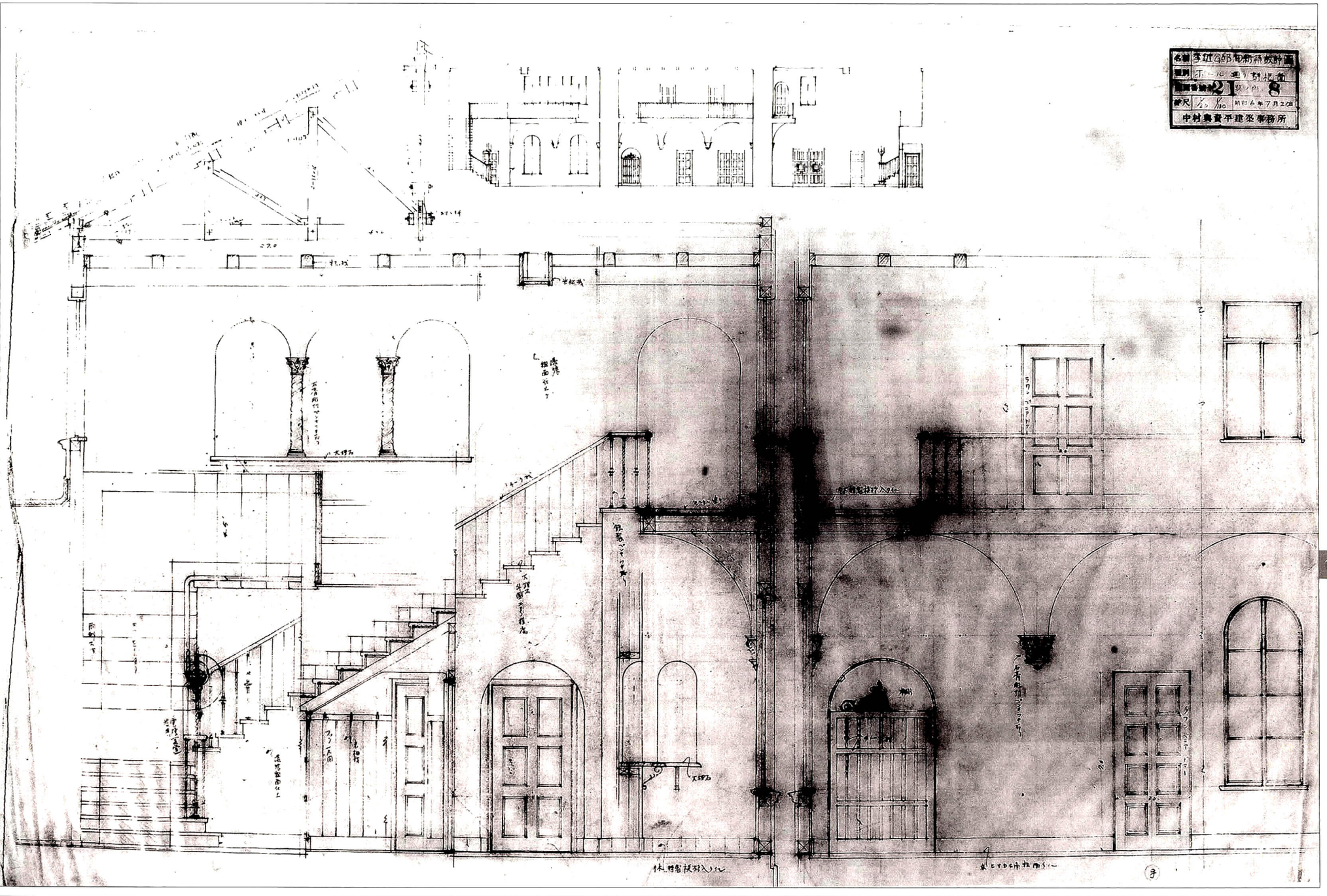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배치도, 이건공저(李鍵公邸), 193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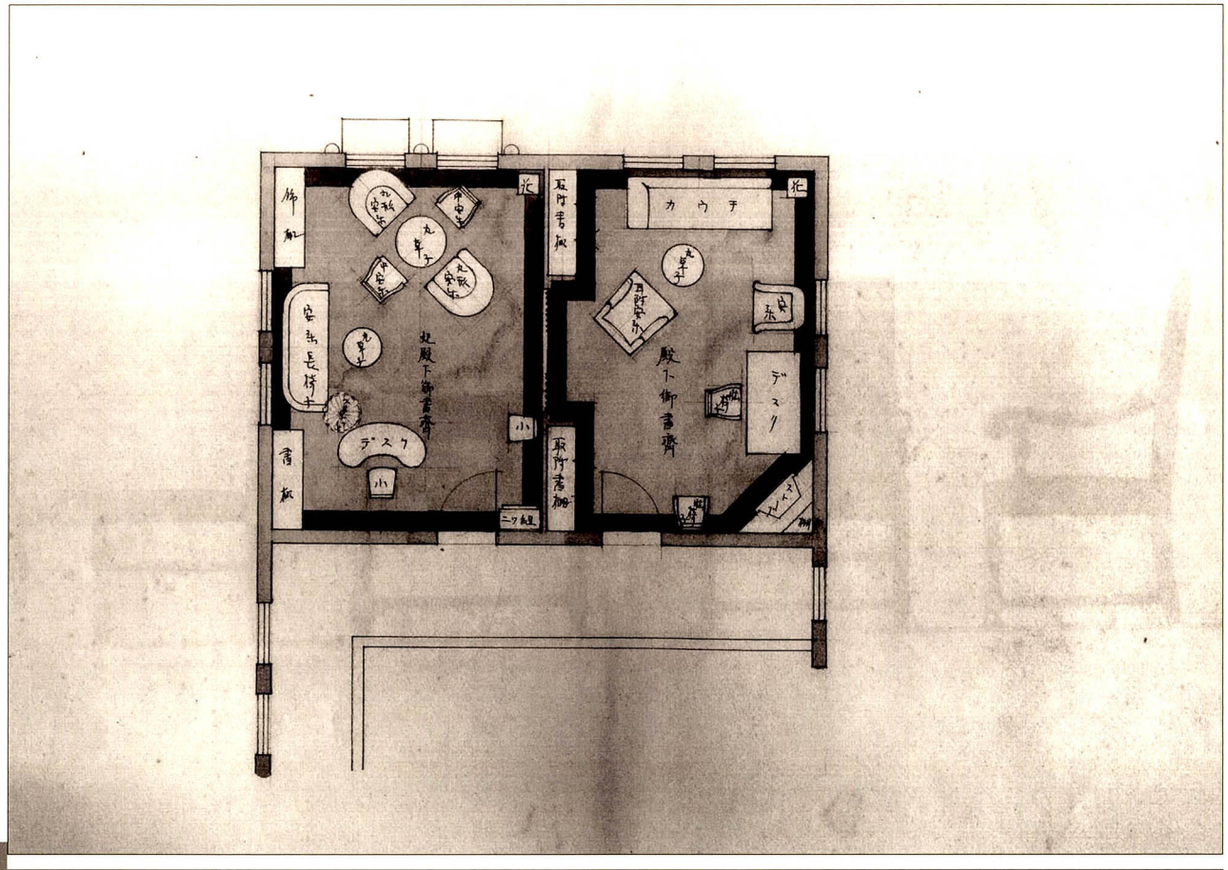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평면도, 1:100, 이건공저(李鍵公邸), 193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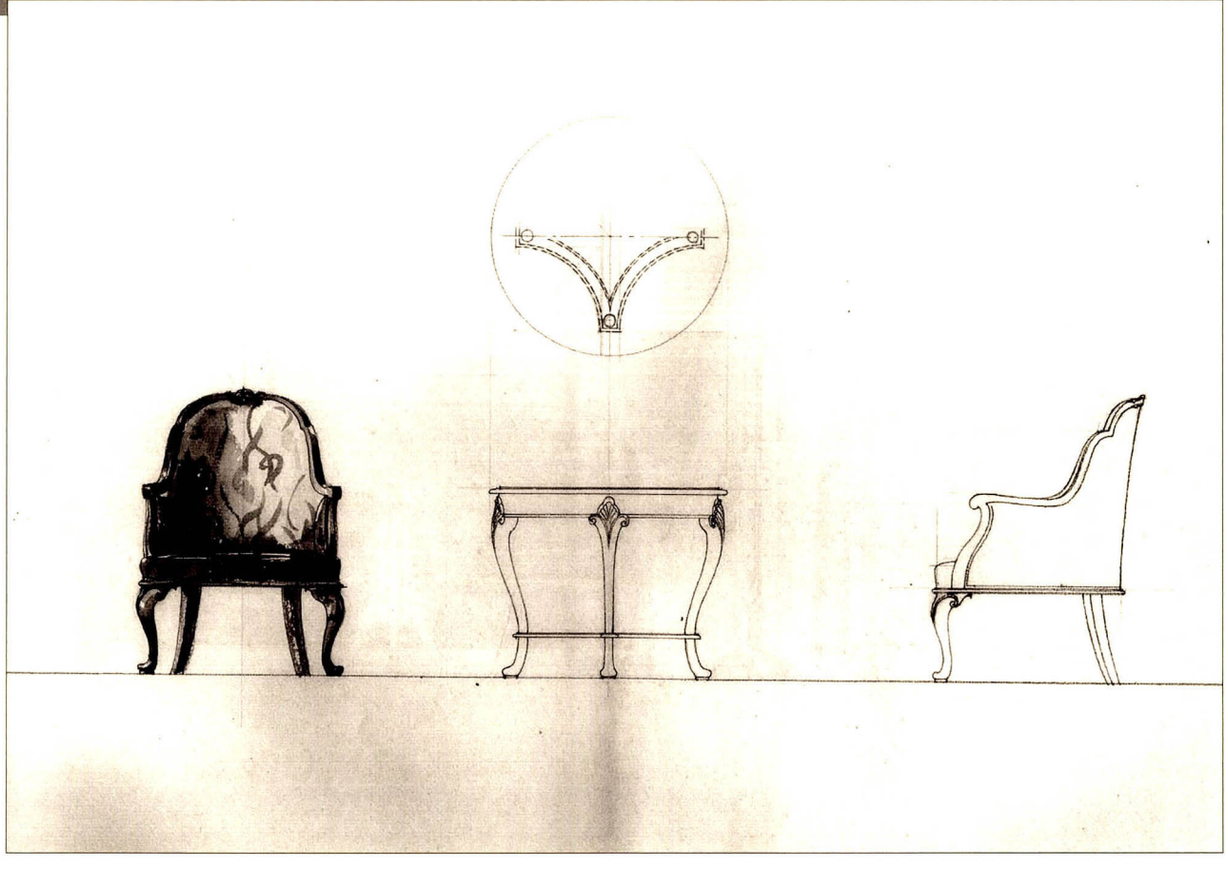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입면도, 1:100, 이건공저(李鍵公邸), 193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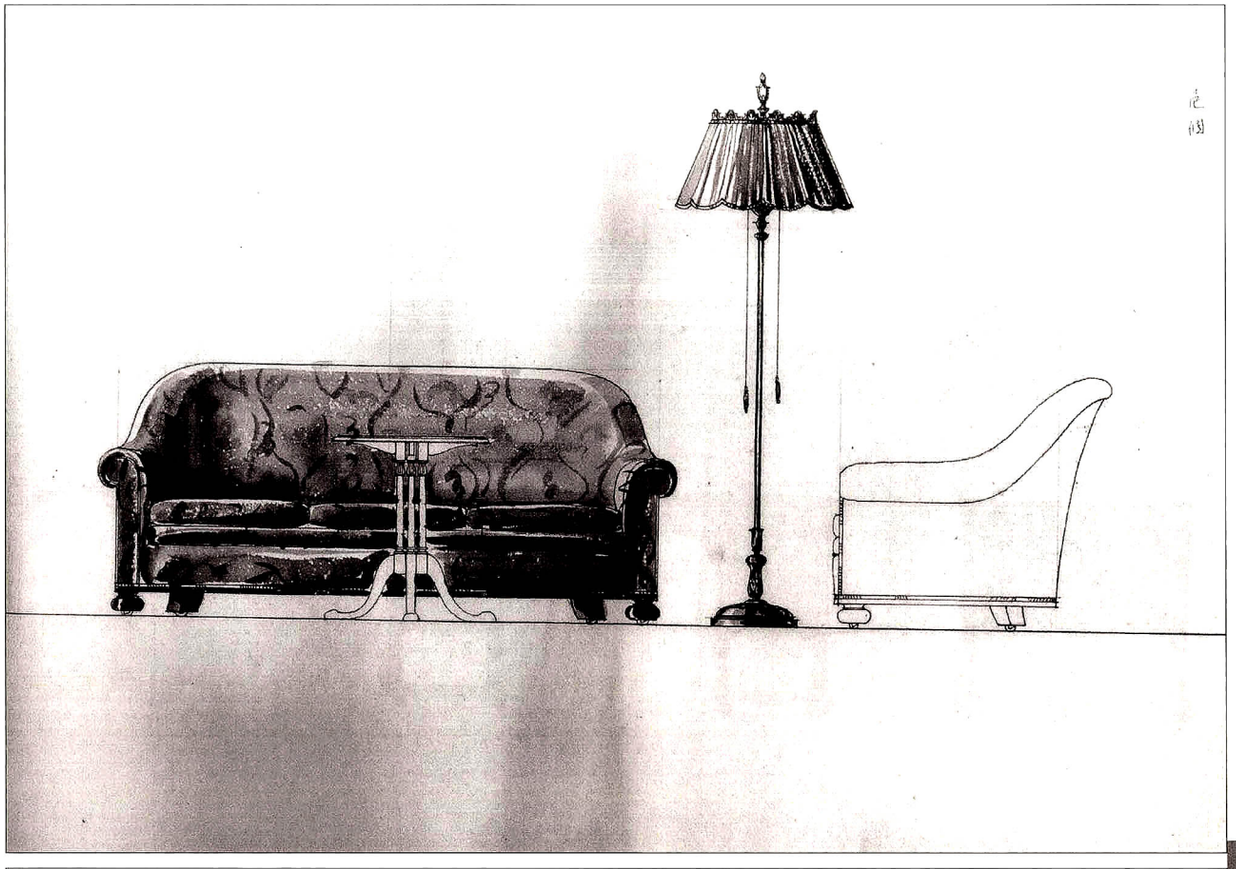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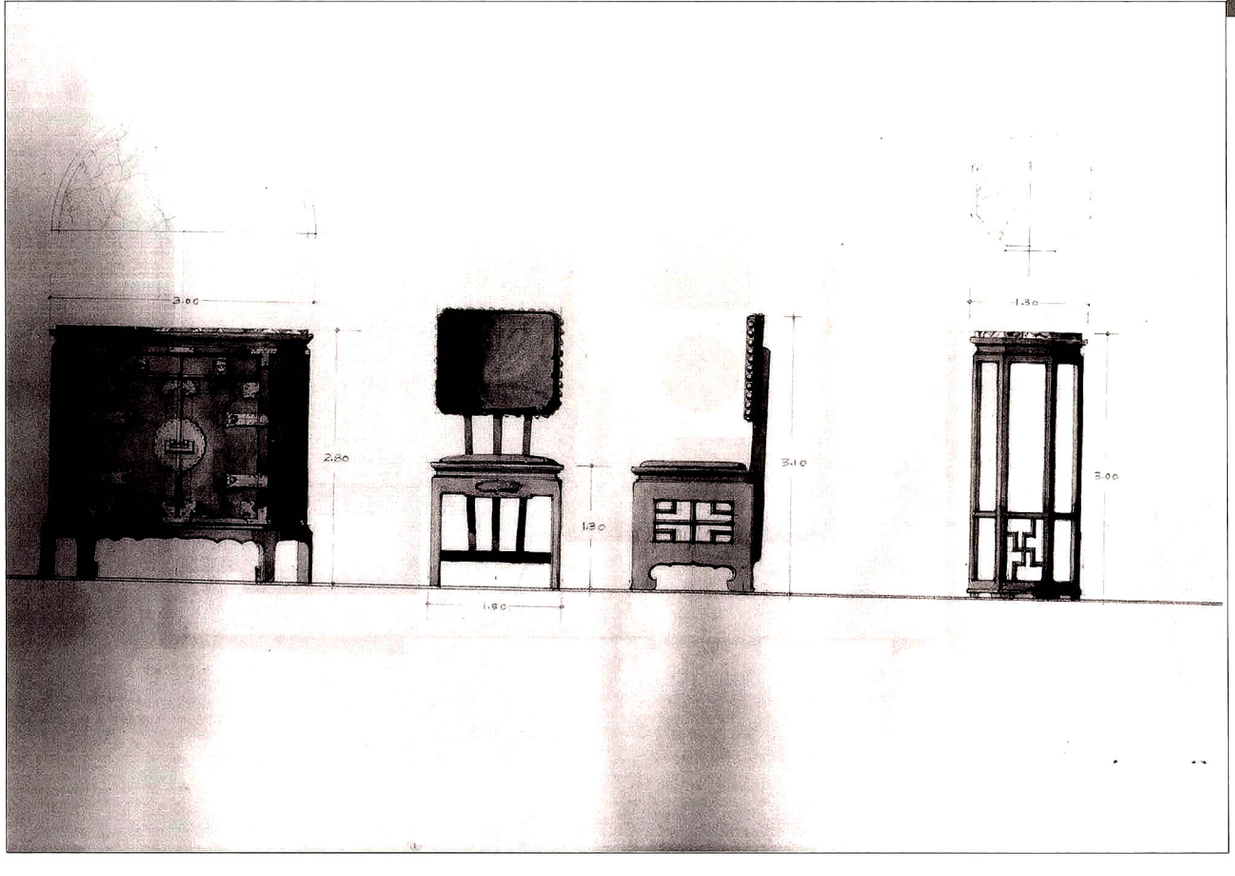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홀 주변 상세도, 1:20·1:100, 이건공저[李鍵公邸], 193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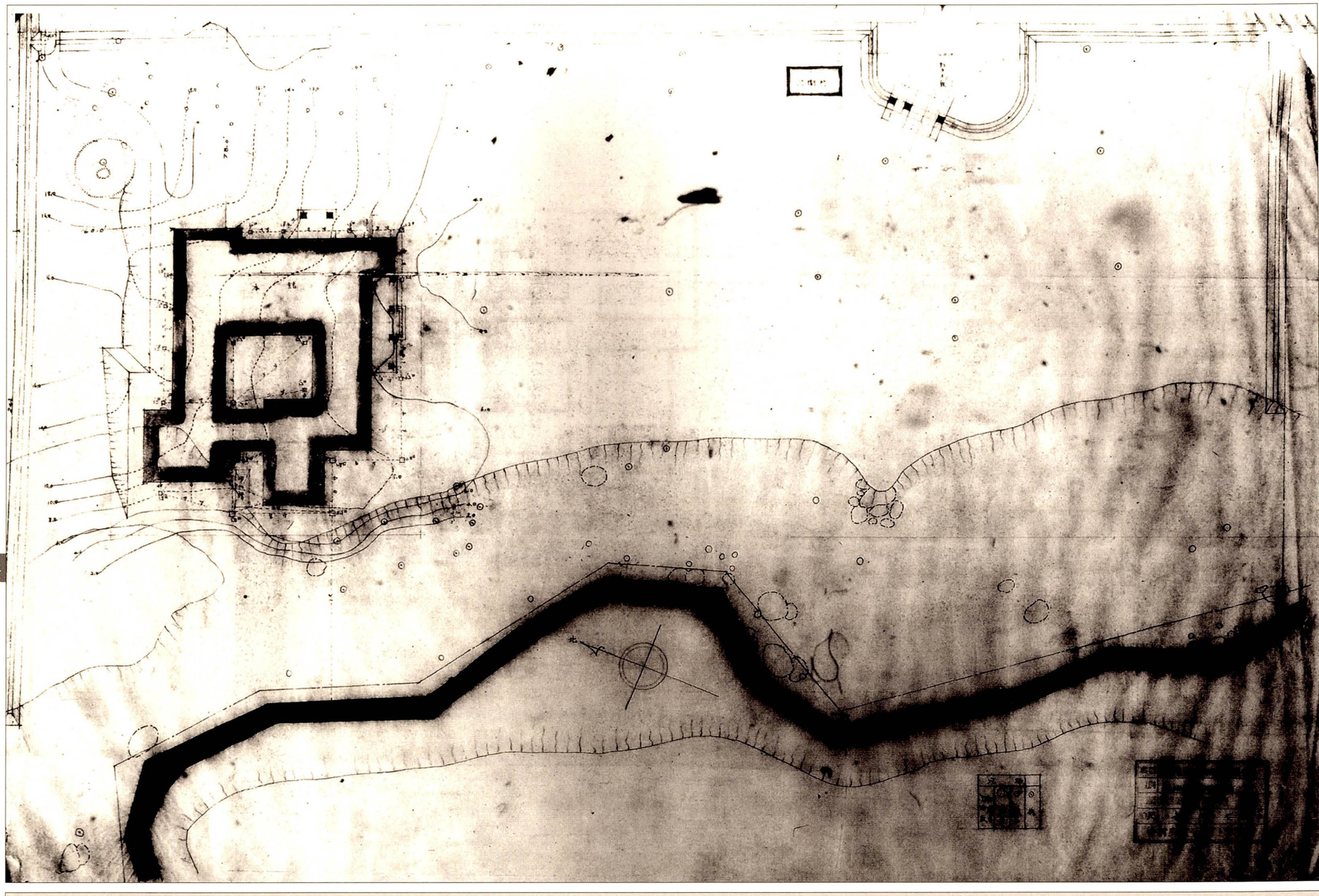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이건공저 가구도안[李鍵公邸家具圖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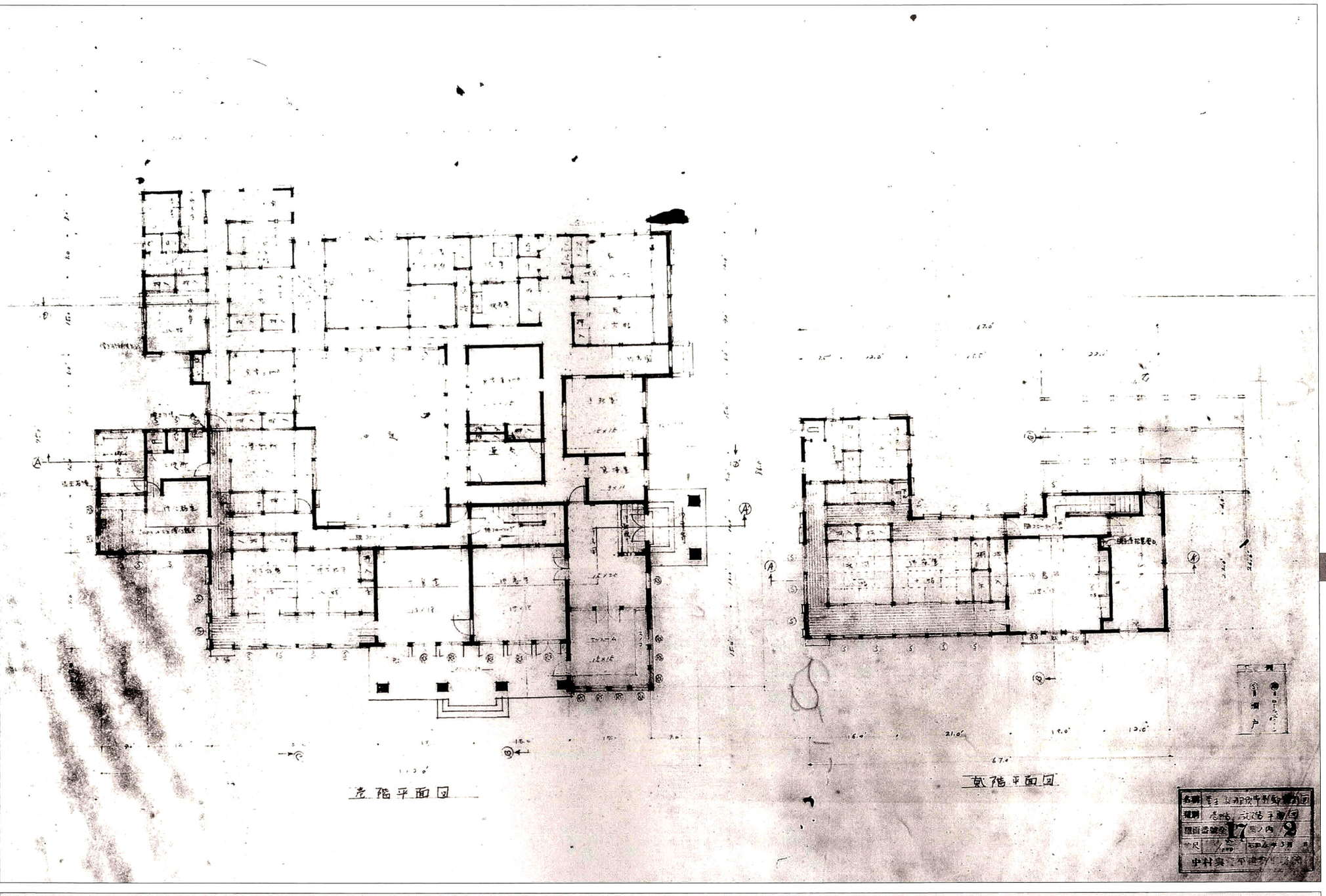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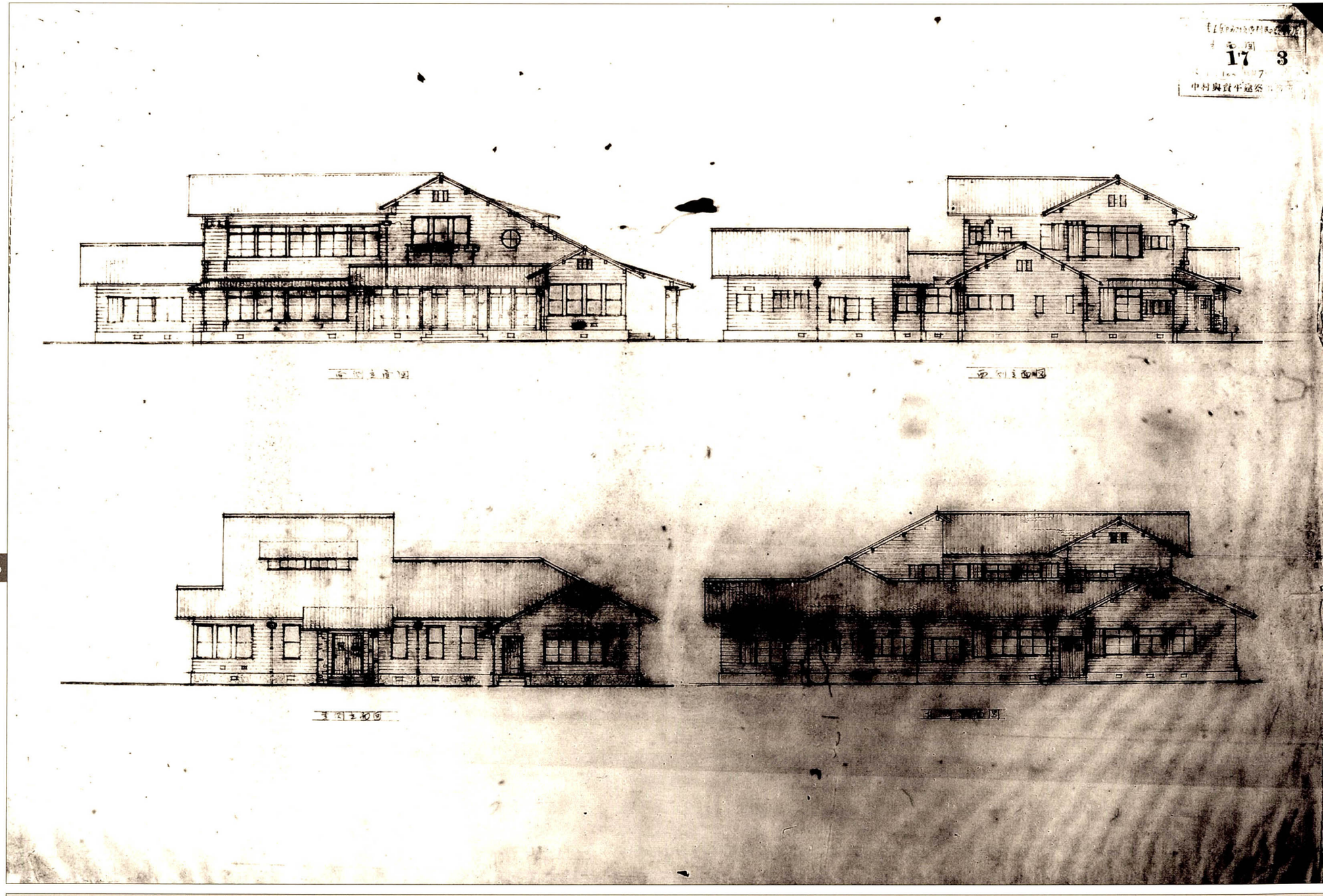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이건공저 가구도안(李鍵公邸家具圖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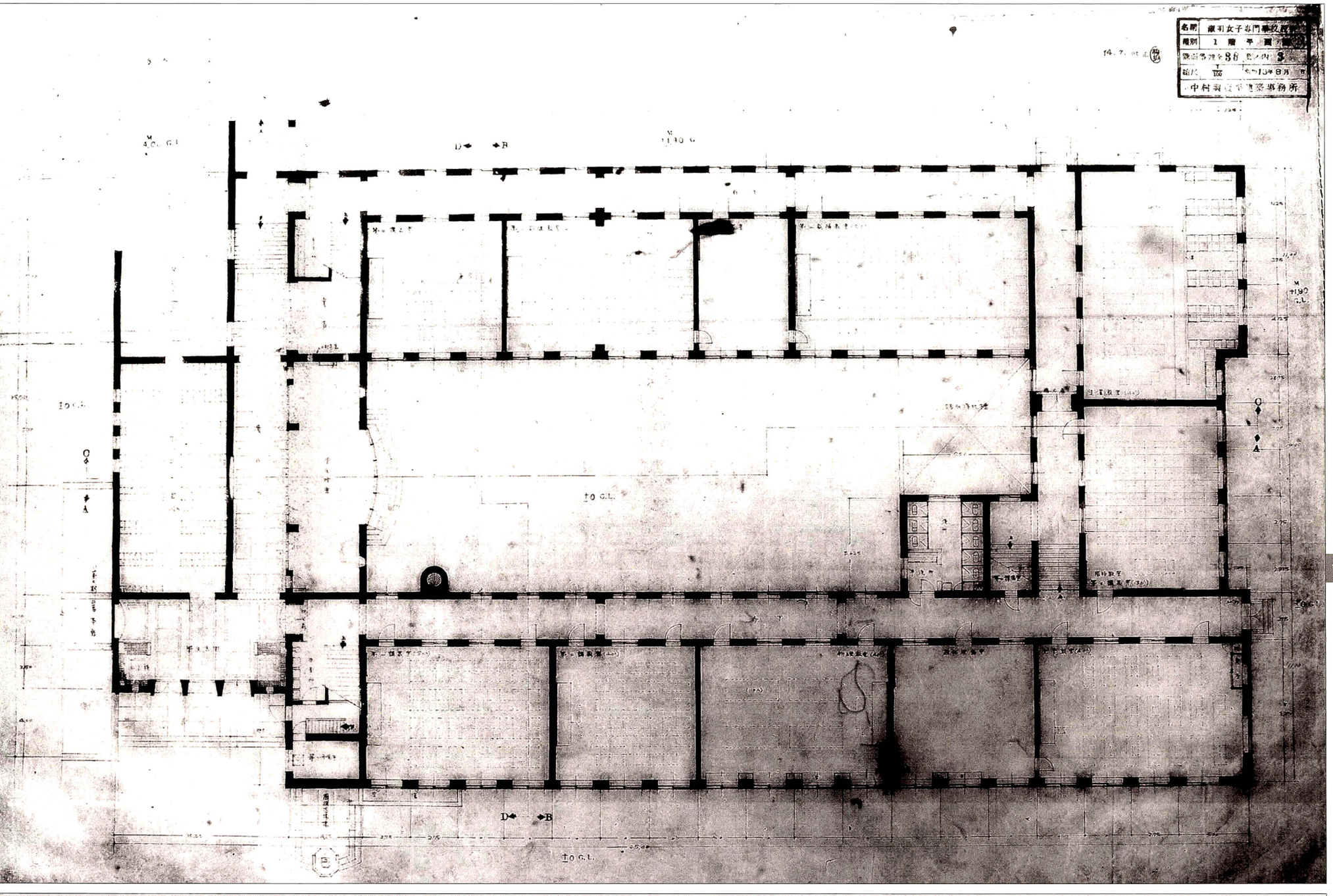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부지 및 건물배치도, 1/200, 이왕가 나스 별저(李王家那須御別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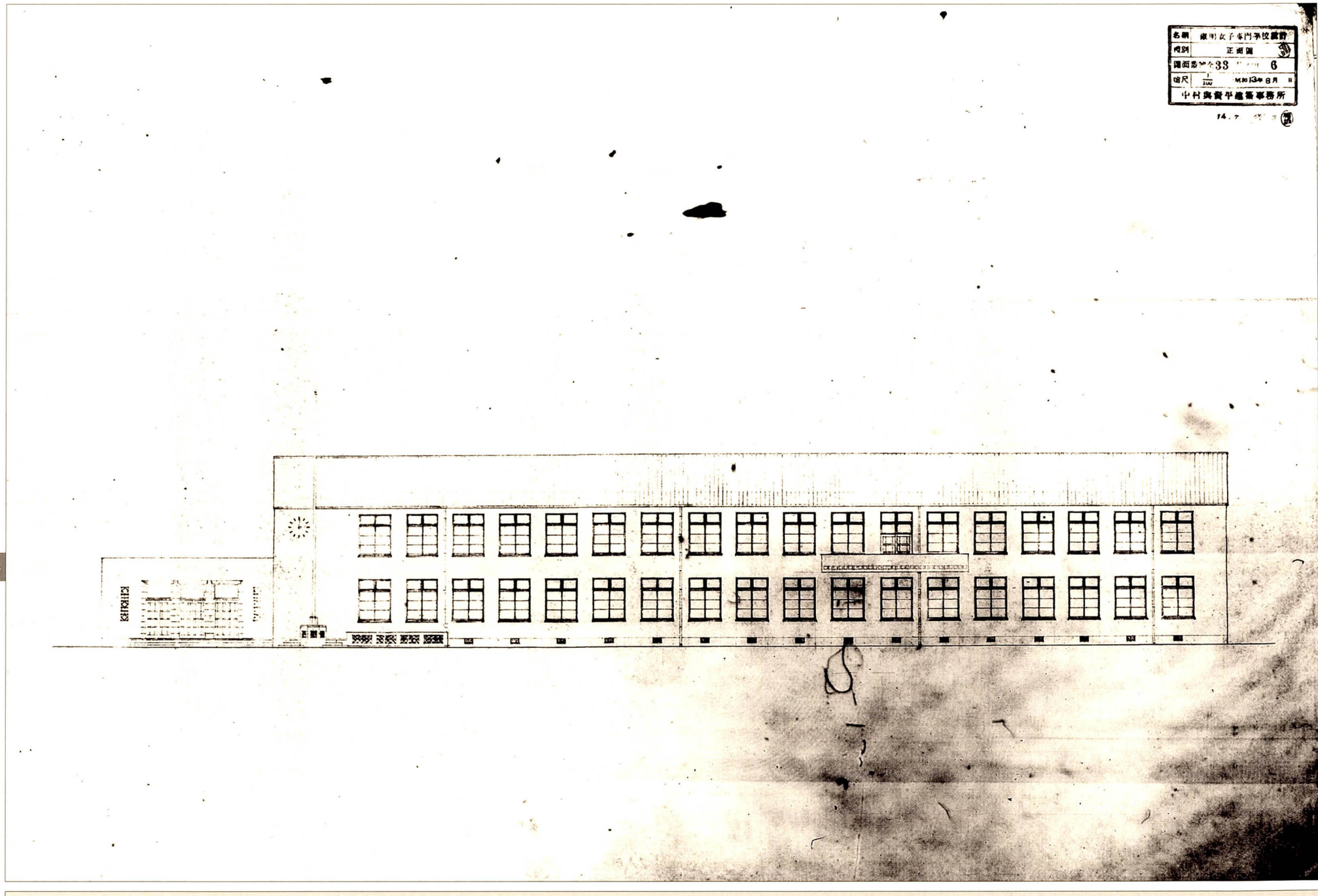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층·2층 평면도, 1/100, 이왕가 나스 별저(李王家那須御別邸), 1929년 3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입면도, 1/100, 이왕가 나스 별저(李王家那須御別邸), 19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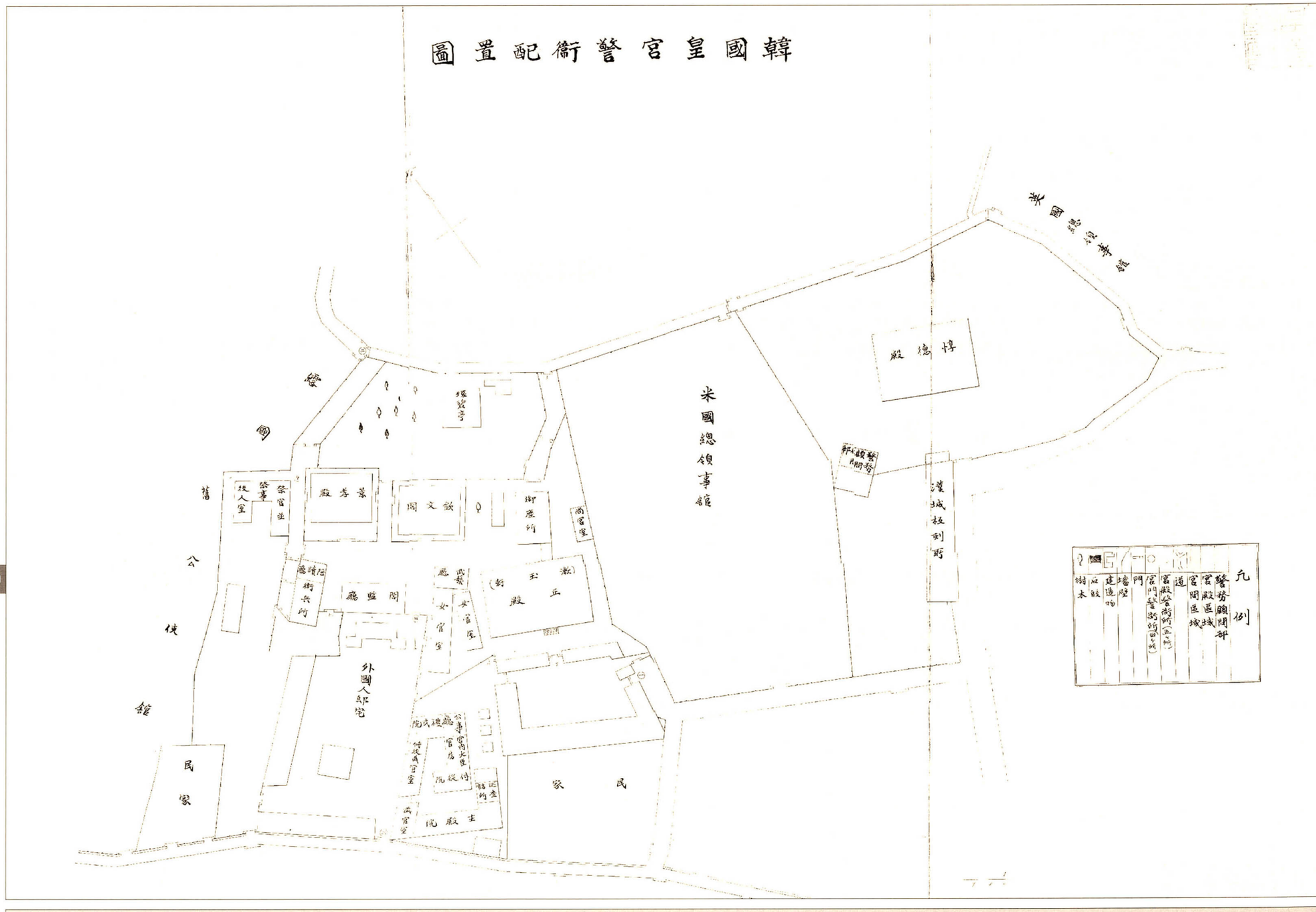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층 평면도, 1/100, 숙명여자전문학교(淑明女子專門學校), 193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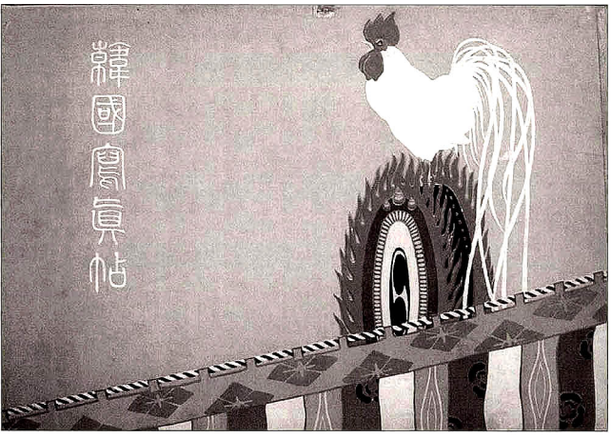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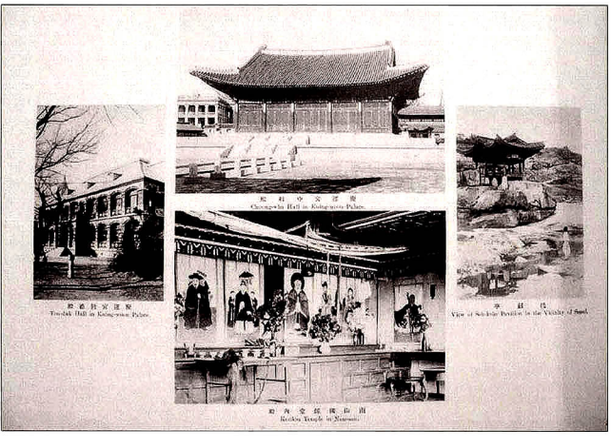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정면도, 1/100, 숙명여자전문학교(淑明女子專門學校), 193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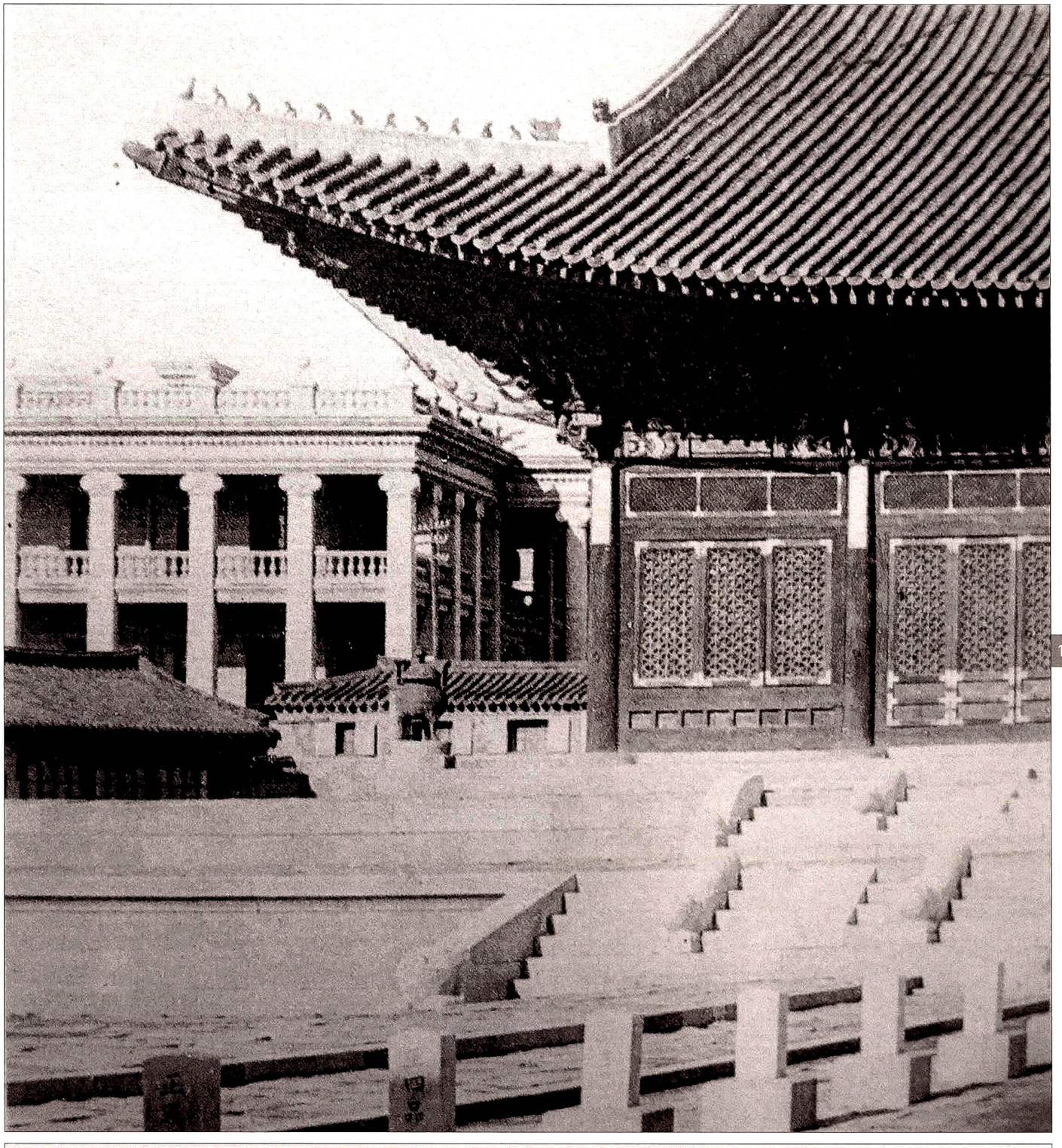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정면 및 입면단면도, 1/100, 한성은행사택(漢城銀行社宅), 1933년 5월



일본 궁내청 한국 황궁경위 배치도(韓國皇宮警衛配置圖)







일본 학습원대학　한국사진첩, 통감부, 1910년 7월

일본학습원대학 소장의 '한국사진첩'으로 도성, 궁궐과 관련된 다수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덕수궁의 경우, 세검정, 남산국사당과 함께 경운궁중화전, 경운궁돈덕전라는 타이틀로 한면에 게재되어 있다. 경운궁중화전 사진의 경우 중화전 너머로 석조전의 모습이 보이며 그 전면에 중화전 행각도 살펴볼 수 있다.

논 고

V

석조전을 고종황제에게

김정동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복원자료를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과정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년전 정부가 광화문, 남대문 축의 개조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쪽 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 축 선상에 종친부(宗親府)의 미술관 신축계획,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의 현대사박물관계획, 덕수궁의 석조전(石造殿), 중명전(重明殿) 활용계획, 서울역 구 역사 리노베이션 등이 있다. 그 중 정동(貞洞)과 덕수궁의 핵심에 있는 석조전의 장래 쓰임새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생활공간, 집무실, 접견용으로 쓰이던 서양식 건축물이다. 석조전은 현재 고종(高宗)시대를 기록하는 역사관으로 재현되고 있다.[1]

석조전에 담겨진 내용들은 우리 근대사의 한 상징이기 때문에 석조전 건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덕수궁 내 양관

1880년대에서 1900년도 초 이 지역, 즉 정동과 덕수궁에 대한 일반 인식은 황궐(皇闕)과 황실(皇室)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1897년 고종이 아관파천 후, 이곳으로 환궁(還宮)하면서 새 궁전이 되었다.

석조전을 고종황제에게

김정동(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그림 1〉 1904년 화재 발생 전의 중층의 중화전(中和殿) 옆으로 2층짜리 이양관 구성헌(九成軒)과 영국공사관이 보인다.

〈그림 2〉 석조전이 세워지기 전, 세장의 사진은 1902년 사진으로 덕수궁 중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자료 ; 도변호 외, 「조선명승기」, 조선명승기 편찬소)

〈그림 3〉 중화문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1년 9일을 머무르다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새로이 지은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경운궁은 1896년에 지은 것으로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외국의 공사관과 외국인들의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건물들 중 어느 것은 매우 깔끔하고 견고하다.』[2]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讓位)한 뒤, 순종은 창덕궁으로 왕궁을 옮겼고[3] 그 후 고종의 장수를 비는 뜻으로 덕수궁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고종은 1919년 승하할 때까지 덕수궁에 머물렀다. 덕수궁은 고종과 그 위상을 함께 한 것이다.

그 후 덕수궁 면적은 줄어들어 현재는 6만 2천㎡에 불과하다. 현재 궁내에 남아있는 건물로는 대한문, 중화전, 광명문, 석어당, 준명당, 즉조당, 함녕전, 덕홍전 그리고 근대건축물로는 정관헌, 석조전, 그리고 서관 등이 있다.

덕수궁에 서양식 건축물, 석조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1900년부터이다. 1904년 경운궁에 큰 불이나 목조가 위험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석조 건물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었다. 이미 세워져 있던 서양식 건축물 구성헌과 돈덕전(惇德殿)도 고종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한 경험 값이 되었다.

영국인 존 맥리비 브라운 경(柏卓安, Sir John McLeavy Brown)의 발의도 한 이유였다. 브라운은 1893년 1월 이래 한국정부의 총세무사(總稅務司)로 있다가 1896년부터는 고종황제의 재정고문을 하기도 했다. 한때 러시아의 힘으로 거세된 후 1898년 3월 다시 복직되었다.

1) 이 원고는 〈문화연대+정병국의원실, 석조전 활용방안 토론회 (고궁박물관, 2005. 12. 19)〉를 보완한 것이다.

2) William.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253쪽, 탐구당, 1976

3) 문화재청, 「창덕궁 희정당 신관 실측·수리보고서」, 63-80쪽,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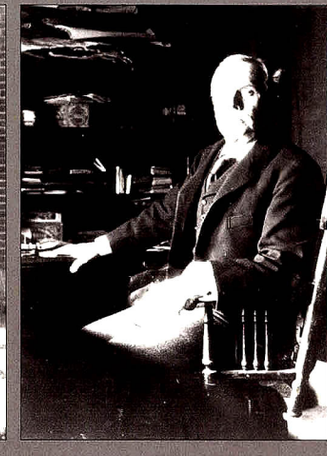
세관장과 회계 감독관을 지냈다. 브라운은 남궁억(南宮檍, 1863-1939)과 한성부윤을 도와 한성의 도로정비 및 하수구 정비 등을 시행하여 서울 도시 근대화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1905년 10월 말까지 근무하다가 통감부에 의해 해임되었고 1908년 중국으로 떠났다.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 쇼타로(目賀田種太郎)와 교체되었다.

브라운은 1893년부터 1908년까지 정동에 체재하였다. 그의 저택은 1904년 경 황제의 궁정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 돈덕전이 세워졌을 때 없어졌다. 1906년 총세무사 건물은 서소문 바로 안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돈덕전은 알현관(謁見館)으로도 불렸는데 고종이 외국인을 알현하는 장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2. 석조전 세우기

경운궁은 1897년 이래 10년간 고종의 공간이었다. 고종은 한옥 전각이 즐비한 이 궁 안에 새 양관을 세우기로 했다. 새 풍조로 밀려들어오는 서양식 건물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석조전은 원래 서궐(西闕) 즉, 경희궁 터에 세우기로 했던 것인데 고종의 뜻에 따라 경운궁내에 세워졌다. 석조전은 구성헌 자리에 터를 잡았다. 준명당(浚明堂) 서쪽이다. 영국인 브라운이 설립안을 구체화시키고 설계는 상하이(上海)에 있던 영국인 기사(技師) 하딩(J. R. Harding)에게 의뢰되었다. 설계도 작성은 공사 착공 2-3년 전에 완성하였던 것 같다. 세워질 당시 양식의

〈그림 4〉 1903년 돈덕전에서의 존 맥리비 브라운
(자료 ; 석조전 복원 팀, 김진묵 소장 제공)



〈그림 5〉 돈덕전(순종 즉위기념 엽서)과 석조전 부분

공식 명칭은 '영국식민식 궁전양식'이었다. 브라운과 하딩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석조전 양식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유행하였고,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영국의 영향으로 콜로니얼 스타일(Colonial Style)의 일종으로 유행하였던 소위 고전주의적 양식을 재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동종 동류였다. 석조전은 영국식으로 내외부가 이뤄졌다.

공사비는 우리 세관(稅關)이 거둬드린 자금이었다.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들인 것이다. 그 세관은 브라운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기초공사는 1900년 말 시작하여 1901년에 마쳤다. 1902년에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1903년 8월 5일부터는 오쿠라토목조(大倉土木組)가 청부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4] 1905년 봄에는 2층 부분까지 대략 끝낸듯하다. 1903년 착공 당시 공사명은 '한국 왕성건축 3층 석적공사(王城建築 3階 石積工事)'였다. 영국·일본의 '협작(協作)'이었던 것이다(1906. 11. 15).

감독은 초기에는 심의석(沈宜碩, 1854-1924), 이바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찐(薩巴丁 혹은 薩巴玲, 土巴津, Afanasij Ivanobich Scredin Sabatin, 1860년?-?) 그리고 후기에는 세관에 근무했던 영국인 헨리 데이비드슨(Henry William Davidson), 일본인 기사 오가와(小川)가 마무리했다. 이때 일본인 건축가 다케모토(竹本力松)가 도왔다. 영국인과 일본인 간의 통역은 에밀 마르텔이 맡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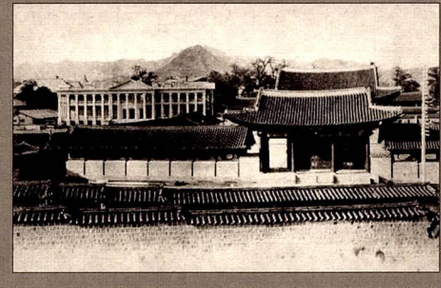
4) 『하자마구미(間組)백년사(1889-1945)』, 113쪽, (일본) 하자마구미(間組), 1989

1905년부터는 데이비드슨이 감독을 맡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영국 에버딘(Aberdeen) 출신 데이비드슨은 브라운의 비서자격으로 조선에 왔다. 그는 브라운과 함께 조선의 세관 일을 꾸렸고, 석조전의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였으며, 파고다 공원의 각종 시설 건축 시에도 기술적으로 참여하였다.

파고다 공원은 1897년 브라운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처음에는 탑골공원이라 불려졌다. 데이비드슨은 이 공원의 실제적인 조성자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1945-48)에 의해 초청되어 한국세관을 새로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데이비드슨 가는 언더우드 가와 혼인으로 맺어졌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데이비드슨의 딸 조안 데이비드슨(Joan Davidson, 1915-?)이 결혼(1941. 7. 10)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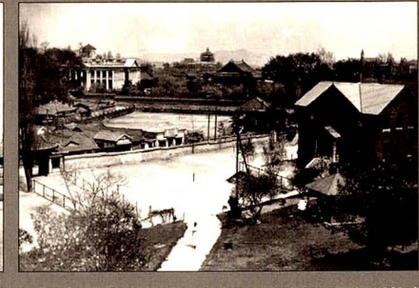
석조전의 주가 되는 석공사에서 기초공사에는 창의문(彰義門) 부근, 세검정의 화강석이 사용되었고, 2-3층에는 동대문 밖 채석장 영풍정(英風亭)의 화강석을 사용하였다.[5] 발코니와 옥상 난간 돌은 일본 이바라키 현 쓰쿠바 산(筑波山)의 석재를 갖다 썼다. 모래와 흙은 청계천에서 갖다 썼다. 현 광화문 우체국 뒤 구, 서린호텔 앞 개천 것이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덕수궁까지는 공사용 레일을 깔았다. 시멘트와 유리는 영국 상사(商社) 홈링거에서 수입했다.

실내장식은 영국인 건축기사 로벨(Lovell)의 설계(1907)로 이루어졌다. 내부 배관 및 난방은 런던(London)의 크릿톨 상사(Crittall & Co.)가 맡고 내부장치와 비품은 마플 상사(Messrs Maple & Co.)에서 맡아했다. 내부는 원래 17, 18세기에 유행하던 로코코(Rococo)식으로



〈그림 6〉 준공된 석조전. 그리고 중화문과 중화전. 중화전은 단층으로 축소되었다. 중층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1904년 전후 사진이다.
(자료 ; 그림엽서)

〈그림 7〉 구성헌이 헐리고 3층짜리 석조(石造)의 석조전이 세워졌다. 중화전과 석조전이 이웃하게 되었다.
(자료 ; 사진엽서)



〈그림 8〉 이화학당에서 본 정동과 석조전 일대. 이왕가미술관(현, 미술관)이 세워지기 전이다. 멀리 한가운데가 서울시청이다.
(자료 ; 이화여고)

꾸며졌으나 안타깝게도 6·25전쟁 때 불타 버렸다.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는 1910년 6월 마쳤다.

석조전은 지상 3층, 연면적 1,159평의 석조 건축물이었다.[6] 한일합병 전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일한 순석조 건물이었다.

석조전은 평면은 현관부를 중심으로 완전대칭으로 하였고 입면은 6칸+5칸+6칸으로 분할되었다. 진입부는 2층으로 직접 연결되었다. 1층(半地下)에 내시, 상궁 등 시종인(待從人)들의 대기소와 거실을 두었다. 2층에는 황제의 외국 사신 접견실 및 홀(Hall), 3층에는 고종과 비의 침실과 거실 등을 두었다. 1층은 13개실, 2층은 9개실, 3층은 13개실로 총 35개실이 되었다.

1-2층에는 회랑을 두어 베란다를 만들었고, 지붕은 평지붕으로 해 사방을 조망토록 했다. 세장(細長)한 기둥과 주두(柱頭), 이오닉 오더(Ionic Order)의 콜로네이드(colonnade)는 모뉴먼탈(monumental)한 감을 준다. 특히 원주(円柱)와 각주(角柱)를 병용 18개를 일열횡대(一列橫隊)로 세웠다. 옥상 난간에는 석각(石刻) 꽃병, 처마 밑 도리의 덴틸 오너먼트(Dentil Ornament) 등이 신고전주의적 색채를 더하고 있다. 건물 중앙 파빌리온(Pavillion) 상부 박공(Pediment)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 이화문(李花紋)이 새겨졌다. 구한국의 마지막 유물이다.

석조전의 또 다른 특색은 창문을 안쪽으로 밀어 넣고 늘어선 기둥을 따라 건물 앞면에 복도를 냄으로써 음영(陰影)에 의한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점이다.

일제의 침략이 계속되며 석조전공사는 더뎌지기만 했다. 건물은 공사 13년 만인 1910년 6월 준공되었다. 한일합방 직전이었다. 준공 후

5) 李鏞善, 「建設」, 1976. 7,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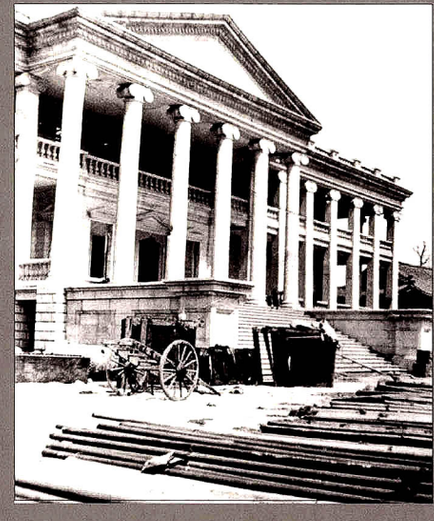
6) 3개 층의 면적 합계가 1,200평 정도라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정밀한 실측이 우선 필요로 한다.

건축물의 외관이 석조라 석조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름하여 석조전(石造殿)이었다. 석조 3층짜리여서 그런 우스운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즈음 선교사 게일(Gale)은 '한식건축 원칙을 가미 주변 궁전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잡지는 석조전 내부의 장식이 '지선지미(至善至美)의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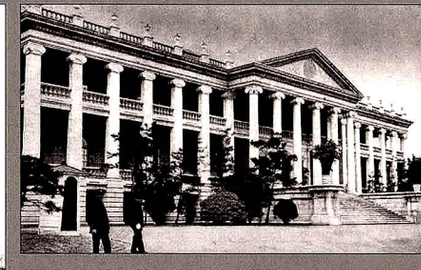
1907년 7월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순종은 창덕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경운궁은 왕의 공간이 아니었다. 궁궐의 지위가 격하되었다.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로 덕수궁(德壽宮)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어쨌든 고종은 1919년 1월 승하할 때까지 이 궁을 생활공간으로 했다. 1911년 7월 경선궁(慶善宮) 엄비(嚴妃)가 돌아가자 아들 영친왕이 일시 귀국했다. 영친왕은 이때 석조전에 들어 와 머물렀다.

준공 후 석조전은 명동성당, YMCA와 함께 서울의 3대 건축물이었다. 당시 장안의 초고층 빌딩이었다. '수도에 있어서의 신궁전'이었던 석조전을 게일은,

『…서울에 YMCA의 새 건물이 방금 완공되었다. 이 회관은 도시의 상점들과 관아(官衙)의 중심이자 나라의 중앙에 서 있다. 이 건물은 명동성당과 신궁(新宮)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7]



〈그림 9〉 마무리 공사 중의 석조전(자료 ; Miss Josephine Roberts(한국명 노정빈), 대한 성공회 대전교구)



〈그림 10〉 석조전(자료 ; 그림엽서)

〈그림 11〉 석조전의 고종 황제 접견실 내부
(자료 ; 대한제국 고종황제 국장서첩)

라 하고 있다. 여기서 신궁은 경운궁(덕수궁)을 말하는데 신궁의 상징은 석조전이었다. 다른 일본인들은 석조전을 서울의 4대 명건물로 뽑았다. 석조전, 용산 조선총독 관저, 동양척식(주), 그리고 용산 정거장 건물과 함께였다. 게일은 이어,

『…초기 교회건축에 쓰인 장방형(長方形)의 바실리카(Basilica)양식에다 건물의 긴 변에 주출입구를 배치하는 한식 건축 원칙을 가미 주변 궁전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다.』

고 쓰고 있다.

정인국(鄭寅國)은 석조전에 대해, '비록 외국인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우리 정부 주관 하에 우리 예산으로 처음 시도된 진정한 의미의 근대여명기적 성격의 건물이다'라고 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건축」)

3. 고종 승하 후 전용 거듭

석조전은 1922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일제는 1933년 석조전 개조공사를 진행한다. 이때 알현실 등 내부 시설은 모두 철거했다.

7)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145-146쪽, 1909

고종의 흔적을 지우는 불손한 행위였다. 그리고 진열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1938년 10월 1일부터 석조전을 '근대일본미술진열관'이란 이름으로 바꾸었고 근대미술품을 수집, 진열하였다. 주로 일본 작품이었다. 이것은 대한제국과 고종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된 행위였다.[8] 그즈음 일제는 석조전과 이웃해서 직각 방향으로 소위 '이왕가미술관'을 세웠다. 조선 왕조를 부인하는 이름이었다. 조선이 이 씨의 왕가쯤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석조전에 대향해서 서관(西館)[9]이라 불렀다. 이후 석조전은 서관과 회랑으로 연결되며 동관(東館)이란 이름을 갖게 된다. 이후 동관, 서관 두 건물은 형제 같은 건물로 인식되어졌다. 서관과는 'ㄱ'자형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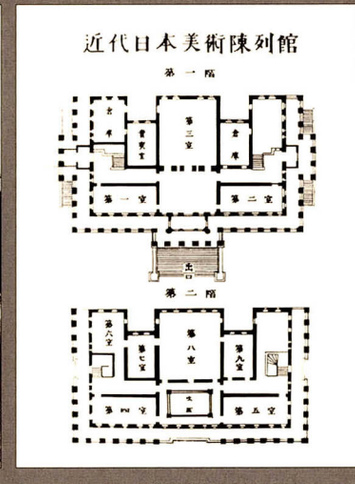
4. 석조전에 담길 내용

1945년 해방 후 정부는 이 건물을 개수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사무실로 쓰게 했다. 1948년부터는 유엔한국위원단이 사용했다. 국제적 뉴스의 건물이 된 것이다. 1953년 6월부터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었다. 6·25동란 때 내부가 불타는 피해를 당한 후 1954년 육군공병단에서 수리했다.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덕수궁에 미국 병사들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석조전은 그 본부였다.

덕수궁은 1962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정부는 계속 개보수하여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1989년부터 조선조 왕궁 500년의 각종유물과 생활문화를 정리하여 다시 보여주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했으나 2005년 8월 15일

〈그림 12〉 1927년 이후의 석조전. 멀리 정동 언덕에 경성방송국 안테나가 보인다.



〈그림 13〉 석조전이 '근대일본미술진열관'으로 쓰일 때의 배치도

유물을 경복궁 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지금은 폐관되어 있다. 한편 서관은 1998년 11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전용되었다.

문화재청은 현재 보수공사 범위를 확정하는 중이다. 문제는 전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석조전은 등록문화재 제 80호로 등록되어 있다(2003.12.4). 서관(1936-38)과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서관은 제 81호).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석조전과 서관이 사적(124호) 속의 사적이 되기 때문이다.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석조전을 근대미술관으로 전용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결정, 그리고 문화재청 청장의 찬성 발언(2005년 9월 국정감사)으로 석조전의 전용문제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석조전이 미술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한때 미술관으로 쓰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석조전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관건이다. 석조전은 고종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있는 건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근대 건축물이다. 개인적으로 생각건대 그 세워진 연유를 보아서도 고종과 관련된 역사를 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일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제국관이나 고종 기념관으로 전용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운의 대한제국 그리고 황제 고종은 정동과 덕수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의 보존 공사에 있어서 제일의 기준은 건물의 시간성에 그 진정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8] 졸저, 「고종 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9] 서관 ; 1936-38. 3.141,016평 규모. 이왕가 미술관으로 쓰이다가 1986년 이후에는 문화재관리국 등이 사용해 왔다. 1998년 11월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했다. 근대미술관이 되었던 것이다.

복원자료를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과정

강성원(건축사사무소 강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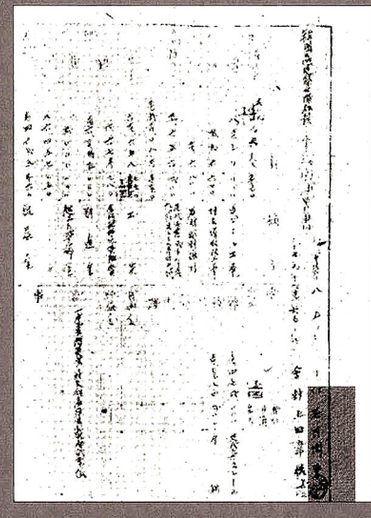
1. 대한제국기 석조전의 영건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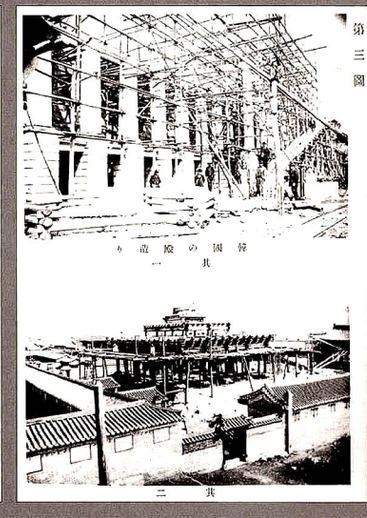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기에 계획, 시공되어진 고종 연간의 건축물로 중화전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석조전은 크게 1) 설계에서 기초공사 2) 구조공사 3) 내부공사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1) 1차 시기 - 설계에서 기초공사(1897년~1901년)

석조전은 1898년에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1]이 발의하여 공사비 3백만원의 예산아래에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인 존 레지날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브라운은 중국에서 구강해관세무사(九江海關稅務司)로 활동을 하다가 1893년 8월 15일 해관총무사(海關總務司)에 임명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1894년 10월 1일부터는 탁지아문고문(度支衙門顧問)을 겸임(兼任)하게 되고 1905년 11월 30일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한다.[2] 그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석조전 건립을 발의하게 된다.[3]

당시 하딩의 설계도는 이번 복원과정[4]에서 일본 하마마츠 시립 도서관에 일부 남겨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의 청사진으로 하딩이 석조전 건립 전인 1898년에 작성한 계획도면이며, 전면 3층 발코니 중앙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건립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의 재질은 청사진이었는데 당시 원도(트레이싱지로 추정)가 너무 노후되어 청사진으로 복사한 도면이었다. 복원자문단의 조사에서 주목된 부분은 두장의 청사진에서 No.6, No.7로 도면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다. No.1~No.5도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평면계획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이 되지 않았다. 브라운은 상기의 설계도를 입수한 후에 소가 벤(曽我 勉)에게 석조전의 1/10 목조모형을 만들게 하고 이 인연으로 기초공사의 도급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5] 기초공사는 1900년부터 오가와 요우키치(小川陽吉)기사를 초빙하여 1901년에 완성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심의석(沈宜錫, 1854~1924, 당시 內部技師)도 참여하게 된다.





〈그림 1〉 석조전의 영건당시모습(『建築雜誌』, 1905)과 손익시산서(損益試算書, 『大成建設社史』, 1963)

2) 2차 시기 - 구조공사(1903년~1906년)

1901년의 기초공사 완료 이후 1902,3년에는 정변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오쿠라도보쿠구미(Okura Doboku Gumi, 大倉土木組)[6]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초공사 완료 이후 오쿠라도보쿠구미가 구조체 공사를 맡은 것인데, 1903년 8월 착공하여 1906년 11월에 완공하였다. 이 공사에 이시이 슈헤이(石井周平)[7]를 공사 감독으로서 파견하여 2명의 일본인 기사를 두고 공사를 진행한다.

1) 『高宗時代史』

2) 『高宗時代史』

3) 김정동, 「渡來한 "西洋人 建築家"에 관한 "硏究(1)"」, 대한건축학회, 1989.8

4) 독일 슈투트가르트대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김은주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추후 복원자문단의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5) 『朝鮮と建築』, 1937.11

6) 현재 타이세이건설(大成建設)의 1892~1911년 이름이다. 설립자 오쿠라 키하치로(Okura Kihachiro, 大倉喜八郎)는 1876년의 강화도조약이후 바로 부산에 진출하여 매립공사, 철도공사등을 담당하였다. 경성(京城)에는 1885년 출장소를 설립하고 일본영사관의 건축공사를 인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후 1903년부터의 석조전 공사이외에도 대한의원(大韓醫院), 경성농공은행(京城農工銀行),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등의 공사를 담당한다.

7) 이시이는 석조전 이후 대한의원본관(탁지부건축소 설계), 경성우편국의 시공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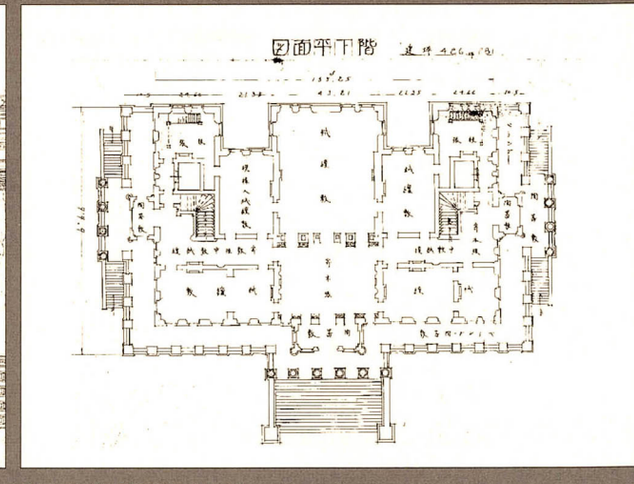
이 시기 공사 중의 사진은 1905년의 『건축잡지(建築雜誌)』에 1매 수록되어있다.[8] 공사 중인 석조전과 화재 후 단층으로 중건중인 중화전[9]의 사진과 설명이다. 사진설명에는 "양관은 화강석으로 만든 3층으로 평수가 420여평의 내화구조이며 한식전각(韓殿)은 목조이고 사진은 보상부까지 끝나는 광경이다. (洋館は花崗石造リ三層にして坪数四百二十坪餘耐火構造なリ, 韓殿は木造平家にして写真は棟上を終リし光景なリ)"라고 되어 있다. 석조전 영건당시의 전통적 목조건물과 양식(洋式)의 건물 축조가 혼재한 시대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3) 3차시기 - 내부공사(1907년 ~ 1909년)

이후 영국 기술자 로빌(Lovell)이 내부공사의 명을 받은 것은 1907년의 일이었다. 관공사, 스토브, 전등 공사는 영국의 크리탈 회사(Crittall & Co.)가 내부 장식, 가구 등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Messrs Mapls & Co.)가 청부(도급)맡았다.[10] 내부는 17, 18세기에 유행하던 로코코 식으로 꾸며졌으나, 1933년 미술관 전용과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11]

당시의 난방설비는 벽난로와 방열기식 난방이 혼용되었다. 영국의 크리탈 회사(Crittall & Co.)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사진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내부의 사진자료에서 벽난로와 함께 방열기[12]가 보이며, 전경사진을 보면 각각에 굴뚝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2〉 하딩의 설계도, 1898년



〈그림 3〉 석조전 평면도, 1933년

조명설비 역시 크리탈 회사(Crittall & Co.)에 의해 들여온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도 궁정건축, 호텔 등 특수한 용도에 쓰여졌던 화려한 샹들리에도 쓰였다. 전구의 발생과 함께 등장한 코드 펜던드형(cord pendant), 브래킷형(bracket, 벽부착형)등 다양하게 쓰였지만, 대부분은 후대의 개보수시에 소실되었다.

2. 일제강점기 석조전의 변화

1) 1933년 미술관으로의 개조 - '덕수궁 일본근대미술 전시'

이후 석조전은 1933년 초에 석조전을 미술관으로 전용하여 쓰기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에는 이왕가미술관으로 불리기 전이므로 '덕수궁 일본근대미술 전시'로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시는 일본 근대미술품으로 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2층은 일본화, 서양화의 회화작품, 3층은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 전시되었다. 이 중 일본화는 20일 또는 1개월에 20작품 정도가 교체 전시되었으며, 서양화, 조각, 공예품은 1년에 1회 정도 전면 교체되어 전시되었다.

당시 개수공사를 담당한 이는 야스모토(保元平三郎, 李王職營繕係主任)였는데 당시 공사에 대하여 "원형을 일정부분 남기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이전의 장식을 원형 그대로 남겨둔 부분은 홀과 접견실로, 이 두실은 조금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실은 많든 적든

8) 『建築雜誌』, 第222號, 1905. 6, p.81

9) 기둥칸수 등 전체적인 가구법이 유사하며 경운궁의 중건공사가 1904년부터 1907년이었고 사진으로 보이는 전각의 서쪽 행각의 전체모습이 「경운궁중건배치도」(가칭,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참조)와 유사하다.

10) 大成建設株式會社, 『大成建設社史』, 1963. 1, pp.157-158

11)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6), 『건축사』, 198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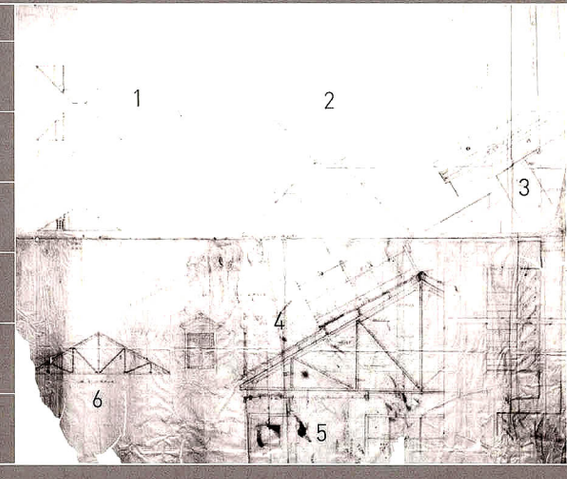
12) 조선호텔(1913년 3월 기공, 1914년 9월 준공)에서도 2관식 온수난방(二管流通式熱湯暖房) 장치를 채택하면서 벽난로의 열기난방도 혼용되었는데, 이는 난방방식의 과도기적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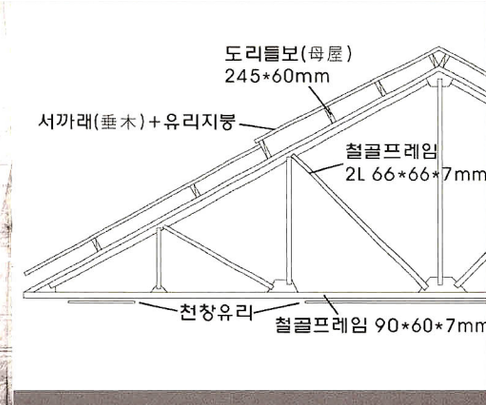
거의 변화되었다"[13]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도면자료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의 '석조전 평면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덕수궁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 도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의 석조전평면도는 청사진으로 1933년 개수공사 때의 변경 전 도면이다. 미술관으로 개수할 때에 바닥재료 조사 도면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입된 재료는 '1933년 개수 전 현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1909년 완공 당시 원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청사진 위에는 빨간색과 흑색으로 X표시, 해칭, 간단한 설명 등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평면과 고찰해 보았을 때 난방설비 도면(1936년7월)을 그리기 위해 도면과 현황의 차이를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36년에 작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단없음' 표시는 현재 계단이 없다는 표현으로 보이며(계단을 철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하층의 변소 표시도 도면과 다르게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판단된다(변소를 설치하라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1933년 개수 전의 바닥상황 및 평면 간살이를 알 수 있으므로 귀중한 자료이다. 재료는 실별로 板張(널마루), 絨纏(카페트), 寄木張 中敷絨纏(쪽매마루에 카페트), 陶器(타일), 模様入絨纏(장식카페트), 土間(흙바닥, 지면) 등이 기입되었다. 옆의 실과 같은 재료로 연결될 때에는 '仝(同)'으로 간략히 표기하였다.

	내 용
1	지붕평·입면도 축척 : 1:100
2	지붕평면도 축척 : 1:50
3	유리접합디테일 축척 : 1:1
4	단면도 축척 : 1:10
5	앙시도(제8실) 축척 : 1:10
6	단면도 축척 : 1:50





4번 단면도의 상세

〈그림 4〉 미술관 개수시(1933년)의 유리지붕 도면, 『朝鮮王室所藏文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덕수궁석조전유리지붕변경도(德壽宮石造展硝子屋根変更図)[14]는 트레이싱지로 1933년 개수공사 때의 원도(原圖)이다. 이때에 2층의 황제 거실과 황후 거실로 쓰이던 부분을 하나의 전시실로 전용하게 되고 상부에 새로운 천창이 설치되는 것이다. 당시의 공사도면인 덕수궁석조전유리지붕변경도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러스하부인 제8실(그림5)에 천창유리를 가운데로 길게 두고, 측면으로 다시 천창을 두어 채광이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철골트러스로 두가지 크기의 부재로 제작되었으며, 트러스 상부로 도리들보(purlin, 母屋)를 설치하고 그 위로 서까래(rafter, 棰, 垂木)에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2) 1938년 '이왕가미술관 – 근대일본미술진열관'으로 전용

이후 덕수궁의 이왕가 미술관 신관이 1936년 설계에 착수하여 1938년 9월에 완공되면서, 기존 석조전은 이왕가미술관에서 '근대일본미술진열관(近代日本美術陳列館)'으로 전용하게 된다.

이때에 미술관 신관의 설계를 맡은 나카무라요시헤이 설계사무소에서 석조전에 대한 난방설비설계를 맡게 된다. 당시 자료가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 복원자문단의 조사 시에 추가발견된 '석조전 평면도(p.23)'는 트레이싱지 원도(原圖)로 1:200의 축척으로 작성되어 있다. 상기 설명한 데로 1933년 덕수궁 평면도를 바탕으로 현장조사한 도면 위에 대고 재차 깨끗하게 현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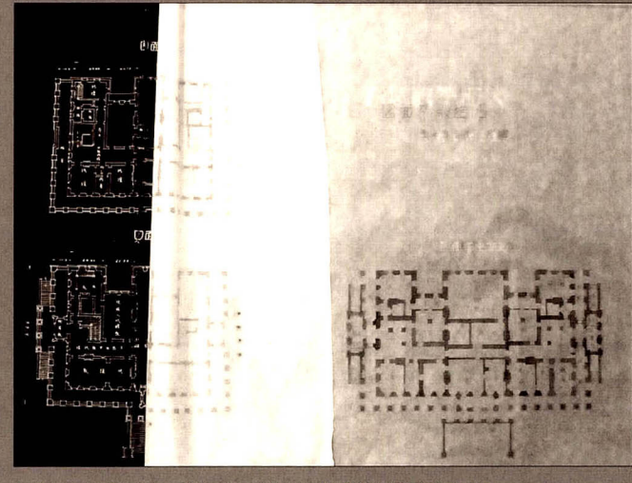
13) 『朝鮮と建築』, 1933. 11, p.16, "..以前の裝飾として元の儘殘つてをりますのは, ホールと應客間と, この二つは毫も變更を加へなたったのです. その他は多少なり, 殆んど變へてしまひました.."

14)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朝鮮王室所藏文書』, 4449번, 108.8cm*87.2cm크기이며, 트레이싱지로 되어 있다. 원본상태가 부실하지만, 지붕트러스의 윤곽 및 부재치수, 디테일은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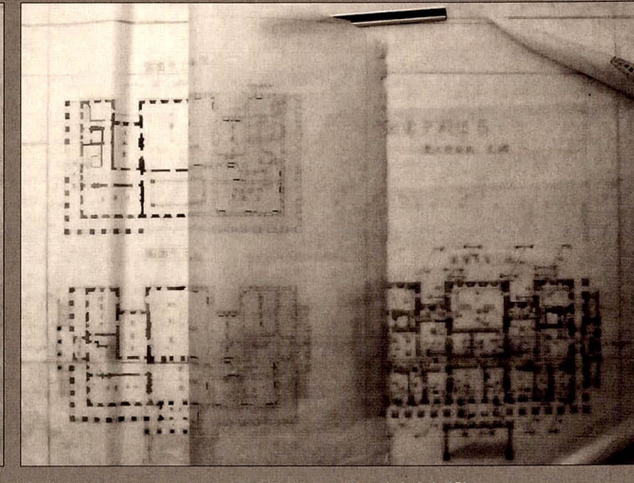
그린 도면이다. 이때에 바닥 마감재는 난방설비공사에 의미가 없으므로 실명을 기입한 것으로 보이며, 난방설비도면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도면 작도 기법상 초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석조전 난방설비도(p.27) 역시 트레이싱지 원도(原圖)로 1:200의 축척이다. 작도일자가 1936년 7월 17일이며, 위의 석조전 평면도(p.23)를 바탕으로 그 위에 대고 난방설비를 추가계획한 도면이다. 종합하면 석조전 평면도(p.17) - 석조전 평면도(p.23) - 석조전 난방설비도(p.27)의 순으로 난방설비를 추가계획하기 위한 도면작성과정을 보여준다.

일본근대미술진열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 들어서서 중앙 홀과 좌우의 제1, 2실에 일본화를 걸고 중앙의 큰 전시실인 제3실에는 조각을 전시하였다. 2층에는 서양화를 중앙 홀을 비롯하여 제4실부터 제7실까지 나누어 전시하였으며 공예는 석조전에서 가장 큰 전시실은 제8실과 그 우측에 자리한 제9실 2개 방에 나누어 전시하였다. 1층의 일본화는 유리 진열장 안에 넣어 전시하였으나, 2층의 서양화는 벽면에 부착하여 그대로 전시하였다. 조각과 공예는 전시대 위에 올려 전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945년 해방이후 임시정부와 정치회담의 장소로 간헐적으로 쓰이다가 한국전쟁으로 큰 훼손을 겪게 된다. 1950년 10월 30일의 서울신문에 게재된 "문교부, 전쟁으로 파손된 주요 문화재 수리 예정"을 보면, 남대문(250만원), 경회루(660만원), 경복궁(1,750만원)과 함께 덕수궁 미술관의 공사비로 800만원을 예상 수리비로 추정하였다. 여타 문화재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큰 액수였으므로, 전쟁으로



〈그림 5〉 석조전평면도 위에 대고 난방설비밑그림(석조전평면도) 작도



〈그림 6〉 난방설비밑그림(석조전평면도) 위에 대고 난방설비계획

인한 석조전의 피해가 컸다고 고려되며, 내부의 장식 및 옥상의 지붕트러스 등이 이때 훼손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때의 보수공사는 1955년에 육군 공병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후 다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석조전은 1984년 5월 22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된다. 평면상에서는 전시시설, 수장고, 사무실, 기계전기시설, 화장실 등 설비시설 등이 새로이 계획되고 전시평면의 변형으로 벽체가 새로 삽입되는 부분과 철거되는 부분도 생기는 큰 변화였으며 구조면에서도 철골기둥 등의 보강 및 교체가 되었다. 최근에는 2007년에 보수공사[15]를 통해서는 외부 석재 부분의 구조보강이 이뤄졌다.

3. 석조전 평면의 원형추정

석조전의 평면구성에 대해 『건축잡지(建築雜誌)』에서는 "총 면적이 4백평으로 높이 7칸반 횡으로 25칸 안길이 15칸의 굉장한 석조의 전당을 바라보기에 이르러 1층(원문 2층)에 접견실은 약120조에 정면이 되는 대광문(홀)은 30조를 깔고 2층(원문 3층)에 이태왕의 거실은 40조, 왕비의 거실은 30조, 양전하의 침실은 30조로 하고 그 외 담화실, 욕탕 등의 설비를 하였다."[16]고 기술되어있다. 2층은 황제일가의 주거공간으로, 1층은 접견실 등의 알현을 위한 공간으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이 층별로 명확히 이뤄졌다.

15)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동관 수리 보고서』, 2007, 본 공사는 석조전이 건립연대가 오래되면서 외부 부재, 특히 지붕층 외부 석재 인방보에서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다. 상부 지붕층의 하중에 대한 내력의 부족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파악되며 또한 외기, 우수, 온도변화에 인하여 그러한 균열, 풍화가 심해졌다. 그리하여 2003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지붕층의 방수 및 과다하중문제, 처마도리의 구조보강의 시급성 등의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05년의 구조안전진단 정밀계측을 거쳐서 보수보강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 2006년 12월에 보수공사가 시작되었고 보수가 진행되면서 문헌조사 및 보수과정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16) 『建築雜誌』, 1910. 12, 제288호, p.28, 부록참조

『건축세계(建築世界)』에는 "총면적이 480평으로 지하1층 13실, 1층 9실, 2층 13실이고, 회랑을 이용하며 옥상은 평지붕"[17]으로 되어있다. 근대 일본미술진열관 당시의 1층 평면의 실수는 7실인데, 당시의 잡지기록은 계단실도 일반적으로 포함하므로 9실이 된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한가지 더 가정해 볼 수 있는 점은 2층이 1층 실수와 4실이 차이나는 점, 그리고 각 실별 면적을 고려해 보면 제8전시실(1층의 접견실과 같은 면적)로 쓰인 실이 3~4실로 평면구획이 되어 사적생활공간으로 쓰였다고 추정된다.

내부복원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상기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착수되었다. 따라서 2층의 황실 생활공간의 간살이를 추정하는 것이 요구되어졌고 현존하는 내장재들을 전부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칸막이 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제의 거실이 우측에 황후의 거실이 좌측에 위치하는 평면구성과 규모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해체조사를 통한 복원평면은 이후 추가조사된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소장 '석조전평면도'와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기사내용과 일치한다.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소장 '석조전평면도'에서는 1층 부분에서 중앙 홀의 벽감과 장식기둥의 상세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좌우측 간살이 위치를 비롯한 개구부의 위치가 나타난다. 2층은 상술하였듯이 접견실 상층부의 간살이가 동측에 40조로 황제의 거실, 서측에 30조로 황후의 거실이 조성되고 그 전면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졌다. 또한 남측면의 간살이와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있었음이 나타난다.

〈표 1〉 석조전 '덕수궁 일본근대미술 전시' 당시의 공간구성

층	건물면적	공간사용
지하층	1,409.2㎡	창고, 변전소 등
1층	1,409.2㎡	일본화 1 75.0㎡ 2 97.9㎡ 조각 155.4㎡4 외빈실, 사무실, 공작실, 수장고(미술품 격납고)
2층	1,304.3㎡	서양화 1 75.0㎡ 2 52.9㎡ 3 54.5㎡ 공예 1 5173.2㎡ 공예 2 52.9㎡ 예비실(기획전시실)
총	4,122.7㎡	전시 면적 886.9㎡

〈표 2〉 석조전 '일본근대미술진열관' 당시의 공간구성

층	전시실	전시 내용	전시 면적
1층	중앙 홀	일본화	97.68㎡
	제1실	일본화	74.91㎡
	제2실	일본화	
	제3실	조각	155.1㎡
2층	중앙 홀	서양화	149.82㎡
	제4실	서양화	74.91㎡
	제5실	서양화	
	제6실	서양화	52.8㎡
	제7실	서양화	54.45㎡
	제8실	공예	172.92㎡
	제9실	공예	52.8㎡
총			88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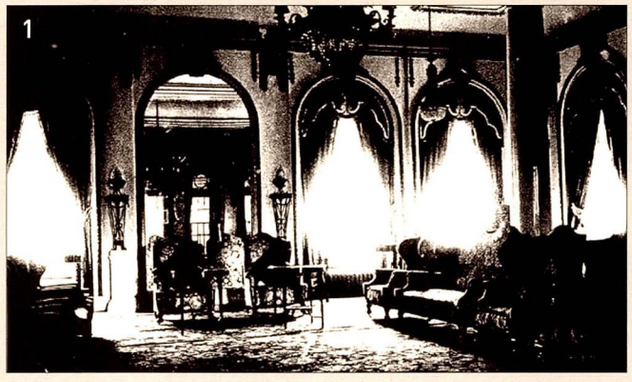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기사는 황제거실, 황후거실 사진뿐만 아니라 공간구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1층 접견실 상부의 2층에는 동측에 세자의 거처, 서측에 세자비의 거처가 있었으며 각각 면하여 침실이 연결된다. 세자와 세자비 거처의 남측에는 서양식의 변소, 욕실이 위치한다. 2층의 남측부분은 원래 우측 세칸을 1, 2, 3호실, 좌측 2칸을 4호실, 응접실로 쓰였다. 본 기사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소장 '석조전평면도'와 연계하여 본 복원공사에 사료적 뒷받침이 되었다. 또한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18]과 재일교포 하정웅씨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사진, 『덕수궁사(德壽宮史)』및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기록 등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원공사에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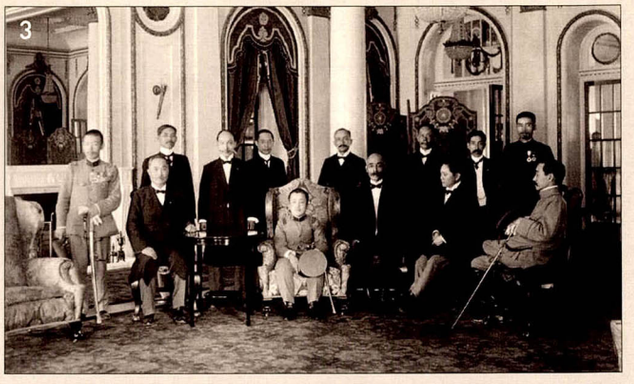
그렇다면 당시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완공 후 각층별로 1933년까지 '황실 생활공간'으로서의 석조전과 1933년 이후 '미술관 전용'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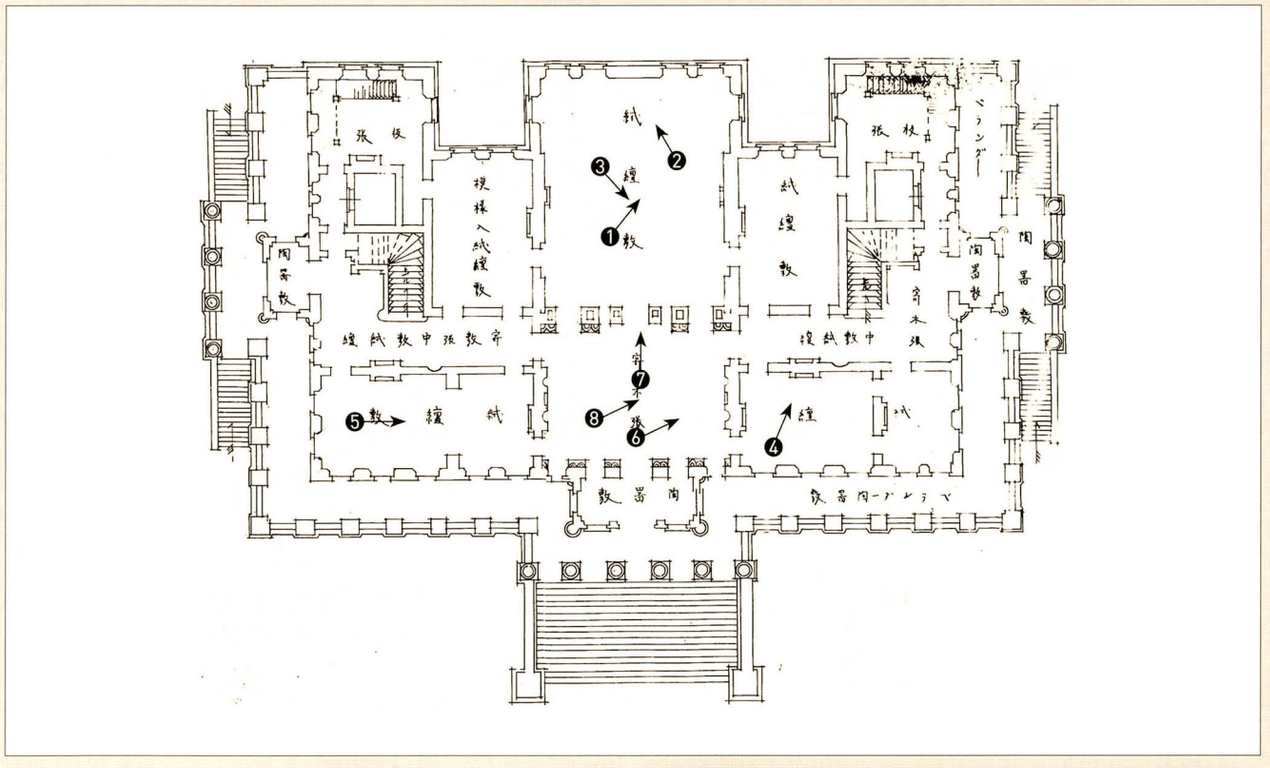
황실 생활공간 당시의 석조전은 1층 중앙 홀에 들어서면 좌우측에 벽난로와 벽감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접견실과 좌우측의 개구부 양쪽으로는 주두를 장식한 붙임기둥을 사용하여 격조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접견실을 지나 중앙 홀을 들어서면, 샹들리에와 같은 고급조명시설에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그리고 좌우측에 벽난로와 상부의 거울로 장식되었다. 이 공간은 미술관 전용 이후에도 보존되었으나, 샹들리에 같은 고급조명시설이 교체되고 목조바닥 위에 깔았던 카페트는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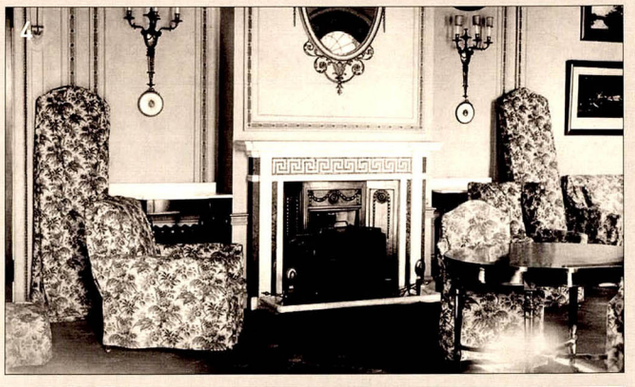
17) 『建築世界』, 1912. 1, 부록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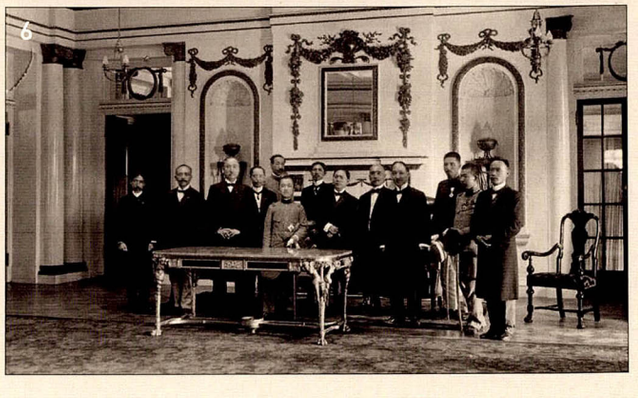
18) 『韓末宮中關係寫眞帖』. 대한제국기 이후의 4권의 사진첩을 바탕으로 2006월 5월 31일부터 2006월 8월 16일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에서 공개되었다. 이 중 1918년 1월에의 영친왕의 고국방문 당시 석조전의 내, 외부사진이 수록되었다. 내부 사진은 6매가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사진들은 내부 장식, 가구, 몰딩, 조각, 디테일 등의 기법이 현재의 석조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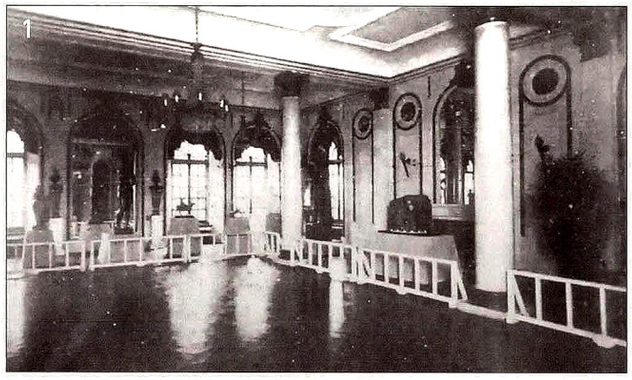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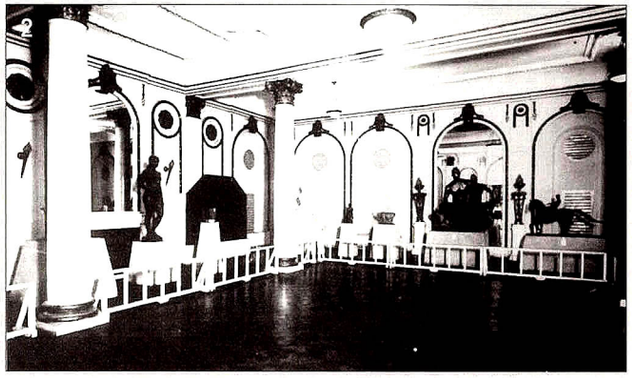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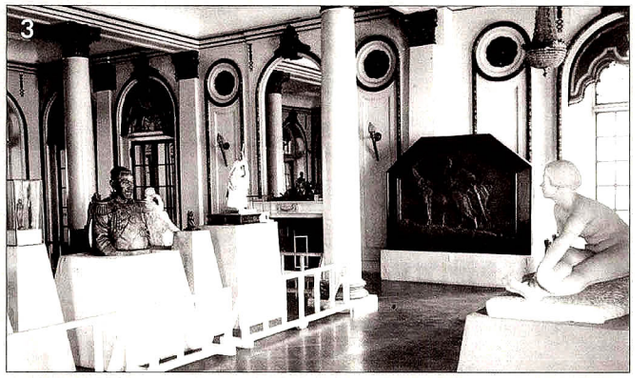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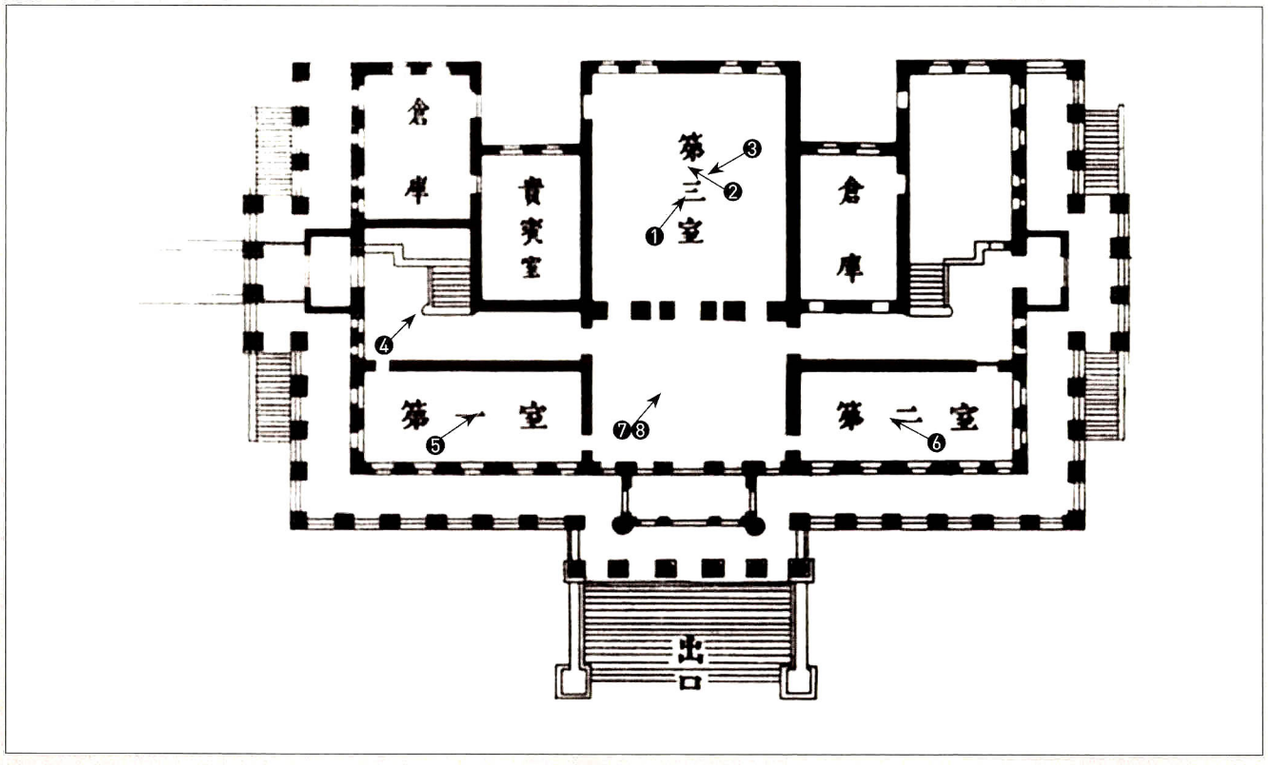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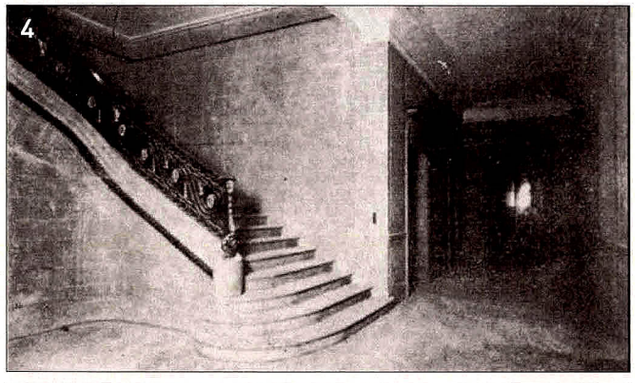
〈그림 7〉 황실 생활공간 당시의 석조전(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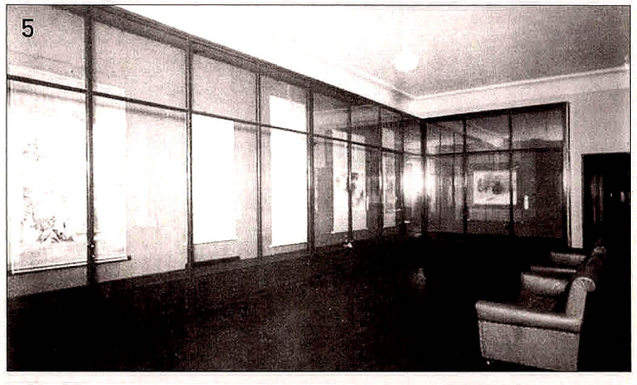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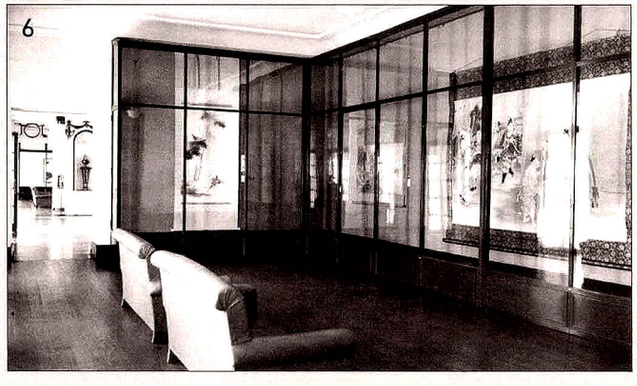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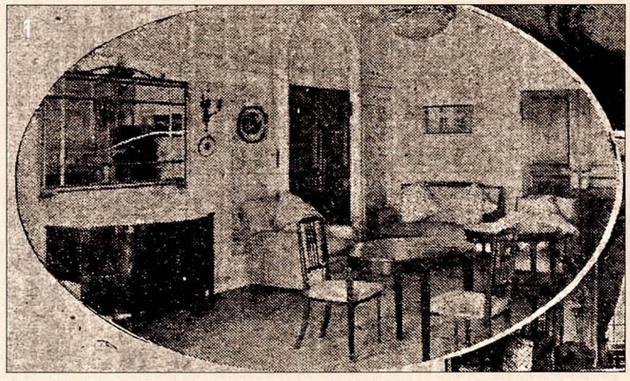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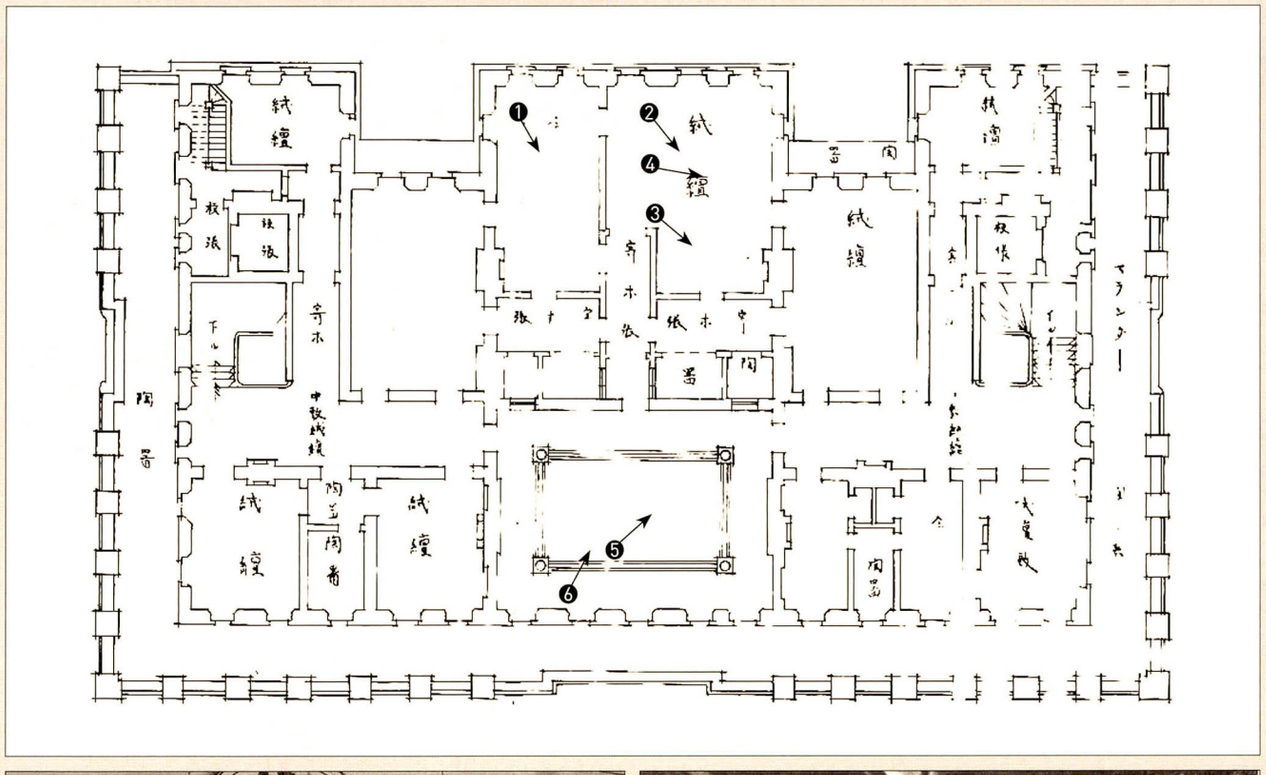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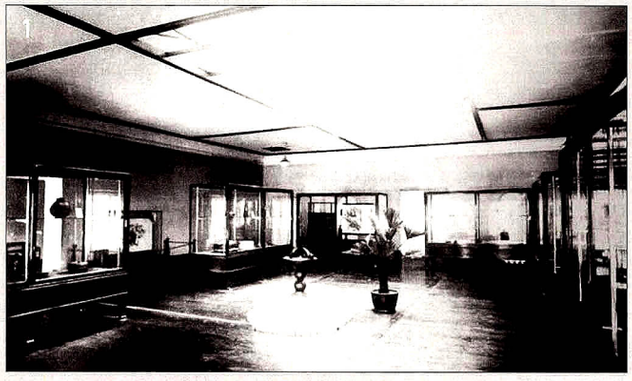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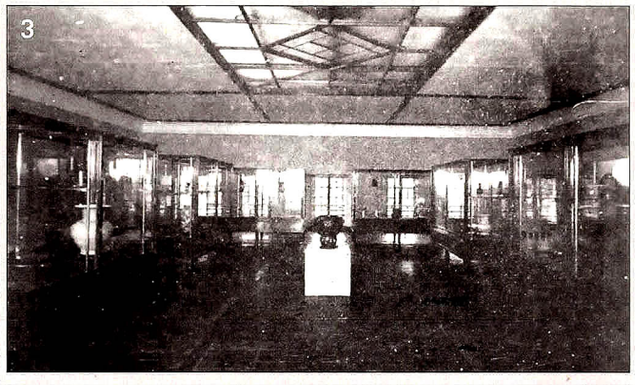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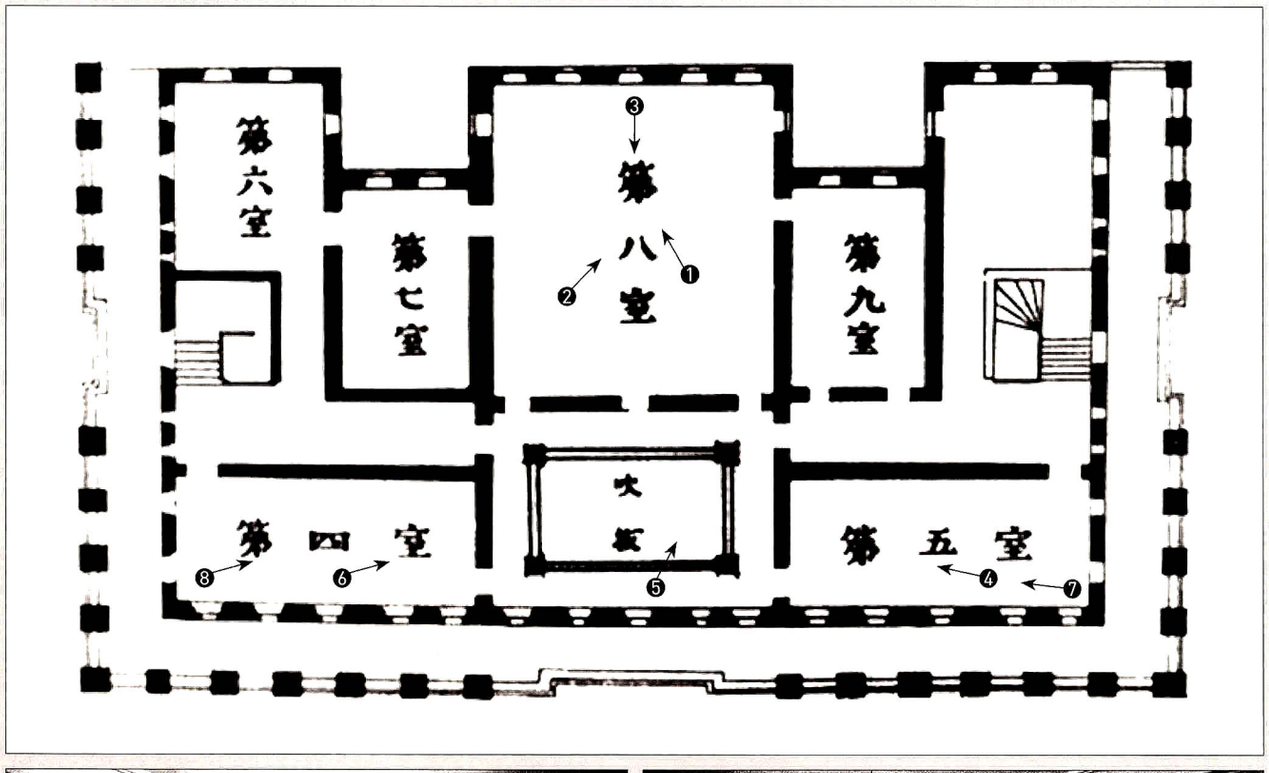
〈그림 8〉 미술관 전용 이후의 석조전(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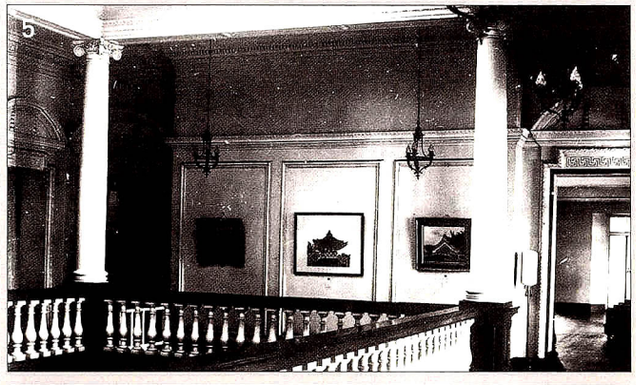



絨緞
絨緞
絨緞
絨緞
絨緞
寄木
寄木
寄木
寄木
寄木
陶器
陶器
陶器









〈그림 10〉 미술관 전용 이후의 석조전(2층)

특이한 점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내부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부기둥은 최소한 근대일본미술진열관으로 쓰이던 1930년대까지는 존재하였으나, 이후 언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내부기둥은 소실되었다.

1층 중앙홀의 서측방은 대식당인데, 귀빈식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방의 동측과 북측(왼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이 방은 제1실로 쓰이면서 일본화를 진열하였다. 1층 중앙홀의 동측방은 두 개의 방으로 간살이 되어 대기실 및 부속공간으로 쓰였다. 황제 알현을 위한 대기공간인 만큼 공간은 협소할지 모르나, 벽난로와 거울 및 세부장식이 화려하다. 두 개의 방은 미술관으로 전용하면서 간살이를 없애고 제2실로 쓰이면서 일본화를 걸어 놓았다.

접견실의 서측방은 소식당이다. 알현실과 접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식 또한 오크를 사용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공간으로, 미술관 전용 때에 알현실과 함께 조금의 변형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술관 전용 후에도 귀빈실로 쓰이게 된다.

2층에 들어서면 내부 중앙복도에 보이드 공간을 두어 상부의 천창으로 떨어진 빛이 1층 중앙 홀에 다다른다. 중앙복도의 난간동자와 난간대가 상당히 세심하게 조각되었으며, 보이드 공간의 네 귀퉁이에는 주두가 앉혀진 기둥을 두어 천창을 지지하고 있다. 미술관 전용 후에 이 공간의 기본적인 조직은 유지되었지만,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상부의 천창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상부천창과 연결되었던 모서리의 네 기둥이 소실되었다. 난간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는데, 기존의 난간동자를 갖는 모습에서 철제 난간프레임의 형태로 바뀌었다.

〈표 3〉『建築雜誌』에 기술된 석조전의 평면면적

층	실명	면적	환산
1층(9室)	접견실(接見室)	120畳	199.2㎡
	대광문-홀(大廣門)	30畳	49.8㎡
2층(13室)	왕의 거실(李太王の御居間)	40畳	66.4㎡
	왕비의 거실(嚴妃の御居間)	30畳	49.8㎡
	침실(兩殿下の寢室)	30畳	49.8㎡
	담화실, 욕탕등의 설비(談話室浴場等の設備)		
비고	1畳의 크기는 中京間(91×182)≒1.66㎡로 산정, 각층의 실수는『建築世界』자료		

중앙복도를 통하여 북측으로 들어서면, 우측에는 황제거실, 좌측에는 황후의 거실이 나오고 각각의 거실 남쪽으로는 화장실 및 욕실 설비가 되었다. 또한 황제거실의 우측에는 황제의 침실, 황후거실의 좌측에는 황후의 침실이 연결된다. 화장실 및 욕실은 각자의 거실과 침실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황제거실에는 샹들리에와 벽난로, 거울과 원형 테이블로 놓여 있었다.

미술관으로 전용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뤄진 곳이 이 영역이다. 거실에는 목조바닥에 카페트가 깔리고, 욕조에는 도기질 타일이 깔렸을 터인데, 이러한 거실 및 부속공간의 간살이가 모두 철거된다. 또한 상부에는 미술관 전용에 따른 자연채광을 위하여 새로운 천창이 설계되었다. 천창은 유리지붕 위에 채광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 가림막[19](원문 : 開閉引幕)을 두었다. 그러면서 제8실로 쓰이고 공예품을 진열하였다. 황제 침실로 쓰였던 공간은 제9실로 전용되면서 공예를 전시하여 제8실과 역할을 같이 하였다. 황후 침실은 제7실로 쓰이면서 서양화를 걸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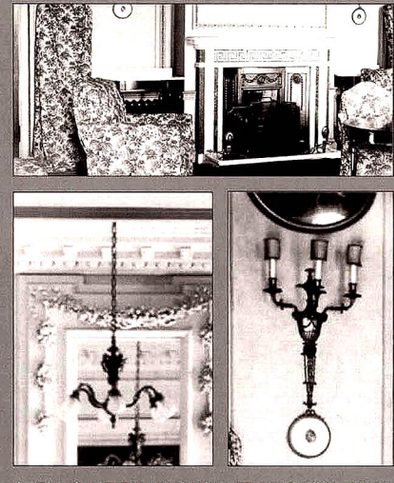
중앙복도의 동측방은 세 개의 방과 화장실, 그리고 서측방은 두 개의 방이 화장실을 두고 마주하고 있다. 현재 이 공간의 쓰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건축잡지(建築雜誌)』에 완공 당시 담화실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것과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우측부터 세 칸을 1, 2, 3호실, 좌측 2칸을 4호실, 응접실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다섯 개의 방으로 간살이 되어 황실의 시종 혹은 경비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쉽게도 이러한 간살이는 미술관으로 전용되면서 없어졌고 각각 서양화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19)『朝鮮と建築』, 1933. 11, 口繪

4. 맺음말

석조전은 영국, 한국, 일본의 기술자에 의해 영건된 대한제국기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준공된지 100년이 넘으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진자료, 문헌자료, 보수공사자료를 바탕으로 그 시간을 거꾸로 되짚어보는 작업을 하여 석조전의 원형과 그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조전 내부공사가 완료되면, 석조전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순종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석조전은 황제의 일상생활 장소이면서, 여러 사신과 손님을 소견(召見), 알현(謁見), 접견(接見)하고 사찬(賜饌), 오찬(午餐), 배식(配食)을 하였던 곳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석조전이 대한제국기에 세워진 최고의 근대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그 곳에는 고종황제 일가의 생활이 담겨진 곳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생활적, 정치적 공간이었던 석조전의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복원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은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벽면전시에 의해 숨통이 막혀버린 석조전에 채광과 환기가 들 수 있게 하는 내·외부가 소통하는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석조전의 건축·역사적 가치를 포함하여 대한제국의 역사, 유물과 고종일가의 생활상을 복원하면서 대한제국박물관(대한제국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대한제국 당시 고종의 생활과 관련되는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이 소실된 구성헌, 환벽정, 돈덕전의 실체를 파악해 당시 경운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11〉 석조전 난방설비(벽난로+방열기)와 조명설비

〈그림 12〉 석조전 중앙 홀에서의 고종황제 일가

참고문헌

1. 德壽宮李太王實錄, 高宗實錄, 純宗實錄
2. 建築雜誌, 建築世界, 朝鮮と建築
3. 小田省吾, 李王職, 德壽宮史, 1938
4. 大成建設株式會社, 大成建設社史, 1963. 1
5. 尹一柱, 慶運宮(德壽宮)의 洋館建築에 對하여, 부산대논문집, 1965. 12
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100년사, 1999. 12
7.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2004
8. 김정동, 근대 이후 서울 '정동동역(貞洞洞域)'의 변천에 대하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3. 4

덕수궁 석조전(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초판발행 2011년 12월
초판1쇄 2011년 12월
발 행 처 문화재청
디 자 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기획편집 康熙齋 gangheejae 건축사사무소 강희재(02-394-4990)